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

La Comtesse de Cagliostro

모리스 르블랑 (Maurice Leblanc, 1864–1941)

1924년 발표 · 프랑스어 원문 번역 · 2026-06-13

GB10 로컬 vLLM (Qwen3.6-35B-A3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Maurice Leblanc, « La Comtesse de Cagliostro » (1924)

저자

모리스 르블랑 (Maurice Leblanc, 1864–1941)

원전 출처

fr.wikisource — La Comtesse de Cagliostro (퍼블릭 도메인)

번역

GB10 로컬 vLLM (Qwen3.6-35B-A3B)

발행

sosig.shop/book · 2026-06-13

번역 정책

> 프랑스어 원문에서 곧장 옮겼으며, 가독성을 우선해 요즘 독자가 쉽게 읽도록 다듬되 20세기 초 신사 도둑 이야기 특유의 위트와 긴장을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장

이것은 아르센 뤼팽의 첫 번째 모험담이다. 만약 그가 여러 차례, 그리고 단호하게 반대하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들보다 먼저 세상에 나왔을지도 모른다.

"아니요," 그가 말했다. "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과 나 사이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이 남아 있습니다. 기다립시다."

그의 기다림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길어졌다. 최종적인 결말이 나기까지 사반세기가 흘렀다. 그리고 오늘에야 우리는 스무 살 소년과 칼리오스트로의 딸이 맞섰던, 사랑과 증오가 뒤엉킨 끔찍한 대결의 실상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라울 드 안드레시는 등불을 끈 뒤 자전거를 덤불이 우거진 비탈 너머에 던져 놓고는 멈춰 섰다. 이때 베누빌 성당의 종소리가 세 시를 알렸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그는 하이에디티크 영지를 지나는 시골길을 따라 걸었다. 그리고 성벽 앞에 다다랐다.

그는 잠시 기다렸다. 말들이 발을 구르는 소리, 마차 바퀴가 마당 돌길을 구르는 소리, 방울 소리. 그리고 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와 함께 한 대의 마차가 지나갔다.

라울은 남자들의 목소리와 총구 하나를 겨우 알아챌 수 있을 뿐이었다. 이미 마차는 주요 도로로 빠져나와 에트레타 쪽으로 달아나고 있었다.

'자, 이제야 알겠군.' 라울이 스스로에게 말했다. '바다오리 사냥은 흥미진진하군. 사냥터는 멀리 있고… 이제야 이 급작스러운 사냥과 오가던 사람들의 움직임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겠어.'

그는 영지 벽을 왼쪽으로 돌아 감쌌다. 벽을 한 바퀴 돌고 나서, 두 번째 모퉁이를 지나서야 멈춰 섰다. 정확히 마흔 걸음째였다.

그의 손에는 열쇠 두 개가 쥐여 있었다.

첫 번째 열쇠로 낮은 작은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성벽을 파서 만든 계단이 있었다. 성벽은 절반이 무너져 내린 채, 성채의 한쪽 날개를 받치고 있었다.

두 번째 열쇠는 첫 번째 층에 있는 비밀 입구를 열었다.

그는 손전등을 켰다. 너무 조심하지는 않았다. 직원들은 반대편에 살고 있고, 남작의 유일한 딸 클라리스 드티그는 2층에 살기 때문이었다.

그는 복도를 따라 걸었다. 그 복도는 넓은 서재로 이어졌다. 몇 주 전, 라울이 남작에게 그 딸과의 결혼을 청했던 곳이 바로 이 서재였다. 그는 그곳에서 격분한 노여움의 폭발을 맞았다. 그 기억은 여전히 그를 불편하게 했다.

거울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평소보다 더 창백했다. 그러나 그는 감정에 휩싸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통제하고 있었다. 차분하게 그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 일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는 남작과의 대화 중, 상대방이 가끔씩 커다란 자단나무 책상 쪽을 힐끔거리는 것을 눈치챘다. 책상의 원통형 덮개는 내려가지 않은 채로 놓여 있었다.

라울은 숨겨진 공간이 가능한 모든 위치와, 그런 경우에 작동시키는 모든 메커니즘에 정통했다.

그는 1분 뒤, 책상 틈새에 숨겨진 편지를 찾아냈다. 편지는 담배처럼 말려 있었고, 매우 얇은 종이에 쓰여 있었다. 서명도, 주소도 없었다.

그는 이 편지를 자세히 살펴봤다. 처음에는 글이 너무 평범해서, 이렇게 신중하게 숨길 필요가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그는 꼼꼼하게 분석했다. 의미 있는 단어들을 붙잡고,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넣은 듯한 문장들은 과감히 뺐다.

그 결과, 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었다.

"루앙에서 우리 적의 발자취를 다시 찾았소. 그리고 에트레타 근처의 농부가 초원 구석에서 일곱 다리의 구리 촛대를 파냈다는 기사를 현지 신문에 실리게 했지."

그녀는 곧바로 에트레타의 여객 운송업자에게 전보를 쳤다. 12일 오후 세 시에 페캄 역으로 쿠페 한 대를 보내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그 운송업자에게 다른 전보를 보내 이 명령을 취소했다.

결국 그녀가 페캄 역에서 발견하게 될 것은 당신의 쿠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차는 우리를 향해, 그리고 우리가 모임을 가질 장소로 그녀를 호위와 함께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때 가서 우리는 재판관이 되어, 그녀에게 가차 없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목적의 위대함이 수단을 정당화하던 시대라면, 형벌은 즉각 내려졌겠죠. 짐승이 죽으면 독도 사라진다고요. 원하시는 해결책을 선택하되, 우리 마지막 대화의 내용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성공, 나아가 우리 자신의 생명까지도 이 악마 같은 여자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의심이 돌지 않도록 사냥을 떠나는 척 준비하십시오. 저는 정각 네 시에 르아브르를 통해

도착할 겁니다. 우리 친구 두 명과 함께요. 이 편지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중에 돌려주십시오."

'과도한 주의는 결점이다.' 라울은 생각했다. 만약 남작의 연락 상대가 의심하지 않았다면, 남작은 이 글귀들을 불태워 버렸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납치 계획과 불법 재판, 심지어는—하느님 용서하시오—살인 계획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설령 그가 극도로 경건한 인물이라 해도, 내 장인 후보가 이런 미묘한 음모에 얽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는 살인까지 저지를까?

이 모든 일은 매우 중대하다. 오히려 내가 그를 조종할 수 있는 구실이 될지도 모른다.

라울은 손을 비비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 일은 그에게 흥미로웠고, 너무 놀랍지도 않았다. 며칠 전부터 몇 가지 단서가 그의 주의를 끌었기 때문이다.

그는 여관으로 돌아가 잠을 자기로 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다시 돌아와, 남작과 그의 손님들이 무엇을 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없애고자 하는 '지옥의 생물'이 누구인지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하지만 바로 떠나는 대신, 그는 작은 원탁 앞에 앉았다. 탁자 위에는 클라리스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사진을 자신의 정면으로 향하게 하고는, 깊은 애정을 담아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에티그의 클라리스. 그보다 조금 어릴 뿐이었다. 불과 열여덟 살.

관능적인 입술, 동경으로 가득 찬 눈매. 그리고 한가득 사랑스러운 금발의 얼굴. 분홍빛이 돌고 섬세한 그 얼굴은, 코 지방 도로를 뛰어노는 어린 소녀들처럼 옅은 빛을 띤 머리카락과 어우러져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울 만큼 다정함이 깃들어 있었고, 매력은 그치지 않았다.

라울의 시선이 점점 더 차가워졌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나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클라리스는 위층, 외딴 방에 혼자 있었다. 그는 이미 두 번이나 그녀가 자신에게 건네준 열쇠로 문을 열고, 차 시간마다 그녀를 찾아갔다.

그런데 오늘은 왜 망설이는 걸까?

아무 소리도 하인들에게 전달될 리 없었다. 남작은 오후에나 돌아올 터였다.

왜 가야 하지?

라울은 로발라시가 아니었다. 정직함과 섬세함에서 우러나는 여러 감정이 그의 안에 자리 잡고 있어, 지나치게 격렬한 본능과 욕망이 폭발하는 것을 막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유혹에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

가. 자존심과 갈망, 사랑, 그리고 정복해야 한다는 절박한 충동이 그를 행동으로 몰아갔다. 그는 허무한 양심 가책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계단을 힘차게 올라갔다.

닫힌 문 앞에 서서 그는 잠시 망설였다. 만약 그가 이미 이 문을 통과했다면, 그것은 낮 시간, 존중하는 친구로서였을 뿐이다. 그런데 밤의 이 시간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잠시 이어진 양심의 갈등은 길지 않았다. 그는 살며시 문을 두드리며 속삭였다.

"클라리스… 클라리스… 나야."

일 분쯤 지났지만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는 다시, 더 세게 문을 두드리려 했다. 그때 바로 방 안쪽 작은 방의 문이 살짝 열리며, 손에 등불을 든 소녀가 나타났다.

그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공포에 질린 표정을 보았다. 그 모습은 그를 너무도 당황하게 만들어, 그는 물러서며 떠나려는 자세를 취했다.

"미안해, 클라리스… 나도 모르게 온 거야… 네가 말 한마디만 하면 바로 갈게."

만약 클라리스가 이 말을 들었더라면, 그녀는 구원받았을 것이다. 그녀는 이미 패배를 인정하는 상대를 쉽게 이길 수 있었을 테니까. 하지만 그녀는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었다. 그녀는 분노하려 했지만, 흐

릿한 원망의 말들만 중얼거릴 뿐이었다. 그녀를 쫓아내려 했지만, 팔에는 단 한 번의 동작을 할 힘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

떨리는 손에 들었던 등불을 내려놓아야 했다. 그녀는 제자리에서 돌다가 쓰러져, 기절하고 말았다.

그들은 세 달째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다. 남부 프랑스에서 처음 만난 날부터였다. 클라리스는 그곳에서 기숙학교 친구의 집에 잠시 머물고 있었다.

그들은 곧 서로를 묶는 끈을 느꼈다. 그 끈은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것이었고, 그녀에게는 점점 더 사랑스러운 속박의 표시였다.

처음부터 라울은 그녀에게 잡히지 않고 신비로운 존재로 보였다. 그녀는 그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다. 때로는 가볍고, 때로는 악의 있는 아이러니를 던지며, 때로는 근심에 잠기는 그의 모습은 그녀를 속상하게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 옆에는 어떤 매력이 있었는가! 얼마나 밝고 유쾌했는가! 얼마나 젊은 열정과 흥분으로 몸을 떨었는가. 그의 모든 결점은 지나친 장점으로 변했고, 그의 악덕은 자신도 모르게 꽃피워갈 덕목처럼 보였다.

노르망디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그녀는 아침에 창문 맞은편 담장 위에 얌전하게 올라선 젊은이의 흐릿한 실루엣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여관을 숙소로 정해 두었다. 그리고 거의 매일 자전거를 타고 하이에디티크 근처에서 그녀를 찾아왔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자란 클라리스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행복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성품이 냉랭하고 지나치게 독실했으며, 작위에만 집착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재물에 굶주렸고, 소작인들로부터 적이나 다름없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라울은 그에게 정식으로 소개된 적도 없었음에도, 딸의 손을 청할 만큼 대담했다. 이 무례한 제안을 받은 남작은 격분했다. 수염도 안 난, 신세도 없고 인맥도 없는 그 젊은이를 향해 그는 채찍으로 때려눕힐 뻔했다. 하지만 라울은 맹수를 길들이는 조련사 같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만남 이후 클라리스는 라울의 기억에서 이 불쾌한 일을 지워주려 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방 문을 두 번이나 열어주었다. 이는 치명적인 실수였다. 라울은 연인의 논리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날 아침, 그녀는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며 점심 식사를 방으로 가져오게 했다. 라울은 옆방에 숨어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열린 창문 앞에 오랫동안 서로를 꼭 안은 채 서 있었다. 그들의 입맞춤에 대한 기억과 서로에 대한 다정함, 그리고 저지른 잘못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던 순진함이 그들을 하나로 묶었다.

하지만 클라리스는 울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갔다. 바다에서 올라와 고원 위를 떠도는 시원한 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들 맞은편,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큰 과수원 너머로, 유채꽃으로 가득한 햇살 가득한 평원이 펼쳐져 있었다. 그 틈새로 오른쪽에는 페캄까지 이어지는 높은 절벽의 흰 줄기가, 왼쪽에는 에트레타의 만, 아발의 문, 그리고 거대한 에귀유(바늘바위)의 끝부분이 보였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슬퍼하지 마요, 사랑하는 당신. 우리 나이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모든 장애물을 없애고 나면 삶은 더 아름다울 거요. 울지 마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그를 바라보고 미소 지으려 애썼다. 그는 그녀처럼 날씬했지만 어깨는 넓었다. 우아하면서도 단단한 인상이었다. 그의 얼굴은 강인해 보였지만, 입가엔 장난기 어린 미소가 감돌았고 눈빛은 활기로 빛나고 있었다. 짧은 바지에, 흰 양모 셔츠가 드러나 보이는 상의를 걸친 그는 놀라울 정도로 유연한 분위기를 풍겼다.

"라울, 라울." 그녀가 절박한 어조로 말했다. "지금 당신 저를 보고 있지만, 생각은 저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라울,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 아버지요."

"제 아버지요?"

"네, 에티그 남작과 그 손님들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 나이에 어떻게 그런 무고한 새들을 바위 위에서 학살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게 그들의 즐거움이에요."

"정말 그런가요? 저는 오히려 궁금해지네요. 만약 지금이 1894년이 아니라면, 저는 아마도… 아니, 실례될까요?"

"말씀하세요, 제 사랑."

"글쎄요, 그분들 모습은 음모를 꾸미는 음모자들처럼 보이거든요. 네, 정말 그래요, 클라리스. 롤빌 후작, 마티외 드 라 보팔리에르, 오스카 드 베네토 백작, 루 도스티에르 등, 카우 지방의 귀족들이 모두 음모에 빠진 것 같아요."

그녀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 사랑."

"하지만 당신, 내 말을 정말 잘 들어주네요." 라울은 그녀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확신하며 대답했다. "내가 무슨 중대한 이야기를 할지 기다리는 당신의 태도가 너무 재미있어요."

"사랑에 관한 이야기죠, 라울."

그는 열정적으로 그녀의 머리를 꼭 쥐었다.

"내 인생 전체가 당신에 대한 사랑뿐이에요, 내 사랑스러운 사람아. 내가 다른 걱정과 야망을 가진 것도 오직 당신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클라리스, 상상해 보세요. 음모를 꾼 아버지가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그를 구해낸다면요. 그 후, 아버지가 딸의 손을 내게 주지 않을 이유가 있겠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허락하시겠죠, 내 사랑."

"절대로요. 재산도 없고, 뒷바라지 해 줄 세력도 없는데."

"당신은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라울 드 안드레시."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드 안드레시. 제 어머니의 본명이었죠. 과부가 되자 그 결혼에 분개했던 가족들의 명을 받아 그 이름을 다시 썼습니다."

"왜요?"

클라리스는 뜻밖의 고백에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왜요? 제 아버지는 평민이었으니까요. 욥처럼 가난했고, 그저 평범한 교사일 뿐이었죠. 무슨 과를 가르쳤냐고요? 체조, 펜싱, 권투였답니다."

"그럼 당신 이름은 뭐예요?"

"아, 아주 평범한 이름이죠, 내 사랑하는 클라리스."

"어떤 이름이죠?"

"아르센 뤼팽."

"아르센 뤼팽?"

"네, 그다지 빛나는 이름은 아니죠. 바꾸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클라리스는 깜짝 놀란 듯했다. 이름이 어떻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남작에게 있어 귀족을 뜻하는 'de(드)'가 붙어 있는지는 사위감으로서의 첫 번째 자격 조건이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말했다.

"당신은 아버지를 부인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교사라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부끄러운 게 뭐가 있소. 그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클라리스를 괴롭혔다. 나는 젖을 빨던 시절부터 아버지가 가르쳐준 복싱과 체조의 수업을 제대로 배웠소. 정말 알차게 활용했지."

그는 잠시 멈춰 서더니 말했다.

"하지만 그렇지, 내 어머니가 그 훌륭한 분을 배신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건 누구도 상관할 바 아니지."

그는 갑자기 격렬하게 그녀를 껴안았다가, 이내 혼자서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다시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래, 웃어 봐, 어린아이야." 그가 외쳤다. "이 모든 게 너무 재미있잖아. 웃어 봐. 아르센 뤼팽이든, 라울 드 안드레시든, 뭐가 중요하겠어? 중요한 건 성공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성공할 거야.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 나에게 위대한 미래와 세계적인 명성을 예언하지 않은 점쟁이가 하나도 없었거든. 라울 드 안드레시는 장군이 되거나, 장관이 되거나, 대사가 될 거야. 아니면 아르센 뤼팽이 될 수도 있고. 이건 운명 앞에서 이미 결정된 일이고, 양측이 합의하고 서명한 거나 다름없어. 나는 준비가 돼 있어. 강철 같은 근육과 일급의 두뇌를 갖추고 있지. 자, 손으로 걷는 걸 보여줄까? 아니면 두 팔로 너를 번쩍 들어올릴까? 네 시계를 네가 모르게 훔칠까? 아니면 호메로스를 그리스어로, 밀턴을 영어로 암송해 줄까? 신이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라울 드 안드레시… 아르센 뤼팽… 동상의 두 얼굴! 어느 쪽이 살아있는 자들의 태양인 영광을 받을 것인가?"

그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기쁨이 오히려 그를 괴롭게 하는 듯했다. 그는 조용하고 평온한 작은 방을, 그리고 그 평온을 깨뜨린 자신의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마치 그가 이 젊은 여자의 평화와 순수한 양심을 교란시켰던 것처럼.

그의 본성에는 이처럼 뜻밖의 반전이 매력으로 작용했다. 그는 클라리스 앞에 무릎을 꿇고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용서해 주세요. 여기에 온 것은 제가 잘못했거든요. 하지만 제 탓만은 아닙니다. 저는 균형을 잡기 어렵습니다. 선과 악, 둘 다 저를 끌어당기죠. 제 길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세요, 클라리스. 만약 제가 실수한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그의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 쥐며 열정적인 어조로 말했다.

"용서할 일 따위 없어요, 내 사랑. 저는 정말 행복해요. 당신 때문에 많이 고통받게 될 거라는 건 잘 알죠. 하지만 당신에게서 올 모든 고통을 기꺼이, 그리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이 사진 좀 받으세요. 이 사진을 볼 때 당신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세요. 저는 오늘 이 순간의 모습 그대로, 당신의 연인이자 아내로 영원히 남을 테니까요. 라울, 사랑해요!"

그녀가 그의 이마에 키스를 건넸다. 그는 이미 웃고 있었고, 일어서며 말했다.

"이제 당신은 저를 기사의 자리로 올려주셨군요. 저는 이제 무적이 되어 적들을 일격에 물리칠 준비가 됐습니다. 나바르 사람들, 나타나시오! 제가 무대에 오릅니다!"

라울의 계획은 매우 단순했다. 아르센 뤼팽이라는 이름은 이 시기에 그의 운명을 알지 못했던 라울 자신이 다소 경멸하고 있었기에, 그 이름은 그림자 속에 묻어두자.

성 왼쪽 과수원 나무들 사이에는 낮은 절단형 탑이 하나 있었다. 이 탑은 성벽에 기대어 서 있었는데, 예전에는 성벽의 보루 중 하나였다고 한다. 지붕이 덮인 이 탑은 덩굴식물인 아이비가 파도처럼 덮고 있어 완전히 눈에 띄지 않았다.

라울은 오후 4시에 열리는 모임이 남작이 농부들을 접대하던 안쪽 큰 방에서 열린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라울은 그곳에 시골을 내려다보는 구멍이 하나 있다는 것을 눈치챈 바 있었다. 그 구멍은 예전 창문이었던지, 아니면 공기 통로였던지 알 수 없었다.

손재주가 뛰어난 소년에게야 이 정도는 쉬운 일이었다. 그는 성을 빠져나와 덩굴나무 아래로 기어 들어갔다. 그리고 굵은 뿌리들을 발판 삼아 두꺼운 성벽에 뚫린 구멍까지 기어 올랐다. 구멍은 깊어서 그가 온몸을 쭉 펴고 쉴 수 있을 정도였다.

그는 지상에서 5미터나 높은 곳에 자리 잡았다. 머리는 나뭇잎에 가려 보이지 않았고, 안쪽의 넓은 방 전체가 훤히 들여다보였다. 방 안에는 의자가 스무 개쯤, 테이블 하나, 그리고 넓은 교회용 벤치가 놓여 있었다.

사십 분 뒤, 남작이 친구 한 명과 함께 그 방으로 들어왔다. 라울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고드프루아 디티그 남작은 서커스 선수처럼 단단한 근육에 벽돌색 얼굴을 하고 있었다. 붉은 수염이 얼굴을 둘러쌌고, 눈빛은 날카롭고 강인해 보였다. 그의 곁에 선 사촌 오스카 드 베네토는 라울이 얼굴은 익히 아는 사내였다. 베네토도 같은 노르망디 지주 가문의 기품을 풍겼지만, 그 안에는 더 많은 하찮음과 둔중함이 섞여 있었다.

두 사람은 지금 매우 초조해 보였다.

"빨리 가자." 남작이 말했다. "라보팔리에르, 롤빌, 드 오페가르드가 곧 합류할 거야. 네 시가 되면 보아마냥이 아르콜 공작과 브리 공작을 데리고 올 거야. 내가 열어둔 큰 정문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그다음… 그다음엔 그녀야. 운이 좋게도 그녀가 함정에 빠진다면."

"의심스럽군." 베네토가 중얼거렸다.

"왜요? 그녀가 쿠페를 부렀으니까 쿠페가 올 거고, 그녀는 그 안에 탈 거예요. 오르몽이 운전대를 잡고 그녀를 우리에게 데려오죠. 사거리 언덕에서 루 뒤에스티에가 발판 위로 뛰어올라 문을 열고, 두 사람이 힘을 합쳐 그 여자를 묶어잡아요. 이 모든 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그들은 라울이 귀를 기울이고 있던 장소 가까이에 다가가 있었다. 베네토가 속삭였다.

"그다음엔 어떻게 돼?"

"그다음엔 내가 우리 친구들에게 상황을 설명하지. 이 여자의 역할에 대해 말이야."

"그리고 너는 그들을 설득해 그녀를 유죄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그들을 설득하든 못 하든, 결과는 똑같아. 보마냥이 그렇게 요구하거든. 우리가 거절할 수 있겠어?"

"아, 베네토가 말했다. 저 남자가 우리 모두를 파멸시킬 거야."

에티그 남작은 어깨를 으쓱였다.

"그녀 같은 여자와 맞서 싸우려면 그 같은 남자가 필요해. 네가 모든 걸 준비했나?"

"예, 보트 두 척이 모두 해변에 있습니다. 사제 계단 밑바닥에요. 작은 보트는 바닥이 뚫려 있어서 물에 띄운 지 열 분도 안 되어 가라앉을 거예요."

"돌을 싣고 간 거야?"

"네. 구멍이 뚫린 큰 자갈을 밧줄 고리에 묶어서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라울 드 안드레시는 그들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든 말이 그의 뜨거운 호기심을 한계까지 고조시켰다.

'젠장! 내 발코니석을 제국 하나와 바꾸고 싶지 않을 정도야. 대체 어떤 놈들이람? 남들이 셔츠 깃을 갈아 끼우듯 가볍게 살인을 이야기하다니.'

고드프로아 드티그가 특히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다정하기 그지없는 클라리스가, 대체 어떻게 해서 저 어두운 인물의 딸이 될 수 있었단 말인가? 그는 도대체 무엇을 노리고 있는 걸까? 그의 행동을 이끄는 어둠 속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증오인가, 탐욕인가, 복수심인가, 아니면 잔혹한 본능인가? 그는 마치 옛날의 처형수처럼 보였다. 어딘지 모르게 불길한 일거리가 기다리고 있는 듯한 인상이었다. 그의 붉은 빛이 도는 얼굴과 수염이 불빛에 비쳐 더더욱 으스스해 보였다.

나머지 세 명의 손님도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다. 라울은 이들을 에티그 해의 단골 손님으로 자주 봐왔다. 자리에 앉은 그들은 방을 비추는 두 개의 창문을 등지고 앉았다. 덕분에 그들의 얼굴은 희미한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다.

네 시가 되어서야 두 명의 새로운 인사가 들어왔다.

한 명은 나이가 든 노인이었다. 군인 같은 단정한 체격에 레딩코트를 단단히 매고 있었다. 턱에는 나폴레옹 3세 시절 '임페리알'이라 불리던 작은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그는 문턱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반면 다른 한 명을 마주하기 위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라울은 주저 없이 그를 서명 없는 그 편지의 작성자로, 그리고 바론이 '보마냥'이라 부르며 기다리던 인물로 판단했다.

그는 작위도 귀족 칭호(드)도 없는 유일한 인물이었음에도, 그는 마치 한 명의 수장처럼 대접받았다. 그의 위압적인 태도와 권위적인 눈빛에 걸맞은, 지극한 정성 어린 환영이었다.

수염을 면도한 얼굴, 오목한 뺨, 열정으로 타오르는 아름다운 검은 눈. 그의 옷차림과 태도에는 엄격함, 심지어 금욕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는 마치 성직자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모두에게 다시 앉으라고 청했다. 함께 오지 못한 친구, 브리에 백작의 결석을 사과한 뒤, 함께 온 동료를 앞으로 불러 세웠다. 그리고 그를 소개했다.

"아르콜 공작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분은 우리 편이었습니다. 다만 운명인지 뭐인지, 회의가 열릴 때마다 늘 빠져 있었죠. 하지만 멀리서 그분은 아주 효과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그분의 증언이 꼭 필요합니다. 1870년, 우리 앞에 나타난 그 지옥 같은 괴물이 바로 그분과 두 번이나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라울은 즉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 보았다. 그리고는 다소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르콜 공작이 그 괴물을 처음 만난 지 이미 스물네 해가 지났으니, 그 '지옥 같은 괴물'은 이미 쉰 살은 훨씬 넘었을 터였다.

그때 공작은 손님들 틈에 자리를 잡았고, 보마냥은 고드프로아 데티그를 따로 불러냈다. 남작은 의심의 여지 없이 문제의 그 편지가 든 봉

투를 그에게 건넸다. 그러곤 두 사람은 낮게 목소리를 맞대고 열띤 대화를 나눴다. 보마냥은 단호하고 위엄 있는 몸짓으로 그 대화를 곧바로 끊었다.

'저 양반, 여간 만만치 않군.' 라울은 생각했다. '판결은 이미 내려졌다. 짐승이 죽으면 독도 사라진다고. 이번엔 익사시키는 게 정해진 수순인 모양이야.'

보마냥은 마지막 줄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앉기 직전, 그는 이렇게 말했다.

"친구들이여, 지금 이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위중한지 잘 알고 있소. 우리는 단단히 뭉쳐, 이루고자 하는 위대한 목표를 향해 일치단결하고 있소. 그리고 우리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 공동의 사업을 시작했소.

우리에게 있어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국가의 이익과, 우리 당의 이익, 그리고 우리 종교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다고 믿소. 그리고 나는 이 세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소.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의 프로젝트는 한 여성의 용감하고도 냉혹한 적대감에 부딪히고 있소. 그녀는 어떤 단서를 손에 쥔 채, 우리가 곧 발견하려던 그 비밀을 찾아내고자 분주하오.

만약 그녀가 우리보다 먼저 그 비밀을 밝혀낸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오. 그녀냐 우리냐, 둘이 함께 설 자리는 없소.

우리의 승리로 이 치열한 전투가 결판나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보마냥이 자리에 앉았다. 등받이에 두 팔을 짚고 키 큰 몸을 웅크리며, 마치 보이지 않으려는 듯 몸을 낮췄다.

시간이 흘렀다.

이들 사이에는 말이 끊겼다. 마땅히 대화가 오갈 만한 대의를 위해 모였으니 평소라면 이야기꽃을 피웠을 텐데, 모두의 귀와 눈이 시골에서 들려올지 모를 소리에 쏠려 있었다. 이 여자를 붙잡는 일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다. 그들은 적을 손에 쥐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를 재촉했다.

에티그 남작이 손가락을 치켜들었다. 이제야 말발굽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내 쿠페로군."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과연 그 여자가 타고 있었을까?

바론이 문 쪽으로 향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과수원에는 아무도 없었다. 직원들은 주건물 정면에 있는 안마당에서만 일할 뿐이었다.

소리가 가까워졌다. 마차가 도로를 벗어나 들판을 가로질러 달렸다. 그리고 갑자기 입구 기둥 사이로 차가 나타났다. 운전사가 손짓하자 바론이 말했다.

"승리다. 우리가 잡았다."

쿠페가 멈춰 섰다. 좌석에 앉아 있던 드오르몽이 재빨리 뛰어내렸다. 루 드스티에르도 차에서 뛰어내렸다. 바론의 도움을 받아 그들은 차 안에서 다리와 손이 묶인 여자를 끌어냈다. 그녀의 머리는 거즈 스카프로 감싸져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방 한가운데에 놓인 교회용 긴 의자까지 옮겼다.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드오르몽이 말했다.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녀는 차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사거리에서 잡혔을 때, 그녀는 '아' 소리조차 내지 못했죠."

"스카프를 벗기시오." 남작이 명령했다. "그녀가 움직일 자유를 주는 게 더 나을 테니."

남작 자신이 묶인 끈을 풀었다.

드오르몽이 베일을 벗고 그녀의 머리를 드러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라울은 자신의 자리에서 그녀가 밝은 빛에 완전히 드러나는 것을 보며, 같은 놀람의 충격을 느꼈다. 그녀는 젊음과 아름다움의 가장 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속삭임들을 압도하는 비명이 들려왔다. 아르콜 공작이 맨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눈이 커진 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야… 그녀야… 난 알아. 아, 끔찍하다!"

"무슨 일이오?" 남작이 물었다.

"무엇이 끔찍하다는 거요? 설명해 주시오."

아르콜 공작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

"그녀가 스물네 해 전과 똑같은 나이란 말이오!"

그 여자는 앉아 있었다. 상체는 꼿꼿이 세우고, 주먹을 쥔 채 무릎 위에 올렸다. 공격을 받으면서 모자가 벗겨진 듯했다. 머리카락은 반쯤 풀려 뒤로 늘어졌고, 금빗으로 간신히 묶인 채 무성한 머리카락 더미를 이루었다. 이마 위로는 두 갈래로 나뉜 앞머리가 고르게 떨어졌고, 관자놀이 부근은 살짝 물결을 이루고 있었다.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다. 윤곽선이 매우 깨끗했고, 표정에는 무표정할 때조차, 심지어 두려움에 떨 때조차 미소처럼 보이는 기운이 서려 있었다. 턱은 다소 날렵했고, 볼뼈는 살짝 돌출되었으며, 눈매는 길고 눈꺼풀은 무거웠다. 그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혹은 그보다 베르나르디노 루이니의 화풍에 더 가까운 여성들을 떠올리게 했다. 그들의 아름다움은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미소에 담겨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동시에 감동시키고 불안하게 만들었다.

옷차림은 소박했다. 그녀는 여행용 외투를 벗어던졌고, 그 아래 회색 양모 드레스가 허리와 어깨 라인을 살려 입었다.

'대단하다!' 라울은 눈을 떼지 못하며 생각했다. '보기에 아주 무해해 보이는군. 이 지옥처럼 아름답고도 무시무시한 여자가.'

‘그런데 저녀석을 잡으려면 아홉이나 열 명이 필요하다고?’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폈다. 에티그와 그의 친구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다른 이들을 구분해 내려고 애썼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무슨 용건이십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 아는 이가 없습니다. 왜 저를 여기 데려온 겁니까?”

“당신은 우리 적입니다.” 고드프루아 드 에티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살며시 저었다.

“저를 적이라니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착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펠레그리니 부인입니다.”

“당신은 펠레그리니 부인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닙니다.” 고드프루아 남작이 큰 소리로 반복했다.

그리고는 아르콜 공작이 던진 말처럼 당혹스러운 말을 덧붙였다.

“펠레그리니는, 당신이 자신의 아버지로 주장하는 인물이 18세기에 사용했던 가명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즉각 답하지 않았다. 그 말의 터무니없음을 이해하지 못한 듯했다. 그러자 그녀가 물었다.

"도대체 제 이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제핀 발사모, 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

제2장

칼리오스트로! 유럽을 들쑤셔놓은, 루이 16세 시대의 프랑스 왕실에 깊은 파문을 일으킨 그 놀라운 인물! 왕비의 목걸이 사건, 로앙 추기경, 마리 앙투아네트……. 그처럼 신비로운 인생에서 벌어졌던 소란스러운 단편들이다.

이상하고 수수께끼 같은 남자. 음모를 꾸미는 재능을 타고났고, 실제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그의 전모는 아직 완전히 밝히지 못했다.

사기꾼일까? 누가 알겠는가!

감각이 더 예민한 이들이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금지된 시선을 던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권리가 있을까?

과연 과거의 삶에서 깨어난 기억을 지닌 자를, 자신이 보고 배운 것, 잃어버린 비밀과 잊힌 확신에 힘입어 우리가 초자연적이라 부르는 힘을 활용하는 자를, 사기꾼이나 미치광이라고 취급해야 할까?

그 힘은 어쩌면 우리가 노예로 만들려는 에너지의, 주저하며 더듬거리는 발현일 뿐인데.

라울 드 안드레시는 자신의 관측소 깊숙이 자리한 채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어쩌면 조금은 주저하면서도, 일어난 일들의 양상을 비웃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참석자들은 가장 기이한 주장들조차 이미 확실했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듯했다.

그들은 이 사건에 대해 특별한 증거나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들이 칼리오스트로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그 여자에게서, 과거 유명한 마술사에게서 찾아졌던 예지력과 점술의 재능을 되찾은 것일까? 그래서 그를 마법사나 주술사로 부르며 경계했던 그 재능이 말인가?

그중 단 한 사람, 고드프루아 드 에티그가 여전히 서 있었다. 그는 젊은 여성 쪽으로 몸을 숙이며 물었다.

"칼리오스트로라는 이름, 정말 당신의 이름이 맞습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자신을 방어할 최선의 대응책을 찾고 있는 듯했다. 한 번 깊이 빠져들기 전에, 적군이 어떤 무기를 쥐고 있는지 정확히 짚어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는 평정심을 잃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에게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심문할 권리도 없죠. 하지만 왜 숨기겠습니까. 제 출생 증명서에는 조제핀 펠레그리니라는 이름이 적혀 있지만, 저는 기분에 따라 조제핀 발사모, 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으로 불립니다. 칼리오스트로와 펠레그리니라는 두 이름은 제게 늘 흥미로웠던 조제프 발사모라는 인물을 완성해 주는 거죠."

"즉, 당신은 당신이 주장했던 것과 달리, 어떤 혈통의 직계 후손도 아니라는 말씀이오?" 남작이 정정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입을 다물었다. 조심스러운 태도였을까, 경멸이었을까, 아니면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한 항의였을까.

고드프루아 드 에티그는 친구들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이 여자의 침묵을 자백으로도, 부인으로도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 여자의 말은 중요하지 않으며, 그것을 반박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사건의 전체상을 알고 있지만, 세부 사항 중 일부는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실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가 이어 말했다.

"사건 요점은 제가 읽어드릴 메모에 가능한 한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차분하게 그 몇 페이지를 읽어 내려갔다. 라울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 글은 보마니앙이 썼을 것이라는 점을.

1870년 초, 프랑스와 프로이센 전쟁이 일어나기 네 달 전이었다. 그 때 파리에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몰려들었는데, 그중에서도 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의 등장은 가장 큰 화제였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우아했으며, 돈을 아끼지 않았다. 거의 항상 혼자 다니거나, 자신의 동생이라고 소개하는 젊은 남자와 함께였다. 그녀가 발을 들인 곳, 그녀를 맞이한 모든 살롱에서 사람들은 그녀에게 뜨거운 관심을 보냈다.

처음에는 그녀의 이름이 사람들을 궁금하게 했다. 이어 그녀의 기묘한 태도로 유명인 칼리오스트로와 혈연이 있다고 주장한 점, 기적적인 치유를 행한 점, 그리고 사람들의 과거와 미래를 묻는 질문에 내놓은 답변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알렉상드르 뒤마의 소설이 소위 칼리오스트로 백작이라 불리는 조제프 발사모를 유행시켰다. 그녀는 같은 수법을 사용했지만 더 대담했다. 칼리오스트로의 딸임을 자처했고, 영원한 젊음의 비결을 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나폴레옹 1세 시대에 겪은 특별한 만남이나 사건들을 이야기하곤 했다.

그녀의 명성은 지대했다. 튈르리 궁의 문까지 강제로 열어젖혔고, 나폴레옹 3세의 궁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심지어 외제니 황후가 아름다운 백작 부인을 중심으로 신하들을 모아놓고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그 신문의 임시 기고자 중 한 명이 참석한 어느 회합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풍자 잡지 <샤리바리>의 비밀 발행본이었는데, 곧바로 압수당했다. 그중 한 구절을 발췌해 보겠다.

"모나리자의 표정 같은 거요. 크게 변하지는 않지만, 도무지 정의하기 어려운 표정. 다정하고 순진해 보이는가 하면, 잔인하고 사악하기까지 하죠. 그 눈빛에는 온갖 경험이 담겨 있고, 변함없는 미소에는 쓴맛이 서려 있어, 그녀가 스스로를 여든 살이라고 주장해도 사람들은 믿을 만해 보입니다.

그럴 때면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금거울을 꺼냅니다. 보이지 않는 병에서 두 방울을 떨어뜨려 거울을 닦고, 자신을 비춰 봅니다. 그리고 다시금 사랑스러운 젊음이 되죠.

우리가 그녀에게 묻자, 그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거울은 칼리오스트로가 소유했던 것입니다. 자신 있게 거울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시간이 멈춥니다. 보십시오. 거울 틀에는 날짜가 새겨져 있네요. 1783년, 그리고 그 아래로 네 줄의 글이 이어집니다. 이는 네 가지 큰 수수께끼의 목록이지요.

그가 풀고자 했던 수수께끼들은 바로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로부터 직접 입으로 전해들은 것이었습니다.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그는 이 수수께끼의 열쇠를 찾아내는 자가 '왕들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그것들을 알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물었다.

“왜 알 수 없겠습니까? 그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푸는 것은 다릅니다. 게다가 칼리오스트로 자신도 그것을 푸는 시간을 갖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니 제가 전할 수 있는 것은 이름과 제목뿐입니다. 목록을 들어보십시오.”

나무 위에 운명이 있느니라 보헤미아 왕들의 돌판 프랑스 왕들의 운명 일곱 갈래 촛대

그녀는 우리 각자에게 말을 걸며,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진실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황후는 자신에게 관련된 질문은 일절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향한 몇 가지 해명을 요청했다.

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이 거울을 내밀며 말했다.

“전하, 거울 위에 숨을 가볍게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녀는 곧장 거울 표면에 퍼진 김을 살펴본 뒤, 속삭이듯 말했다.

“아주 아름다운 것들이 보입니다…… 이번 여름에 큰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승리가 있을 테고, 군대가 개선문 아래로 귀환할 것입니다. 황제와 황태자를 향해 군중들이 환호성을 지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된 문서입니다." 고드프루아 드 에티그가 다시 말했다. "정말 당황스러운 문서예요. 예언된 전쟁이 일어나기 몇 주 전에 이미 세상에 나왔으니까요."

그녀는 대체 누구였을까? 불행한 여왕의 약한 정신에 영향을 미쳐, 1870년의 참사를 불러일으킨 그 모험가는 누구였을까?

누군가(『샤리바리』 지 동호를 읽어보라) 그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다.

"칼리오스트로의 딸이 맞아요. 하지만 어머니는요?"

"제 어머니?" 그녀가 대답했다. "칼리오스트로와 동시대 인물들 중에서 아주 높은 곳을 찾아보세요. 그보다 더 높은 곳을요. 맞아요, 바로 그곳이죠. 조제핀 드 보아르네, 훗날 나폴레옹의 아내가 되고, 나중에는 황후가 된 그 사람요."

나폴레옹 3세의 경찰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6월 말, 그들은 치열한 수사 끝에 한 명의 최우수 요원이 작성한 간결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 내용을 소개한다.

"요원은 이렇게 썼다. '소녀의 이탈리아 여권은 출생 날짜에 대해 의문을 남기기는 하지만, 조제핀 펠레그리니-발사모, 즉 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1788년 7월 29일 팔레르모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팔레르모로 가서 모타라나 교구의 옛 기록부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1788년 7월 29일자로 된 한 권의 기록에서, 요제프 발사모와 조제핀 드 라 P.의 딸인 조제핀 발사모의 출생 신고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국왕의 신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제핀 타셰 드 라 파제리인가? 바로 그 여인, 보아르네 자작의 별거 중인 아내이자 훗날 나폴레옹 장군의 아내가 될 여인을 말이다.

나는 그 방향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인내심 있는 수사를 거쳐, 파리 프레보청의 한 중위가 쓴 손편지를 통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1788년, 칼리오스트로가 체포 직전까지 갔다는 것이다.

그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 이후 프랑스에서 추방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펠리그리니'라는 가명을 써서 퐁텐블로에 있는 작은 저택에 숨어 지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매일 키가 크고 마른 한 여인을 맞이했다.

그때 바로 조제핀 드 보아르네도 퐁텐블로에 살고 있었다. 그녀는 키가 크고 마른 여인이었다.

체포가 예정된 날 전날, 칼리오스트로는 자취를 감췄다. 이튿날, 조제핀 드 보아르네도 갑자기 떠났다. 그리고 한 달 뒤, 팔레르모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이런 우연이 겹치니 놀라울 따름이다. 하지만 이 사실들을 두 가지 사건과 연결해 보면 그 무게는 훨씬 커진다.

18년 후, 조제핀 황후는 말마손에 한 소녀를 데려온다. 황후는 이 소녀를 자신의 대녀(代女)라고 속였다. 황제는 그 소녀를 친딸처럼 여기며 어린아이를 대하듯 함께 놀아주었다. 그 소녀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 조제핀, 혹은 더 정확히 말해 조신이었다.

제국이 무너졌다. 차르 알렉산드르 1세가 이 조신을 거두어 러시아로 보냈다. 그녀는 어떤 칭호를 사용했을까? 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

에티크 남작은 자신의 마지막 말을 침묵 속에 길게 늘어뜨렸다. 사람들은 깊은 주의를 기울여 그의 말을 경청했다.

라울은 믿기 어려운 이 사연에 당황해 있었다. 그는 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의 얼굴에서 감정의 흔적이나 어떤 반응이 비쳐 나오려는지 살폈다. 하지만 그녀는 무표정했다. 아름다운 눈빛만은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남작은 다시 말을 이었다.

이 보고서, 그리고 튈르리 궁전에서 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이 미친 위험한 영향력은 그녀의 운명을 끝내기에 충분했다. 그녀와 동생을 추방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그들은 각자의 길로 떠났다. 동생은 독일로, 백작부인은 이탈리아로 향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한 젊은 장교의 안내를 받아 모다네에 도착했다. 그는 그녀에게 경의를 표하며 인사를 건넸다. 그 장교의 이름은 아르콜 공작이었다.

그가 바로 <샤리바리>지 특정 호와 비밀 보고서 원본을 손에 넣은 인물이다. 원본은 그의 손에 있으며, 우표와 서명이 그대로 남아 있다. 또한 방금 여러분 앞에서, 그가 그날 아침 본 여자와 오늘 보는 여자가 동일인물임을 증언한 이도 바로 그였다.

아르콜 공작이 자리에서 일어나, 진지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저는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하려는 것은 기적에 대한 단언입니다. 다만 진실을 위해 솔직히 고백해야겠군요. 제 군인의 명예를 걸고 말하건대, 이 여인은 스물네 해 전 모다네 역에서 제가 인사를 나눴던 그 여자입니다."

"그냥 인사를 나눴다고요? 예의 바른 말 한마디도 없었나요?"

조제핀 발사모가 물었다. 그녀는 공작에게 몸을 돌렸고, 그 목소리는 경쾌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비아냥거리는 기미가 서려 있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프랑스 장교라면 예의 바르기 마련입니다. 예의 바른 인사는 결코 단순한 경례로 끝나지 않죠. 예쁜 여자에게 작별을 고할 때쯤이면."

"그게 무슨 뜻이죠?"

"그 여자와는 분명히 몇 마디를 나눴다는 뜻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르콜 공작이 약간 당황한 듯 말했다.

“당신은 망명자에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필요 이상으로 조금 더 오래 그녀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제가 당신과 함께 보낸 순간들이 내일을 위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그 순간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라는 말을 강조하며, 당신의 우아한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결코, 알겠나요, 부인? 결코…’”

아르콜 공작은 매우 예의 바르게 보이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25년 전에 있었던 그 순간을 정확히 묘사하자, 그는 너무 당황해서 중얼거렸다.

“세상에!”

하지만 곧바로 몸을 일으키며 공격적인 어조로 말했다.

"잊어버렸습니다, 부인. 그 만남의 기억이 즐겁기는 했지만, 두 번째로 뵈었던 기억이 그것을 지워버렸죠."

"두 번째로 뵌 날은 언제였습니까?"

"다음 해 초였습니다. 베르사유에서 저는 패전 평화 협상을 맡은 프랑스 전권 대표들을 수행하고 있었죠. 저는 카페에서 당신을 보았습니

다. 당신은 테이블 앞에 앉아 독일 장교들과 함께 마시며 웃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은 비스마르크의 부관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당신이 튈르리 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누구의 특사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폭로와 황당무계해 보이는 한 생애의 파란만장한 사건들은 열 분도 채 걸리지 않아 펼쳐졌다.

어떠한 논증도 없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논리나 웅변의 시도도 없었다. 있는 것은 오직 사실뿐이었다.

강렬하고 간결한 증거들이 주먹질처럼 내리찍혔다. 한창 젊은 여성을 상대로, 그중 일부는 백 년이 넘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억들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욱 더 크고 놀라웠다.

라울 드 안드레시는 도무지 믿겨지지 않았다. 이 장면은 소설 같았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기괴하고 어두운 멜로드라마 같았다. 음모에 가담한 자들도 현실과 동떨어져 보였다. 그들은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양 경청하고 있었으니까.

물론 라울은 이 지주들의 지적 수준이 형편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들은 다른 시대의 마지막 잔재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그 문제가 안고 있는 핵심 조건을 무시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 여자의 나이에 관한 문제였다.

그들이 얼마나 순진했든, 눈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정면에서 바라본 칼리오스트로 부인의 태도는 더욱 기이해 보였다. 도대체 왜 침묵을 지켰을까. 그 침묵은 결국 승인을 의미했고, 때로는 자백과도 같았다.

그녀는 영원한 젊음이라는 전설을 무너뜨리는 것을 거부한 걸까. 그 전설이 그녀에게는 기분이 좋았고, 자신의 계략을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니까. 아니면, 자신의 머리에 내려앉은 끔찍한 위험을 의식하지 못한 채, 이 모든 연극을 단순한 장난으로 여긴 걸까.

"이것이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에티그 남작이 결론을 내렸다. "지금과 이어지는 중간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조제핀 발사모, 즉 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은 여전히 뒷배에서 움직였지만, 불랑제주의의 희비극과 파나마 사건 같은 우리 나라의 비극적인 사건들에 관여했습니다. 우리 나라에 불행을 가져온 사건이라면 어디에서나 그녀가 발견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녀가 그 안에서 어떤 비밀스러운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단서들뿐입니다.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 넘어가서 현재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부인, 이 점들에 대해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은 없습니까?"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젊은 여성은 여전히 약간 비웃는 듯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당신이 마치 중세 시대의 법정처럼 나를 심문하는 것 같으니,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쌓아 올린 내 죄목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만약 그 죄목들이 당신에게 중요시된다면, 나를 마녀, 간첩, 그리고 이단자로 몰아 즉시 불태워 죽여야 합니다. 성스러운 종교재판소도 용서하지 않았을 그런 죄목들로요."

고드프루아 드에티그는 대답했다.

"아닙니다. 그런 사건들을 나열한 것은, 당신에 대한 이미지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은 내 모습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그려냈다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현재 논의하고 있는 관점에서라면, 그렇습니다."

"참 쉽게도 만족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이런 사건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당신을 알아본 모든 사람들의 증언이죠. 그 증언들을 하나하나 거슬러 올라가면, 가장 오래된 시절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당신의 주장에 대한 자백입니다."

"자백이라고요?"

"당신은 아콜 공작에게, 모다뉴 역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했습니다."

"그렇죠."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 세 점 모두 당신을 잘 보여 주는 초상화가 있습니다. 맞죠?"

그녀는 그림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 세 초상화는 모두 저를 그린 것입니다."

"좋습니다." 에티그 남작 고드프루아 가가 입을 열었다. "첫 번째 초상은 1816년 모스크바에서 조제핀 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을 모델로 그려진 미니어처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진으로, 1870년에 찍혔죠.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최근 파리에서 촬영한 최신작입니다. 세 초상화 모두 당신의 서명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서명, 같은 필체, 같은 각인."

"그게 무엇을 증명한다는 겁니까?"

"그건 같은 여성이……"

"같은 여성이 1894년에도 1816년과 1870년의 얼굴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화형대에 태워버리면 되는군요."

"농담하지 마십시오, 마담. 우리 사이에서 웃음은 경멸할 만한 불경한 짓입니다."

그녀가 성내며 손으로 벤치의 팔걸이를 내리쳤다.

"하지만 도대체, 이 희극을 언제 끝내시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죠? 제가 무슨 죄를 졌다고요? 왜 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까?"

"마담,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범죄를 우리에게 해명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겁니다."

"어떤 범죄요?"

"우리 일행은 열두 명이었어요. 열두 명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렸죠. 그런데 지금은 아홉 명만 남았습니다. 나머지 세 명은 당신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아마도 그림자였을 것이다. 라울 드 안드레시에게만은 그랬다. 모나리자의 미소가 구름에 가려지는 듯했다.

순간, 아름다운 얼굴은 다시 평상시의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 어떤 것도 이 여인의 평화를 해칠 수 없는 듯했다. 심지어 그토록 격렬하게 그녀를 향해서 날아든 끔찍한 비난조차도 마찬가지였다.

정말 그녀는 보통의 감정들을 모른다는 듯했다. 혹은 분노나 항거, 공포 같은 흔한 징후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듯했다. 그런 것들은 보통 사람들을 뒤흔드는 감정들이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다. 유죄든 무죄든, 다른 여자라면 이미 반발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냉소 때문인지, 무죄 때문인지 알 수 있는 단서는 아무것도 없었다.

바론의 친구들은 굳어 있었다. 얼굴은 거칠게 굳어 있고 근육이 뭉쳐 있었다.

조제핀 발사모의 시선을 거의 완전히 가린 사람들 뒤에, 라울은 보마냥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팔을 기대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다. 하지만 손가락 사이로 빛나는 눈빛은 적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넓은 정적 속에서 고드프루아 드 에티그는 고발장을 낭독했다. 정확히 말하면, 거대한 고발의 세 단계를 차례로 읽어 내려갔다. 그는 지금까지 그랬듯, 불필요한 설명 없이,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그저 서류를 읽듯 단호하게 그것을 해냈다.

열여덟 달 전, 우리 중 가장 젊은 데니스 생테베르가 르아브르 근처 자신의 영지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다. 오후 늦게, 그는 소작인과 사냥터지기를 떠나 총을 어깨에 메고 나섰다. 절벽 위에서 바다에 석양이 지는 모습을 보러 간다고 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음 날, 사람들은 밀물이 빠진 바위들 사이에서 그의 시체를 발견했다.

자살일까? 데니스 생테베르는 부유했고, 건강했으며, 성품도 밝았다.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는가? 살인일까? 그 가능성은 아예 고려조차 되지 않았다. 결국 사고사였다.

이후 6월, 우리에게는 또 다른 비극이 닥쳤다. 상황은 비슷했다.

조르주 드 이즈노발은 새벽 일찍 디에프 절벽 아래서 바닷새를 쫓고 있었다. 그런데 미끄러운 해초 위에서 실수를 저질렀다. 머리가 바위에 강하게 부딪혔고,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몇 시간 후, 두 어부가 그의 시체를 발견했다.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는 미망인과 두 어린 딸을 남겼다.

"여기서도 사고라니, 그렇죠? 미망인에게, 두 고아들에게, 그리고 가족 모두에게 있어선 사고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어땠을까요? 운명이 우리네 소수 집단을 두 번이나 노릴 수 있었을까요? 열두 친구가 뭉쳐 큰 비밀을 파헤치고 막대한 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중 두 명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들을 공격함으로써 동시에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려는 음모가 아니었을까요?"

"우리를 깨우친 이는 아르콜 공작이었습니다. 그는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이끈 사람이죠.

아르콜 공작은 우리만 그 거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게 아니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외제니 황후의 처소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칼리오스트로가 후손들에게 전해준 네 가지 수수께끼 목록이 언급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주목하는 '일곱 갈래 촛대'의 수수께끼였죠. 그렇다면 전설이 전해졌을 법한 인물들을 찾아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진 강력한 수사 수단 덕분에, 보름 만에 수사는 결실을 맺었다. 파리 외딴 거리에 있는 저택에는 펠레그리니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꽤 은둔 생활을 했으며, 몇 달 동안이나 모습을 감추기도 했다.

그녀는 미모가 출중했지만, 행실이 매우 신중했다.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쓰는 듯한 태도였다. 그녀는 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이라는 가명을 쓰며, 마법과 초자연 현상, 그리고 흑미사를 다루는 일단의 무리와 교제했다.

우리는 그녀의 사진을 입수해, 당시 스페인을 여행 중이던 아르콜 공작에게 보냈다. 공작은 깜짝 놀라며, 자신이 과거에 본 바로 그 여자임을 확인했다.

그녀의 행적을 추적했다. 생테베르가 죽은 날, 르아브르 근처에서 그녀는 잠시 들렀다. 그리고 조르주 드 이즈노발이 디엡 절벽 아래에서 숨을 거둘 때, 그녀는 디엡에 잠시 머물러 있었다.

나는 관련 가문들을 수소문했다. 조르주 드 이즈노발의 과부는 남편이 최근 한 여자와 관계가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그 여자가 남편을 극도로 괴롭혔다는 것이다.

한편, 생테베르의 서류에서 발견된 그의 친필 자백서는 지금까지 그의 어머니가 보관해 왔다. 그 내용은 우리를 놀라게 했다. 생테베르는 우리의 열두 명 이름과 일곱 갈래 촛대에 관한 몇 가지 단서를 기록한 부주의를 범했다. 그리고 그 노트는 한 여자에게 빼앗긴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우리 비밀의 일부를 손에 넣고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생테베르가 사랑했던 그 여자가, 조르주 드 이즈노발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두 남자가 자신들의 비밀을 털어놓자, 그녀는 자신이 그들에게 고발당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두 남자를 죽인 것입니다. 바로 이 여자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고드프루아 드 에티그는 다시 한번 말을 멈췄다. 정적이 다시 찾아왔고, 그것은 너무도 무거워 법관들이 그 무겁고 불안한 공기 속에 얼어붙은 듯 보였다. 오직 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만이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마치 어떤 말도 그녀에게 닿지 않는 것처럼.

라울 드 안드레시는 여전히 자기 자리에 누운 채, 젊은 여인의 매혹적이고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흠모했다. 동시에 그는 그녀에게 쌓여 가는 혐의의 증거들을 보며 불안감을 느꼈다.

고발장은 그녀를 점점 더 조여왔다. 사방에서 사실들이 그녀를 향해 돌진해 왔고, 라울은 이제 더 직접적인 공격이 그녀를 위협할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다.

"세 번째 살인 사건에 대해 말씀드릴까요?" 남작이 물었다.

그녀는 지친 어조로 대답했다.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게는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시니, 그렇다면 살인이 하나 더 늘어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당신은 생테베르와 드 이즈노발 씨를 알지 못했나요?"

그녀는 대답 없이 어깨를 으쓱였다.

고드프루아 드 에티그가 몸을 숙였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다.

"보마니앙은요?"

그녀가 고드프루아 남작을 향해 순수한 눈빛으로 물었다.

"보마니앙?"

"그래, 네가 죽인 세 번째 친구 말이야. 얼마 전 일이야. 몇 주 전이지. 그는 독살로 죽었어. 네가 그를 알지 못했나?"

제3장

이 비난은 무슨 뜻일까? 라울은 보마냥을 바라보았다. 보마냥은 일어서 있었지만, 키를 곧게 펴지 못한 채였다. 그는 친구들 틈을 빌려 서서, 마침내 조제핀 발사모 바로 옆에 앉았다. 조제핀은 남작을 향해 돌아앉아 있었기에, 그의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때 라울은 보마냥이 숨어 있던 이유와, 젊은 여자에게 걸려 있던 무서운 함정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보마냥을 독살하려 했고, 그를 죽은 줄 알았다면, 살아서 자신을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보마냥을 눈앞에 둔 순간, 그녀는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

반면에, 만약 그녀가 전혀 떨지 않고, 이 남자를 다른 이들처럼 낯선 존재로 여긴다면? 그것은 그녀를 위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터였다.

라울은 불안해졌다. 그녀가 음모를 무너뜨리길 간절히 바랐기에, 그녀에게 그 일을 알려 줄 방법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에티그 남작은 먹이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 사건도 기억나지 않죠? 맞죠?"

그녀는 눈썹을 찌푸렸다. 두 번째로 드러난 조바심이었다.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아니면, 보마냥을 직접 알지도 못했나요?"

남작은 그녀에게 몸을 기울였다. 미숙한 문장을 엿듣는 형사판사처럼.

"말하세요! 보마냥을 알지 못했다고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집요한 추궁 때문에 경계심이 생겼다. 그녀의 미소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다.

사냥감처럼 쫓기는 동물처럼, 그녀는 함정을 냄새로 맡았다. 그리고 어둠 속을 그녀의 시선으로 훑어냈다.

그녀는 고드프루 데티그를 바라보았다. 이어 바우팔리에르와 베네토가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다시 반대편, 즉 보마냥이 서 있는 곳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순간, 그녀는 황급한 제스처를 취했다. 유령을 본 사람처럼 몸을 움츠린 것이다. 그리고 두 눈을 감았다. 그녀는 끔찍한 광경을 밀어내려 손을 내밀었고, 그제야 비로소 그녀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보마냥… 보마냥…"

이것이 고백인가? 그녀는 기절하며 자신의 죄를 모두 털어놓게 될 것인가? 보마냥은 기다렸다. 말하자면 눈에 보일 듯한 온 힘으로, 굳게 쥔 주먹과, 이마에 솟아오른 혈관, 그리고 초인적인 의지로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그는 저항이 무너지는 그 약함의 순간을 갈구했다.

그는 잠시 성공한 줄 알았다. 젊은 여자는 무너지고, 지배자 앞에 몸을 내맡기고 있었다. 잔인한 기쁨이 그를 변모시켰다.

하지만 헛된 희망이었다. 현기증에서 벗어나며 그녀는 몸을 일으켰다. 흐르는 시간마다 그녀는 조금씩 평정을 되찾았고, 미소를 되찾았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논리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진리의 표현처럼 보였다.

"나를 놀라게 했네, 보마냥. 신문에 네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었거든. 그런데 왜 친구들이 나를 속이려 한 거야?"

라울은 곧장 깨달았다.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적수가 마주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보마냥의 무기와 젊은 여자의 고립된 상황을 고려하면 싸움은 짧게 끝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짜 격투는 이제 막 시작된 셈이었다.

고드프루 남작이 숨죽이며 저지르던 은밀한 공격은 사라졌다. 대신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힌 적의 무질서한 폭주가 시작되었다.

"거짓말! 거짓말일 뿐이야!" 그가 외쳤다. "너에게는 거짓말밖에 없어. 너는 위선이고, 비열하고, 배신자이며, 타락한 자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추하고 역겨운 것이 너의 미소 뒤에 숨어 있는 거야. 아, 그 미소라니! 정말 끔찍한 가면이지! 불에 달군 집게로 그 가면을 뜯어내고 싶을 정도야."

"그 미소는 곧 죽음이다. 그 미소에 빠지는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 아, 이 여자는 정말 비참하구나!"

라울은 이 광경을 종교재판의 한 장면으로 보았다. 처음부터 그렇게 느꼈지만, 지금 이 남자의 격분하는 모습을 보며 그 인상은 더 또렷해졌다. 그는 중세 시대 수도사처럼 저주를 퍼부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제스처는 위협적이었다. 마치 신성모독자, 즉 신비로운 미소 때문에 이성을 잃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자의 목을 잡아당기려는 듯했다.

"진정하세요, 보마냥."

그녀가 말했다. 너무도 부드러운 어조였기에, 그는 그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이며 더 격분했다.

그는 어찌되었든 자신을 억누르려 했다. 입가에 넘쳐흐르던 말들을 제대로 다듬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 말들은 그의 입에서 헐떡이며, 재촉하듯, 혹은 속삭이듯 쏟아져 나왔다.

그가 이제껏 이야기를 건넸던 친구들도 때때로 그의 이상한 고백을 이해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과거의 신자들이 자신의 죄를 대중에게 증언하게 하듯, 자신의 고백을 증명하려 했다.

"저는 이즈노발이 죽은 직후, 자진해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 요녀가 우리를 계속 괴롭힐 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해질 수 있을 거라, 유혹에 더 잘 견딜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맞죠, 그때의 제 결심을 다 아셨죠? 이미 교회에 몸을 바쳤고, 사제의 옷을 입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악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엄격한 서약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거운 신앙심으로요. 그래서 저는 그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나타날 것으로 알았던, 그 영적 모임 중 한 곳으로요."

그녀는 분명히 그곳에 있었다. 나를 데려다준 친구가 그녀를 가리킬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문턱에 서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와 발걸음이 멈칫했다. 나는 그녀를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거의 아무와도 말하지 않았고, 거리를 두며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다. 담배를 피우며 남들의 말을 경청하는 모습이었다.

지시에 따라 내 친구는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무리와 대화를 나눴다. 그러자 멀리서 내 이름을 불렀다. 그녀의 시선에 일어난 동요를 보자, 그 이름이 도난당한 데니스 생테베르의 노트에 적혀 있었다는 사실을 그녀가 알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보마냥은 열두 명의 가맹인 중 한 명이었다. 열 명의 생존자 중 하나였다. 꿈속에서 사는 듯했던 그녀가 갑자기 깨어난 것이다.

다음 순간, 그녀가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두 시간 동안 그녀는 정신과 아름다움의 모든 우아함을 발휘했다. 그리고 그녀는 내게 내일 그녀를 만나러 오겠다고 약속받았다.

그 순간, 내가 그녀를 떠난 그 찰나, 밤하늘 아래 그녀의 집 문턱에서 나는 도망쳤어야 했다. 먼 곳으로, 영원히.

하지만 이미 늦었다. 용기도, 의지도, 분별력도 내게는 남아 있지 않았다. 오직 그녀를 다시 보고 싶은 그 광기 어린 욕망만 남았다.

물론 나는 그 욕망을 거창한 말로 가렸다.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적의 속셈을 파악해야 한다', '그녀의 죄를 입증하고 벌해야 한다' 따위였다.

모두 변명에 불과했다.

사실 나는 처음부터 그녀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다. 저런 미소야말로 가장 순수한 영혼의 표징이었기 때문이다.

생테베르에 대한 성스러운 기억도, 내 가엾은 이즈노발에 대한 기억도 나를 비추지 못했다. 나는 보지 않으려 했다. 나는 몇 달 동안 어둠 속에서 살았다. 가장 끔찍한 기쁨을 맛보며, 수치스럽고 스캔들의 대상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나의 서원을 포기하고, 나의 신앙을 배반하는 것을 말이다.

나 같은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죄악들이다. 나는 맹세한다, 내 친구들이여.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한 가지 죄를 저질렀다. 나는 우리의 대의를 배신했다. 우리가 공통의 사업을 위해 결합할 때 우리가 한 침묵의 서약을, 나는 깨뜨렸다. 이 여인은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는 것만큼 그 큰 비밀을 알고 있다.

이 말에 분노의 속삭임이 들렸다. 보마냥은 고개를 숙였다.

라울은 이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비극의 실체를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등장인물들도 이제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분명 시골 양반들이었고, 시골 사내들이며, 둔중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 보마냥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숨결로 그들을 움직였고, 그들의 열정에 불을 지폈다.

평범한 삶과 흐릿한 형체들 사이에 서 있는 그는, 예언자이자 광신자의 모습을 띠었다. 그는 자신도 목숨과 영혼을 바친 어떤 음모의 과업을 그들의 의무로 여겨 보여줬다. 과거 성지를 향해 성을 버리고 십자군에 합류하듯, 신에게 헌신했던 그 시절의 모습과 다름없었다.

이런 신비로운 열정은 그 대상을 태워 영웅이나 살인자로 변하게 한다. 보마냥에게는 정말 종교재판관 같은 기질이 서려 있었다. 만약 그가 15세기에 살았었다면, 불신자에게 신앙의 말을 짜내기 위해 박해와 고문을 서슴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지배 본능을 지니고 있었으며, 장애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를 갖추고 있었다. 목표와 그 사이에 한 여자가 가로막힌다면? 그

녀는 죽어야 한다! 만약 그가 그 여자를 사랑한다면, 공개적인 고백이 그를 용서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의 가혹함이 자신에게도 향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강하게 그 엄격한 스승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

자신의 추락이 드러난 수치심에 그는 더 이상 분노하지 못했다. 그는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왜 내가 그토록 실수했을까. 나도 모른다. 나 같은 인간은 절대 실수해선 안 된다. 그녀가 나를 심문한 것도 아니었다. 설령 그랬다 해도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

그녀는 칼리오스트로가 남긴 네 가지 수수께끼를 자주 언급하곤 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나는 돌이킬 수 없는 말들을 입 밖으로 내뱉었다. 비겁하게도, 그녀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그녀 앞에서 더 큰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그녀의 미소가 더 다정해지기를 바라고서였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우리 편이 될 거야. 점술의 수련으로 예리해진 그녀의 통찰력과 조언으로 우리를 도와줄 거야.'

나는 미친 것이었다. 죄악의 취기가 이성을 흔들었다."

» 깨어났을 때의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다.

3주 전, 나는 스페인 행 임무를 떠날 예정이었다. 아침에 그녀와 작별 인사를 나눈 뒤였다. 오후 세 시쯤, 파리 중심부에서 만날 약속이 있어 룩상부르구에 있는 내 작은 집을 나섰다.

그런데 집안사람에게 어떤 지시를 잊은 것을 깨달았다. 나는 안뜰과 부엌 계단을 통해 집으로 돌아갔다. 하인은 이미 나가버렸고, 부엌 문은 열린 채 방치되어 있었다.

멀리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내 방에 누군가 있었다. 거울에 그 모습이 비치던 바로 그 여자가, 내 짐을 뒤지고 있었다.

» 그녀가 내 여행 가방 위에 몸을 굽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나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그녀는 작은 종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여행 중 불면증을 이겨내기 위해 먹던 알약들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중 한 알을 꺼내고, 대신 다른 알약을 넣었다. 그 알약은 지갑에서 꺼낸 것이었다.

나는 너무 놀라 그녀에게 달려들 생각조차 못했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내가 쫓아갈 틈도 없었다.

나는 약국으로 달려가 알약을 분석해 보라고 했다. 한 알에는 독이 들어 있었다. 나를 즉사시킬 만큼 강한 독이었다.

이제 나는 확실한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다. 나는 그 비밀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말해버린 무모함을 범했고, 그로 인해 나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았다.

불필요한 증인을 제거하고, 훗날 전리품을 노리거나 진실을 밝혀 적을 공격해 이길 수도 있는 경쟁자를 처리하는 것. 그게 다였다. 그러니

죽음. 데니 생테베르와 조르주 드 이즈노발이 겪었던 것처럼. 이유 없이, 어리석게도 죽음을 맞이하는 것.

나는 스페인의 한 지인에게 편지를 썼다. 며칠 후, 마드리드에서 보아마냐노라는 남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일부 신문에 실렸다.

그때부터 나는 그녀의 그림자 속에 살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녀는 루앙으로, 이어 르아브르로, 그리고 디에프로 향했다. 우리 조사가 집중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내 말을 통해 그녀는 우리가 디에프 근처의 옛 수도원을 뒤집어엎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하루 종일 그 장소에 머물며, 버려진 부지를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그 후 그녀의 흔적을 잃었다.

다시 그녀를 찾은 곳은 루앙이었다. 우리의 친구 데티그를 통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함정은 어떻게 준비되었고, 그녀는 어떻게 그 덫에 걸렸는지. 농부가 목초지에서 발견했다는 일곱 갈래 촛대라는 미끼에 이끌려서 말이다.

이제 그 여자의 실상을 아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녀를 법정에 세울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감히 짐작해 보십시오. 공판의 스캔들은 우리들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며, 우리의 작전이 모두 드러나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될 테니까요.

우리의 의무는, 비록 무겁고 두려운 것이더라도, 그녀를 스스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증오 없이, 하지만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엄격함으로 말입니다.

보마냥이 말을 멈췄다. 그의 기소 의견은 분노보다 더 위험한, 피고인인 그녀에게 치명적인 무게로 다가왔다. 그녀는 실제로 유죄였으며, 쓸데없는 살인 연쇄 속에서 거의 괴물처럼 보였다.

반면 라울 드 안드레시는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젊은 여자를 사랑했던 이 남자를 증오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전율하며 그 신성모독적인 사랑의 기쁨을 회상하는 것을 들으며 그는 더욱 분통을 터뜨렸다.

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여전히 미소 띤 표정으로 상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었군. 화형대를 준비한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릴 판단대로 될 테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공정한 심판 실행을 막지 못할 겁니다."

"심판? 누가 그 권리를 주었나요?" 그녀가 반문했다. "그런 일은 재판관이 하는 일입니다. 당신은 재판관이 아닙니다. 스캔들을 두려워해서라니요? 당신의 계획에 어둠과 침묵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가 입을 열었다.

"자유롭게? 당신의 죽음의 작업을 계속하게 둘 셈인가? 우리는 당신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오? 만약 당신들 중에 진정한 재판관, 즉 이성과 타당성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는 당신들의 바보 같은 비난과 일관성 없는 증거들을 보고는 웃을 거요."

"말장난이오! 구절구절이 다 말이오!" 그가 외쳤다. "우리가 필요한 건 반대 증거입니다. 우리 눈으로 본 증명을 무너뜨릴 무언가가 필요하죠."

"내가 변명할 필요가 있소? 당신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소."

"당신이 유죄이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오."

"당신과 같은 목표를 좇는 죄라면, 그래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저를 감시하러 와서 사랑의 연극을 벌이는 비열한 짓을 저지른 이유죠. 만약 당신이 스스로 함정에 빠졌다면, 그것은 당신의 탓이에요. 만약 제가 알고 있던 칼리오스트로의 문서 때문에 이미 존재를 알았던 그 수수께끼에 대해 당신에게 털어놓았다면, 그것 또한 당신의 탓이에요. 이제 저는 그 수수께끼에 사로잡혀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목표를 이루겠다고 맹세했어요. 당신과는 상관없이요. 이것이 바로 당신 눈에는 저의 유일한 죄인 셈이죠."

"당신의 죄는 살인입니다." 보마냥이 격분하며 말했다.

"저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생테베르를 절벽 아래로 밀어냈고, 이즈노발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생테베르? 이즈노발? 그들을 알지 못해. 오늘 처음 듣는 이름이야."

"나도! 나도!" 그가 격정적으로 외쳤다. "나도 모른다고? 나를 독살하려 하지 않았다고?"

그는 격분했다. 분노에 휩싸여 너로 부르며 소리쳤다.

"하지만 난 너를 봤어, 조제핀 발사모. 지금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봤지. 네가 독을 정리할 때, 네 미소가 사나워지는 것과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봤어… 저주받은 자의 일그러진 미소를."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가 아니었어."

그는 숨이 막힐 듯 놀랐다. 어떻게 그 용기가 났을까? 하지만 그녀는 차분하게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다시 말했다.

"증오가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켰군요, 보마냥. 당신의 열정적인 영혼이 사랑이라는 죄악에 반발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서둘러 주십시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스크바에서 1816년에 제작된, 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을 모델로 한 미니어처 초상화를 친구들에게서 빌려오십시오."

보마냥은 명을 따랐다. 남작에게서 미니어처를 건네받은 것이다.

"좋습니다.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제 초상화죠, 맞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답하십시오. 제 초상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내 초상화가 있다면, 그때 내가 살아있었다는 뜻이겠지? 팔십 년 전, 나는 스물다섯이나 서른쯤 되었겠군. 대답하기 전에 잘 생각해 보게. 어째 주저하는군, 이런 기적 앞에서는. 확언하지도 못하겠군. 하지만 더 놀라운 게 있어."

그녀가 계속했다. "이 미니어처 액자 뒤를 열어 보게. 도자기 뒷면에 다른 초상화가 하나 더 그려져 있을 거야. 미소 짓는 여자의 초상화지. 그녀의 머리는 눈썹까지 내려오는 보슬거리는 베일로 감싸여 있고, 그 너머로 물결치는 두 개의 앞머리가 보인다. 역시 나겠지?"

보마냥이 지시대로 행동을 취하는 사이, 그녀는 얇은 튤 천으로 된 가벼운 베일을 머리에 썼다. 가장자리는 눈썹선 바로 아래를 스칠 듯했고, 그녀는 매력적인 표정으로 눈꺼풀을 내렸다.

보마냥은 말을 더듬었다. 비교하며 말이다.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당신입니다……"

"좋아요. 오른쪽 옆에 적힌 날짜를 읽어보세요."

보마냥이 소리 내어 읽었다.

"밀라노에서 작성함. 1498년."

그녀가 되뇌었다.

"1498년! 사백 년 전이군요."

그녀는 거리낌 없이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또렷하고 맑게 울려 퍼졌다.

"당황한 표정 짓지 마세요." 그녀가 말했다. "사실 그 쌍둥이 초상화가 있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찾고 있었죠. 하지만 거기엔 기적 따위 없습니다. 제가 화가의 모델이 되어 사백 년을 산 것처럼 믿게 하려 하지 마세요. 아니, 이건 그냥 성모 마리아의 얼굴일 뿐이에요.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제자이자 밀라노 화가 베르나르디노 루이니의 '성가족' 중 일부에서 따온 복사본이죠."

그리고 갑자기 진지한 어조로, 상대가 입을 열 틈도 주지 않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내가 말하려는 바를 이해하셨죠, 보마냥? 루이니의 성모상, 모스크바의 소녀, 그리고 나. 이 세 가지 사이에는 잡히지 않지만 놀랍고도 부정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절대적인 닮음입니다.

세 얼굴이 하나입니다. 세 얼굴이 세 다른 여성의 것이 아니라, 같은 한 여성의 얼굴인 것이죠. 그럼 왜 다른 상황에서도 같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방에서 보셨던 여성이 내가 아니라, 당신을 속일 만큼 충분히 닮은 또 다른 여성일 수는 말입니다.

그 여성이 바로 당신의 친구인 생테베르와 드 이즈노발을 알고서 죽인 자일 수는 말입니다."

"저는 봤어요… 정말로 봤어요." 보마냥이 반박했다. 그는 그녀에게 닿을 듯 바짝 붙어 서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분노로 떨며 말을 이었다.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봤죠."

"당신의 눈은 스무 해 전의 초상화도 보고, 여든 해 전의 미니어처도 보며, 사백 년 전의 그림까지도 본단 말인가?"

그녀가 물었다. "그렇다면 그건 바로 나였다는 건가?"

그녀는 보마냥의 시선 앞에 자신의 젊은 얼굴을 내밀었다. 갓 피어난 듯한 아름다움, 눈부신 치아, 과일처럼 탱탱하고 연한 뺨. 보마냥은 기절할 듯 쓰러지며 외쳤다.

"아, 마녀여. 당신 때문에 이 터무니없는 일이 진짜인 것 같아질 때도 있구려. 당신이라는 여자 앞에서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으니 말일세."

"자, 이 미니어처 그림을 보시오. 드러난 어깨 맨 아래쪽, 하얀 가슴 피부 밑에 검은 점이 하나 있소. 그 점은 바로 당신의 어깨 아래에도 있소. 내가 직접 봤소. 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점을 보여 주시오. 그들이 똑똑히 보게 하시오. 그래야 믿을 테니까."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이마에서는 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다. 그는 여민 가슴 앞섶 쪽으로 손을 뻗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밀쳐 내고는, 매우 당당한 어조로 말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보마냥. 당신은 지금 자신이 무얼 하는지 몰라요. 몇 달째 그래 왔죠."

"방금 전 당신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신이 마치 제가 당신의 애인인 양 말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공개적으로 가슴을 치며 자책하는 것은 고귀한 일이지요. 하지만 그 고백은 진심이어야 하죠. 당신은 그 용기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부끄럽게 인정하는 것을 자존심이라는 악마가 막아냈고, 당신은 비겁하게도 사실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왔어요. 몇 달 동안 당신은 제 발 아래 엎드려 빌고 협박했지만, 단 한 번도 당신의 입술이 제 손을 스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행동과 증오의 모든 비밀입니다."

"저를 굴복시키지 못하자, 당신은 저를 파멸시키려 했군요. 그리고 당신의 친구들 앞에서는 저를 끔찍한 범죄자, 간첩, 그리고 마녀로 묘사합니다. 네, 마녀라고요! 당신 같은 인간은 실수할 수 없다는 당신의 말대로, 만약 당신이 실수했다면 그것은 마귀적인 주술의 소산일 뿐입니다.

보마냥, 당신은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조차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당신 방에서 저를 봤다고요? 당신을 독살할 가루약을 준비하는 모습을? 그럴 리가요. 당신의 눈을 믿을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눈은 제 모습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인은 당신의 눈앞에 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당신은 그 얼굴을 보지 않을 수 없었죠."

"네, 보마냥. 내가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 '다른 여자'가 문제야. 우리가 밟고 있는 이 길 위에 또 다른 여자가 있는 거지.

그녀는 칼리오스트로가 남긴 문서들을 물려받았고, 그가 쓰던 이름들을 그대로 쓰고 있어. 벨몬트 후작부인, 페닉스 백작부인 같은 이름으로 말이야.

보마냥, 그 여자를 찾아라. 네가 본 사람이 바로 그녀였어. 그리고 네가 내게 쏟아부은 거짓된 비난들은, 정신이 나간 사람의 가장 터무니없는 환각 위에 세워진 허무한 성에 불과해."

"자, 이런 건 다 아이들 장난 같은 연극일 뿐이야. 내가 너희 모두 가운데 평온하게, 먼저는 무죄한 여성처럼, 그리고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여성처럼 지낸 게 옳았지. 너희는 판사와 고문관처럼 굴지만, 결국 이 사업에 각자 이해관계가 있기는 해도 본질은 나 죽일 용기 없는 착한 사람들이야.

아마 보마냥처럼 나한테 두려움을 느끼는 광신도라면 모를까, 그렇다고 해도 너를 따를 처형인들이 여기 없잖아. 그럼 뭐할 거야? 나를 감금한다든가, 어두운 구석에 던져 넣는다든가? 재미있다면 그렇게 해라. 하지만 알아두게, 이 방에서 너희가 나가듯 난 어느 감옥이든 쉽게 빠져나올 수 있어. 그러니 판단하고, 선고해라. 나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겠어."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아 베일을 벗었다. 그리고 다시 팔꿈치를 괴었다. 이제 그녀의 역할은 끝난 것이다.

그녀는 격정을 섞지 않았지만, 깊은 확신과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태도로 말을 이었다. 그녀가 자신에게 가해진 혐의들을, 이 사건을 지배하는 불가사의한 장수설과 연결 지어 설명한 것이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도 분명 제 과거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소장을 작성하셨을 것입니다. 백 년 전의 사건을 서두에 배치해, 오늘날의 범죄로 이어지는 서사를 구성하셨겠지요. 제가 오늘의 사건에 연루된 것은, 바로 그 과거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신이 보신 그 여자라면, 저는 당신이 초상화로 보신 그 여자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라 답해야 할까. 보마냥은 입을 다물었다. 그의 패배로 대결은 끝났고, 그는 그 사실을 감추려 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그의 친구들도 더 이상 절박한 죽음의 결단을 앞둔 자들처럼 냉혹하고 경직된 표정을 짓지 않았다. 라울 드 안드레시가 분명히 느꼈다. 그들 안에 의문이 싹트고 있었다.

라울은 거기서 어떤 희망을 품었을 것이다. 고드프루아 데티그와 베네토가 해 둔 준비 작업에 대한 기억이 그 만족감을 가시게 하지만 않았더라면.

보마냥과 에티그 남작은 낮게 속삭였다. 그러자 보마냥이 다시 입을 열었다.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다는 듯, 이미 결론이 난 사람처럼 말이다.

친구 여러분, 재판의 모든 자료는 이미 눈앞에 있습니다. 기소 측과 변론 측 모두 마지막 말을 마쳤죠.

고드프루아 데티그와 제가 그 여자를 어떻게 단호하게 지목했는지, 그녀가 어떻게 치밀하게 자신을 방어했는지 보셨을 겁니다. 그녀는 용납할 수 없는 외모의 유사성을 방패 삼아 숨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재주와 악랄한 꾀임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상황은 매우 단순합니다. 이토록 강력한 적과 막대한 자원을 가진 상대는 결코 우리를 놓아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이미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녀는 하나둘 우리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필연적으로 우리의 파멸과 몰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곧 죽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우리가 고려해야 할 처벌은 오직 그에 상응하는 것뿐이라는 뜻일까? 아니다. 그녀가 사라지고, 다시는 무언가를 꾀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이상을 우리는 요구할 권리가 없다.

만약 우리의 양심이 너무 관대한 이 해결책에 반발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 어차피 우리가 여기 있는 목적은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함이니까.

"이제 우리가 세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하죠. 오늘 밤, 영국 배가 해안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대기할 예정입니다. 작은 보트가 그 배에서 나와 우리를 만나러 올 테고, 우리는 벨발의 바늘 바위 아래에서 밤 10시에 조우할 것입니다. 이 여성은 인도되어 런던으로 옮겨질 겁니다. 밤에 하선한 뒤 정신병동에 감금되어, 우리의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그곳에 머무를 것입니다. 이 방식이 인간적이고 자비로운 동시에, 우리의 사업을 보호하고 불가피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이 방식에 반대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울은 곧바로 보마냥의 속셈을 간파했다. 그는 생각했다.

"죽음입니다. 영국 배는 없습니다. 대신 작은 배 두 척이 있는데, 그 중 한 척은 구멍이 뚫려 있어 멀리 나갔다가 가라앉을 겁니다. 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은 사라지겠지요. 그녀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영영 모른 채로요."

이 계획의 이중성과, 은밀하게 제시된 방식이 라울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보마냥의 친구들이 어떻게 그를 지지하지 않겠어요? 그들은 확답을 요구받지 않았을 뿐이었으니까요. 침묵이 곧 동의였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으니, 보마냥은 고드프루아 데티그를 통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들은 그를 사형에 처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일행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출발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들은 놀랍도록 가벼운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다.

별다른 말도 오가지 않았다. 마치 사소한 이야기를 나눴던 친지들의 소모임이 끝나는 듯했다. 그중 몇몇은 근처 역에서 저녁 열차를 타야 했기 때문이다.

잠시 후, 그들은 모두 밖으로 나갔다. 보마냥과 두 사촌만 남았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라울을 당황하게 만든 일이었다.

한 여자의 생명이 자의적으로 내몰리고, 추악한 꾀를 써서 죽음을 얻었던 그 드라마틱한 심문은, 갑자기 끝장났다. 마치 연극이 논리적 결말보다 먼저 막을 내리는 듯했고, 재판이 심리 도중 판결을 선포하는 듯했다.

이런 식의 속임수 속에서 보마냥의 사악하고 구불거리는 본성이 라울 드 안드레시에게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냉혹하고 광신적인 인물이었다. 사랑과 자존심에 좀먹혀, 이미 죽음을 결심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양심의 가책과 비겁함, 위선, 그리고 흐릿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공존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양심은 물론, 아마도 법정의 심판 앞에서도 자신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

그가 택한 어두운 해결책은 바로 이 악명 높은 속임수를 통해 얻어낸 백지 위임장이었다.

그는 문턱에 서서, 죽어야 할 여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눈썹은 찌푸렸으며, 근육과 턱이 신경질적인 경련으로 떨리고 있었다. 팔을 꼬고 선 그 모습은 마치 낭만극의 한 장면처럼 약간은 과장된 포즈였다. 머릿속에서는 격렬한 생각들이 오가고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 그는 망설이고 있었을까?

어쨌든 그의 명상은 길지 않았다. 그는 고드프루아 데티그의 어깨를 잡더니 물러서면서 이렇게 명령했다.

"저 여자를 지켜라! 그리고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 알겠지? 안 그럼…"

이리저리 오가며 소동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은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사색에 잠긴 듯한, 그리고 평온함이 가득한 표정이 유지되고 있었다. 그 표정은 현재 처한 상황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았다.

'확실히, 그녀는 위험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군. 정신병원에 감금되는 것, 그것만이 그녀가 상상하는 전부야. 그리고 그런 전망에 대해 그녀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어.'

한 시간이 흘렀다. 저녁 그림자가 서서히 방 안을 뒤덮기 시작했다. 젊은 부인은 두 번이나 가슴에 달고 있던 시계를 확인했다.

그리고는 베네토와 대화를 시도했다. 순식간에 그녀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매혹적인 빛을 띠었고, 목소리에는 포근한 어루만짐처럼 마음을 울리는 선이 섞여 나왔다.

베네토는 굵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거친 표정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30분이 더 흘렀다.

조제핀이 안을 살폈다. 문이 살짝 벌어져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도망칠 수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다. 온몸이 도약할 준비를 하며 수축했다.

라울도 그녀를 돕는 방법을 궁리했다. 만약 권총이 있었다면, 그는 바로 베네토를 쏘았을 것이다. 방으로 뛰어드는 것도 생각해 봤지만, 구멍이 너무 작아 불가능했다.

한편, 무장한 베네토도 위기를 감지했다. 그는 저주하며 권총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단 한 번의 움직임이라도 보이면, 곧바로 쏜다. 신께 맹세한다!"

그는 그 맹세를 지킬 남자였다.

조제핀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공포에 질려 목이 조여왔다. 라울은 지치지도 않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녁 7시쯤, 고드프로아 드티그가 돌아왔다.

그는 등불을 켜고 오스카 드 베네토에게 말했다.

"모든 준비를 해두게. 헛간에 있는 들것을 가져오게. 그다음에 저녁을 먹으러 가."

그가 젊은 부인과 혼자 남았을 때, 남작은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다. 라울은 남작의 눈이 어둡게 변해 있고, 무언가 말하거나 행동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눈치챘다. 하지만 그의 말과 행동은 도망가고 싶은 것들이었다. 그래서 그의 공격은 거칠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부인," 그가 갑자기 말했다.

그녀는 이해하지 못하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니? 왜 이런 충고를?"

그러자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뜻대로 하세요…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경고해야 했어요…"

"무엇을 경고해야 했나요?" 그녀는 점점 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때때로," 그가 속삭였다. "당신이 밤중에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공포에 떨었다. 순간, 모든 상황이 그녀의 눈앞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팔이 열병에 걸린 듯 떨리며 허공을 저었다.

"죽다? … 죽다니? …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지? 보마냥은 그런 말 안 했어… 정신병원에 보내자는 거였잖아…"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제야 비로소 불쌍한 여자의 절규가 들렸다.

"아, 주님! 그가 나를 속였어요. 정신병원은 거짓말이에요… 다른 거예요… 그들이 나를 물에 빠뜨릴 거예요… 한밤중에… 오, 끔찍하다!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죽다니! … 제발 도와주세요!"

고드프루아 드티그는 어깨에 길게 접어 올린 담요를 들고 있었다. 그는 분노에 찬 폭력적인 손길로 담요를 젊은 여자의 머리에 뒤집어씌우고, 그녀의 비명을 막기 위해 손으로 입을 막았다.

베네토가 다시 돌아왔다.

두 사람은 함께 그녀를 들것 위에 눕혔다. 그리고 단단히 묶었다.

빈틈없는 판자 사이로 고리 철환이 지나가도록 말이다. 그 고리에는 무거운 돌덩이를 매달아야 했다.

제4장

어둠이 짙게 내려앉았다. 고드프루아 드티그는 램프에 불을 켜고, 두 사촌은 장례식 같은 밤을 보내기 위해 자리를 잡았다.

램프 불빛 아래 그들의 얼굴은 음울했다. 범죄의 생각이 그들의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럼 한 병쯤 가져올 걸 그랬어." 오스카 드베네토가 투덜거렸다. "할 일을 잊고 싶을 때가 있는 법이니까."

"이런 때가 아니다." 남작이 반박했다. "정반대다. 우리는 온갖 주의를 기울여야 해."

"재미없군."

"보마냥과 상의해서 네 도움을 거절했어야 했어."

"그럴 수 없지."

"그럼 내 말대로 해라."

또 시간이 흘렀다. 성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잠든 시골에서도 조용하기만 했다.

베네토가 포로에게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그러고는 돌아서며 말했다.

"울음소리조차 없다. 꽤 단단한 여자군."

그는 목소리에 숨은 두려움을 감추지 못한 채 덧붙였다.

"그 여자에 대한 소문, 다 믿느냐?"

"어떤 소문에?"

"나이가 어떻다든가… 과거의 그런 잡담들 말이야."

"헛소리일 뿐이지!"

"보마냥은 진지하게 믿고 있더군."

"보마냥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누가 아느냐?"

"그래도 인정해야 할 것 같지 않아, 고드프루아. 정말 기이한 일들이 많잖아. 그녀가 어제 태어난 여자가 아니라는 추측을 뒷받침하는 단서들이 너무 많아."

고드프루아 디티그는 중얼거렸다.

"그래, 분명히 그렇지. 내가 글을 읽을 때면, 마치 그녀가 그 시대에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말을 건네곤 했어."

"그럼 너도 믿는 거야?"

"그 정도는 돼.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자. 이미 내가 그 일에 휘말린 것만으로도 충분해.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거절할 수 있었다면… 정말 단호하게 거절했을 텐데! 하지만…"

고드프루아는 수군거릴 기분이 아니었다. 자신에게도 매우 불쾌한 화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베네토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나도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사소한 일만 있어도 나는 바로 도망갈 거야. 더구나 나 같은 직감이 들어, 우리가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는 걸. 내가 이미 말했지, 보마냥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걸. 우리는 그의 손바닥 위에서 장난감에 불과해. 언젠가, 더 이상 우리를 쓸모없게 되면 그는 우리를 가볍게 내던질 거야.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그가 이 사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처리해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

"그렇지만…" 베네토가 반박했다.

고드프루아는 그의 입에 손을 얹고 속삭였다.

"입 다물어. 그녀가 듣고 있어."

"상관없잖아." 다른 쪽이 말했다. "방금 전에…"

그들은 더 이상 침묵을 깨뜨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가끔 교회 시계가 울리면, 서로를 바라보며 입술로 종소리를 세었다.

열 번째 종소리가 울리자, 고드프루아 드티그스가 테이블을 향해 거친 주먹질을 날렸다. 그 충격으로 램프가 튀어 올랐다.

"젠장, 이제 움직여야 해."

"아, 정말 치욕스럽군. 우리가 혼자 가는 거야?"

"다른 놈들도 따라오려 하지만, 절벽 위까지만 보내고 말겠어. 그들이 영국 배를 믿고 있으니까."

"나는 다 같이 가는 게 낫다고 봐."

"입 다물어. 명령은 우리 둘만 해당되는 거야. 게다가 다른 놈들이 수다를 떨면…… 말도 못 할 지경이 될 거야. 어, 저자들이 오는군."

나머지 세 명은 기차를 타지 않았다. 오르몽, 루 드스티에르, 롤빌이었다. 그들은 마구간용 등불을 들고 왔지만, 남작이 그 불을 끄라고 명했다.

"불은 다 끄자. 절벽 위를 걷는 빛이 보이면 사람들이 수군대게 될 테니까."

"하인들은 모두 잠들었나?"

"클라리스는요?"

"그녀는 방을 떠나지 않았다."

"그렇군." 남작이 말했다. "오늘 그녀는 좀 컨디션이 안 좋은 모양이야. 자, 출발하자!"

드오르몽과 롤레빌이 들것의 손잡이를 잡았다. 그들은 과수원을 지나 논밭으로 들어섰다. 마을에서 신부 계단으로 이어지는 시골길을 따라가기 위해서였다.

하늘은 별 하나 없이 캄캐했다. 행렬은 더듬거리며 걸었다. 길의 요철과 측단턱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다. 욕설이 터져 나왔지만, 고드프루아의 분노에 곧바로 먹혀들었다.

"소리 좀 내지 말게, 이 자식들! 우리 목소리가 들킬 수도 있어."

"누가 보겠어, 고드프루아? 아무도 없어. 세관 직원들을 막으려면 충분히 준비했지?"

"그래. 그들은 주막에 있어. 내가 확신하는 한 남자가 대접하고 있다고. 그래도 순찰이 있을 수도 있어."

절벽은 오목하게 패여 길이 그 함몰된 부분을 따라 이어졌다. 간신히 그 지점에 다다랐을 때, 비탈진 계단의 시작점이 나타났다. 이 계단은 예전에 베누빌의 신부가 주민들이 해변까지 직접 내려갈 수 있도록 바위 절벽을 깎아 만든 것이다. 낮에는 하얀 백악층에 뚫린 구멍들로 빛이 들어와, 파도가 바위를 치는 바다를 향해 탁 트인 경치를 선사한다. 그곳에 서 있으면 마치 바다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다.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군요." 롤빌이 말했다. "우리가 도와드릴까요? 빛도 비춰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남작이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서로 헤어지는 게 안전합니다."

다른 이들은 남작의 말에 따르며 자취를 감췄다. 두 사촌은 시간을 아끼지 않고, 어렵고 위험한 하산 작업을 시작했다.

길고 지루한 오름이었다. 계단 높이가 꽤 높았고, 코너는 때때로 급격해 들것이 지나가기에도 공간이 부족했다. 그럴 때마다 들것을 똑바로 세워야 했다. 손전등 불빛도 간헐적으로만 비추어 길을 더듬게 했다.

오스카 드 베네토는 좀처럼 분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거칠게 다듬어지지 않은 지주로서의 본능에 따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바깥으로 던져버리자고 제안했다. 말하자면 절벽 구멍 중 하나로 던져버리는 것이었다.

드디어 그들은 자갈이 고운 해안가에 도착해 숨을 돌릴 수 있었다. 멀리서 두 개의 배가 서로 가까이 나란히 놓여 있는 모습이 보였다. 바다에는 잔물결조차 없이 고요했고, 배의 선체가 물에 잠겨 있었다.

베네토는 두 배 중 더 작은 배에 자신이 파놓은 구멍을 가리켰다. 그곳은 임시로 짚 마개로 막혀 있었다. 그들은 들것을 배 안의 세 개의 좌석 위에 올려놓았다.

"전체를 단단히 묶어두자." 고드프루아 디티그가 명령했다.

베네토가 지적했다.

"만약 조사가 시작되어 바다 밑바닥에서 이 일이 드러나면, 이 들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증거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절대 발견되지 않도록 우리가 충분히 멀리 나가는 게 중요해. 게다가 이 배는 이미 이십 년 전부터 쓸모없는 낡은 것이라서, 내가 버려진 창고에서 꺼낸 거야. 걱정할 것 없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어, 베네토는 그토록 당황한 고드프루아를 본 적이 없었다.

"고드프루아, 너 뭐야?"

"나? 내가 뭐가 어때서?"

"그럼 대체?"

"그럼, 배를 저어 나가자고. 하지만 보마냥의 지시에 따라, 먼저 그 여자의 입에 막힌 것을 빼고, 그녀가 표현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지 물어봐야 해. 너 할 수 있겠어?"

베네토는 더듬거렸다.

"만진다고? 본다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텐데… 너도?"

"나도 못 해… 정말 못 해…"

"하지만 그 여자는 유죄야… 그녀가 죽였거든…"

"네… 맞아요. 적어도 그럴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그녀가 너무도 부드럽게 보이니까요…"

"맞아요, 베네토가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너무도 아름다워요. 성모님처럼요."

그들은 곧바로 자갈밭에 무릎을 꿇었다. 죽어가는 그녀를 위해, 그리고 그녀에게 '성모 마리아의 간청'이 미치기를 빌며 큰 소리로 기도했다.

고드프루아가 구절과 기도를 읊조리면, 베네토가 무작위로 간절한 아멘을 섞어 장단을 맞췄다. 그 소리가 두 사람에게 조금의 용기를 불어넣어 준 듯했다. 그들은 급히 몸을 일으켜, 모든 일을 끝내버리려 안간힘을 썼다.

베네토는 미리 준비해 둔 거대한 바위를 가져왔다. 그는 그것을 철 고리에 단단히 묶은 뒤, 잔잔한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배를 밀어냈다. 이어 두 사람은 힘을 합쳐 다른 한 척의 배를 미끄러지듯 물가로 끌고 들어가 그 안으로 뛰어올랐다.

고드프루아는 노를 두 개나 잡았고, 베네토는 밧줄을 이용해 죄수의 배를 뒤에서 끌고 갔다.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다. 노젓는 소리가 가늘어졌고, 물방울이 떨어지는 시원한 소리가 밤바다에 울려 퍼졌다.

어둠은 그들을 감쌌다. 하지만 그 덕분에 바위 사이를 대략적으로 피할 수 있었고, 그들은 넓은 바다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하지만 스무 분이 지났을까. 배는 점점 느려졌다. 그리고 결국 멈춰 섰다.

"더 이상… 못 해."

남작이 기절할 듯이 중얼거렸다. 팔이 힘을 잃었다.

"네 차례야."

"나도 힘을 못 써."

베네토가 인정했다.

고드프루아는 다시 한번 시도해 보았다. 하지만 이내 포기하고 말했다.

"소용이 없어. 우리는 분명히 바다가 끝나는 선을 훨씬 넘어섰을 거야. 네 생각도 그래?"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였다.

"게다가 바람이 불고 있어. 그 바람이 배를 그 선보다 더 멀리 밀어낼 거야."

"그럼 짚마개를 빼."

"네가 해야 할 일이지." 베네토가 반발했다. 그 손짓이 살인자의 동작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 그만해. 끝내자고."

베네토가 밧줄을 당겼다. 킬이 그의 바로 옆으로 흔들리며 내려왔다. 이제 그는 몸을 굽혀 손을 넣기만 하면 되었다.

"두려워요, 고드프루아. 제 영혼의 구원을 걸고 말하지만,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고드프루아는 그에게로 달려가 그를 밀쳐내고, 배 가장자리 너머로 몸을 숙였다. 그리고 손을 깊숙이 집어넣어 단숨에 마개를 뽑아냈다.

물웅덩이가 끓어오르듯 '글루글루'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고드프루아는 큰 충격을 받아 순식간에 마음이 바뀌었다. 그는 그 구멍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베네토가 노를 잡았다. 그는 놀란 나머지 들었던 소리에 자신도 깜짝 놀랐지만, 기력을 되찾고는 거센 힘을 들여 노를 저었다. 그 결과 두 배 사이에는 몇 미터의 간격이 벌어졌다.

"멈춰! 멈춰라! 내가 그녀를 구해야 해! 멈춰, 신의 이름으로! …아, 바로 네가 그녀를 죽이는 거야… 살인자, 살인자… 내가 구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베네토는 공포에 질려 정신이 흐릿해졌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도 못한 채 노를 저었다. 노가 부러질 듯 힘껏 저었다.

시체는 혼자 남았다. 배를 타고 있던 그 존재를 다른 말로 부를 수 있었겠는가? 그는 움직일 수도, 저항할 수도 없는 채 죽음을 향해 내몰리고 있었다.

몇 분 안에 배 안으로 바닷물이 차오를 것은 자명했다. 가느다란 배는 가라앉을 것이었다.

고드프루아 디티그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결심한 듯 노를 하나 집어 들었다. 들킬까 봐 걱정할 겨를이 없었다. 두 공범자는 절

망적인 힘으로 몸을 굽혀, 저지른 범죄의 현장에서 최대한 빨리 도망쳤다.

그들은 누군가의 비명이나, 가라앉는 것의 끔찍한 속삭임, 그리고 다시는 열리지 않을 물결의 소리를 듣게 될까 봐 두려워했다.

배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물결 위로 흔들리고 있었다. 하늘은 매우 낮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공기는 온몸을 누르는 듯한 무거움을 느끼게 했다.

디티그와 오스카 드 베네토는 이미 절반쯤 돌아온 참이었다. 모든 소음이 멈췄다.

그때 배가 우현으로 기울었다. 절망적인 무기력 속에 죽어가는 듯한 여자는, 모든 것이 끝장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몸부림치지 않았다. 반항하지도 않았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이미 저승에 와 있는 듯한 기분에 빠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녀는 얼음물과 닿아도 떨리지 않는 자신에게 의아함을 느꼈다. 그녀의 여인으로서의 본능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바로 그거였다. 배는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누군가 배 가장자리를 넘어선 듯, 뒤집힐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다.

누구인가? 남작인가? 공범인가?

그녀는 둘 중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낯선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구하러 온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그녀 위로 몸을 숙였다. 그녀가 들었는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곧장 말을 이었다.

"당신은 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라울입니다. 라울 드 안드레지. 이제 다 됩니다. 나무 조각에 천을 감아 구멍을 막았습니다. 임시방편이지만, 당분간은 충분할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저 거대한 자갈을 치워버릴 테니까요."

그는 칼로 젊은 여자를 묶었던 밧줄을 잘랐다. 그리고 그 거대한 자갈을 들어 올리는가 하면, 마침내 던져버렸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감싸고 있던 담요를 걷어내고,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일이 제 예상보다 훨씬 잘 풀렸고, 이제 당신을 구했습니다. 물이 당신에게까지 차오르지 않았죠? 정말 운이 좋네요. 다치지는 않았나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들리나 마나 할 만큼 희미한 목소리였다.

"네… 발목이요. 그들이 묶어둔 줄이 발을 비틀게 했어요."

"별일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지금은 해안으로 나가는 게 중요해요. 당신을 괴롭히던 두 놈은 분명히 뭍에 닿았을 테고, 지금 급하게 계단을 오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아무 걱정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재빨리 준비를 마쳤다. 바닥에 미리 숨겨둔 노를 주워 배 뒤쪽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는 신나게 노를 저으며,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 즐거운 소풍 중일 때처럼 경쾌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다.

"먼저는 좀 더 정중하게 인사드려야겠군요. 비록 제 모습은 좀 난잡하지만요. 입고 있는 건 제가 직접 만든 수영 팬티 하나뿐이고, 거기에 칼도 매달아 뒀습니다. ……그래서, 라울 드 안드레지입니다. 당신의 하인이지요. 우연이 허락해 주셨으니까요."

"아, 정말 간단한 우연이었죠. 우연히 들은 대화 하나요. 누군가가 특정 여성을 노리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해변으로 내려가서, 두 사촌이 터널에서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저는 물속으로 들어갔죠. 배가 끌려가기 시작한 직후, 저는 그 배에 매달릴 기회를 엿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희생자를 데려가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정작 그들은 수영 실력자이자 그녀를 구하기 위해 결심한 제가 함께 타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죠."

"여기까지가 제 설명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은 제가 공허한 곳에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잠시 멈춰 섰다.

"저는 아파요. 지쳤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가 대답했다.

"조언 하나 드리죠. 의식을 잃으세요. 의식을 잃는 것만큼 몸이 편안해지는 게 없으니까요."

그녀는 그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몇 차례 신음 소리가 난 뒤, 그녀의 숨결은 고요하고 규칙적으로 변했다. 라울이 그녀의 얼굴을 덮어주고는 다시 출발하며 덧붙였다.

"더없이 좋은 방법이지. 나는 어디까지나 자유로운 입장이야.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는 스스로의 행동과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만족하는 사람처럼, 혼자 중얼거리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의 손길에 힘입어 보트는 빠르게 앞으로 나아갔다. 절벽의 큰 덩어리가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다.

키의 철제가 자갈 위에서 삐걱거릴 때, 그는 뛰어내렸다. 그리고 젊은 여자를 가볍게 들어 올렸다. 그의 근육이 얼마나 튼튼한지 증명이라도 하듯, 그 동작은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그는 그녀를 절벽 기슭에 내려놓았다.

"복싱 챔피언이기도 하고, 레슬링 챔피언이기도 하지." 그가 말했다. "당신이 내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솔직히 말해볼까. 이

재능들은 모두 아빠의 유산에서 물려받은 거야. 그리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재능이 더 있겠어? 하지만 이런 헛소리는 그만하자."

"여기서 좀 쉬어라. 이 바위 아래는 파도로부터 안전하니까."

"나는 다시 떠날 거다. 두 사촌에게 복수할 계획이 있겠지? 그 일을 위해서는 이 배가 발견되지 않아야 해.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이 정말로 물에 빠져 죽었다고 믿어야 하지. 그러니 조금만 인내해."

라울 드 안드레시는 망설임 없이 자신이 말한 대로 행동을 옮겼다. 다시 배를 바다 한가운데로 몰아간 그는, 옷으로 만든 마개를 빼낸 뒤, 배가 가라앉을 것을 확신하며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가 다시 해변에 돌아왔을 때, 그는 바위 틈에 숨겨둔 옷가지를 찾아냈다. 그리고 물에 젖은 듯한 수영복 같은 옷을 벗어던지고, 다시 옷을 입었다.

"자, 갑시다." 그는 젊은 여성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저기 위쪽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녀는 점차 의식을 되찾고 있었다. 등불의 밝은 빛 속에서, 그녀가 눈을 뜨는 것을 그는 보았다.

그녀는 그의 도움을 받아 일어서려 했지만, 극심한 통증에 비명조차 새어나왔고 그녀는 기력을 잃고 다시 쓰러졌다.

그가 그녀의 구두끈을 풀자, 즉시 양말이 피로 뒤덮인 것이 보였다. 치명상은 아니었지만, 그녀를 몹시 아프게 하는 상처였다.

라울은 손수건으로 발목을 임시로 감고, 즉시 떠날 결심을 했다.

그녀를 어깨에 메고 그는 계단 오르기 시작했다. 350계단이나 되는 길이었다. 고드프로아 드티그와 베네토가 내려올 때나 고생했는데, 그 역방향의 등반은 더욱 가혹했다. 게다가 오르는 이는 한 소년에 불과했다.

땀으로 흠뻑 젖은 그는 네 번이나 멈춰 서야 했다.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여전히 좋은 기분을 유지하며 걸었다. 세 번째 쉼터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앉더니 그녀를 무릎 위에 눕혔다. 그녀는 그의 농담과 끝없는 활기에 웃으며 반응하는 것 같았다.

그는 이렇게 해서 매력적인 그녀의 몸을 가슴에 꼭 안고, 손끝으로 느껴지는 유연한 곡선을 느끼며 정상으로 올라갔다.

정상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쉬지 않았다. 평원을 쓸어가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이다. 그는 젊은 여성을 안전한 곳으로 빨리 데려가고 싶었다. 그는 힘차게 들판을 가로질러, 처음부터 목표로 삼았던 외딴 초가 헛간까지 그녀를 안고 달려갔다.

그는 사태에 대비해 미리 그곳에 찬물 두 병과 코냑, 그리고 몇 가지 음식을 준비해 두었다.

그는 사다리를 박공벽에 기대어 세우고, 다시 짐을 들어 안은 뒤, 닫혀 있던 나무 판을 밀어 넣었다. 그러곤 사다리를 다시 내렸다.

"열두 시간 동안은 안전하고 잠들 수 있어요.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할 거예요. 내일 정오쯤 되면 마차를 구해서, 원하시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죠."

이렇게 그들은 가장 극적이고도 놀라운 모험의 여파로, 서로 가까이 붙어 갇히게 되었다. 이제 그 날의 끔찍했던 장면들은 모두 멀리 사라진 듯했다. 종교재판소, 냉혹한 재판관들, 음산한 고문관들, 보마냥과 고드프로아 드티그, 선고, 바다로 내려가는 길,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보트. 그것들은 이미 지워진 악몽들이었고, 이제 그 여운은 구원자와 희생자의 밀착된 공간에서 조용히 마무리되고 있었다.

들보에 매달린 램프의 불빛 아래, 그는 젊은 여자를 다락방의 건초 더미 위에 눕혔다. 상처를 치료하고, 물을 먹였으며, 상처 부위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보호 아래, 함정에서 벗어났고, 적으로부터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던 조제핀 발사모는 온전히 신뢰를 맡겼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잠들었다.

램프 빛은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온전히 비췄다. 수많은 감정의 열기가 그녀의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라울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다락방의 무더위에 몸이 무거워

진 그녀는 가슴 위쪽의 옷을 살짝 열어젖혔고, 라울은 완벽한 선을 이룬 조화로운 어깨와 가장 순수한 목선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보마냥이 언급했던, 미니어처 초상화에 있던 검은 표징을 떠올렸다. 자신이 구해 준 여자의 가슴에도 과연 그와 똑같은 표징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은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겠는가.

천천히 그는 옷감을 치웠다. 오른쪽, 피부 위에 검은 점이 하나 있었다. 예전 사교계 여성들이 얼굴에 붙이던 '파리'처럼 까맣고 윤기 나는 그 점은 하얗고 부드러운 살결 위에 자리 잡고, 고요한 호흡의 리듬에 맞춰 살며시 움직이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요? 당신은 누구라고요?"

그는 심란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당신은 대체 어느 세계로부터 온 것이오?

그 역시 다른 이들처럼 알 수 없는 당혹감을 느꼈다. 그 여자와 그녀의 삶, 그리고 외모의 몇몇 디테일에서 풍겨 나오는 신비로운 기운이 그를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의지와 상관없이 그녀를 향해 질문을 던졌다. 마치 이 젊은 여인이 과거 미니어처 초상화의 모델이었던 그 여자의 이름을 대답해 줄 것처럼.

입술이 그의 귀에는 낯선 말들을 내뱉었다. 그는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입술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 있었고, 입술 사이로 새어 나오는 숨결은 너무도 달콤했다. 그는 떨리는 입술로 그 입술을 가볍게 스쳤다.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눈꺼풀이 살짝 열렸다. 무릎을 꿇고 있는 라울을 본 그녀는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동시에 미소도 지었다. 그 미소는 무거워진 눈꺼풀이 다시 내려앉고, 그녀가 다시 잠들 때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라울은 미쳐버린 듯했다. 갈망과 경외감에 가슴이 설레는 대로, 그는 우상 앞에서 합장하듯 손을 모으며 열정적이고 광기 어린 찬가의 내용을 속삭였다.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인생에 이토록 아름다운 것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더 이상 웃지 마세요… 당신을 울리고 싶게 만드는 마음이 이해가 가요. 당신의 미소는 사람을 어지럽게 만들죠… 아무도 다시는 보지 못하게 그 미소를 지워버리고 싶어요… 오, 제발 저에게만 웃어 주세요… 간청하오."

그리고 더 낮은 목소리로, 열정적으로 말했다.

"조제핀 발사모라… 그 이름이 얼마나 달콤한지. 당신을 더 깊고 신비롭게 만들었구려."

"마녀라니, 보마냥이 그렇게 말했나?"

"아니야. 유혹자지. 당신은 어둠 속에서 나타나지만, 빛이자 태양 같소. 조제핀 발사모, 마법사요, 요부요.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여! 내가 바라보는 모든 행복이여!"

"내 삶은 당신을 품에 안은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소. 이제 당신 외에는 기억할 것도, 당신 외에는 바라는 것도 없소. 주여, 주여!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절망에 눈물이 날 지경이오."

그는 그녀에게 바싹 다가가 속삭였다. 입술이 거의 맞닿을 만큼 가까웠지만, 그가 허용한 유일한 스킨십은 살짝 건넨 입맞춤이 전부였다.

조제핀 발사모의 미소에는 쾌락만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깊은 청순함이 함께했기 때문이다. 라울은 그 청순함에 깊은 존경심을 품었고, 고조되던 열정은 진지하고 젊은 헌신을 담은 말로 가라앉았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들이 당신에게 무슨 일을 저지르려 해도, 저는 막아내겠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목표를 당신도 달성할 수 있도록, 저는 반드시 성공시켜 드리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든 곁에 있든, 저는 늘 당신을 지키고 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 헌신을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는 의미 없는 약속과 맹세를 중얼거리며 잠들었다. 깊은 잠, 꿈도 없이 거대한 잠이었다. 과로한 어린 몸이 다시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잠처럼.

종소리가 열한 번 울렸다. 교회 시계 소리였다. 그는 하나하나 세어 가며 놀라움을 더해갔다.

"오전 열한 시라니, 가능할 리가."

낡은 초가지붕 아래 틈새와 덧문 틈으로 낮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햇살까지 비쳤다.

"도대체 어디 있소?"

그가 말했다.

"보이지 않소."

램프는 꺼져 있었다. 그는 덧문 쪽으로 달려가 그것을 당겼다. 방 안이 밝아졌다.

그때 그는 조제핀 발사모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는 건초더미로 달려가 건초를 치우고, 격분한 듯 아래층으로 통하는 뚜껑문으로 던졌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조제핀 발사모는 사라진 뒤였다.

그는 내려가 과수원을 뒤지고, 가까운 들판과 길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헛수고였다. 다쳤지만 발을 땅에 붙일 수 없었던 그녀가 어떻게 그 피신처를 빠져나와 땅에 뛰어내려, 과수원과 들판을 가로질러 도망쳤는지 알 수 없었다.

라울 드 안드레시는 정밀 조사를 위해 다시 창고로 돌아갔다. 그는 오래 찾을 필요가 없었다. 바닥 위에 직사각형 판지 한 장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그것을 들어 올렸다. 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의 사진이었다. 뒷면에는 연필로 두 줄의 글이 적혀 있었다.

내 구원자에게 감사를 표하라. 하지만 나를 다시 만나려 하지 말라.

제5장

어떤 동화 속 주인공은 기막힌 모험에 휘말리다, 결말에서 자신이 그저 꿈의 장난감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곤 한다. 라울도 어제 숨겨두었던 자전거를 언덕 뒤에서 찾아냈을 때, 문득 자신이 연이어 이어진 꿈결에 흔들린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그 꿈은 때로는 재미있고, 때로는 풍광이 아름다웠으며, 때로는 무서웠지만, 결국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라울을 오래 머물게 하지 못했다. 손안의 사진이 그 진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조제핀 발사모의 입술에서 빼앗은 그 열정적인 키스의 기억이 그를 더욱 단단히 붙들고 있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었다.

그때까지 그는 단 한 번도 이렇게 명확하게 클라리스 드티그와, 어제 아침의 그 달콤했던 시간들을 떠올린 적이 없었다. 그는 그 사실을 깨달았지만, 곧바로 죄책감을 떨쳐냈다.

라울의 나이쯤 되면 이런 무감각함과 마음의 모순은 쉽게 정리된다. 마치 두 개의 존재로 나뉘어, 하나는 미래의 몫을 남겨둔 채 무의식적인 상태로 사랑을 계속하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열정의 모든 격정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이다.

클라리스의 모습은 흔들리는 촛불이 있는 작은 예배당 깊숙한 곳처럼 흐릿하고 고통스럽게 떠올랐다. 그는 가끔 그곳에서 기도하듯 그녀를 떠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은 갑자기 유일한 숭배 대상이 되어 버렸다. 그녀는 포악하고 질투심 강한 여신으로, 그가 자신에게 단 하나의 생각이나 비밀도 감추지 못하게 했다.

라울 드 안드레시. 아르센 뤼팽의 이름을 빛나게 할 인물이니, 이렇게 부르자. 라울 드 안드레시는 사랑이란 것을 한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사실, 그는 사랑할 시간조차 부족했을 뿐 아니라, 적절한 기회도 만나지 못했다.

그는 야망에 불타올랐다. 하지만 그 꿈, 즉 명성과 부, 권력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수단을 통해 실현될지 알지 못했다. 운명의 부름에 즉각 응답할 준비를 하기 위해 그는 사방팔방으로 에너지를 쏟았다.

지능과 재치, 의지, 신체적 재능, 근력, 유연성, 지구력. 그는 자신의 모든 재능을 한계까지 갈고닦았다. 자신의 노력이라는 힘이 한계를 계속 밀어붙일 때마다, 그는 스스로의 성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살아야 했다. 그는 마땅한 생계수단이 없었다. 고아로, 세상에 혼자 남은 채, 친구도, 인맥도, 직업도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살아남았다. 어떻게? 그에게도 명확한 답이 없었고, 스스로 깊이 파고들지도 않았다.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법일 뿐이었다. 상황에 따라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대처하는 것이다.

'운은 내 편이야.'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앞으로 나아가자. 될 일은 다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멋진 일이 벌어질 거야.'

그때 그의 앞에 조제핀 발사모가 나타났다. 그는 곧장 그녀를 손에 넣기 위해, 자신이 쌓아온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야겠다고 느꼈다.

그에게 조제핀 발사모는, 보마니안이 친구들의 불안한 상상력 앞에 그려냈던 '지옥의 괴물'과는 전혀 다른 존재였다. 피비린내 나는 그 모든 광경, 범죄와 배신을 위한 그 모든 도구, 마녀의 가식적인 옷차림들은, 그가 바라보던 아름다운 사진 앞에서 꿈결처럼 사라졌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의 맑은 눈과 순수한 입술이 담겨 있었다.

"내가 다시 찾아갈 거야." 그는 그녀를 입맞춤으로 덮으며 맹세했다.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그리고 가장 순종적이고 가장 사랑받는 내 여인이 될 거야. 너의 신비로운 삶을 나는 열린 책처럼 읽을 수 있을 거야. 너의 예지력, 기적, 놀라운 젊음. 다른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고 놀라게 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우리가 함께 웃을 만한 기교일 뿐이야. 너는 내 거야, 조제핀 발사모."

라울은 그 맹세가 얼마나 거만하고 무모한지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 속으로는 조제핀 발사모가 여전히 그를 위압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어떤 짜증마저 느끼고 있었다. 마치 대등해지고 싶지만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 굴복해야 하는 아이처럼 말이다.

이틀 동안 그는 여관 1층 방에 틀어박혔다. 방 창문으로는 사과나무가 가득한 안마당이 내려다보였다.

그는 명상과 기다림의 나날을 보냈다. 그 후 노르망디 시골길을 거닐며 오후를 보냈다. 바로 그곳에서 조제핀 발사모를 만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그녀가 파리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끔찍한 시련으로 온몸이 상한 그녀였지만, 살아남았다면 죽은 줄 알아야 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그녀를 죽었다고 믿어야 했다.

또한 그들을 복수하기 위해서도, 그들이 정한 목표를 그들보다 먼저 달성하기 위해서도 그녀는 전장을 떠나서는 안 되었다.

그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라울은 방 테이블 위에 4월 꽃다발을 발견했다. 빙카, 수선화, 앵초, 그리고 카우슬립이었다. 그는 여관 주인에게 물었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녀야.'

그가 방금 그녀가 따다 놓은 꽃들을 입맞춤하며 생각했다.

그는 나흘 연속으로 마당 끝, 창고 뒤에 숨어 기다렸다. 발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매번 실망했고, 그 실망은 진정한 고통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넷째 날 오후 5시, 마당 둑을 덮은 나무와 덤불 사이에서 천 옷이 스치는 소리가 났다. 한 여자의 치마 자락이 지나갔다. 라울은 뛰어나갈 듯 몸을 움직였다가, 곧 자신을 억누르고 분노를 다스렸다.

그는 클라리스 드티그를 알아봤다.

그녀의 손에는 다른 것과 정확히 똑같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과 1층 창문 사이의 거리를 가볍게 건너뛰어 창문 밖으로 팔을 내밀고 꽃다발을 내려놓았다.

그녀가 다시 돌아서자, 라울은 그녀의 정면을 보게 되었고 그녀의 창백함에 깜짝 놀랐다. 그녀의 볼에서는 생기 있던 빛이 사라졌고, 눈가의 다크서클은 그녀의 슬픔과 긴 밤의 불면증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너를 위해 많이 고통받겠어."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고통이 그렇게 빨리 시작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가 라울에게 자신을 맡긴 바로 그날이 작별과 이해할 수 없는 버림의 날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는 그 예언을 떠올렸다. 자신이 그녀에게 해로운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다. 자신의 기대가 배신당했다는 분노, 그리고 꽃을 든 소녀가 자신이 기다리던 사람이 아니라 클라리스라는 사실에 격분했다. 결국 그는 그녀를 떠나보냈다.

하지만 그 귀중한 단서는 클라리스에게서 나왔다. 행복의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무너뜨린 클라리스였다. 그 단서 덕분에 그는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한 시간 뒤, 그는 문고리에 편지가 묶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봉인을 뜯고 읽어보니 다음과 같았다.

"내 사랑, 이미 끝난 거야? 그렇지 않지? 이유 없이 울고 있는 게 아니야? … 너는 이미 클라리스에게 싫증이 난 건 아니겠지?"

"제 사랑, 오늘 밤 그들은 모두 기차를 타고 내일 밤 늦게야 돌아와요. 당신도 오죠? 또 울게 내버려두진 않겠죠… 오세요, 제 사랑…"

슬픈 글줄들이여!… 라울은 그 글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예고된 여행을 생각하며, 보마냥이 한 이 비난을 떠올렸다. "내가 곧 디에프 근처의 한 저택을 철저히 조사할 것임을 그녀에게 알렸으니, 그녀는 급히 그곳으로 향했다…"

그것이 이번 출장의 진짜 목적이 아니었을까? 라울에게 있어, 이 일에 개입해 사건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아니었을까?

그날 저녁, 일곱 시. 그는 해안가의 어부처럼 차려입고, 얼굴을 붉게 물들이는 황토색 물감으로 뒤덮어 정체를 숨긴 채 기차에 올랐다. 기차 안에는 에티그 남작과 오스카 드 베넷토도 타고 있었다. 그들은 두 번이나 갈아타고, 작은 시골 역에서 내려 하룻밤을 묵었다.

다음 날 아침, 드오르몽, 롤빌, 루 도스티에 세 사람이 마차를 몰아 두 친구를 데리러 왔다. 라울도 그 뒤를 바싹 따라붙었다.

십 킬로미터쯤 갔을까. 마차는 오래된 저택, 구르 성 앞마당에서 멈췄다. 성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라울은 정원에서 일꾼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들은 산책로와 잔디밭의 흙을 갈아엎느라 여념이 없었다.

열 시가 되자. 현관 계단에서 시공사 측이 다섯 명의 주주들을 맞았다. 라울은 눈에 띄지 않게 들어와 일꾼들 틈에 섞여 그들에게 물었다.

그는 구르 성이 롤빌 후작에게 새로 인수되었고, 오늘 아침부터 내부 정비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라울은 시공사 측 한 사람이 남작에게 대답하는 소리를 들었다.

"네, 맞습니다, 각하.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희 일꾼 중 땅을 파다가 동전이나 철, 구리 같은 금속류를 발견하면, 모두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보상을 드리죠."

이 모든 땅을 파헤치는 소동이,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한 것임은 자명했다. 하지만 그 무언가가 대체 무엇일까? 라울은 의문을 품었다.

그는 공원을 거닐며 저택 한 바퀴를 돌았고, 지하실까지 들어가 살펴보았다.

열한 시 반이 되도록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하지만 어서 움직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그의 머릿속에서 점점 강하게 밀려왔다. 더 이상 늦어지면 다른 쪽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가능성이 커졌고, 그는 이미 결정된 사실을 마주하게 될 위험이 있었다.

그때, 다섯 친구 무리는 저택 뒤쪽에 있는 넓은 광장에 서 있었다. 광장은 공원을 내려다보도록 높게 자리 잡고 있었다. 가장자리에는 난간이 달린 낮은 담장이 둘러쳐 있었고, 그 담장에는 군데군데 벽돌 기둥 열두 개가 서 있었다. 기둥 위에는 오래된 석조 화분이 놓여 있었는데, 대부분이 깨져 있었다.

한 무리의 일꾼들이 곡괭이를 들고 벽을 부수기 시작했다. 라울은 주머니에 손을 쑤셔 넣고 담배를 문 채, 그 광경을 생각에 잠겨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의 존재가 이곳에서 이상하게 비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고드프루아 드에티그는 종이에 담배를 말고 있었다. 성냥이 없던 그는 라울에게 다가가 불을 청했다.

라울이 자신의 담배를 내밀자, 상대가 불을 붙이는 사이 라울의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계획이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었다. 그것은 즉흥적이면서도 매우 단순한 구상이었고, 그 모든 세부 사항들이 논리적인 순서대로 명확하게 그려졌다. 하지만 서둘러야 했다.

라울은 베레모를 벗었다. 그 순간, 정성껏 가꾼 머리카락의 몇 가닥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결코 선원이라곤 볼 수 없는 머리카락이었다.

에티그 백작은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지자, 분노에 사로잡혔다.

"또 당신이라니! 게다가 변장까지 하다니. 이번엔 또 무슨 꾀를 부리는 겁니까? 어떻게 감히 저기까지 저를 쫓아온 겁니까? 저는 이미 가장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딸과 당신의 결혼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라울은 그의 팔을 잡아챘다. 그리고 위압적인 어조로 말했다.

"소란은 안 됩니다. 우리 둘 다 손해 볼 테니까. 당신 친구들을 데려오세요."

고드프루아는 반박하려 했다.

"당신 친구들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라울이 되뇌었다. "저는 당신을 도와주러 온 거예요. 당신이 찾는 게 뭐라고요? 촛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백작은 억지로 대답했다.

"칠지초를 아시죠? 맞죠. 그 숨겨진 곳의 위치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단서도 드릴 테니,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친구들을 부르십시오. 서둘러요."

고드프루아는 망설였다. 하지만 라울의 약속과 확신이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이다. 그는 곧장 친구들을 불렀고, 그들은 즉시 합류했다.

"저 아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 무언가 찾아낼 수도 있겠네요."

라울은 그의 말을 끊었다.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고장 사람입니다. 어릴 적, 이 성에서 이 성의 관리인이었던 정원사 노인의 아이들과 어울려 놀곤 했죠. 그 노인은 종종 지하 한쪽 벽에 박힌 쇠고리를 보여주곤 했습니다. '여기에 숨겨진 공간이 있단 말이야. 난 거기에 촛대나 시계 같은 구경거리들을 넣는 걸 본 적도 있어.'

그 말에 고드프루아의 친구들은 흥분했다.

베네토가 곧바로 반박했다.

'지하를 다 돌아봤습니다.'

'잘못 돌았죠.' 라울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길은 외부에서 시작해 지반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다. 두 개의 큰 문이 열리자, 몇 계단이 나왔고 그 너머에는 아치형 천장의 방들이 이어졌다.

'왼쪽에서 세 번째 방입니다.' 라울이 말했다. 그는 이미 수색을 통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둔 상태였다. '여기요. 바로 이 방이죠.'

그는 다섯 사람을 어둠이 짙게 깔린 지하 묘실로 들여보냈다. 머리를 낮추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공간이었다.

"여기선 아무것도 안 보여!" 로 뒤 에스티에가 불평했다.

"맞아요." 라울이 말했다. "하지만 성냥이 있네요. 그리고 계단 위에 양초 토막이 하나 보였는데. 잠깐만요. 제가 가져올게요."

그는 묘실 문을 닫고 열쇠를 돌린 뒤, 빼내 들고는 멀리 떨어지며 포로들에게 소리쳤다.

"촛대, 일곱 개 달린 거요. 꼭 켜세요. 마지막 돌판 밑에 있을 거예요. 거미줄에 꼼꼼히 싸여 있죠."

문을 나서는 순간, 그는 안쪽에서 다섯 친구가 문에 맹렬하게 내리치는 소리를 들었다. 흔들리고 썩어 문드러진 그 문이 몇 분도 버티지 못할 것임은 자명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만으로도 그는 충분했다.

그는 단숨에 광장으로 뛰어올랐다. 근처 작업자에게서 곡괭이를 빼앗아 들고서는, 아홉 번째 기둥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기둥 위에 놓인 화분을 힘껏 내리쳤다. 화분이 산산조각 나자, 그는 곧바로 시멘트로 된 받침대를 공격했다. 받침대는 이미 금이 가 있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부스러져 내렸다.

기둥 사이의 빈 공간에는 흙과 자갈이 섞여 있었다. 라울은 그 속에서 손쉽게 금속 막대 하나를 꺼냈다. 막대는 녹슬어 있었지만, 분명히 특정 제단 위에 올려진 대형 종교용 촛대의 가지를 빼온 것이었다.

주변에 모여 있던 작업자들이 탄성을 지르며 그를 둘러쌌다. 라울이 꺼낸 물건을 보고 그들은 깜짝 놀랐다. 아침부터 이어진 수색에서, 드디어 첫 번째 발견이 이루어진 순간이었다.

아마 라울은 차분함을 유지했을 것이다. 금속 막대를 챙겨 들고는, 친구 다섯 명에게 건네주기 위해 그들과 합류하는 척했을 테니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저택 모퉁이에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다.

롤레빌이 다른 이들을 이끌고 나타나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도둑이야! 저놈을 잡으라! 도둑이야!"

라울은 작업자들 무리 속으로 머리부터 뛰어들어 달아났다.

지금까지의 그의 행동을 보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만약 그가 남작과 친구들의 신뢰를 얻으려 했다면, 그들을 지하실에 가두거나 그들이 찾고 있던 것을 빼앗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라울은 조제핀 발사모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가 가진 유일한 목표는, 언젠가 그녀에게 자신이 방금 쟁취한 전리품을 바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전속력으로 달아났다.

정문은 적들이 지키고 있었다. 그는 연못가를 따라 달렸고, 자신을 잡으려는 두 사람을 뿌리쳤다.

그를 뒤쫓는 무리가 스무 미터 뒤에서 울부짖었다. 마치 미친 듯이 소리치는 야수 떼 같았다. 그는 결국 채소밭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사방을 둘러보니 절망적인 높이의 벽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다.

'젠장.'

그가 생각했다. '막다른 길이다. 이제 다 된 셈이다. 사냥개들이 몰려들고, 먹이가 갈기갈기 찢어질 판이다. 정말 치욕스러운 최후다.'

왼쪽의 채소밭 위로는 마을 교회가 우뚝 서 있었다. 교회 묘지는 채소밭 안쪽으로 이어져, 예전 구에르 성주들의 무덤으로 쓰이던 아주 작은 울타리 공간과 연결되었다. 튼튼한 철조망이 그 공간을 둘러싸고 있었고, 주목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다.

라울이 그 울타리를 타고 내려가던 순간, 문이 살짝 열렸다. 한 팔이 뻗어나와 그의 길을 막았고, 한 손이 그의 손을 잡았다. 놀란 라울은 어둠 속 덤불 안으로 끌려들어가자, 여자가 즉시 등 뒤에 있는 문을 닫았다. 공격자들을 코앞에서 막아선 것이다.

그는 조제핀 발사모를 알아본 것이 아니라, 직감으로 그녀임을 알아챘다.

"오세요."

그녀가 주목나무 숲속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벽에는 또 다른 문이 열려 있었고, 그곳으로 마을 묘지로 이어지는 길이 뚫려 있었다.

교회 뒤편에는 낡은 마차가 한 대 서 있었다. 그 시절에는 시골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구식 차체였다. 말 두 마리가 매여 있었는데, 몸은 야위었고 털도 거칠었다.

마부 자리는 늙은 사내 한 명이 차지하고 있었다. 회색 수염이 난 그 남자는 등까지 굽은 자세였다. 푸른 작업복이 그의 굽은 등을 더 두드러지게 만들었다.

라울과 백작 부인은 그 안으로 쏙 들어갔다. 그들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부인이 마부에게 말했다.

"레오나르, 루네레와 두드빌로 가는 길로 가. 서둘러!"

교회는 마을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다. 루네레로 가는 길을 택하면, 집들이 빽빽이 들어선 마을 중심부를 피할 수 있었다.

앞에는 긴 언덕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언덕은 높은 평원으로 이어졌다. 야위었던 말 두 마리는 마치 경마장에서 달리는 말처럼 힘차게 언덕을 올랐다.

이렇게 외관은 형편없는 차 안은 생각보다 넓고 편안했다. 부끄러운 시선을 막아주는 나무 격자가 차양처럼 둘러쳐 있어, 안은 완전히 사적인 공간이 되었다. 라울은 그 공간에 압도되어 무릎을 꿇고, 사랑에 대한 격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는 기쁨에 질식할 지경이었다. 백작부인이 화를 낼지, 안 할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구출의 밤 이후, 이렇게 특별한 상황에서 만난 두 번째 만남은 그들 사이에 특별한 유대를 형성했다. 그 유대는 몇 단계를 건너뛰고, 정중한 인사 대신 고백으로 대화를 시작해도 된다는 근거가 되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리고 가장 완고한 여자도 마음을 녹일 만큼 경쾌한 어조로 고백을 시작했다.

"당신? 바로 당신? 정말 놀랍군요. 지금 막 무리들이 저를 찢어죽이려 할 때, 조제핀 발사모가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 저를 구해 주다니요. 아,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수년째, 아니 한 세기째 당신을 사랑해 왔습니다. 네, 저 안에는 백 년 치 사랑이 차 있습니다. 당신처럼 젊고, 당신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오래된 사랑이요. 당신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당신을 바라보지 않고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으니까요. 기쁨도 되지만, 동시에 절망스럽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의 아름다움 전체를 품에 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말입니다. 당신의 눈빛, 미소, 모든 것이 항상 잡히지 않는 것이죠."

그는 전율하며 속삭였다.

"아, 당신의 눈이 나에게로 향했군요. 그럼 저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오? 제가 당신의 사랑을 고백해도 좋다는 뜻이오?"

그녀가 마차 문틈을 살짝 벌였다.

"내려주실 수 있나요?"

"거절하겠소."

"마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요?"

"그는 죽이겠소."

"그럼 제가 내려간다면요?"

"그냥 도로에서 고백을 계속하겠소."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다.

"아무튼 당신은 대답이 준비되어 있군요. 그대로 계시오. 하지만 이런 장난은 그만두시오. 대신 방금 어떤 일이 있었고, 왜 그 사람들이 당신을 쫓았는지 말해 주시오."

그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네, 다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저를 밀어내지 않으시니까요… 저의 사랑을 받아주시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소."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저에게 고백을 쏟아붓지만, 정작 나를 알지도 못하잖소."

"내가 당신을 모른다고요!"

"당신은 저를 밤에, 등불 빛 아래에서 겨우 본 적 있습니다."

"그 밤 바로 전날 낮에 제가 당신을 보지 못했겠습니까? 그 끔찍한 에티그의 숲 회의 동안에는 당신을 감상할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그녀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 그 자리에 계셨다니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가 경쾌한 열정으로 말했다. "그곳에 있었고, 당신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칼리오스트로의 딸, 당신을 압니다. 가면은 벗으세요. 나폴레옹 1세가 당신을 '너'라고 불렀죠. 당신은 나폴레옹 3세를 배신하고 비스마르크를 섬겼으며, 용감한 불랑제 장군을 자살로 몰았습니다. 당신은 젊음의 샘에서 목욕을 하죠. 당신은 백 살이죠. 하지만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녀의 맑은 이마에 살짝 주름이 잡힌 채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은 채, 그녀는 반복해서 말했다.

"아, 그쪽에 계셨군요. 전 그렇겠지 싶었어요. 비열한 자들이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비방 섞인 비난 소리도 다 들으셨나요?"

"멍청한 소리들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가 외쳤다. "그리고 당신을 미워하는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만 보면 누구나 저토록 미워하죠. 하지만 그건 모두 광기와 터무니없는 소리일 뿐입니다. 오늘만큼은 그런 생각은 접으세요. 전 오직 당신의 발걸음마다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다운 기적들만 기억하고 싶어요. 당신의 영원한 젊음을 믿고 싶어요. 제가 구해 주지 않았다면 당신도 죽었을 거라 믿고

싶어요. 제 사랑이 초자연적이라 믿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전, 당신이 주목나무 줄기에서 빠져나온 것이 마법 때문이라 믿고 싶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하는 기색을 보였다.

"게르의 정원을 둘러보려고 했을 때, 열쇠가 자물쇠에 꽂힌 채로 놓인 그 오래된 문으로 이미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이 정원을 수색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저는 그 자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기적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수주, 아니 수개월에 걸쳐 이 공원에서 일곱 개의 가지가 달린 촛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몇 분 만에, 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적들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그저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그녀는 깜짝 놀란 듯했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찾아내셨다고요?…"

"촛대 자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곱 가지 중 하나인 가지 한 개는 찾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조제핀 발사모가 금속 기둥을 집어 들고 열정적으로 살폈다. 둥글고 단단한 기둥이었다. 표면은 약간 굽어 있었고, 두꺼운 녹슬기 때문에 금속 본래의 빛은 보이지 않았다. 한쪽 끝은 약간 납작하게 눌려 있었는데, 그 면에는 보석처럼 다듬은 보라색 돌이 박혀 있었다.

"네, 맞아요. 의심의 여지가 없군요. 가지가 받침대 바로 위에서 잘려 나갔어요. 오, 당신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를 거예요."

라울은 몇 마디의 생생한 묘사로 그날의 격투를 이야기했다. 젊은 여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랐다.

"어떤 생각을 하신 거죠? 왜 하필 다른 기둥이 아닌 아홉 번째 기둥을 무너뜨리기로 하셨나요? 운명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열두 기둥 중 열한 기둥은 17세기 말 이전에 이미 지어졌어요. 그리고 아홉 번째 기둥은 그 이후에 지어졌죠."

"그걸 어떻게 아셨나요?"

"다른 열한 기둥의 벽돌은 이백 년 전에 쓰던 규격이거든요. 하지만 아홉 번째 기둥의 벽돌은 지금도 쓰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홉 번째 기둥은 허물었다가 다시 지은 거예요. 그건 이 물건을 숨기기 위해서 말고는 이유가 없죠."

조제핀 발사모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러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말 놀랍군요……. 제가 상상도 못 했던 일이에요. 우리가 모두 실패한 곳에서, 그토록 짧은 시간에……."

"맞아요." 그녀가 덧붙였다.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사랑의 기적이죠." 라울이 되뇌었다.

마차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질주했다. 때로는 마을을 지나치지 않는 우회로를 택하며 달렸다. 가느다란 두 필의 말은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아랑곳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달렸다. 좌우로 펼쳐진 평원은 마치 그림처럼 스쳐 지나갔다.

"보마냥이 거기 있었나요?" 부인이 물었다.

"아닙니다. 다행히도 그는 없었죠."

"다행이라고요?"

"그가 있었다면, 저는 그를 목 졸라 죽였을 테니까요. 저는 그 암울한 인물이 싫습니다."

"저보다는 덜하시겠군요." 그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그를 항상 싫어했던 것은 아니었죠." 그는 질투를 참지 못하고 말했다.

"거짓말이요, 비방이요." 조제핀 발사모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말했다. "보마냥은 사기꾼이고 정신나간 자입니다. 병적인 자존감에 사로잡힌 사람이죠. 제가 그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는 내 죽음을 원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며칠 전에 이미 말했잖아요. 그는 항의하지 못했어요. 항의할 수 없었죠."

라울은 다시 무릎을 꿇었다. 열정에 찬 감격이 그를 사로잡았다.

"아! 그토록 달콤한 말씀이로다!" 그가 외쳤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를 사랑한 적이 없군요. 얼마나 해방된 기분일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게 가능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조제핀 발사모가 보마냥에게 반하다니…"

그는 웃으며 손뼉을 쳤다.

"들으시오.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않겠습니다. 조제핀은 예쁜 이름이 아니에요. 조시네는 어때요? 네,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나폴레옹과 당신의 어머니 보아르네가 부르던 대로 '조시네'. 동의하시죠? 당신은 조시네…… 내 조시네."

"먼저 존중부터 하세요." 그녀는 그의 어린애 같은 행동에 웃으며 말했다. "나는 당신의 조시네가 아니에요."

"존중이라니! 하지만 나는 존경으로 가득 차 있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우리는 서로 가까이 가둔 채로 있소. 당신은 무방비 상태이고, 나는 마치 우상 앞에 엎드린 자처럼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소. 그리고 나는 무서워요. 떨리고 있소. 당신이 내게 입을 맞추라고 손이라도 내밀면, 감히 그러지 못할 거요!"

제6장

내내 이어진 여정은 숭배의 연속이었다. 아마도 칼리오스트로 백작 부인은 라울에게 입맞춤할 손을 내밀어 시험하지 않은 것이 옳았을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만약 그가 이 젊은 여인을 정복하겠다고 맹세했고 그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면, 그는 곁에 둔 그녀를 향해 경외심 어린 태도와 생각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그런 태도는 그녀를 사랑의 말로 괴롭힐 수 있을 만큼의 용기만은 남겨주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듣고 있었을까? 가끔은 그랬다. 마치 아이가 자신의 애정을 아름답게 이야기할 때처럼 귀 기울이는 듯했다. 하지만 때때로 그녀는 먼 곳으로 사라진 듯한 침묵 속에 자신을 가두어 라울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그는 외쳤다.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진지하게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울까 봐 농담을 섞었지만, 속으로는 정말 무서워집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조차 알 수 없을 지경이죠. 제발, 답해 주세요. 현실로 돌아오게 해 줄 짧은 말만요."

"짧은 말만?"

"네, 그것만큼만요."

"좋습니다. 두드빌 역이 바로 근처입니다. 기차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죠."

그는 팔짱을 끼며 분개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당신은요?"

"네, 당신 혼자서 어떻게 될 건가요?"

"글쎄요," 그녀가 말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어떻게든 잘 살아내겠지요."

"절대 안 돼요. 이제 저 없이는 안 되잖아요. 당신은 이미 저와 함께 싸움판에 뛰어들었어요. 제 도움이 꼭 필요하죠. 보마냥, 에티그의 고드프루아, 아르콜 공작……. 당신을 짓눌러 버릴 놈들이에요."

"그들은 제가 죽었다고 믿고 있어요."

"그게 오히려 더 큰 이유죠. 당신이 죽었다면,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어요?"

"걱정 마세요. 그들은 저를 보지 못하게 움직일 거예요."

"하지만 저를 통하면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도움을 거절하지 마세요. 여자가 혼자 해낼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당신도 그 남자들과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그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당신을 향해 가장 추악한 음모를 꾸미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그렇게 비난했고,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탄탄한 논리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저는 당신을 보마냥이 증오하고 경멸하던 마녀이자 범죄자로 보았습니다."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들과 맞섰을 때, 저는 제가 잘못 알았다는 걸 깨달았죠. 보마냥과 그 일당들은 이제 당신 앞에서는 추하고 비겁한 고문관들에 불과할 뿐이었어요. 당신은 당신의 품위 하나로 그들을 압도하셨고, 오늘 이 순간에는 그들의 비방이 제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졌어요. 하지만 제 도움을 받아야 해요.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해 당신을 상처 입혔다면, 그런 말은 이제 하지 않을게요. 제가 원하는 건 당신에게 헌신하는 것뿐이에요. 마치 매우 아름답고 순수한 무언가에 자신을 바치듯."

그녀는 결국 승낙했다. 두드빌 마을을 지나쳤다. 조금 더 나아가 이브토로 가는 길목에서, 마차는 너도밤나무와 사과나무가 늘어선 농장 마당으로 들어서더니 멈춰 섰다.

"내려가요." 백작부인이 말했다.

"이 마당은 친절한 바세르 아줌마 소유예요. 여관도 조금 떨어져 있지만, 예전에 제가 요리사로 데리고 있던 분이에요. 가끔 이틀, 사흘 정도 쉬러 가곤 하죠. 거기서 아침을 먹어요. 레오나르, 한 시간 뒤 출발해."

그들은 다시 큰길로 나섰다. 그녀는 아주 어린 소녀처럼 가벼운 발걸음을 옮겼다. 회색 드레스로 허리를 꽉 조이고, 벨벳 끈과 제비꽃 다발이 달린 연보라색 모자를 썼다. 라울 드 안드레시는 그녀를 시선에서 놓치지 않으려 조금 뒤에서 따라갔다.

첫 번째 코너를 지나자 하얀 벽돌로 지은 작은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초가지붕이 얹혀 있었고, 앞마당에는 사제들의 정원에나 볼 법한 꽃들이 무성하게 피어 있었다.

건물 정면 전체를 차지하는 카페 안으로 바로 들어설 수 있었다.

"남자 목소리가 들리네요."

라울이 뒤쪽 벽을 가로지르는 문 중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바로 제가 아침 식사를 대접하는 방이에요. 아마 그곳에서 몇몇 농부들과 함께 있을 거예요."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 문이 열렸다. 면 앞치마를 두르고 나막신을 신은, 나이 지긋한 여성이 나타났다.

조제핀 발사모를 본 순간, 그녀는 깜짝 놀란 듯했다. 자기 뒤로 문을 닫으며 말도 제대로 잇지 못하는 듯했다.

"무슨 일이에요?"

조제핀 발사모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바세르 아줌마가 주저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가세요… 빨리 도망가세요…"

"왜요? 말해 보세요. 설명해 주세요!"

그때, 몇 마디 말이 또렷이 들려왔다.

"경찰이요… 당신을 찾고 있어요. 짐을 넣었던 방도 뒤졌고요. 헌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발 도망치세요. 안 그러면 당신 끝장이에요."

이 말을 들은 백작부인도 함께 비틀거렸다. 기절할 듯 쓰러질 뻔했고, 간신히 찬장 옆에 몸을 의지했다. 그녀의 눈이 라울의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은 이미 자신이 끝났음을 깨달은 듯, 그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듯했다.

라울은 당황했다.

"헌병이 뭐가 어때서요? 그들이 찾는 건 당신이 아니잖아요. 그럼 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요, 맞아요. 바로 그녀를 찾는 거예요." 바세르 아줌마가 되풀이했다. "그녀를 구해 주세요."

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아직 일어나는 일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그 비극적 중대함을 직감했다. 그는 백작부인의 팔을 잡더니 그녀를 문밖으로 밀어냈다.

하지만 그녀가 먼저 문턱을 넘자마자, 놀라 뒤로 물러서며 중얼거렸다.

"헌병이에요! … 저를 봤어요!"

두 사람은 재촉하여 안으로 들어왔다. 바서르 아줌마는 온몸이 떨리며 멍청하게 중얼거렸다.

"헌병이에요… 경찰이에요…"

"조용히." 라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여전히 매우 차분했다. "조용히! 제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경찰은 몇 명입니까?"

"헌병 두 명요. 그러니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요. 완전히 포위됐죠. 그들이 수하물을 뒤진 곳은 어디예요?"

"위층이에요."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요?"

"좋아. 너는 여기서 움직이지 말고, 들키지 않도록 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라울은 백작부인의 손을 다시 잡은 채, 가리킨 문 쪽으로 걸어갔다. 계단은 마치 앵무새 사다리 같은 형국이었고, 그곳은 다락방이었다. 다락방 안에는 트렁크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옷들과 속옷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들이 다락방에 도착했을 때, 두 형사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라울은 발소리를 죽인 채 초가 지붕 사이에 뚫린 창문 쪽으로 다가가자, 말에서 내려 정원 기둥에 말을 묶는 두 경찰관의 모습이 보였다.

조제핀 발사모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라울은 그녀가 극도의 불안에 떨며 얼굴이 일그러지고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을 눈여겨보았다.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빨리 옷을 바꾸셔야 합니다. 다른 드레스를 입으세요. 가능하면 검은색이 좋겠네요."

그는 다시 창가로 돌아갔다. 아래쪽 정원에서 경찰들과 헌병들이 수군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가 옷을 갈아입고 나자, 그는 그녀가 벗어던진 회색 드레스를 집어 들었다. 그리고는 그 옷을 입었다. 그는 마른 체격에 날씬한 몸매였다. 치마를 내려 발을 가린 그 드레스는 그에게 딱 들어맞았다. 그는 이 변장에 만족하는 듯했고, 태평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그 모습을 본 젊은 여성은 조금 안도한 듯했다.

"저들을 들어보세요." 그가 말했다.

방 입구에서 네 남자가 나누는 대화가 또렷이 들렸다. 그중 한 명, 아마도 헌병 중 한 명일 테지만, 굵고 늘어지는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다.

"정말 그녀가 가끔씩 그곳에 살았다고 확신하십니까?"

"물론입니다. 확실하죠. 증거가 있거든요. 그녀가 맡겨 둔 여행가방 두 개가 있고, 그중 하나는 'M Pellegrini'라고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세르 아줌마는 착한 분이잖아요?"

"바세르 아줌마보다 더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지역 전체가 다 알고 있을 정도예요."

"그렇죠. 바세르 아줌마는 페를리니 부인이 가끔 며칠씩 머물러 갔다고 증언합니다."

"당연하죠. 강도질을 하다가 중간중간 쉬러 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페를리니 부인을 잡으면 큰 수확이 되겠네요?"

"엄청난 수확입니다. 중절도, 사기, 장물 은닉. 말하자면 온갖 죄다 저지른 셈이죠. 게다가 수많은 공범자까지."

"그녀의 신원 정보는 있나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두 초상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젊고, 다른 하나는 늙었죠. 나이는 서른에서 예순 사이로 적혀 있어요."

그들은 크게 웃더니, 굵은 목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다.

"그래, 네가 그 여자를 쫓고 있는 거야?"

"네, 그리고 아니요. 보름 전에는 루앙과 디엡에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발자취가 끊겼죠. 다시 발견된 곳은 주요 철도 노선이었고, 또다시 실종되었습니다. 르아브르로 계속 갔을까, 페캄으로 방향을 틀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셈이죠."

"그럼 왜 여기까지 온 거야?"

"운이었죠. 거기까지 짐을 날랐던 역무원 한 명이 '펠레그리니'라는 이름을 기억해냈죠. 그 이름은 가방 중 하나에, 떨어져 나간 라벨에 가려진 자리에 적혀 있었죠."

"다른 여행객이나 여관 손님들은 심문해 봤소?"

"아, 손님들은 여기 드물답니다."

"그래도 도착할 때 우리가 본 여인이 한 명 있잖소."

"여인이라고요?"

"틀림없소. 아직 말에 타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이 문으로 집에서 나오는 것을 봤소. 그리고는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으려는 듯, 순식간에 다시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말도 안 돼! 여관이여? 여인이?"

"회색 옷을 입은 여인이었소.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옷 색깔은 분명히 기억나오. 모자도 그렇고. 보라색 꽃이 달린 모자였지."

네 사람은 입을 다물었다.

라울과 그 젊은 여자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채,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이 대화를 끝까지 들었다. 새로운 증거가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라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다. 그녀는 단 한 번도 항의하지 않았다.

"그들이 와요…… 그들이 와요." 그녀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네, 이제 움직일 때입니다. 안 그러면 그들이 올라와서 이 방에서 당신을 발견할 테니까요."

그녀는 여전히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는 모자를 벗어 자신의 머리에 썼다. 보라색 꽃이 잘 드러나도록 모자 챙을 살짝 내렸고, 턱끈은 목에 동여매어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제가 길을 열어주겠습니다. 길이 비자마자, 조용히 도로를 따라 농장 마당까지 가세요. 거기서 차를 타시고, 레오나르에게 고삐를 맡기시면 됩니다."

"당신은요?" 그녀가 물었다.

"스무 분 안에 따라갈게요."

"만약 그들이 당신을 잡는다면?"

"그들은 저를 잡지 못할 겁니다.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뛰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그가 창가에 다가가 몸을 내밀었다. 남자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창틀을 넘어 정원으로 뛰어내렸다. 그리고는 자신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처럼 비명을 지르며 죽어라 도망쳤다.

곧이어 그의 뒤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다.

"저 여자가 맞다! … 회색 드레스에 보라색 모자! 멈추지 않으면 쏴!"

그는 재빠르게 도로를 건너 논밭으로 뛰어들었다. 밭을 가로질러 나온 그는 농장 둑을 기어 올랐고, 농장 안을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지나갔다. 다시 한 번 둑이 나타났다. 이어 들판, 그리고 가시덤불로 둘러싸인 또 다른 농장 옆을 비스듬히 이어지는 작은 길이 이어졌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추격자들은 조금 뒤처져 있어 그를 볼 수 없었다. 그는 단숨에 드레스와 모자를 벗어던져 가시덤불 한가운데 던졌다. 그리고 선원 모자를 쓰고 담배에 불을 붙인 뒤, 손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다시 돌아왔다.

농장 모퉁이에서 두 경찰이 나타나고, 두 경찰이 숨을 헐떡이며 그와 부딪혔다.

"이봐, 선원 양반? … 여자를 봤지? 회색 옷 입은 여자 말이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물론이지… 달아나는 여자가 있었지, 그렇지? … 정말 미친 사람 같았어…"

"맞아요. 그런데 어쨌다는 거죠?"

"그녀는 농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요?"

"울타리 쪽으로…"

"얼마나 됐어요?"

"스무 초도 안 됐어요."

남자들은 재촉해서 자리를 떴다. 라울은 가던 길을 계속 가며 다가오는 헌병들에게 친근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러곤 느긋한 걸음걸이로 여관 너머, 조금 더 앞선 곳의 도로로 향했다. 그곳은 코너 바로 옆이었다.

백 미터쯤 더 가니 너도밤나무 숲이 시작되었고, 차가 기다리고 있는 마당에는 사과나무들이 늘어섰다.

레오나르는 마부석에 앉아 채찍을 쥐고 있었다. 안쪽에는 조제핀 발사모가 앉아 열린 문을 잡고 있었다.

그가 명령했다.

"이베토로 가요, 레오나르."

"어떻게요?" 여자가 반대했다. "그럼 여관 앞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나가는 걸 보이지 않게 하는 거야. 지금 길은 텅 비었잖아. 이 기회를 살리자… 레오나르, 천천히 달린다. 빈 채로 돌아가는 영구차처럼 말이지."

그들은 실제로 여관 앞을 지나쳤다. 그즈음 경찰과 헌병들이 들판을 가로질러 돌아오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회색 옷과 모자를 흔들고 있었다. 다른 이들은 팔을 휘저으며 큰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당신들 물건을 찾았대. 이제 상황을 파악한 거지. 이제 그들이 찾는 건 당신들이 아니야. 바로 나, 그들이 마주친 선원이지. 차는 아예 신경도 안 써. 만약 우리가 이 차 안에 있다는 걸, 당신이 펠레그리니 부인이고 내가 공범인 선원이라는 걸 말해준다면, 그들은 배꼽을 잡고 웃을 거야."

"그들은 바서르 아줌마를 심문할 거야."

"그녀가 알아서 해."

그들이 그 무리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자, 라울은 마부의 채찍질을 재촉했다.

"어이쿠! 어이쿠!"

첫 채찍질에 두 마리의 말이 힘차게 내달리자 라울이 말했다.

"이 불쌍한 짐승들은 오래가지 못할걸. 이토록 오랫동안 속보로 달렸으니."

"오전부터요." 그녀가 답했다. "디에프에서 묵은 밤부터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죠?"

"센 강변까지요."

"헛! 하루 만에 열여섯, 열일곱 리를 이 속도로?"

라울이 탄식했다.

"말도 안 되는 속도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앞쪽 두 유리창 사이에는 가느다란 거울 띠가 있어, 그는 그것으로 그녀를 볼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짙은 색 드레스를 입었고, 머리에는 가벼운 모자를 썼다. 모자에서 두꺼운 베일이 흘러내려 그녀의 온 머리를 감쌌다.

그녀는 베일을 풀었다. 그리고 거울 띠 아래쪽에 놓인 수납함에서 작은 가죽 주머니를 꺼냈다. 안에는 손잡이와 금테가 달린 오래된 거울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화장 도구들. 향수병, 립스틱, 빗들…….

그녀는 거울을 들고 오래도록 피로하고 늙어 보이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얇은 병에서 몇 방울을 거울 위에 떨어뜨렸다. 비단 조각으로 젖은 표면을 문질렀다. 그리고 다시 자신을 바라보았다.

라울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단지 그녀의 눈매에 담긴 엄숙함과, 망가진 자신의 모습 앞에서 슬퍼하는 한 여자의 애수만 알아차렸다.

십 분, 십오 분. 시간이 흘렀다. 침묵 속에서, 한 여인의 시선이 온전히 집중되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녀의 생각과 의지가 모두 그 시선으로 모였다.

그때, 미소가 먼저 나타났다. 겨울 햇살처럼 주저하고, 수줍은 미소였다. 잠시 후, 그 미소는 더 담대해졌다. 라울의 놀란 눈앞에서 작은 변화들이 드러났다.

입꼬리가 더 올라갔다. 피부에 생기가 돌았다. 살결이 단단해졌다. 볼과 턱이 원래의 윤기를 되찾았다. 조제핀 발사모의 아름답고 순한 얼굴에 온전한 매력이 빛났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다.

‘기적?’ 라울이 스스로에게 물었다. ‘아니야. 있어 봐야 고작 의지의 기적일 뿐이야.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는 또렷하고 끈질긴 생각의 영향력. 혼란과 흔들림이 있던 자리에 질서를 되찾은 거지. 나머지는 그냥 약병, 신비한 액체, 단순한 연기에 불과해.’

그는 그녀가 내려놓은 거울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자세히 살폈다. 분명 에티그 회의 때 설명했던 물건이었다. 외제니 황후 앞에서 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이 사용하던 바로 그 거울이었다. 가장자리는 기하학적 무늬로 새겨져 있었고, 뒷면의 금판은 수없이 많은 타격에 깊게 패여 있었다.

손잡이에는 백작의 왕관 문양, 날짜(1783년), 그리고 네 가지 수수께끼 목록이 적혀 있었다.

라울은 그녀를 상처 입히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아버님께서 귀하께 귀중한 거울을 유산으로 남기셨소. 그 부적 같은 거울만 있으면 가장 불쾌한 감정도 금세 달랠 수 있답니다.”

“실은 저도 정신이 나갔었네요. 보통 이런 일은 드물고,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서도 저는 버텨냈거든요.”

“오, 오? 더 심각한 상황이라니……” 그는 의심을 담은 냉소적인 어조로 말했다.

그들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말들은 일정한 리듬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카의 넓은 평원은 늘 같으면서도 늘 달랐고, 농장과 숲이 어우러진 넓은 풍경이 끝없이 펼쳐졌다.

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이 베일을 내렸다. 라울은 느꼈다. 두 시간 전까지 자신의 바로 곁에 서서 기꺼이 사랑을 바쳤던 그 여자가, 이제 갑자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낯선 이가 되어 버렸다.

그녀와의 교감은 완전히 끊어졌다. 신비로운 영혼이 짙은 어둠으로 둘러싸였다. 그가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도 달랐다.

도둑의 영혼… 은밀하고 불안정한 영혼, 햇빛을 싫어하는 영혼… 이것이 가능할 리가 없었다. 어떻게 순결한 처녀처럼 순진한 얼굴과, 샘물처럼 맑은 눈빛이 모두 거짓된 외모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겠는가?

그는 너무 실망한 나머지, 이베토 작은 마을을 지나면서도 도망치는 일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고, 그 때문에 분노는 더욱 치솟았다.

클라리스 디티그의 모습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그리고 분풀이라도 하듯, 그토록 고결하게 몸을 내맡겼던 그 부드럽고 다정한 그 소녀를 잠시 떠올렸다.

그러나 조제핀 발사모는 먹이를 놓치지 않았다. 비록 그녀가 그에게 추하게 보일지라도, 우상이 변형되었을지라도, 그녀는 바로 거기 있었

다! 그녀에게서 취할 듯한 향기가 풍겨 나왔다. 그의 옷자락이 그녀의 몸에 스쳤다. 그는 손짓 하나로 그녀의 손을 잡아, 향기로운 그 살결에 입맞출 수 있었다.

그녀는 그 자체로 열정이며, 욕망이요, 쾌락이었다. 그리고 여성이 지닌 교란시키는 신비로움 그 자체였다. 다시 한번 클라리스 디티그에 대한 기억은 사라져 갔다.

"조제핀! 조제핀!"

그가 속삭였다. 목소리가 너무 낮아 그녀는 들을 수 없었다.

게다가 사랑과 고통을 소리쳐 본들 무슨 소용이랴. 그녀는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까. 그의 눈앞에서 이미 사라진 그녀의 매력을 다시금 빛나게 할 수 있을까.

세느강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코드벡으로 내려가는 언덕 꼭대기에서, 그들은 왼쪽으로 꺾었다. 숲이 우거진 언덕들이 생트완드리유 계곡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유명한 수도원의 유적을 따라가며, 그 주변을 흐르는 개천을 따라 걸었다. 그리고 드디어 강이 보이는 곳에 다다랐다. 루앙으로 가는 길을 택했다.

잠시 후, 마차가 멈춰 섰다. 레오나르는 두 승객을 작은 숲 가장자리로 내려놓자마자 다시 출발했다. 그곳에서 세느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갈대밭이 그들과 강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조제핀 발사모가 동행자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안녕, 라울. 조금만 더 가면 마이예라이 역이 나와."

"그럼 당신은요?"

"나? 집이 아주 가까워."

"어디에?"

"저기, 가지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뱃집 말이야."

"내가 모셔다줄게."

갈대밭 한가운데를 가르는 좁은 제방이 초원을 가로질렀다. 백작부인이 그 위로 들어섰고, 라울이 뒤를 따랐다.

그들은 곧 버드나무 장막에 가려진 뱃집 바로 앞의 넓은 땅에 도착했다. 그들 둘을 보고 듣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푸른 하늘 아래, 그들은 오직 둘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의 몇 분은, 항상 기억에 남고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

"안녕," 조제핀 발사모가 다시 말했다. "안녕…"

그는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건네는 그 손을 마주 보고 망설였다.

"손을 잡아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녀가 물었다.

"응… 응…" 그가 중얼거렸다. "그런데 왜 헤어져야 하지?"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맞아,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는 결국 그녀의 부드럽고 미지근한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쌌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그 남자들, 즉 그 여관에서 내뱉은 말과 고발이… 정말 진실이었어?"

그는 비록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의심을 품을 구실을 줄 설명을 원했다. 하지만 그녀는 놀란 기색을 띠며 반문했다.

"그게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래요. 정말 그 폭로들이 당신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네요."

"무슨 뜻이야?"

"어머, 정말 별것 아니에요. 제 말은, 보마냥과 에티그 남작이 거짓되고 어리석게 저에게 뒤집어씌운 그 끔찍한 죄목들이 사실로 확인되었을 때 느끼셨을 동요라면 이해했으리란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 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 혐의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이름을 일러 준 여인, 곧 벨몽트 후작부인에 대한 혐의였죠. 하지만 지금 문제되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방금 우연히 들으셨던 그 정보는,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녀의 뜻밖의 질문에 그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그의 바로 앞에서 여유로운 미소를 짓더니, 이번에는 약간 비꼬는 어조로 다시 입을 열었다.

"아마도 안드레지 자작 라울 경이 자신의 생각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건가? 자작 라울 경이라면 분명 도덕적 관념이 있고, 신사다운 섬세함 같은 것도 갖추고 있겠지."

"그렇다면 어때? 내가 어떤 환멸을 느꼈다고?"

"좋아! 드디어 핵심을 찔렀군. 당신은 실망했어. 아름다운 꿈을 좇다가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난 거야. 여자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당신에게 드러났지. 솔직하게 답해 봐. 우리가 이제 정중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잖아. 당신은 실망했지, 그래?"

그는 단호한 어조로 그 말을 내뱉었다.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그를 깊이 응시하며 속삭였다.

"나는 도둑이야, 그렇지? 그게 네가 말하려는 거야. 도둑이라고?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그가 반항하듯 몸을 비틀자, 그녀는 어깨를 힘껏 쥐어짜며 명령조로 물었다.

"당신은요? 당신은 대체 누구죠? 당신도 자신의 정체를 밝히셔야죠. 당신은 누구예요?"

"라울 드 안드레시라고 합니다."

"장난이냐? 네 이름은 아르센 뤼팽이다. 네 아버지, 테오프라스트 뤼팽은 권투와 사바트(프랑스식 발 격투술) 사범이면서 더 수익성이 좋은 사기꾼이라는 두 가지 직업을 동시에 수행했다. 그는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투옥되었고, 그곳에서 죽었다. 네 어머니는 미혼 시절 성으로 돌아가 먼 친척인 드뢰-수비즈 공작 가에서 가난한 친척 신세로 살았다. 어느 날 공작 부인이 가장 역사적 가치가 큰 보석의 도난을 발견했는데, 그 보석은 바로 유명한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의 목걸이였다. 모든 수사를 했지만, 그 도둑이 누구인지 결코 알지 못했다. 그 도난은 악마적인 대담함과 기교로 저질러졌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건 바로 네가 저지른 일이다. 너는 그때 여섯 살이었어."

라울은 분노로 얼굴이 창백해지고 턱을 굳게 다물고 듣더니, 나직이 중얼거렸다.

"제 어머니는 불행했고, 모욕을 당하셨어요. 저는 그녀를 해방시키고 싶었어요."

"도둑질로?"

"저는 여섯 살이었죠."

"지금은 스무 살.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당신은 건강하고 똑똑하며 에너지가 넘쳐. 어떻게 살아가?"

"일합니다."

"응,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서."

그녀는 그가 변명할 틈도 주지 않았다.

"말하지 마, 라울. 너의 삶을 가장 사소한 부분까지 알고 있어. 올해 일뿐만 아니라, 더 오래된 일들도 너에 대해 들려줄 수 있지. 내가 너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거든. 하지만 내가 말해줄 어떤 것도 지금 여관에서 들었던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을 거야.

경찰? 헌병? 압수수색? 추격? 너도 이런 모든 것을 겪었잖아. 게다가 너는 스무 살도 안 됐어. 그러니 그걸 자책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야, 라울.

네 삶을 내가 알고 있고, 우연히 내 삶의 일부라도 너에게 보여줬으니, 우리 둘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덮어두자. 도둑질하는 일은 아름답지 않아. 눈을 돌리고 침묵하자."

그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깊은 피로가 그를 덮쳤다. 갑자기 그의 눈앞에 펼쳐진 인생은 안개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더 이상 색도, 아

름다움도, 우아함도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다. 그는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라울. 잘 가." 그녀가 말했다.

"아니… 아니…" 그가 더듬거렸다.

"그래야 해, 내 사랑. 너에게 해가 될 뿐이야. 내 삶에 너를 섞지 마. 너는 야망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니까 네 길을 선택할 수 있어."

그녀는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내가 가는 그 길이 옳지 않은 길이야, 라울."

"그럼 왜 그 길을 가는 거죠, 조제핀? 그게 바로 무서운 거예요."

"너무 늦었어."

"나도 그래요!"

"아니, 너는 젊어. 도망쳐. 너를 위협하는 운명에서 벗어나."

"하지만 당신, 당신도 그러세요, 조제핀?"

"나? 이건 내 인생이야."

"참혹한 삶이군요. 당신도 그 고통을 느끼고 있죠."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왜 함께 나누려 하느냐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히려 더 도망쳐야 할 이유야, 내 친구. 우리 사이에는 사랑이 처음부터 저주받은 거나 다름없어. 너는 나를 보고 수치스러워할 것이고, 나는 너를 의심하게 될 테니까."

"저를 사랑합니다."

"오늘이야 그렇겠지. 하지만 내일은?"

"라울,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밤, 내 사진에 적어둔 명령을 기억해라. '다시는 나를 찾아보려 하지 말라.' 이제 가거라."

"네, 네." 라울 드 안드레시가 느린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옳습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을 품을 새도 없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도요."

"두 번이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잊지는 않죠."

"아니요. 하지만 제가 당신을 사랑했다는 사실은 잊게 될 거예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잊지 않을게요." 그녀가 말했다.

그러고는 그를 '너'라고 부르길 멈추고, 감정을 담아 덧붙였다.

"당신의 열정, 당신의 충동…… 당신 안에 있는 진심과 솔직함, 그리고 아직 내가 다 알아차리지 못한 다른 것들…… 그것들이 모두 저를 깊이 감동시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라울은 사랑으로 몸이 떨렸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영원히 헤어질 때, 우리는 서로에게 준 것을 돌려줘야 해요. 라울, 제 초상화를 돌려주세요."

"아니요, 절대요." 그가 말했다.

"그럼요." 그녀가 웃었다. 그 웃음은 그를 현기증 나게 했다. "저는 더 성실하게 행동할 거예요. 당신이 저에게 준 것을 성심껏 돌려드릴게요."

"무엇을요, 조제핀?"

"첫날 밤, 마구간에서요. 제가 자고 있는데 라울 님이 저 위로 몸을 기울이시더군요. 그리고 입술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뒤로 모은 채 라울의 목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두 사람의 입술이 닿았다.

"아, 조제핀!" 그가 미친 듯이 말했다. "제게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전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한다고요."

그들은 센 강 쪽으로 걸어갔다. 갈대들이 그들 위를 흔들었다. 옷자락이 바람에 흔들리는 가느다란 잎사귀를 스쳤다. 그들은 행복을 향해 걸어갔다. 손이 맞닿은 연인들을 떨게 하는 생각 말고는, 다른 생각은 없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라울." 그녀가 그를 멈추며 말했다. "한 마디요. 전 당신과 함께라면 폭력적이고, 독점적이 될 거예요. 당신의 인생에 다른 여자는 없나요?"

"없어요."

"아! 이미 거짓말이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쓴웃음이 섞여 있었다.

"거짓말이라고?"

"클라리스 드티그스도요. 맞죠? 시골에서 만나던 약속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당신들을 봤다니까요."

그는 성이 났다.

"옛이야기일 뿐이에요. 별 의미 없는 가벼운 연애였을 뿐."

"맹세하시는 거죠?"

"그렇게 맹세합니다."

"그래서 좋죠." 그녀가 어둡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를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녀를 끌어당겼다.

"저는 당신만 사랑합니다, 조제핀. 지금까지 당신 외에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제7장

‘논샬랑트’호는 다른 배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선박이었다. 외관은 좀 낡았고 페인트도 바래 있었지만, 델라트르 부부가 탄탄하게 손질하고 잘 관리하고 있었다.

바깥에서 보기에는 이 배가 싣고 있는 짐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았다. 나무 상자 몇 개와 낡은 바구니, 큰 술통 정도였다.

하지만 사다리를 타고 선창으로 내려가 안을 들여다보면, 이 배가 아무것도 싣지 않았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다.

배 안은 아늑하고 반질반질한 작은 방 세 개로 나뉘어 있었다. 두 개의 선실 사이에 작은 거실이 하나 있었지. 라울과 조제핀 발사모는 한 달 동안 그 곳에서 살았다.

델라트르 부부는 집안일과 요리를 도맡았다. 그들은 말수가 적고 성미가 급한 사람들이었다. 라울은 몇 번이나 그들과 대화를 나누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때때로 작은 견인선이 나타나 '논샬랑트' 호를 붙잡고는 센강의 굽이길을 거슬러 올라갔다.

아름다운 강줄기 따라 펼쳐지는 풍경을 보며, 그들은 서로 허리를 감싸 안고 산책하곤 했다.

브로통 숲, 주미에즈의 폐허, 생조르주 수도원, 부유 언덕, 루앙, 폰드드라슈까지…

행복이 가득한 몇 주일이 흘렀다. 라울은 기쁨과 열정을 아끼지 않았다. 경이로운 공연들, 아름다운 고딕 양식의 교회들, 노을과 달빛까지. 모든 것이 그가 뜨겁게 고백을 건네게 만드는 핑계였다.

조제핀은 더 조용했지만, 행복한 꿈속처럼 미소 짓고 있었다. 날이 갈수록 그녀는 연인에게 더 가까워졌다. 처음엔 사사로운 충동에 이끌렸지만, 이제 그녀는 사랑의 법칙에 복종하고 있었다. 그 사랑은 그녀의 심장을 뛰게 했고, 너무 사랑하다 보면 겪게 되는 고통도 가르쳐 주었다.

그녀의 과거나 비밀스러운 삶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오가지 않았다. 다만 한 번, 그 주제에 대해 몇 마디 나누는 일이 있었다. 라울이 그녀가 불변의 청춘을 유지한다는 '기적'을 놀리자,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기적이라니,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 하루에 이십 리외(약 80킬로미터)를 달렸다고 해서 기적이라고 외칠 수 있지. 하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봤다면, 우리가 그 거리를 두 마리

가 아닌 네 마리의 말로 달려왔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거야. 레오나르가 두드빌의 농장 마구간에서 말들을 갈아타고, 미리 준비된 교대 말을 이용했거든."

"대단하네요!" 젊은이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다른 예를 들어 보자. 세상에 너라는 이름이 아르센 뤼팽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런데 말이지, 네가 나를 죽음에서 구해 준 바로 그 밤, 나는 이미 너의 진짜 이름을 알고 있었다고?"

"기적이라도?"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 네가 알다시피, 칼리오스트로 백작과 관련된 모든 일에 나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14년 전, 드뢰수아즈 공작부인 집에서 왕비의 목걸이가 사라졌다는 소리를 듣고 나는 철저하게 조사했다. 그 결과, 먼저 젊은 라울 당드레시까지, 그리고 이어 젊은 뤼팽, 즉 테오프라스트 뤼팽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그 줄기를 따라갈 수 있었다. 그 후로도 나는 여러 사건에서 너의 발자취를 다시 찾았다. 나는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라울은 몇 초간 생각에 잠겨 있다가, 아주 진지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당신 나이가 열 살쯤 됐을 때죠. 그 나이에 전 세계가 실패한 사건을 해결하다니, 정말 기적이에요. 아니면 지금 나이랑 똑같았다는 건데, 그럼 더 기적이지요. 칼리오스트로의 딸이여!"

그녀는 눈썹을 찌푸렸다. 그 농담이 그녀에게 별로 기쁘지 않은 듯했다.

"그 얘기는 하지 말아요, 라울."

"아쉽군요." 라울은 자신의 정체가 아르센 뤼팽이라는 사실이 들킨 데다, 복수할 기회를 놓친 데다 해서 다소 상심한 표정이었다. "당신의 나이와, 지난 한 세기에 걸친 다양한 업적에 관해, 제게 이보다 더 흥미로운 주제는 없습니다. 제 나름의 흥미로운 가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라울은 그녀의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곧장 살짝 장난기 섞인 어조로 말을 이었다.

"내 주장은 두 가지 전제에 기반합니다. 첫째, 당신이 말했듯이 기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당신은 어머니의 딸입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다.

"참으로 흥미로운 시작이군요."

"당신은 어머니의 딸입니다." 라울이 다시 말했다.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다. 먼저 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백작부인은 스물다섯에서 서른 살쯤의 나이에, 제2제국 말기의 파리를 그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였다. 나폴레옹 3세의 궁정까지도 발칵 뒤집어놓았다.

그녀는 함께 동행하던, 가짜 형제라 불리는 이의 도움을 받았다. 형제든 친구든 연인이든, 그 관계는 중요치 않았다.

그녀는 칼리오스트로의 혈통을 둘러싼 모든 음모를 꾸몄다. 그리고 경찰이 나폴레옹 3세에게 조제핀 보아르네와 칼리오스트로의 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데 사용된 위조 문서들을 준비했다.

추방당한 그녀는 이탈리아로, 다시 독일로 건너갔다. 그러다 사라졌다.

그리고 스물네 년 후, 다시 살아났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둘째 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이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그녀는 어머니와 똑같은 모습으로 말이다.

우리 생각이 일치하지?

조제핀은 대답하지 않았다. 차갑고도 무표정하게.

그가 계속했다.

"어머니와 딸은 완벽하게 닮았다. 그 정도로 닮았다면 모험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왜 백작부인이 두 명이나 있겠는가? 결국 한 명, 오직 한 명, 진짜 한 명만 남는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인 칼리오

스트로 백작 조제프 발사모로부터 비밀을 물려받은 그 여자를 말이다."

"보마냥이 조사를 진행하면, 그는 필연적으로 나폴레옹의 경찰을 이미 혼란에 빠뜨렸던 문서들을 찾아내게 된다. 그리고 항상 젊은 그 여자의 정체를 증명하는 일련의 초상화와 미니어처도 말이다. 그것들은 그녀가 베르나르디노 루이니의 동정녀상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는 사실을, 우연히도 그 기원으로까지 소급해 보여준다."

게다가 목격자가 있다. 아르콜 공작이다. 아르콜 공작은 예전에 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을 본 적이 있다. 그녀를 모다네까지 모셨고, 이제 베르사유에서 그녀를 다시 마주쳤다. 그녀가 눈에 띄자 공작은 절로 비명을 지른다.

"바로 그녀야! 그리고 나이도 똑같아!"

"너는 그에게 수많은 증거를 들이댔지. 모다느에서 어머니와 그가 주고받은 몇 마디 말의 기록을, 그리고 어머니가 자신의 사소한 행동까지도 철저히 기록했던 일기를 통해 읽은 그 이야기를."

한숨이 절로 나온다. 바로 이것이 사건의 핵심이자 본질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매우 단순하다.

어머니와 딸, 그리고 서로 닮은 두 여성. 그들의 아름다움은 루이니의 화폭에서나 볼 법한 이미지와도 같다. 이 한 줄로 모든 것이 끝이다.

물론 벨몬트 후작부인도 있다. 하지만 그 여인이 너와 닮았는지는 의문이다. 아마도 그다지 뚜렷하게 닮지는 않았을 것이다. 보마냥이라는 남자의 좋은 뜻과 어지러진 두뇌가 두 사람을 혼동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요약하자면, 극적인 요소는 없다. 재미있고 치밀하게 꾸며진 한 편의 음모일 뿐이다.

내가 할 말은 다 했다.

라울은 입을 다물었다. 조제핀 발사모의 얼굴이 조금 창백해지고 근육이 굳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녀도 이제 기분이 상했을 터였다. 그 모습이 웃겨서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맞혔지, 그렇지?"

그가 물었다.

그녀는 피했다.

"제 과거는 제 것입니다. 제 나이는 아무에게도 상관없어요. 그건 당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그는 그녀에게로 몸을 던져 격렬하게 입맞췄다.

"너는 백네 살이야, 조제핀 발사모. 백세 노인의 입맞춤보다 더 달콤한 건 없어. 네가 로베스피에르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어쩌면 루이 16세도 알았겠지."

그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라울 드 안드레시는 조제핀 발사모의 짜증이 사소한 무례한 시도 하나에도 얼마나 뚜렷하게 드러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녀를 추궁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이미 정확한 진실을 알고 있지 않았던가.

물론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여인은 여전히 그를 압도하는 신비로운 위엄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그 위엄을 어쩔 수 없이 느끼면서도, 속으로는 다소 원망까지 하고 있었다.

제삼 주가 끝날 무렵, 레오나르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어느 날 아침, 라울은 백작부인의 그 두 마리의 야위어 보이는 말들이 끄는 마차가 떠나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는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레오나르는 수건으로 단단히 묶은 뭉치들을 '논샬랑트' 호에 싣기 시작했다. 그리고 라울이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선창 해치를 통해 그 뭉치들을 미끄러뜨려 내려보냈다.

밤이 깊어지자, 라울은 그 구멍을 여는 데 성공했다. 그는 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그곳에는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레이스와 귀중한 제의들이 가득했다.

그 이튿날, 또 다른 화물 작업이 있었다. 이번에는 16세기 작품으로 보이는 멋진 태피스트리가 나왔다.

그 무렵 라울은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만트에서 혼자 남아 있던 그는 자전거를 한 대 빌려, 잠시 동안 시골길을 달렸다.

점심을 먹고 나온 그는 작은 마을을 지나다가 넓은 집을 하나 발견했다. 정원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다가가 보니, 아름다운 가구들과 은제품들이 경매에 부쳐지고 있었다.

할 일이 없던 라울은 집 주변을 한 바퀴 돌았다. 정원의 한적한 곳, 나뭇잎이 무성한 작은 숲 위로 집의 옆면이 우뚝 솟아 있었다. 그는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사다리를 발견해 세우고는 올라갔다. 그리고 열린 창턱을 넘어 안으로 들어섰다.

안에서 가벼운 비명이 터졌다. 라울은 조제핀 발사모를 보았다. 그녀는 곧 정신을 차리고, 아주 자연스러운 어조로 그에게 말했다.

"아, 라울씨군요. 저는 이렇게 작은 책들을 감상하고 있었어요. 정말 걸작이죠! 희귀한 것들 말입니다."

그 말뿐이었다. 라울은 책들을 살펴본 뒤 엘제비르 판본 세 권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반면 백작부인은 라울 몰래 진열장 속의 메달들을 슬쩍 훔쳐냈다.

두 사람은 계단을 내려갔다. 군중의 소란 속에서 그들의 퇴장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300미터 떨어진 곳에서 마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후 퐁투아즈, 생제르맹, 그리고 파리에서 그들은 함께 '작전'을 펼쳤다. 경찰청 정면에 정박한 '논샬랑트'호가 그들의 거처 역할을 하며 말이다.

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의 신비롭고 닫힌 성향이 이런 일들을 처리하는 데서도 흐트러지지 않았지만, 라울의 소박하고 솔직한 본성은 조금씩 다시 우위를 점해 갔다. 그래서 매번 그 일은 폭소로 끝이 났다.

"차라리 할 거면, 선의 길 등을 등진 이상 거침없이 해냅시다. 슬픈 척하지 말고요. 당신처럼 말이죠, 조시네."

매번의 시련마다 라울은 자신도 몰랐던 재능과 숨은 실력을 드러냈다. 때로는 백화점에서, 장을 보러 다닐 때, 혹은 극장에서였다. 그의 연인은 기쁜 혀를 차는 소리를 듣곤 했다. 그러곤 연인의 손에는 시계가 들려 있고, 넥타이에는 새로운 핀이 꽂혀 있는 것을 보았다. 언제나 변함없는 냉정함. 어떤 위험도 위협하지 못하는 무고한 자의 평온함.

그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적이 없었다. 조제핀 발사모가 요구한 수많은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켰다.

그들은 배에서 나올 때면 항상 평범한 서민 복장으로 변장했다. 가까운 골목길에서 한 마리의 말에 끌리는 낡은 마차가 그들을 태워 갔다. 마차 안에서는 옷을 갈아입었다.

칼리오스트로는 항상 넓은 꽃무늬 레이스 베일을 벗지 않았다.

이런 사소한 디테일들이 라울에게 그의 연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려주었다. 그 외에도 알 수 없는 사실들이 많았다.

라울은 이제 의심하지 않았다. 조제핀이 레오나르를 통해 편지를 주고받으며 조직화된 공범 무리의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그녀가 일곱 갈래 촛대 사건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는 점도 의심하지 않았다.

또한 보마냥과 그의 친구들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는 점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중 생활은 라울과 조제핀 발사모 사이를 자주 삐걱거리게 했다. 조제핀은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라울은 자신의 행위는 잊은 채, 조제핀이 자신의 신념과 어긋나는 일을 저지르는 것 때문에 그녀를 원망했다. 그는 끝내 도둑과 무리 지어 다니는 두목이 된 그녀를 용납할 수 없었다.

사소한 일로 둘은 자주 부딪쳤다. 둘 다 성격이 강하고 개성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그때 어떤 사건이 갑자기 그들을 전면전으로 내몰았다. 공통의 적을 상대로 싸우고 있었음에도, 그들의 사랑이 어떤 순간에는 얼마나 많은 원한과 자존심, 적대감을 담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라울이 부르던 '카푸아의 낙원' 같은 시간은 막을 내렸다. 그건 바로 어느 날 밤, 보마냥과 에티그 남작과 베네토를 뜻밖에도 마주친 일 때문이었다. 세 친구는 바리에테 극장에 들어서는 참이었다.

"저들을 따라가자." 라울이 말했다.

백작부인은 망설였다. 라울은 재촉했다.

"어떻게 이런 좋은 기회가 우리 앞에 있는데도 놓치겠소?"

두 사람은 극장 안으로 들어가 어두운 발코석 자리에 앉았다. 그 순간, 무대 근처 다른 발코석 구석에서 그들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한 가지를 포착할 수 있었다. 관중석 격자를 올리기 직전, 보마냥과 그의 두 동무들의 실루엣이 눈에 들어온 것이다.

문제가 하나 떠올랐다. 왜 하필이면 교회 신자이자 겉보기에 엄격한 생활을 하는 보마냥이, 자신과는 무관한 극장가의 거리 극장에 모습을 드러냈을까? 그곳에서는 아주 선정적이고 그에게는 조금도 흥미로울 것 없는 풍자극이 공연되고 있었으니까.

라울은 이 질문을 조제핀 발사모에게 던졌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의도적인 무관심은 라울에게 또렷이 드러났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자신과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불가사의한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의 도움을 절대 원치 않는다는 것을.

"좋아요." 라울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그 말투에는 도발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다. "각자 길을 가기로 하죠. 각자 자신의 힘으로요. 누가 더 큰 상을 차지할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무대 위에서는 여배우들이 박자에 맞춰 다리를 치켜들며 뉴스 풍의 코믹 쇼를 펼쳤다. '카스카데즈'를 연기하는 미녀는 옷차림이 매우 과감했다. 그녀의 별명을 증명이라도 하듯, 가짜 보석들이 여기저리에

흐드러지게 달려 있었다. 눈부신 다색의 보석 띠가 이마를 감싸고 있었고, 머리카락에는 전구가 켜져 번쩍였다.

두 막이 공연되었다. 무대 앞쪽의 작은 좌석은 철망으로 완전히 닫혀 있었다. 그 안쪽에 세 친구가 앉아 있다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마지막 휴식 시간, 라울이 그 좌석 쪽을 거닐다가 문이 살짝 열려 있음을 발견했다.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확인해 본 결과, 세 남자는 공연 시작 삼십 분 만에 극장을 떠난 뒤였다.

"이제 여기서 할 일은 끝났군." 그가 말하며 백작부인에게 다가왔다. "저들은 이미 달아났다."

그때 무대 커튼이 올라갔다. 희극 배우가 다시 무대 위에 모습을 드러냈다. 머리를 단정히 정리한 덕분에, 처음부터 그녀의 이마에 두르고 있던 띠가 또렷이 보였다. 그것은 금실로 짠 리본이었고, 그 위에는 색깔이 제각기 다른 큼직한 돌들이 박혀 있었다. 일곱 개였다.

'일곱.' 라울은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보마냥이 찾아온 이유군.'

조제핀 발사모가 준비하는 사이, 라울은 극장 안내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었다. 그 연극의 희극 배우인 브리지트 루슬랭은 몽마르트르의 오래된 집에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정성스러운 하녀 발렌틴과 함께, 다음 공연의 리허설에 참석하기 위해 그곳을 내려온다고 했다.

다음 날 오전 11시, 라울은 '논샬랑스' 호를 나섰다. 그는 몽마르트르의 한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정오가 되자 가파르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지나 작은 집 한 채를 지나쳤다.

그 집 앞에는 담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당이 있었고, 뒤로는 수익용 건물에 기대어 있었다. 마지막 층은 커튼이 없는 창문만 보아도 빈 집임을 알 수 있었다.

라울은 평소처럼 빠른 두뇌로 즉각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는 그 계획을 거의 기계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그는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거리를 거닐었다.

그때 건물 관리인 여자가 인도에서 빗자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그 여자 뒤로 슬쩍 숨어들었다. 층계를 올라가 빈 아파트의 문을 부수고, 이웃집 지붕을 내려다보는 창문 중 하나를 옆으로 젖혔다. 주변에 아무도 자신을 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그는 뛰어내렸다.

바로 근처에 다락창이 벌어져 있었다. 그는 쓰러지듯 다락방 안으로 떨어졌다. 다락방은 쓸모없는 물건들로 어지럽게 가득 차 있었고, 내려가는 길은 고장 난 뚜껑 하나뿐이었다. 그는 간신히 그 뚜껑을 들어올려 머리를 내밀 수 있을 정도였다.

그곳에서 그는 2층의 복도와 계단실의 일부를 내려다볼 수 있었다. 하지만 사다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아래층, 즉 1층에서는 두 여성의 목소리가 오갔다. 라울은 몸을 최대한 숙여 경청했다. 젊은 여배우가 내실에서 점심을 먹고 있고, 집안 유일한 하녀인 그녀의 친구가 방을 정리하며 그녀를 돌보고 있다는 걸 알아챘다.

"다 끝났어!" 브리지트 루셀린이 방으로 돌아가며 외쳤다. "아, 발렌틴, 정말 기쁘다! 오늘은 리허설이 없잖아. 나갈 때까지 다시 누워 있을 거야."

이 휴식일은 라울의 계산에 약간의 방해를 줬다. 그는 브리지트가 없는 틈을 타 조용히 집안을 수색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그는 인내하며 운을 기다렸다.

몇 분의 시간이 흘렀다. 브리짓은 레뷔의 선율을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안뜰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상하네요. 오늘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데."

그녀가 말했다.

"가서 뭐가 왔는지 확인해 봐, 발렌틴."

하녀가 계단을 내려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곧 하녀가 다시 올라왔다.

"극단 쪽에서 보낸 편지예요. 단장님의 비서분이 가져다주셨다고 하네요. 주시죠. 거실로 모셨나요?"

라울은 1층에서 젊은 여배우의 치마 자락이 보이는 것을 보고 있었다. 하녀가 봉투를 건넸고, 브리짓은 곧장 봉투를 찢어 들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내 사랑스러운 루셀랭, 이마에 두던 보석 띠를 내 비서에게 맡겨주게. 그걸로 주형을 만들어야 하거든. 급한 일이라서. 오늘 밤 극장에서 돌려받게 될 거야."

라울은 그 짧은 말들을 듣자마자 몸을 떨었다.

'뭐지? 보석으로 된 띠! 그리고 일곱 개의 카보숑.'

'단장도 단서를 쫓고 있는 걸까? 브리짓 루셀린은 그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는 안심했다. 젊은 여성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말도 안 돼요. 이미 이 돌들을 약속했어요."

"그럼 곤란하군요." 하녀가 반박했다. "단장님은 기분이 안 좋아지실 거예요."

"어쩔 수 있나요? 제가 약속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돌들은 아주 비싼 값에 팔려야 해요."

"그럼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내가 편지를 쓰겠어." 브리짓 루셀린이 결정했다.

그녀는 자신의 내실로 돌아가더니, 잠시 후 하녀에게 봉투를 건넸다.

"너는 그 비서를 알고 있니? 극장에서 본 적 있어?"

"글쎄요,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이에요."

"단장님께 꼭 말씀해 주시오. 매우 유감이라는 것과, 오늘 밤 직접 그분께 상황을 설명하겠다는 걸요."

발렌틴이 다시 떠났다.

그리고 또 다시 긴 시간이 흘렀다.

브리짓이 피아노 앞에 앉아 성악 연습을 시작했다. 그 소리가 아마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가렸을 것이다. 라울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라울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졌다. 그는 그 사건이 그리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낯선 비서, 보석에 대한 요구…… 모든 것이 함정과 음흉한 계략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그러나 곧 그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커튼 사이로 그림자가 스며들어 내실로 향하는 것이 보였다.

'발렌틴이 다시 올라오는구나.'

라울은 생각했다. '내 예상이 틀린 거야. 그 남자는 이미 도망갔어.'

그때였다. 선율 한가운데서 피아노 소리가 갑자기 끊겼다. 가수가 앉아 있던 의자가 힘차게 밀려나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세요? … 아, 비서분이시군요. 맞죠? 새로 오신 비서분… 그런데 뭘 원하시는 건가요?"

"단장이 보석 반납을 명했소. 그러니 반드시 가져가야 하오."

"하지만 제가 이미 대답했습니다……" 브리짓은 점점 더 초조해하며 더듬거렸다. "하녀가 편지를 건넸을 텐데…… 왜 같이 올라오지 않았소? 발렌틴!"

그녀는 절박한 어조로 몇 번이나 이름을 불렀다.

"발렌틴! … 아, 당신 눈빛이 무서워요, 선생님."

문이 거칠게 닫혔다. 의자 소리가 나더니, 몸싸움의 소란이 일었다. 그리고 큰 비명이 터졌다.

"도와줘!"

그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브리지트 루셀린에게 위기가 닥쳤다는 직감이 스쳤을 때, 라울은 이미 트랩을 조금 더 들어 올리고 그 틈으로 빠져나갈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귀중한 시간을 잃고 말았다.

그 뒤로 그는 몸을 던져 두 번째 층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세 개의 닫힌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그중 한 문으로 돌진했다. 문 안은 엉망이 되어 있었다. 아무도 보이지 않자, 그는 방을 가로질러 화장실로, 그리고 싸움이 이어졌을 거라 생각되는 침실로 달려갔다.

곧이어 그는 거의 닫힌 창문의 커튼 사이로 드리운 어둠 속에서 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 남자는 무릎을 꿇은 채, 카펫 위에 누운 여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있었다.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끔찍한 욕설이 뒤섞여 울려 퍼졌다.

"세상에, 네 입 다물 줄 알아! 어이, 이놈! 네가 보석을 거부한다니. 그래, 내 작은 새야……"

라울이 거역할 수 없을 만큼 격렬하게 덤벼들자, 남자는 손아귀를 놓을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은 벽난로 쪽으로 굴러 떨어졌고, 라울의 이마가 벽난로에 강하게 부딪혀 몇 초 동안 정신이 아득해졌다.

사실 살인자는 그보다 체격이 훨씬 무거웠다. 날씬한 소년과 거구의 남자가 맞붙는 싸움은 오래갈 수 없었다.

잠시 후, 한 명이 몸을 풀고 일어났다. 다른 한쪽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가느다란 신음소리만 내고 있었다. 그런데 일어난 사람은 바로 라울이었다.

"멋진 한방이었죠? 선생님."

라울이 비웃듯 말했다.

"테오프라스트 뤼팽이라는 분의 사후 지시를 받은 거예요. 일본식 방법론이라는 장에서 배운 거죠. 이 한방이면 일 분간은 좋은 세상으로 보내고, 상대를 작은 양처럼 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젊은 여배우 쪽으로 몸을 굽혔다. 그리고 그녀를 안아 침대 위에 눕혔다.

즉시 그는 알 수 있었다. 살인자의 끔찍한 조름이 초래할까 봐 걱정했던 결과와는 달랐다는 것을. 브리지트 루셀랭은 숨을 고르고 있었다. 눈에 띄는 상처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온몸으로 떨었고, 미친 사람처럼 눈을 뜨고 있었다.

"아프지 않으시죠, 아가씨?"

그가 다정하게 물었다.

"아프지 않죠? 괜찮아요. 무엇보다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그 남자에게서 더 이상 위협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그는 재빨리 커튼을 걷어냈다. 그리고 당김 끈을 찢어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무기력한 손목을 묶었다.

하지만 조금의 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자, 그는 살인자를 창가 쪽으로 돌려놓았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그는 당황했다. 그리고 경악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레오나르…… 레오나르……"

그는 이 남자를 정면에서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보통 그는 마차 좌석에 웅크린 채 고개를 어깨 사이에 파묻고 앉아 있어, 키가 작아 보이고 마른 체격이라 라울은 그가 거의 허리가 굽은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그 남자의 날카로운 턱선과 회색빛 수염이 길게 늘어져 있는 옆모습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단 한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확신했다. 바로 조제핀 발사모의 비서이자 오른팔인 레오나르였다.

라울은 그를 완전히 묶어 버렸다. 입도 단단히 막았고, 수건으로 머리를 싼 뒤 내실로 끌고 가서 무거운 소파 다리 끝에 묶어 놓았다. 그리고 다시 젊은 여자 곁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여전히 신음하고 있었다.

"끝났소. 더 이상 볼 일 없소. 쉬시오. 나는 당신의 하녀를 돌보고, 그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겠소."

그는 이쪽 일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예상대로 그는 1층 거실 구석에서 발랑틴을 발견했다. 발랑틴은 방금 레오나르를 두고 온 것과 똑같은 상태였다. 그녀는 꼼짝도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녀는 머리가 단단한 여자였다. 구출되자마자, 그리고 자신을 공격한 자가 더 이상 해를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알자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리고 라울의 지시에 따랐다.

"나는 비밀 경찰 요원이오. 당신의 여주인을 구했소. 가서 그녀를 돌보시오. 나는 이 남자를 심문하고, 동료가 있는지 확인하겠소."

라울은 그녀를 계단으로 밀어냈다. 혼자 남고 싶었다. 머릿속을 뒤섞고 괴롭히는 생각들을 정리해야 했다.

생각은 너무 고통스러웠다. 잠시쯤은 그 생각들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충동이 밀려왔다. 만약 본능에 따랐다면, 상황은 우연에 맡긴 채 그 자리를 피하고 이웃집으로 도망쳤을 것이다.

하지만 해야 할 일들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그는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떤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결단하고 침착함을 잃지 않는, 점점 커져만 가는 지도자의 의지가 그를 행동으로 몰아갔다. 그는 마당을 가로질러 갔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길을 움직여 현관문 자물쇠를 조작했다. 문이 살짝 벌어졌다.

틈으로 한눈을 흘렸다. 거리 건너, 조금 아래쪽에서 그 낡은 마차가 멈춰 서 있었다.

마부석에는 아주 젊은 하인이 있었다. 레오나르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어, 그 이름이 도미니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는 말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마차 안에는 또 다른 공범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 공범은 누구였을까?

라울은 문을 닫지 않았다.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졌다. 이제 세상의 그 무엇도 그가 끝까지 파고드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그는 다시 1층으로 올라가 죄수에게 몸을 숙였다.

싸움 중 한 가지 디테일이 라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레오나르의 주머니 중 하나에서 사슬에 연결된 굵은 나무 호루라기가 빠져나왔던 것이다. 레오나르는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호루라기를 손에 쥔 채로 놓치지 않았다. 마치 그 도구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듯, 본능적인 동작으로 그것을 되찾았던 것이다.

라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이 호루라기는 위급한 상황에서 동료를 쫓아내기 위한 경고음이었을까? 아니면 모든 일이 끝난 뒤, 동료를 부르기 위한 신호였을까?

라울은 추론보다는 직관에 가까운 느낌으로 후자를 선택했다. 그는 창문을 살짝 열었다. 호루라기를 불기에 딱 필요한 시간만큼이었다.

그리고 툴 소재 커튼 뒤로 숨어, 그는 기다렸다.

심장이 턱턱 뛰었다. 그는 이렇게 날카롭고도 비참한 고통을 겪은 적이 없었다.

속으로는 이미 다가올 일을 알고 있었다. 문틀에 나타날 그 실루엣이 누구인지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희망을 걸었다. 모든 증거가 반대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 음침한 사건에서 살인자 레오나르의 동료가……

무거운 문짝이 밀려 열렸다.

"아!" 라울이 절망에 차서 내뱉었다.

조제핀 발사모가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친구를 방문하듯 태연하게, 그리고 여유롭게 안으로 들어섰다. 레오나르가 호루라기를 불자마자 길은 이미 열려 있었다. 그녀가 나서기만 하면 될 판이었다. 베일로 얼굴을 가린 채, 그녀는 가볍게 안마당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제야 라울은 다시 평정을 되찾았다. 심장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는 첫 번째 상대와 맞섰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새로운 무기로 이 두 번째 적과 싸울 준비를 끝냈다. 그는 발랑틴을 나직한 목소리로 불러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절대 입을 열지 마. 브리지트 루셀랭을 겨냥한 음모가 있어. 내가 그걸 무너뜨릴 거야. 저자가 그 음모의 일원이지. 절대 침묵을 지켜주겠지?"

하녀가 나섰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선생님. 경찰서에 달려가 신고할 수도 있고…"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주인님의 입장이 매우 어려워질 테니까요.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단, 이 방에서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요. 절대 소음이 없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울은 두 개의 연결문을 모두 닫았다. 브리지트 루셀린이 있는 방과 조지느와 자신이 대결을 벌일 방이 완전히 분리된 것이다. 라울이 원하던 대로,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소리가 새어 나가는 일은 없었다.

그때, 조제핀 발사모가 복도 끝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라울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레오나르의 몸이 끈으로 단단히 묶인 채로 있는 것을, 그의 옷차림으로 알아차렸다.

라울은 즉시 깨달았다. 조제핀 발사모가 극적인 순간에 얼마나 강력한 자기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말이다.

라울이 갑자기 나타나고, 레오나르가 묶여 있는 어수선한 방을 보았음에도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침착하게 생각에 잠겼다. 여성적인 신경질과 몸을 떨게 하는 동요를 억누르며 그녀는 자신을 다스렸다. 그녀가 머릿속으로 이런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이지? 라울이 여기서 뭘 하는 거지? 레오나르를 묶어 둔 건 도대체 누구야?'

마침내 베일을 벗어던진 그녀는 그저 담담히 물었다. 그것이 그녀를 가장 괴롭히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라울, 왜 그렇게 나를 바라보는 거야?"

그는 대답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 입에 올릴 말은 너무도 끔찍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놓치지 않으려, 근육의 미세한 떨림 하나, 눈의 깜빡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그녀를 응시했다. 그리고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브리지트 루셀랭이 살해당했습니다."

"브리지트 루셀랭?"

"네, 어제 밤의 그 여배우요. 보석 띠를 두른 그 여자 말입니다. 당신이 그 여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당신이 그녀의 집에 있고, 일을 마치는 대로 자신을 알리라고 레오나르에게 지시했으니까요."

그녀는 크게 당황한 기색이었다.

"레오나르? 레오나르가 한 일이라고?"

"네, 맞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브리지트를 죽인 건 바로 그 남자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가 두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을요."

그녀가 몸을 떨며, 더듬거리며 주저앉는 것을 보았다.

"아! 그 악당이라니! 정말 그런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그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매 단어마다 공포가 커져만 갔다.

"그가 죽였다… 죽였단 말인가! 정말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절대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고 나에게 맹세했잖아. 그토록 맹세했으면서도… 오, 믿고 싶지 않아."

그녀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을까, 아니면 연기를 하고 있는 걸까? 레오나르에게 갑자기 광기가 찾아와 저지른 짓일까, 아니면 계략이 통하지 않을 때 범죄를 저지르라는 지시에 따랐던 걸까? 라울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괴로워했다.

조제핀 발사모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을 머금고 라울을 바라보던 그녀가, 갑자기 그에게 달려들었다. 두 손을 모으고.

"라울… 라울… 왜 그렇게 나를 쳐다보는 거야? 아니야… 아니겠지? 나를 비난하는 건 아니겠지? 아, 정말 끔찍할 거야… 내가 그걸 알고 있었을 거라고, 혹은 그 끔찍한 범죄를 지시하거나 방임했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아니야… 내가 믿지 않는다고 맹세해 줘. 오, 라울… 내 라울아…"

그는 다소 거칠게 그녀를 앉게 했다. 그리고 레오나르를 그림자 속으로 밀어냈다. 그는 몇 걸음을 안팎으로 오가며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칼리오스트로 부인에게로 돌아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조진, 내 말 들어."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애인이라기보다, 오히려 고발자이자 적대자에 가까웠다.

"지금부터 반 시간 안에, 이 사건과 그 뒤에 숨은 음모에 대해 완전히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 나는 너를 치명적인 적으로 대할 것이다. 원하든 원치 않든, 너를 이 집에서 쫓아낼 것이다. 주저 없이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네 동조자 레오나르가 브리지트 루셀린에게 저지른 범죄를 고발할 테니까."

"그 후의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말할 거야?"

제8장

전쟁은 선포되었다. 라울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순간이었다. 조제핀 발사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격렬하고도 가혹한 공격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물론 그녀의 기질로는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저항했다. 다정하고 매력적인 연인이었던 라울 드 안드레시가 단번에 주인으로서의 위엄을 드러내며, 자신의 의지를 거칠게라도 강요할 수 있다고는 믿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애정 어린 다짐과 눈물, 약속을 동원했다. 모든 여성이 쓰는 술수를 다 썼다.

하지만 라울은 단호했다.

"너는 말할 거야. 나는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 있기 싫어. 너는 그 어둠에 취할지 모르지만, 나는 싫어. 나는 명확한 빛이 필요해."

"무엇 때문에?" 그녀가 격분하며 외쳤다. "내 인생 때문이란 말인가?"

"네 인생은 네 것이지. 내 눈에 드러내는 게 두렵다면 그 과거를 숨기면 돼. 난 네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늘 수수께끼일 줄 안다. 네 순수한 얼굴로는 마음속 깊이 숨겨진 것을 전혀 알 수 없지."

"하지만 내가 알고 싶은 건 내 삶과 연결된 네 삶의 한 부분이야. 우리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어. 내가 가는 길을 보여줘. 안 그러면 나는 범죄와 부딪칠 위험이 있어. 난 원하지 않아!"

그가 주먹을 내리쳤다.

"들었어, 조진. 난 죽이는 건 원하지 않아! 훔치는 건 좋아. 빈집을 터는 건 괜찮아! 하지만 죽이는 건, 천 번이고 천 번이고, 절대 안 돼!"

"나도 원하지 않아." 그녀가 말했다.

"아마도. 하지만 네가 사람을 죽이게 만들잖아."

"거짓말!"

"그럼 말해. 설명해 봐."

그녀는 두 손을 쥐어짜며 몸부림쳤다. 항변하며 신음했다.

"할 수 없어요…… 정말 할 수 없어요."

"왜? 네가 알고 있는 일, 보마냥이 말해 준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게 막는 건 누구냐?"

"이 일에 당신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 남자와 맞서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가 큰 소리로 웃었다.

"나를 걱정하는 거냐? 하, 참으로 좋은 변명이다. 안심해라, 조진. 나는 보마냥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내가 그보다 더 두려워하는 상대가 있다."

"당신, 조진."

그가 더 강하게 반복했다.

"당신, 조진. 그래서 나는 진실을 밝히려 한다. 네가 내 눈앞에 확실히 서 있을 때, 비로소 나는 두려움을 떨칠 수 있다. 결심했느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니에요."

라울이 격분했다.

"즉, 네가 나를 의심한다는 거군. 아주 흥미로운 일이군. 그 사건을 온전히 네 것으로 하고 싶은 거지. 알겠어. 가자. 밖에서 상황을 더 잘 판단할 수 있을 거야."

그가 그녀를 안아 들어 어깨 위에 올렸다. 절벽 아래 첫날 밤에 그랬던 것처럼. 그는 그렇게 그녀를 업고 문 쪽으로 향했다.

"멈춰." 그녀가 말했다.

놀라울 정도로 가벼운 힘으로 행해진 이 폭력은 그녀를 완전히 굴복시켰다. 더 이상 그를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걸 그녀는 직감했다.

"무엇을 알고 싶은 거야?" 그가 그녀를 다시 앉힌 뒤 그녀가 물었다.

"모두. 우선 네가 여기 있는 이유와, 그 비참한 자가 브리지트 루셀린을 죽인 이유."

그녀가 입을 열었다.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띠 말입니다……"

"가치가 없어요. 평범한 돌들이죠. 가짜 석류석, 가짜 토파즈, 베릴, 오팔 같은 것들이요."

"그래도 일곱 개가 있죠."

"그게 뭐가 중요하단 말인가? 그녀를 죽여야 했단 말인가? 기다렸다가 첫 기회만 있으면 방을 뒤지기만 하면 될 일이었다."

"물론이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흔적을 쫓고 있다고 했어."

"다른 사람들이?"

"그래. 오늘 아침 일찍, 내 지시로 레오나르가 어제 밤에 내가 눈여겨본 그 브리지트 루셀린을 조사했어. 그러자 그 집 주변에 누군가 배회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지."

"누군가? 누구란 말인가?"

"벨몬트의 사자들이야."

"이 사건에 얽혀 있는 그 여자?"

"그래. 그녀는 어딜 가든 나타나."

"그게 뭐가 중요하단 말인가?" 라울이 되물었다. "그게 살인의 이유가 될 수 있나?"

"미친 놈이 된 거야. 내가 저렇게까지 몰아세운 게 잘못이었어."

"'무조건 그 머리띠가 필요해'고 했으니까."

라울이 외쳤다.

"보잖아, 보라고! 우리는 정신나간 야수한테 휘둘리고 있어. 그 놈은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죽여. 이제 됐어. 끝내자."

"아침에 어슬렁거리던 놈들은 보마냥이 보낸 게 분명해. 넌 그 보마냥과 맞설 실력이 안 돼. 내가 지휘를 맡자. 네가 성공하려면, 오직 나를 통해서만 성공할 수 있어."

조제핀의 기운이 빠졌다. 라울의 말에는 그런 확신이 담겨 있어, 그녀는 마치 물리적인 충격이라도 받은 듯했다. 그는 실제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해 보였다. 그녀가 지금까지 만나 본 어떤 남자보다도 뛰어난 재능을 가졌고, 더 날카로운 정신과 시선, 그리고 다양한 행동 수단을

지니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그녀는 그 꺾이지 않는 의지와, 어떤 타협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에너지 앞에 고개를 숙였다.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말하겠습니다. 하지만 왜 여기서 말해야 합니까?"

"여기서,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아닙니다." 라울이 분명히 말했다. 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이 다시 정신을 차리면,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좋아요." 그녀가 다시 말했다. 무거운 목소리로. "좋아요, 저는 굴복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이 걸려 있고, 당신이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으니까요."

라울은 깊은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의 결정을 강요하는 그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힘을 실감했다.

물론 칼리오스트로는 모든 힘을 다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브리지트 루셀린의 살해 추정 사건은 그녀의 저항력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했고, 사슬에 묶인 레오나르의 모습은 그녀의 신경을 극도로 긴장시켰다.

하지만 라울은 눈앞의 기회를 빠르게 포착했다. 위협과 공포, 힘과 꾀를 모두 동원해 자신의 승리를 확정지었다.

이제 그는 주인이었다. 조제핀 발사모를 항복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랑까지 다스리고 있었다. 입맞춤도, 애정 어린 스킨십도, 유혹의 술수도, 열정의 마력도, 욕망의 홀린 듯 한 끌림도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었다. 그는 이미 파국 직전까지 밀고 나왔으니까.

그는 작은 원탁을 덮고 있던 카펫을 걷어 올려 레오나르 위에 던졌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조제핀 옆에 앉았다.

"들어주마."

그녀는 원망과 분을 담은 시선을 던지며, 힘겨운 분노를 억누른 듯 속삭였다.

"당신이 잘못했어요. 잠시 흔들린 틈을 타서, 언젠가 스스로 해줄 이야기라면서 강요하다니. 불필요한 모욕이에요, 라울."

그는 차갑게 되물었다.

"들어주마."

그러자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당신이 원한 일이야. 이제 끝내자.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세부 사항은 생략하고 핵심만 말해주마. 길지도 복잡하지도 않다. 단순한 보고서일 뿐이다."

"24년 전, 1870년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이 임박한 시기였다. 루앙 대주교이자 상원의원이었던 본슈즈 추기경이 코 지방에서 견진성사 순방을 하다가 끔찍한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당시 성채의 마지막 소유주였던 오브 경이 살고 있던 겔르 성으로 피난을 가야 했다."

"그곳에서 그는 저녁 식사를 했다. 밤이 깊어 방으로 물러나려 할 무렵, 오브 경이 특별한 접견을 청했다. 그는 거의 90세에 가까운 노인이었지만, 온몸은 쇠약해도 정신만큼은 또렷했다. 추기경은 즉시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 대화는 생각보다 훨씬 길게 이어졌다."

"그때 본슈즈 추기경이 들은 기묘한 고백들의 요약을 소개하겠다. 이 요약은 추기경이 나중에 직접 기록한 것으로, 나는 단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옮길 것이다. 내가 이 내용을 외우고 있기 때문이다."

"각하,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제 어린 시절이 대혁명이라는 격랑 속에서 흘렀다는 사실입니다."

늙은 기사가 설명했다.

"공포 정권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열두 살이었습니다. 고아였던 저는 매일 아침 숙모를 따라 근처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숙모는 그곳에서 가난한 죄수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고 환자들을 돌보았죠."

"감옥에는 심문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운에 맡겨 처형당할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제게 각별한 존재가 되었죠.

이름도 알 수 없는, 누구도 왜, 누구의 고발로 체포되었는지 모르는 한 사내였습니다."

"저의 정중함과 동정이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저를 신뢰하게 되었고, 저 역시 그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재판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은 그날 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일 새벽이 되면, 헌병들이 나를 단두대로 데려갈 것이다. 나는 내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채 죽을 것이다. 그것이 나의 소원이었기 때문이다.

너에게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내가 몇 가지 진실을 털어놓아야 하고, 너로 하여금 그것을 한 남자로서 경청하게 하며, 나중에는 한 남자의 성실함과 냉정함을 가지고 그 일을 처리하게 하도록 요구한다.

내가 너에게 맡기는 임무는 매우 중요하다. 내 아들아, 너는 이런 중대한 임무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장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린 이 비밀을 반드시 지켜라."

그가 이어 말했다.

"그가 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신은 사제라고요. 그리고 사제로서, 헤아릴 수 없는 부를 맡아 간직한 사람이었다고요. 그 부는 순도 높은 보석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보석 하나하나의 가치는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크기는 매우 작았습니다."

그는 보석들을 하나둘 모으자마자,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곳인 은신처 깊숙한 곳에 숨겨 두었습니다.

코 지방 한구석,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바위가 하나 솟아 있었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어떤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기둥으로 쓰이는 바위였습니다.

그 화강암 돌기둥은 땅속으로 거의 파묻혀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했고요. 돌기둥 위쪽 끝에는 자연적으로 뚫린 구멍이 두세 개 있었습니다. 그 구멍들은 흙으로 막혀 있었고, 그 틈새에서 작은 식물과 들꽃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땅 덮개를 벗겨 내고 다시 꼼꼼히 덮어 두었던 구멍들 중 하나였다. 그곳, 바로 야외에 있는 그 저금통 같은 곳에 아름다운 보석들을 넣었던 것이다.

지금은 구멍들이 이미 가득 차 있었고, 다른 숨겨진 장소는 선택되지 않았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새로 얻은 보석들을 섬산 목재로 만든 상자에 담아 두었다. 그 상자는 사제가 체포되기 며칠 전, 직접 돌기둥 아래에 묻어둔 것이었다.

그는 그 장소를 매우 정확하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잊어버렸을 때 그 위치를 정확히 가리키는 단어로 이루어진 하나의 암호도 건넸다.

그때 나는 이렇게 약속했다. 시간이 좀 더 평온해지면, 즉 그가 정확히 이십 년은 멀었다고 본 날짜가 되면, 먼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지 확인하러 가겠다고. 그리고 그 날짜부터 매년 부활절 주일에 괴르 마을 교회에서 거행되는 미사에 참석하겠다고.

정말 부활절 주일이 되자, 나는 성수반 옆에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자를 보게 되었다. 내가 그에게 이름을 말하자마자, 그는 나를 축일 때만 켜는 가지가 일곱 개 달린 놋촛대 근처로 데려갔다. 나는 그의 손짓에 즉시 답하며 위치를 알려주는 암호를 건넸다.

이것이 우리 사이에 오간 두 가지 확인 신호였다. 그 뒤로 나는 그를 화강암 기준점까지 안내했다.

"영혼의 구원을 걸고, 주어진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다음 날, 그 신실한 사제는 교수대에 올랐습니다."

"각하, 비록 매우 어렸지만, 저는 신중하게 침묵의 서약을 지켰습니다. 오브의 숙모가 돌아가시자, 저는 소년병으로 입대해, 그 후 총재정부와 제국 시대의 모든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나폴레옹이 몰락했을 때 저는 서른세 살이었고, 대령에서 강등당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먼저 은신처로 향했고, 그곳에서 쉽게 화강암 기준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1816년 부활절 일요일, 괴르 교회의 제단 위에 놋쇠 촛대가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성수반 앞에 없었습니다."

다음 부활절 일요일, 나는 그곳에 갔다. 이후로도 매주일요일마다 찾았다. 그사이 괴르 성을 사들였기 때문이다. 성이 매물로 나왔던 것이다.

나는 엄격한 병사처럼, 맡겨진 임무에 충실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각하, 이제 쉰다섯 해가 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 일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는 소문은커녕, 단 하나의 단서도 듣지 못했습니다.

석주는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괴르 성당지기에 의해 정해진 날에 촛대에 불이 켜집니다. 하지만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나는 뭘 해야 했을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을까? 교회 당국에 호소해 볼까? 프랑스 국왕에게 면담을 요청해 볼까? 아니, 내 임무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할 권리는 없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마음속의 갈등은 얼마나 격렬했는가. 고통스러운 양심의 가책이 나를 옥죄었다. 내가 죽어 무덤 속으로 그 위대한 비밀을 가져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얼마나 두려웠던가. »

"각하, 오늘 밤부터 제 모든 의심과 망설임은 사라졌습니다. 우연히 이 성에 찾아오신 각하의 방문은 신의 뜻이 분명히 나타난 것 같습니다. 각하는 종교적 권력과 세속적 권력을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대주교로서 각하는 교회를, 상원의원으로서 각하는 프랑스를 대표합니다. 이 두 권력 모두에 관련된 사실을 밝히는 데 있어 제가 잘못될 일은 없습니다. 이제 각하가 선택할 차례입니다, 각하. 행동하십시오. 협상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거룩한 예물을 누구에게 건네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보네쇼스 추기경은 중간에 말을 끊지 않고 경청했다. 하지만 결국 기사에게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이야기에는 아직 믿기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이었다.

기사에게서 그 말을 들은 그는 잠시 자리를 뜨더니, 금세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돌아왔다.

"이것이 제가 들었던 상자입니다. 그곳에서 찾은 것이죠. 제 집으로 가져오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각하, 이 상자를 가져가서 들어 있는 보석 백여 개의 가치를 매겨 보십시오."

그는 계속했다. "그러면 제 이야기가 진실임을 믿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선한 신부가 '측정할 수 없는 부'를 언급한 것이 잘못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화강암 기준석에는 저 보석들과 똑같은 보석이 만 개나 들어 있다고, 그는 말했으니까요."

기사의 끈질긴 요구와 그가 내세운 증거들은 추기경을 움직였다. 추기경은 즉시 사건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고, 해결책이 나오면 그 노인을 자신에게 부르기로 약속했다.

이 약속을 가지고 대화가 끝났다. 대주교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정이 그것을 미루게 했다.

사정이란 무엇이었는가. 먼저 프랑스와 프로이센 사이의 전쟁 선언과, 그로 인한 참사가 있었다. 그의 직책이 맡긴 무거운 짐들이 그를 사로잡았다. 제국은 무너졌고, 프랑스는 침략당했다. 그리고 달이 지나갔다.

루앙이 위기에 처하자, 추기경은 영국으로 보내야 할 중요한 문서들을 조속히 전달하고 싶어졌다. 그는 그 일괄 발송물과 함께 기사의 상자를 함께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12월 4일이었다. 독일군이 그날 밤 도시로 진입하기 하루 전이었다.

신임이 두터운 하인 자베르가 직접 이륜마차를 몰았다. 그는 르아브르행 배를 타기 위해 그 길을 따라 달렸다.

이틀 뒤, 추기경은 루앙에서 십 킬로미터 떨어진 루브레 숲의 협곡에서 자베르의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문서가 들어 있던 여행용 가방은 추기경에게 전달되었다. 하지만 마차와 말은 물론, 섬에서 만든 작은 나무 상자까지 행방불명이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불행한 하인은 루앙 너머로 깊숙이 들어와 피난 가는 부유한 시민들의 마차를 약탈하던 독일 기병대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

불운은 계속되었다. 일월 초, 추기경은 오브 기사의 사절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노인은 조국의 패배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는 죽기 직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갈겨쓴 두 문장을 남겼다.

"경계석의 위치를 알려주는 암호의 단어가 상자 바닥에 새겨져 있었지. 나는 황동 촛대를 정원에 숨겨뒀어."

이렇게 해서 그 모험은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상자가 도난당했으니, 오브 기사의 증언이 사실과 조금이라도 일치한다는 것

을 입증할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더구나 그 보석을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보석들은 정말 존재했던 것일까?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은, 오브 기사의 상상의 산물일 뿐인지도 모른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 상자는 그저 연극용 보석 몇 개와 색이 예쁜 돌멩이들을 담기 위한 장식함에 불과했던 것은 아닐까?

추기경의 마음에는 조금씩 의문이 스며들었다. 그 의심은 꽤나 끈질겨서, 그는 결국 침묵을 지키기로 마음을 굳혔다. 오베 기사의 말은 노인의 헛소리로 치부해야 마땅했다. 그런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하지만?"

라울 드 안드레시는 그런 헛소리에 지극히 흥미를 느끼는 듯 다시 물었다.

"하지만, 조제핀 발사모가 대답했다. 그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몇 페이지에 걸쳐 글을 적어 두었다. 구르 성에서 가진 회담과 그 이후의 사건들을 기록한 메모였다. 그는 그 메모를 태우기를 잊었거나, 누군가가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가 죽은 지 몇 년 후, 그의 도서관이 경매에 부쳐졌을 때, 신학 서적 한 권 속에서 그 메모가 발견되었다."

"누가 찾았나요?"

"보마냥이요."

조제핀 발사모는 고개를 숙인 채, 마치 암송하는 듯 단조로운 목소리로 이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라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이 그녀를 놀라게 했다.

"왜 그래?" 그녀가 물었다.

"제게는 정말 흥미진진하군요. 생각해보십시오, 조제핀. 차례로 횃불을 넘겨받은 세 노인의 증언을 통해 한 세기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거기서 중세로 이어지는 전설, 아니 끔찍한 비밀에 닿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슬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고리가 제자리에 놓여 있죠. 그리고 그 사슬의 마지막 고리, 바로 보마냥이 나타났습니다.

보마냥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가 이 역할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 선언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몰아내야 할까요? 제가 그와 손을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에게서 횃불을 빼앗아야 할까요?"

라울의 열광적인 태도는 칼리오스트로 부인에게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가 그녀에게 이야기를 중단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리라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망설였다. 아직 말하지 않은,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무거운 이야기, 즉 자신의 역할에 관한 이야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라울이 말했다.

"계속해, 조진. 우리 지금 아주 멋진 길을 걷고 있잖아. 함께 걸어가자. 그리고 손에 닿을 만큼 가까이 있는 보상을 함께 나누자고."

그녀는 말을 이었다.

보마냥의 속내는 한 마디로 요약된다. 그는 야망에 사로잡힌 자라는 것이다.

초기부터 그는 진정한 소명인 종교적 소명을, 도를 넘치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동원했다. 그 두 가지가 결합되어 그를 예수회에 잠입하게 했고, 그는 그곳에서 막강한 지위를 차지했다.

그가 그 메모를 발견했을 때, 그는 도취되었다. 앞에는 광활한 가능성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그는 몇몇 상관을 설득해, 부의 정복을 위해 열정을 불태우게 했다. 그리고 예수회가 가진 모든 영향력을 자신의 계획에 동원하도록 허락받았다.

그는 곧장 자신 주변에 열두 명 정도의 하급 귀족들을 모았다. 그들은 모두 명성은 좀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빚이 많았다. 보마냥은 이들에게 자신의 계획 전체를 밝히지 않았다. 일부만 공개한 채, 그들은 모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 음모가들의 단체인 양 조직화되었다.

각자에게는 활동 영역이 주어졌고, 각자에게는 조사 범위가 정해졌다. 그들은 모두 돈의 힘으로 묶여 있었다. 보마냥은 돈을 아끼지 않는 인물이었다.

두 해에 걸친 치밀한 조사 끝에 얻은 결과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했다.

먼저, 목이 잘린 사제의 이름이 페캄 수도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니콜라 형제였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비밀 문헌과 오래된 장부들을 샅샅이 뒤진 끝에, 과거 프랑스 전역의 수도원들이 주고받았던 흥미로운 서신들이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아주 옛적부터 종교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십일조'와 같은 돈이 흐르고 있었으며, 이 돈은 코 지역 수도원들만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공동의 자금으로 보였고, 향후 치러야 할 공방전이나 성지를 위한 원정을 대비한 무한한 비축 자금처럼 보였다.

이 부를 관리하는 칠인 위원회가 있었지만, 그 자금의 위치를 아는 이는 단 한 명뿐이었다.

"프랑스 대혁명이 그 모든 수도원을 무너뜨렸죠. 하지만 보물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어요. 니콜라 형제가 마지막까지 그 보물을 지켰고요."

조제핀 발사모의 말이 끝난 후,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라울의 호기심은 충족되었고, 그는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억눌린 열정을 담아 속삭였다.

"정말 아름답군. 정말 멋진 모험이야."

그는 항상 이렇게 확신했다. 과거가 현재로 물려준 보물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런 보물을 찾는 일은 필연적으로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 조상들은 우리처럼 프랑스 은행의 금고나 지하 저장고를 활용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자연적인 은신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 금과 보석을 쌓아두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어떤 기억술 공식으로 전달했는데, 그것은 마치 자물쇠의 암호와도 같았다.

어떤 대재앙이 닥치면, 그 비밀은 사라지고, 어렵게 모은 보물도 함께 사라져 버렸다.

그의 열정은 점점 고조되었고, 그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아닙니다, 조제핀 발사모. 오히려 그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이야기죠."

그가 말을 이었다.

"형제 니콜라가 말한 게 맞고, 모든 정황이 그를 뒷받침한다면요. 만 개의 보석이 그 기이한 저금통에 쏙 들어갔다면, 그 유산의 가치는 무려 십억 프랑에 달할 것입니다. 중세 시대가 남긴 재산이라니요. 수백만, 수천만 명의 수도사들이 쏟아부은 노력, 그리고 광신주의 시대에 온 기독교 세계가 바친 거대한 헌신. 그 모든 것이 노르망디의 과수원 한복판, 화강석 기둥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마치 자신의 열변을 스스로 끊어내려는 듯, 갑자기 젊은 여성 곁으로 돌아앉았다. 그리고는 명령조 목소리로 그녀에게 물었다.

"그리고 너는 이 모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조제핀 발사모? 너는 무엇을 가져왔느냐? 칼리오스트로로부터 특별한 단서를 얻었느냐?"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의 네 가지 수수께끼 목록에서, 그는 이 수수께끼와 '프랑스 왕들의 재산'이라는 항목 옆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루앙, 르아브르, 디에프 사이. (마리 앙투아네트의 자백.)'"

"그래, 그래." 라울이 낮고 깊은 목소리로 되받았다. "코 지역이군. 옛 강 어귀, 그곳에서 프랑스 왕들과 수도승들이 번영했지. 바로 그곳에 십 세기 동안의 종교적 축적이 숨겨져 있는 거야. 두 개의 상자가 서로 가깝게, 그곳에 숨겨져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그 상자를 찾아낼 거야."

그리고 그는 조제핀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러니 너도 찾고 있던 거야?"

"네, 하지만 구체적인 단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처럼 찾고 있던 또 다른 여자가 있었나요?"

그가 그녀의 눈동자 깊숙이 파고들며 물었다.

"바로 보마냥의 두 친구를 죽인 그 여자요."

"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벨몬트 후작부인이죠. 칼리오스트로의 후손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나요?"

"아무것도요."

"보마냥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가 친구들의 복수를 원했던 거죠?"

"네."

그녀가 단호하게 답했다.

"보마냥이 점차 자신이 아는 것을 털어놓았나요?"

"스스로 말했나요?"

"스스로요."

"그건 당신이 그가 당신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간파했다는 뜻이군요."

"그리고 그가 당신에게 느끼는 사랑을 이용해 자백을 이끌어냈다는 거죠."

"네."

그녀가 솔직하게 인정했다.

"위험한 도박이었을 겁니다."

"그건 내 목숨을 건 도박이었어. 나를 죽이기로 결정한 건, 내가 그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겪는 고통에서 벗어나려 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야. 갑자기 그는 나 자신을, 자신보다 먼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적수로 여겼지. 그가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순간,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어."

"그런데 그가 발견한 건 대체로 몇 가지 역사적 사실에 불과하지 않았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꽤 모호한 수준이었잖아요?"

"그것뿐이었어."

"그럼 내가 벽기둥에서 꺼낸 촛대 가지는, 첫 번째로 확실한 진리의 단서가 된 거군요."

"맞아요. 첫 번째였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별 이후로 그가 얼마나 더 앞서 나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멈춰 서 있는 사이, 그는 몇 걸음 더 나아갔을 수도 있으니까요."

"몇 걸음?"

"네, 적어도 한 걸음은요. 어제 밤 보마냥이 극장에 나타났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였을까요? 브리짓 루셀린이 이마에 일곱 개의 보석이 달린 띠를 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띠가 무슨 뜻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아침 브리짓의 집을 감시하게 한 것도 그일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조진."

"어떻게요? 누구를 통해?"

"브리짓 루셀린을 통해서입니다."

그녀가 몸을 떨었다.

"브리짓 루셀린?"

"물론입니다." 그가 평정심을 잃지 않고 말했다. "그녀에게 물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 여자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녀가 살아 있다는 말씀이세요?"

"당연하지요." 그가 말했다.

그는 다시 일어나 발끝으로 두세 번 빙글빙글 돌았다. 마치 작은 춤을 추듯, 캉캉과 지그가 섞인 듯한 우스꽝스러운 동작이었다.

"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 제발 저를 노려보지 마세요. 만약 제가 당신에게 일으킨 신경 과민이 당신의 저항을 무너뜨릴 만큼 강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 일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언젠가는 보마냥이 10억을 숨겼을 테고, 조제핀은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겠지요. 자, 이제 그 증오 어린 눈빛 대신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주시오."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은 감히! … 그러다니요! … 그리고 그 모든 협박과 강요는, 제가 말하도록 만들기 위한 연극이었단 말입니까? 아, 라울, 저는 당신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지만, 장난스럽게 말하며 그가 말했다. 너는 용서해 줄 거야. 자존심에 살짝 난 작은 상처일 뿐, 우리 사랑과는 아무 상관없어, 내 사랑스러운 이여! 우리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어느 날은 한쪽이 살짝 긁어내리고, 다음 날은 다른 쪽이… 그러다 어느 순간 모든 점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되지.”

“그 전에 헤어질 수도 있어,” 그녀가 이를 갈며 말했다.

“헤어진다니? 내가 네게서 몇 가지 비밀을 캐냈다고? 헤어진다니…”

하지만 조제핀은 너무 당황한 표정이어서, 갑자기 라울은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해 설명을 멈춰야 했다. 그는 한 발에서 다른 발로 가볍게 뛰며, 구르며 놀다가 신음했다.

“세상에, 정말 웃기다! 부인이 화를 내시다니! 그럼 이제 장난도 못 치는 건가? 조금만 건드려도 바로 화가 치밀어 오르다니! 아, 내 착한 조제핀, 넌 정말 나를 많이 웃게 했구나.”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말에 신경도 쓰지 않고, 그녀는 레오나르를 감싸고 있던 수건을 벗겨내며 묶인 끈을 끊었다.

레오나르는 사나운 짐승처럼 라울을 향해 덤볐다.

“손대지 마!” 그녀가 명령했다.

그는 즉시 멈춰 섰다. 주먹을 쥐고 라울의 얼굴을 향해 내밀었다. 라울은 눈물을 머금으며 중얼거렸다.

“또 시작이군. 이 악당, 상자에서 나온 마귀 같아.”

그 남자는 격분하여 몸이 떨렸다.

"우리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이 애송이…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이 애송이… 백 년이 걸려도 말이야."

"너도 세기 단위로 세는구나! 네 상사처럼." 라울이 비웃었다.

"가라." 칼리오스트로 부인이 레오나르를 문 밖으로 밀어내며 명령했다. "가거라. 차를 몰고 가."

그들은 서로 모르는 언어로 짧은 대화를 나눴다. 그러자 그녀는 혼자 남은 젊은이 곁으로 다가가, 거친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어떡할 거야?"

"지금?"

"응. 네 의도는 뭐지?"

"물론 아주 순수해, 조제핀. 천사 같은 의도라고."

"장난은 그만해. 도대체 뭘 할 거야? 어떻게 움직일 셈이야?"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다.

"나는 네와 다르게 행동할 거야, 조제핀. 너는 늘 의심만 했잖아. 나는 네가 되지 못했던 사람이 될 거야. 너를 해치는 걸 부끄러워할 충실한 친구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지?"

"브리지트 루셀린에게 꼭 필요한 질문을 몇 가지 하려고 해. 네가 들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묻는 거야. 괜찮겠지?"

"네." 그녀가 여전히 화가 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다려.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시간이 촉박하거든."

"시간이 촉박하다고요?"

"그래, 곧 이해할 거야, 조진. 움직이지 마."

라울은 즉시 두 개의 통로 문을 열고 살짝 열어둔 채로 놔뒀다. 그래야 조진이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는 발렌타인이 지키고 있는 침대 쪽으로 걸어갔다. 거기서 브리지트 루셀린이 쉬고 있었다.

젊은 여배우는 그에게 미소 지었다. 깊은 공포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자신을 구해 준 남자를 본 순간 그녀는 안도와 신뢰감을 느꼈다. 그 감정이 그녀를 이완시켜 주었다.

"피곤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한두 분만요. 대답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당연하죠."

"좋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경찰이 감시하고 있던, 곧 병원에 입원시킬 한 미치광이의 피해자였습니다. 더 이상 위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을 풀고 싶군요."

"물어보십시오."

"그 보석으로 만든 머리띠는 무엇입니까? 어디서 구하셨나요?"

그녀가 망설이는 기색을 그가 느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시인했다.

"이 보석들은… 낡은 상자에 들어 있던 것을 제가 찾았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 말입니까?"

"네. 쪼개지고 금이 간 상자였습니다. 심지어 뚜껑도 닫혀 있지 않았죠. 어머니가 시골에서 살고 있는 작은 집 다락방에서, 짚더미 아래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루앙과 르아브르 사이에 있는 릴본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는 대체 어디서…"

"모르겠어요. 어머니께 여쭤보지도 않았으니까요."

"돌들은 지금처럼 나왔나요?"

"아니요. 돌들은 은으로 만든 굵은 반지에 박혀 있었어요."

"그 반지들은요?"

"저는 어제까지 제 무대 화장실 화장품 상자 안에 넣어뒀죠."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 거군요?"

"네. 제 분장실로 축하하러 온 한 분께 넘겼거든요. 우연히 그 반지들을 보셨던 분이에요."

"혼자서 오셨나요?"

"아니요, 다른 두 분과 함께 오셨어요. 그분은 수집가랍니다. 오늘 오후 세 시에 돌 일곱 개를 가져다주기로 했어요. 그분께서 반지를 다시 맞추실 테니까요. 좋은 값에 사주실 거예요."

"반지 안쪽에 글씨가 새겨져 있나요?"

"네. 옛날 문자로 된 단어들이었어요. 저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죠."

라울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다소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이 모든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비밀을 지키는 게 최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어머니 때문이죠. 어머니께서 집안에 아무 가치도 없는 반지들을 숨겨두고 있다니, 참으로 의외입니다. 비록 금전적 가치는 없더라도 역사적 중요성은 크니까요."

브리지트 루셀린은 놀라 떨었다.

"그 반지들은 제가 곧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돌은 그냥 가지고 계세요. 제가 당신을 대신해 반지들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그 분 주소가 어디죠?"

"보지라르 거리입니다."

"이름은요?"

"보마냥입니다."

"좋소. 마지막 조언을 하나 더 드리죠. 이 집을 떠나세요. 여기는 너무 외진 곳입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는 하녀와 함께 호텔에 머무세요. 그곳에서 아무도 만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겠죠?"

"네, 선생님."

밖으로 나온 조제핀 발사모는 라울 드 안드레시의 팔에 매달렸다. 그녀는 몹시 초조해 보였고, 복수나 원한 같은 생각은 전혀 없는 듯했다. 끝내 그녀가 말했다.

"이해했지? 네가 그에게로 가는 거지?"

"보마냥에게."

"미친 짓이야."

"왜?"

"보마냥에게! 게다가 네가 알다시피, 그 시간엔 그와 다른 두 명이 함께 있는 곳인데."

"두 명에 하나를 더하면 삼이지."

"제발 가지 마. 부탁이야."

"그리고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들이 날 잡아먹을 줄 아나?"

"보마냥이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

"그럼 그는 식인종이란 말인가?"

"라울, 웃지 마."

"조시네, 울지 마."

그녀가 진심이라는 걸 그는 알았다. 여성의 다정함으로 인해 그녀는 그들의 불일치를 잊고, 그를 위해 떨고 있었다.

"라울, 가지 마." 그녀가 다시 말했다. "보마냥의 집은 내가 알아. 그 강도 세 명이 너에게 덤벼들어도, 너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좋아," 그가 말했다. "그들이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으니까."

"라울, 라울, 농담하는 거지, 그런데…"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꼭 안았다.

"자, 조시네, 들어봐. 난 이 막대한 사건에 맨 마지막으로 뛰어들어 그 한복판에 서 있어. 네 조직과 보마냥의 조직이라는 두 거대한 세력 앞이지. 둘 다 당연히 나라는 '세 번째 도둑'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 그래서 만약 내가 큰 수를 쓰지 않으면, 난 여전히 아무 일도 없는 그대로 남게 될 거야. 그러니 우리 적 보마냥과도 내가 알아서 처리하게 해 줘. 내 친구 조제핀 발사모와 매듭지은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말이야."

"난 그쪽과 잘 협상했잖아. 그렇지 않니? 내게도 꽤 쓸 만한 수단이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거야."

그 말은 그녀를 다시 한 번 찌르는 것이었다. 그녀는 팔을 빼냈고, 두 사람은 침묵한 채 나란히 걸었다.

라울은 속으로 물었다. 가장 치열한 적이 바로 그 여성이 아니었을까 하고 말이다. 다정하게 웃는 얼굴을 가진 그 여인. 그는 그녀를 뜨겁게 사랑했고, 그녀 역시 그를 뜨겁게 사랑했다.

제9장

"보마냥 씨 댁 맞습니까?"

안에서 감시구 판이 열리며, 늙은 하인의 얼굴이 철창 너머로 바짝 달라붙었다.

"맞긴 한데, 주인님은 접대 안 하십니다."

"브리지트 루셀린 씨 말씀이라고 전하세요."

보마냥 씨의 집은 지층에 자리 잡고 있었고, 1층과 함께 하나의 저택을 이루고 있었다. 문지기도 없고, 초인종도 없었다. 감옥의 창문처럼 작은 구멍이 뚫린 무거운 철문에, 문에 부딪쳐 두드리는 철제 망치만 있을 뿐이었다.

라울은 다섯 분 이상 기다려야 했다. 젊은 남자의 방문이 예상치 못한 것이었기에, 세 인물 모두 호기심을 가졌을 터였다. 특히 젊은 여배우의 방문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명함을 내보이시라고 합니다." 하인이 다시 돌아와 말했다.

라울은 명함을 건넸다.

또 한 번의 기다림.

그리고 자물쇠를 여는 소리와 사슬을 풀는 소리가 들렸다. 라울은 광택 나는 넓은 현관으로 안내되었다. 그곳은 수도원의 접견실처럼 보였고, 벽에서는 축축한 물기가 스며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여러 문을 지나쳤다. 마지막 문은 가죽으로 패딩 처리된 문짝으로 덧대어져 있었다.

늙은 하인은 문을 열고, 젊은이 뒤에서 다시 닫았다. 라울은 홀로 남았다. 그의 앞에는 세 명의 적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적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 중 적어도 두 사람은 라울의 출입을 엿보며 서 있었다. 권투 선수가 공격을 시작하려는 듯한 자세였다.

"바로 그놈이로군! 바로 그 자라고!" 고드프루아 드에티그가 분노에 몸이 떨리며 외쳤다.

"보마냥, 바로 그놈이야. 구르르의 그 자, 촛대 가지를 훔쳐간 놈이 맞지. 하, 이 자식, 정말 당당하군. 오늘 도대체 왜 찾아온 거야? 내 딸의 손을 청하러 온 거라면…"

라울은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선생님, 당신은 그 일만 생각하시나요? 저는 클라리스 양에게 깊은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존경스러운 희망을 간직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이든, 구르르의 그 날이든, 제 방문 목적은 결혼이 아닙니다."

"그럼, 네 목적은 뭐지?" 남작이 혀를 차며 물었다.

"구르르의 그 날은 당신을 지하실에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보마냥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고드프루아 드에티그는 이미 이방인을 향해 덤벼들었을 것이다.

"그만합시다, 고드프루아. 앉으시고, 그분께서 왜 방문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게."

그는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았다. 라울도 자리에 몸을 맡겼다.

말을 시작하기 전, 라울은 잠시 대화 상대들을 관찰했다. 라에 데티그 회의를 가진 이후로 그들의 얼굴이 달라져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남작은 많이 늙어 있었다. 볼이 오그라들었고, 때때로 그의 눈빛에는 젊은이인 라울을 놀라게 할 만큼 초조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집념과 죄책감이 주는 그 열과 불안이, 보마냥의 고뇌에 찬 얼굴에서도 분명히 읽혔다.

하지만 그 남자는 여전히 자기를 단단히 잡고 있었다. 죽은 조제핀의 기억이 그를 괴롭힌다면, 그것은 자신의 행동을 재고하며 자신이 옳았음을 확인하는 양심의 논쟁 형태일 뿐이었다.

그의 외모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직 내면에서만 일어나는 비극이었다. 그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극적인 순간들, 즉 위기의 순간들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런 순간들이야,' 라울은 생각했다. '내가 만들어내야 해. 내가 성공하려면.'

그가 무너지거나 내가 무너지거나,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무너져야 했다.

보마냥이 다시 입을 열었다.

"무엇을 원하시나요? 루셀린 양의 이름을 이용해 제 집으로 들어오셨죠. 무슨 의도였습니까?"

라울은 당당하게 대답했다.

"어제 밤 바리에테 극장에서 그녀와 나누기 시작한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서였습니다, 각하."

공격은 정면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보마냥은 피하지 않았다.

"이 대화는 그녀가 함께해야만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루셀린 양은 중요한 일 때문에 오지 못했습니다." 라울이 말했다.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요?"

"네. 그녀는 살해 미수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누군가 그녀를 죽이려 했다고? 왜?"

"그녀가 가진 일곱 개의 돌을 빼앗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과 다른 사람들이 그녀에게서 일곱 개의 반지를 빼앗아간 것과 같은 이유죠."

고드프루아와 오스카 드 베네토가 자리에서 들썩였다. 보마냥은 몸을 가라앉혔지만, 놀란 눈으로 그 젊은이를 지켜보았다. 뜻밖의 개입이 도발과 오만함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적수가 좀 약해 보였기에, 그의 대답은 태연하게 들렸다.

"두 번이나, 신사분, 남의 일에 간섭하셨군요. 그것도 당신에게 마땅한 교훈을 줄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요.

첫 번째는 구르르에서였습니다. 친구들을 함정에 빠뜨리더니, 우리 소유의 물건을 빼앗아 갔죠. 평범한 말로는 그냥 '강도'라고 부르는 짓입니다.

오늘의 공격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아무런 변명 없이 정면으로 우리를 모욕했으니까요. 게다가 그 반지들이 우리가 훔친 것이 아니라, 양도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요. 당신의 행동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당신도 잘 알다시피, 제게는 도둑질도 폭력도 없었습니다. 다만 당신과 같은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으로서의 노력일 뿐이죠."

보마냥이 비웃는 듯한 어조로 물었다.

"아, 당신도 우리와 같은 목적을 향해 가는 거요? 그렇다면 그 목적은 무엇인가?"

"화강암 반석 속에 숨겨진 만 개의 보석 발견이지."

보마냥은 순간 당황했다. 어색한 침묵과 어색한 태도로 그 사실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라울은 공세를 강화했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 둘 다 옛 수도원의 전설적인 보물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길에서 마주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로 인해 충돌이 일어나는 것도 당연하지. 이 사건의 전부가 바로 거기 있다."

수도의 보물! 화강암 기준석! 만 개의 보석!

이 단어들은 보마냥에게 망치로 내리친 듯 강렬하게 다가왔다. 다시 말해, 이 경쟁자를 여전히 상대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사라진 칼리오스트로 대신, 또 다른 경쟁자가 수백만 프랑을 노리는 경주에 뛰어들어온 것이다.

고드프루아와 베네토는 사나운 눈빛을 교환하며, 싸움에 임할 운동선수처럼 가슴을 내밀었다. 반면 보마냥은 차분함을 되찾기 위해 온 힘

을 다해 몸을 굳혔다. 그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그 차분함이었다.

"전설일 뿐이야."

그는 목소리를 단단히 잡으며 생각의 실을 이어갔다.

"여자들의 수다일 뿐이고, 믿을 만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 대체 그런 허황된 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한다는 말이야?"

"저도 당신보다 더 시간을 낭비하는 건 아닙니다." 라울이 말했다. 보마냥이 다시 마음을 다잡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그의 뜻이었고, 그를 당황하게 만들 기회는 놓치지 않았다. "당신만큼이나요. 당신의 모든 행동이 그 보물 주변을 빙빙 돌고 있잖아요. 보네슈즈 추기경만큼이나요. 그의 기록은 결코 여자의 수다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우두머리로 모시고 있는 열두 명의 친구들만큼이나요."

"세상의 신이시여." 보마냥이 비꼬는 투로 말했다. "당신이 얼마나 잘 알고 있군요!"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한 여자에게서요."

"여자라고요?"

"조제핀 발사모, 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으로부터요."

"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 보마냥이 놀라 외쳤다. "당신이 그녀를 알고 있었습니까?"

라울의 계획이 순식간에 현실이 되었다. 그는 논쟁의 한복판에 칼리오스트로라는 이름을 던지기만 했다. 그 순간 상대는 완전히 당황해졌다. 그 정도 혼란이었기에 보마냥은 설명할 수 없는 무모함을 드러냈다. 그는 칼리오스트로를 이미 죽은 사람처럼 이야기했다.

"당신은 그분을 아셨습니까? 어디서? 언제? 그리고 그분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작년 겨울 초에 처음 뵈었습니다. 당신과 마찬가지로요, 선생님." 라울이 공세를 한층 강화하며 답했다. "그해 겨울 내내, 에티그 남작의 딸을 우연히 만나기 전까지, 저는 거의 매일 그녀를 만났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보마냥이 내뱉었다. "그분이 당신을 매일 만날 리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제 앞에서 당신의 이름을 입에 올렸을 테니까요. 저는 그분과 꽤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 비밀을 감출 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걸 그대로 간직했죠."

"무례한 소리다! 너와 그녀 사이에 불가능한 친밀함이 있었다고 믿게 만들려는 거냐? 거짓말입니다, 선생님. 조제핀 발사모에게서 많은

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교태, 속임수 같은 행동들. 하지만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음탕한 행위는 결코 아니었죠."

"사랑은 음탕함이 아닙니다." 라울이 차분하게 말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랑이라고요? 조제핀 발사모가 당신을 사랑했다나요?"

"네, 선생님."

보마냥은 격분하여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는 라울의 얼굴 바로 앞에서 주먹을 휘두르고 있었다. 이번에는 그를 진정시켜야 했다. 그는 분노로 몸이 떨렸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흐르고 있었다.

<내가 잡았군. 라울은 생각하며 기쁨에 차 있었다.>

<범죄와 양심의 가책에 관해서는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아직 사랑에 사로잡혀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를 이끌 수 있겠군.>

한두 분이 흘렀다. 보마냥은 이마에 땀을 닦았다. 그는 물 한 잔을 들이키며 생각했다. 상대가 비록 보잘것없어 보여도, 단숨에 처리할 수 있는 상대는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우리가 본론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에 대한 당신의 개인적인 감정은 오늘 우리가 논의

할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이곳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라울이 답했다.

"중세 시대의 종교적 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부는 당신이 개인적으로 예수회의 금고에 넣으려 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때는 각 지방을 통해 모인 헌금은 카우 지역 일곱 주요 수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동 자금으로 관리되었죠. 일곱 명의 대리인이 그 자금을 관리했는데, 그중 단 한 사람만 금고의 위치와 자물쇠 조합을 알고 있었습니다."

"각 수도원은 자신만의 주교용 반지나 목자용 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반지는 대를 이어 다음 대리인에게 전달되었죠."

"일곱 명의 위원회를 상징하는 것은 일곱 개의 가지를 가진 촛대였습니다. 히브리 예식과 모세의 성전을 기념하여, 각 가지에는 해당 수도원의 반지와 같은 색과 재질의 돌이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게우리에서 발견한 가지에는 붉은 돌, 가짜 석류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는 특정 수도원을 상징하는 돌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니콜라 형제가 카우 수도원들의 마지막 총책임자였으며, 페캄 수도원의 수도사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일단 일곱 수도원의 이름을 알면, 수색을 해볼 만한 일곱 곳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어제 밤 극장에서 브리지트 루셀랭에게서 받은 일곱 개의 반지 안에, 바로 그 일곱 수도원의 이름이 적혀 있죠. 제가 당신에게 요청하는 것은 바로 이 일곱 반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수년간 찾아 헤매던 것을 당신 혼자 단번에 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까?" 보마냥이 고함을 질렀다.

"그렇습니다."

"내가 거절하면 어떡해?"

"실례합니다. 거절하시겠습니까? 저는 명확한 대답만 받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거절합니다. 당신의 요구는 완전히 미친 소리이고, 저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당신을 고발하겠습니다."

보마냥은 경악한 표정이 되었다. 라울을 한심한 광인이라도 상대하듯 바라보았다.

"당신이 저를 고발한다니…… 대체 무슨 새로운 장난이오?"

"저 세 분 모두를 고발합니다."

"세 분 모두라니?" 그가 비웃었다.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요, 젊은 친구?"

"저 세 분 모두를 조제핀 발사모, 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의 살인범으로 고발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았다. 반발의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고프루아 드에티그와 그의 사촌 베네토는 의자에 주저앉듯 몸을 더 깊이 숙였다. 보마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그의 비웃음은 끔찍한 찌푸림으로 끝났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물쇠에 열쇠를 돌린 뒤 주머니에 넣었다. 그 작은 행동은 두 동료에게 다시금 용기를 불어넣었다.

주인이 보여준 단호한 태도는 그들에게 생기를 되찾게 했다.

라울이 감히 농담조로 입을 열었다.

"선생님, 병사가 부대에 입대하면 등자 없이 말에 올라타게 하죠. 균형 잡는 법을 익힐 때까지요."

"그게 무슨 뜻이죠?"

"이겁니다. 저는 총기를 휴대하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오직 두뇌만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는요. 그러니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등자가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총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 명, 모두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그러니…"

"그만 말하고 사실부터 말해라." 보마냥이 위압적인 어조로 선언했다. "사실만 대라. 너희가 칼리오스트로를 살해했다고 우리를 몰아세우는 거냐?"

"당신들은 그 놀라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는 거지?"

"있지."

"듣고 있다."

"이쪽입니다. 몇 주 전, 저는 에티그 성의 숲을 배회하고 있었어요. 운이 좋으면 드 에티그 후작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죠. 그때 당신 친구 중 한 명이 운전하는 차를 발견했습니다. 그 차는 성 안으로 들어갔고, 저도 뒤따랐습니다.

조제핀 발사모라는 여자가 구시대의 탑에 있는 방으로 옮겨졌는데, 그곳에서 여러분은 가짜 재판을 열었더군요. 그녀의 심문은 가장 불공정하고 사악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신은 검사 역할을 맡았죠, 선생님. 그리고 그 여자가 당신의 애인이었다고 믿게 만들 정도로 간교하고 오만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형집행인 노릇을 했구요."

"증거를 보여라! 증거를!" 보마냥이 비명을 지르며 말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다.

"저는 거기 있었습니다. 오래된 창문 틀에 기대어 누워, 당신의 머리 위였죠, 선생님."

"말도 안 돼!" 보마냥이 말을 더듬으며 중얼거렸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은 반드시 개입해서 그녀를 구하려고 했을 거예요."

"무엇에서 구하라는 거죠?" 라울이 물었다. 그는 칼리오스트로 백작 부인의 구조 사실을 결코 밝히려 하지 않았다.

"당신의 다른 친구들처럼, 저도 그녀를 영국 정신병원에 감금하라고 결의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에트르타까지 달렸죠. 배를 한 척 빌려서, 저녁이 되자 당신이 예고했던 그 영국 요트 쪽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 선장을 겁주려 했죠."

"잘못된 조작이었죠. 그 실수로 불쌍한 여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당신의 추악한 계략을 깨닫고, 그 끔찍한 범죄의 전모를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두 공범이 사제의 계단을 내려간 일, 구멍 뚫린 배, 그리고 익사."

세 남자는 두려운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차차 의자를 가까이 붙여 갔다. 베네토가 젊은이를 둘러싼 방패나 되던 식탁을 밀어냈다. 라울은 고드프로아 드티그의 끔찍한 얼굴과 입꼬리를 일그러뜨린 비틀림을 목격했다.

보마냥이 손짓하자, 남작은 권총을 겨누고 충동적인 자의 머리를 날려 버렸다.

아마도 그 설명할 수 없는 충동성이 보마냥의 명령을 잠시 주저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는 위엄 있는 표정으로 속삭였다.

"선생님,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생님은 그런 행동을 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남의 일에 간섭해서도 안 되죠. 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하거나, 이미 일어난 일을 부정하는 것은 거절합니다. 다만… 다만 저는 궁금합니다. 선생님이 그런 비밀을 엿봤다면, 어찌 감히 여기 앉아 우리를 도발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미친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요, 선생님?" 라울은 순진한 척 물었다.

"당신의 목숨이 우리 손아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라울은 어깨를 으쓱였다.

"제 목숨은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면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성미입니다."

"저는 당신 세 사람 사이에 있어도, 당신들이 제 보호자일 때와 다름없이 위험하지 않습니다." 라울은 단호하게 말했다.

"정말 그렇게 확신합니까?"

"네,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들은 뒤에도 아직 나를 죽이지 않았잖아요."

"내가 죽이기로 결정하면 어때?"

"한 시간 뒤면, 당신 세 사람 모두 체포당할 거요."

"말도 안 돼!"

"말장난이 아니라는 뜻이야. 지금 네 시 오 분. 내 친구가 경찰청 근처를 거닐고 있어. 네 시 삼십 분에 내가 그 친구를 만나지 못하면, 그는 형사국 국장에게 알릴 거야."

"장난이오? 허튼소리요!"

보마냥이 희망을 되찾은 듯 외쳤다. "나는 유명한 인물이라오.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당신의 친구는 코웃음을 들을 뿐이오."

"그들은 경청할 거요."

"그동안…"

보마냥이 고드프루아 데티그에게 돌아보며 속삭였다.

사형 명령이 내려지려 하고 있었다. 라울은 위험 속에 숨 쉬는 묘한 쾌감을 느꼈다. 단 몇 초만 더. 그가 놀라운 침착함으로 미뤄왔던 그 행동이 곧 실행될 순간이었다.

"한 마디만 더 하겠소."

"말하시오. 단, 그 말이 우리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비난은 듣기 싫습니다. 그건 법원이 판단할 일이고, 제가 맡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당신과 수다를 떨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요. 즉각적인 증거가 아니라면……"

그는 다시 일어섰다. 라울도 그 앞에 서서, 눈을 마주하며 고집스럽고 권위 있는 어조로 말했다.

"증거요? 만약 없다면, 그것은 곧 죽음이라는 뜻이오, 맞지 않소?"

"이것이 내 대답이오. 일곱 개의 반지를 당장 보여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내 친구가 그 편지를 경찰에 넘길 거요. 당신이 에티그 남작에게 보낸 편지 말이오. 조제핀 발사모를 손에 넣는 방법과, 남작이 살인을 저지르도록 몰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이었지."

보마냥은 놀란 척했다.

"편지? 살인 조언이라니요?"

"그렇소." 라울이 덧붙였다. "일종의 위장 편지였지만, 불필요한 문장만 무시하면 된다는 거야."

보마냥은 크게 웃었다.

"아, 알겠소. 기억나요. 그 엉성한 낙서 말입니다."

"그 낙서가 당신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몰아세우고 있소."

"그렇군요… 네, 인정합니다." 보마냥은 여전히 비꼬는 어조로 말했다. "다만 나는 고등학생이 아니오. 철저하게 대비했죠. 그 편지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에티그 남작에게서 돌려받았으니까요."

"사본은 돌려주었지만, 원본은 제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바론이 쓰는 원통형 책상 서랍 틈새에서 찾은 거죠. 이 원본을 제 친구가 경찰에 넘길 겁니다."

라울을 둘러싸던 고리처럼 뭉쳐 있던 사람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사촌 형제들의 사나웠던 얼굴에서 이제 공포와 불안만 읽혔다.

라울은 결투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 싸움 없이 끝난 것이었다.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 몇 번, 그리고 몇 번의 가짜 공격. 몸싸움은 없었다.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상황을 주도했는지, 보마냥을 얼마나 교묘하게 비참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는지 보라. 정신이 혼란스러운 보마냥은 더 이상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거나, 적의 약점을 간파할 수 없었다.

드디어 그 편지 문제다. 라울은 원본을 자신이 갖고 있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그 주장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마냥은 양보하기 전에 확실하고도 만질 수 있는 증거를 요구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라울의 작전이 결국 그에게 먹힌 듯했다. 그는 라울의 그 단언 하나만으로 만족했다.

사실 그는 망설임도, 협상도 없이 즉시 물러섰다. 서랍을 열고 일곱 개의 반지를 꺼내며 간단히 물었다.

"당신이 그 편지를 다시 우리에게 해롭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무엇인가?"

"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각하. 게다가 우리 사이에서는 상황이 결코 똑같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다음번에는 각하께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시게 될 테니까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보마냥이 억눌린 분노를 담아 말했다.

라울은 떨리는 손으로 고리들을 쥐었다. 안쪽에는 분명히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는 재빨리 종이에 수도원 일곱 곳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페캄, 생완드리유, 주미에즈, 발몽, 크루셰르르발라스, 몽티비이유, 생조르주드보슈르빌.

보마냥은 종을 쳤지만, 하인을 복도에 붙잡아 두었다. 그는 라울에게 다가가 말했다.

"만약을 위한 제안입니다. 저희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아시죠. 현재 상황과 최종 목표가 그리 멀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테고요."

"그건 제 생각과 같습니다." 라울이 답했다.

"그렇다면…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희와 함께하시겠습니까?"

"제 친구들과 같은 신분으로요?"

"아니요. 저와 같은 신분으로요."

제안은 정중했다. 라울은 그 뜻을 깨달았고, 자신에게 바치는 존경심에 기분이 좋았다. 만약 조제핀 발사모가 없었다면, 그는 아마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와 보마냥 사이에는 어떤 타협도 불가능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정이 있어 거절해야 합니다."

"그럼 적이라는 뜻이군요?"

"아닙니다, 각하. 경쟁자일 뿐입니다."

"적입니다." 보마냥이 다그쳤다. "그리고 적으로서…"

"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과 같은 대우를 받겠군요." 라울이 말을 끊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우리의 목표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실 겁니다. 때로는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요. 만약 그 수단이 언젠가 당신에게 되돌아온다면,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건 제가 선택한 일입니다."

보마냥은 하인을 불렀다.

"손님을 모셔 드려요."

라울은 세 번 깊게 절을 하고 복도를 따라 걸었다. 마지막 문까지 다 다랐다. 엿보기 구멍(들창)이 달린 문이었다. 문이 열리자 그는 늙은 하인을 향해 말했다.

"잠시만요, 친구. 제발 기다려 주시오."

그는 다시 사무실로 빠르게 돌아갔다. 세 남자가 모여 수군거리는 곳이었다. 그는 문턱에 서서 자물쇠 손잡이를 손에 쥔 채, 도망칠 길을 미리 확보해 두었다. 그러고는 친절한 어조로 그들에게 던졌다.

"저런 치명적인 서한 이야기를 꺼내자면, 한 가지 해명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 서한의 사본을 한 장도 찍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내 친구가 원본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경찰서 근처를 배회하며 오후 네 시 사십오 분쯤을 노려본다는 그 친구의 행적이, 조금은 과장되지 않았나요?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다시 뵙게 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라울은 보마냥의 면전에서 문을 쾅 닫았다. 하인에게 알릴 틈도 주지 않고 그는 재빨리 출구로 향했다.

두 번째 승리가 확정된 순간이었다.

거리 끝자락에서, 라울을 보마냥 집까지 모셔다 준 조제핀 발사모가 마차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부 양반, 생라자르 역, 장거리 열차 출발지."

라울이 말했다.

그는 차에 뛰어올랐다. 기쁨에 전율이 일었다.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외쳤다.

"여보, 봐. 꼭 필요한 일곱 가지 이름이야. 목록이 있어. 받아."

"그래서?" 그녀가 물었다.

"자, 이제 됐다. 하루에 두 번째 승리다. 그것도 무슨 승리란 말인가! 세상에, 사람들을 속이는 게 이렇게나 쉬운 줄이야. 조금만 대담하고, 생각이 명확하며, 논리가 뚜렷하고, 화살처럼 목표를 향해 곧장 나아가려는 의지만 있다면 장애물은 스스로 무너져 내린다. 보마냥은 영리한 놈이지, 그렇지? 하지만 그 놈도 너처럼 무너졌다, 내 사랑 조진. 어때? 제자가 자랑스러운가? 최고의 스승 두 명, 보마냥과 칼리오스트로의 딸이, 한 중학생에게 짓밟혀 산산조각 난 거야. 뭐라고 생각하니, 조제핀?"

그는 말을 멈췄다.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화내지 않겠지, 내 사랑?"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아직까지도 섭섭해하지는 않지?"

"아, 너무 무리하지는 마.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용서하지 못해. 나는 자존심이 강하고 원한도 잘 잊지 못하거든. 하지만 너만큼은 오래 화를 낼 수가 없어. 너는 뭔가 특별한 매력이 있어서 적대감을 무력화시키거든."

"보마냥은 무력화되지 않아. 젠장, 절대 아니야!"

"보마냥은 어엿한 남자거든."

"그렇다면 나는 남자와 전쟁을 벌일 거야. 정말로 내가 그런 일을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해, 조진! 모험과 정복, 그리고 놀랍고도 전설적인 것들을 위한 존재라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유리하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걸 안다. 그러니 승리가 확실할 때 싸움을 건다는 건, 충분히 유혹적인 일이 아니겠니?"

좁은 거리를 달리는 차는 빠른 속도로 달렸다. 센 강을 건넜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이길 거야, 조진. 으뜸패를 모두 손에 쥐고 있어. 몇 시간 후면 릴본에 도착한다. 루셀린 과부를 찾아내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상자를 뜯어볼 거야. 섬에서 만든 목제 상자, 그 위에 수수께끼의 열쇠가 새겨져 있지. 그리고 나면 끝이야! 그 단어와 일곱 수도원 이름만 있으면, 설마 내가 상금을 놓칠 리가 없지!"

조진은 그의 열정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흥분으로 들떠 있었다. 보마냥과의 결투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젊은 여자를 껴안았다. 지나가

는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고, 차창을 열어 마부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말은 '달팽이처럼' 느릿느릿 걸었기 때문이다.

"어서 가자, 늙은이! 대체 뭐 하는 놈이냐! 네 수레에는 운명의 신과 미의 여왕이 타고 있는데, 말은 왜 달리지도 않느냐!"

마차는 오페라 가를 따라 달렸다. 페티샹 거리와 카푸신 거리를 지나 카마르탱 거리로 접어들자, 말은 속도를 높였다.

"완벽하군!" 라울이 외쳤다. "다섯 시 십이 분 남았어. 우리는 도착할 거야. 물론, 너도 릴본까지 함께 가는 거지?"

"왜요? 쓸데없는 일이에요. 우리 중 한 명만 가면 충분하죠."

"그래, 좋은 말이야." 라울이 말했다. "너는 나를 믿고 있어. 내가 배신하지 않을 줄 알지. 그리고 우리 사이의 계약은 이미 성립됐어. 한쪽의 승리는 곧 다른 한쪽의 승리니까."

하지만 아우베르 거리에 가까워지자, 왼쪽에서 마차용 대문이 갑자기 열렸다. 마차는 속도를 늦추지 않은 채 돌더니, 안뜰로 들어섰다.

세 명의 남자가 양쪽에서 나타나, 라울은 저항할 새도 없이 거칠게 붙잡혀 끌려갔다.

그는 겨우 조제핀 발사모의 목소리를 알아챘다. 그녀는 차 안에 남아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생 라자르 역으로, 서둘러!"

남자들은 이미 그를 집 안으로 밀어 넣었고, 반쯤 어두운 방으로 던져 넣었다. 뒤에서 무거운 문이 닫히며 빗장이 채워졌다.

라울의 가슴을 뛰게 하던 기쁨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웃고 농담을 했지만, 그 속에는 목소리의 톤을 일그러뜨릴 만큼 커져가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이제 내 차례야! 잘했어, 조제핀. 정말 수작이었어. 완벽하게 먹혔지! 정확히 과녁 한가운데를 명중시켰어. 솔직히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 아니,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부르던 승리의 노래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지 상상해 봐. '나는 정복을 위해 태어났어! 기이하고 신비로운 일을 위해!' 미친놈 같아. 저런 실수를 저지른 인간은 입을 다물어야 해. 정말 추락이었어."

그는 문으로 돌진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감옥 문이었던 것이다.

그는 희미하게 비치는 작은 환풍창 쪽으로 기어올라보려 했다. 하지만 어떻게 닿을 수 있겠는가.

그때, 은은한 소리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천장 모퉁이에 있는 벽에 총구 하나를 겨누는 총안(銃眼) 같은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 총구는 그를 정면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가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멈추면 멈췄다.

그의 분노는 보이지 않는 사수에게로 향했다. 그는 거침없이 욕설을 퍼부었다.

"이 악당아! 비열한 놈아! 구멍에서 내려와 내 이름이라도 봐라. 무슨 짓을 하는 놈이냐! 그리고 네 여주인에게 전하라. 그녀도 무사하지는 못할 것이며, 머지않아……"

그는 갑자기 발을 멈췄다. 그토록 늘어놓던 말들이 모두 어리석게 느껴졌다. 분노가 순식간에 체념으로 바뀌자, 그는 벽장 겸 화장실 역할을 하는 아코브에 놓인 철제 침대 위로 드러누웠다.

"어쨌든, 원하면 죽여도 좋아. 하지만 좀 자게 내버려 둬."

하지만 라울은 잠을 생각하지 않았다. 우선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불쾌한 결론을 이끌어내야 했다. 그건 생각보다 쉬웠다. 결론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되었다.

조제핀 발사모가 자신을 대신해, 자신이 준비해 둔 승리의 열매를 거두어 들이고 있다는 사실.

그녀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성공하기 위해선, 대체 어떤 수단을 동원해야 했을까?

라울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레오나르가 다른 공범과 차량을 동반해 그들을 뒤쫓아 베오마냥의 집까지 따라왔고, 곧장 조제핀 발사모와 합류했을 것이라고.

그제야 레오나르는 조제핀 발사모가 기다리는 동안, 카우마르탱 거리의 함정을 치려는 참이었다. 그 함정은 바로 그 용도로 특별히 마련된 장소였다.

그런 적들과 맞서, 자신의 나이와 힘으로 혼자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한쪽에는 베오마냥이 있었고, 그 뒤에는 수많은 동조자와 부하들이 버티고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조제핀 발사모가 있었고, 그녀 뒤에는 치밀하게 조직된 무리가 있었다.

라울은 결심을 한다.

"내가 바라는 대로 언젠가 바른 길로 돌아서든, 아니면 더 가능성이 높게도 모험의 길로 완전히 빠져들게 되든. 나 역시 필요한 행동 수단을 갖추게 될 거라고, 나는 맹세한다. 혼자 싸우는 자는 망한다. 오직 지휘자만이 목적지에 도달한다. 나는 조제핀을 조종해 왔다. 하지만 오늘 밤, 그 보물 상자를 손에 쥘 사람은 바로 그녀일 것이다. 반면 라울은 축축한 짚 위에서 신음하고 있고."

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알 수 없는 나른함이 온몸을 뒤덮었다. 전신의 피로감이 함께 찾아왔다. 그는 의도치 않은 졸음을 물리치려 애썼다. 하지만 뇌속은 순식간에 안개에 휩싸였다. 동시에 메스꺼움이 치밀어 올랐고, 속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도 들었다.

힘을 내어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는 금세 무너졌다. 저림이 점점 심해지자 그는 결국 매트리스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차 안에서 조제핀 발사모가 평소 쓰던 작은 금색 사탕 통을 꺼내 들었던 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두세 알의 약을 삼키더니, 무의식적으로 그중 하나를 그에게 건넸던 것이다.

"아…"

땀범벅이 된 그는 숨을 헐떡이며 중얼거렸다.

"그녀가 나를 독살했어… 남은 약들에는 독이 들어 있었지."

하지만 그 생각이 맞는지 확인할 겨를은 없었다.

어지러움이 그를 덮쳤다. 거대한 구덩이 위를 빙글빙글 도는 듯한 느낌, 그리고 결국 그는 울부짖으며 그 깊은 구덩이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라울을 너무도 깊이 잠식해 버렸다. 눈을 다시 떴을 때, 자신이 살아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을 정도였다.

힘겹게 몇 번 호흡을 하며 몸을 가다듬었다. 자신의 뺨을 꼬집어 보기도 하고, 소리 내어 말을 건네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살아 있었다.

거리에서 들려오는 먼 소음들이 그의 마음을 최종적으로 확신으로 채워 주었다.

'결국 나는 죽지 않았구나.'

그가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에 대해 얼마나 높은 평가를 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가 자신의 권리대로 준 약간의 마약성 물질 때문에, 그는 곧장 그녀를 독살범으로 몰아세웠다.

그가 얼마나 잠들었는지 정확히 말할 수 없었다. 하루였을까? 이틀이었을까? 아니면 그 이상이었을까?

머리는 무겁고 이성은 흔들렸으며, 끝없는 근육통이 온몸의 팔다리를 묶어 놓은 듯했다.

벽을 따라가자, 구멍으로 내려보냈을 것 같은 식량 바구니가 보였다. 위에는 총기 따위 보이지 않았다.

배도 고프고 목도 말랐다. 그는 먹고 마셨다. 지친 몸은 이미 그 식사가 불러올 결과 따위에는 반응하지 않았다. 마약일까, 독약일까. 알 바 아니었다. 잠깐의 휴식일지, 영원한 잠일지, 그에게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는 다시 누워, 몇 시간이고, 아니 며칠이고 깊은 잠에 빠졌다.

마침내, 얼마나 무겁게 잠들었든 라울 드 안드레시는 몇 가지 감각을 의식하게 되었다.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서 벽을 밝히는 빛의 뭉게구름을 보고 터널의 끝을 알아차리는 것처럼.

그 감각들은 대체로 즐거운 것이었다. 의심할 여지없이 꿈이었다. 규칙적이고 연속적인 소리에 맞춰 부드럽게 흔들리는 꿈.

그가 눈꺼풀을 들어 올릴 때마다, 그는 직사각형의 틀을 보게 되었다. 그 틀 안에는 그림이 그려진 천이 움직이며 끊임없이 바뀌는 풍경을 펼쳐 보였다. 해가 쏟아지는 밝은 풍경도 있고, 황금빛 황혼에 떠 있는 어두운 풍경도 있었다.

이제 그는 팔만 뻗으면 음식을 집어 들 수 있었다. 그는 음식을 조금씩 맛보며 그 맛을 더욱 깊이 느꼈다. 향기로운 와인이 그와 함께했다. 와인을 마실 때마다 그는 자신의 체내로 에너지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은 빛으로 가득 찼다. 그림의 테두리는 열린 창문의 틀로 변했고, 그 너머로 언덕, 초원, 그리고 마을의 첨탑들이 이어지는 풍경이 보였다.

그는 아주 작은 방에 있었다. 그는 이미 그곳에서 살아본 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언제였을까? 그곳에는 그의 옷, 린넨, 그리고 그의 책들이 있었다.

사다리가 놓여 있었다. 왜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는 그 힘이 있었다. 그저 원할 뿐이었다. 그는 올랐다. 그의 머리가 승강구 뚜껑을 밀어 올렸고, 그는 끝없는 공간으로 솟구쳤다. 왼쪽과 오른쪽으로 강물이 흘렀다. 그가 속삭였다.

"논샬랑트호의 갑판…… 센 강…… 두 연인의 언덕……"

그가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조진이가 있었다. 등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에 대한 분노와 반발감에서 사랑과 갈망의 전율로 넘어가는 과정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사랑과 욕망이 그를 떨게 했다. 더구나, 그는 정말로 조금의 분노나 반발감을 느꼈던 적이 있었을까? 모든 감정이 그를 품에 안고 싶은 거대한 욕구로 뒤섞였다.

적? 도둑? 아니, 범인일지도 모른다? 아니다. 그녀는 단지 한 여자일 뿐, 무엇보다도 한 여자였다. 그리고 그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평소처럼 매우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그녀는 얇고 실감할 수 없는 베일을 쓰고 있었는데, 그 베일이 머리카락의 빛을 부드럽게 감싸며 그녀를 베르나르디노 루이니의 성모상과 꼭 닮게 만들었다. 목은 드러나 있어 따뜻하고 부드러운 색조를 띠고 있었다. 가느다란 두 손은 무릎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두 연인' 절벽의 가파른 경사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얼굴은 깊고 신비로운 미소의 정수를 담고 있어, 그 어떤 것보다도 부드럽고 순수해 보였다.

라울이 그녀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녀가 그를 발견했다. 그녀는 살짝 얼굴을 붉히고 눈꺼풀을 내렸다. 길고 갈색 속눈썹 사이로, 정면으로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는 눈빛이 새어나왔다. 그토록 순진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어린 소녀가 보인 적은 없었고, 그토록 꾸밈없고 과시적이지도 않았다.

그는 크게 감동받았다. 그녀는 그들 사이의 첫 만남을 두려워했다. 그가 그녀를 모욕하지는 않을까? 그녀에게 덤벼들어 때리거나, 끔찍한 말을 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모든 것보다 더한 경멸을 품고 도망치지는 않을까? 라울은 아이처럼 떨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그에게 세상의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영원히 연인들에게 중요한 것들, 즉 입맞춤, 손과 숨결의 결합, 서로를 안으려는 시선과 관능에 젖어 무너지는 입술들의 광기만이 중요했다.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10장

이런 사랑의 대가는 침묵이다. 그들은 침묵을 강요당한다. 입은 열려 있어도, 오가는 말소리는 고독한 생각들의 적막한 침묵을 깨뜨리지 못한다. 각자는 저마다의 명상에 잠기며, 결코 다른 이의 삶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라울은 언제나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이런 절망적인 대화에 점점 더 괴로움을 느꼈다.

조제인도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때때로 극도의 피로에 빠지며, 애정 어린 스킨십보다 더 사적인 고백을 통해 서로를 가깝게 만드는 순간들 바로 직전에 서 있는 듯한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는 분명히 고통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라울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고, 그 절박함은 너무도 커서 라울은 그녀의 자포자기적인 충동이 올 것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녀는 곧바로 마음을 추스렀고, 라울은 그녀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멀리 느껴진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는 생각했다. 그녀는 끝없는 고독 속에 따로 사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낸 수수께끼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수수께끼는 보이지 않는 그물처럼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칼리오스트로의 딸로서, 그녀는 어둠과 복잡함, 음모와 계략, 그리고 지하의 숨은 일들에 익숙해져 있었다. 누군가에게 그런 음모 중 하나를 이야기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미로를 헤쳐 나가는 실마리를 건네주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두려워했고, 스스로를 감싸 안았다.

반면, 그도 입을 다물었다. 그들이 뛰어들었던 모험과, 그 해답을 찾고 있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삼갔다.

그녀는 상자를 손에 넣었을까? 자물쇠를 여는 글자 조합을 알고 있을까? 전설의 경계석 움푹한 곳에 손을 넣어, 수천수만 개의 보석들을 직접 건져 올렸을까?

그것에 대해,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 침묵만 있을 뿐이었다.

루앙을 지나자 그들의 친밀감은 금세 식어갔다. 레오나르는 라울을 피하긴 했지만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비밀 회담은 다시 시작되었다.

베를린 마차와 피곤을 모르는 작은 말들은 조제핀 발사모를 매일 데려갔다. 어디로? 어떤 일을 하러?

라울은 세 수도원이 강 근처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생조르주드보슈르빌, 주미에즈, 생완드리르.

그렇다면 그녀가 그쪽을 살펴보았다는 것은,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그녀가 그저 실패했다는 뜻일까?

그 생각은 그를 단호한 행동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하예 디티그 근처 여관에 맡겨 두었던 자전거를 가져오게 했다. 그리고 브리지트의 어머니가 사는 릴리보느 근처까지 자전거를 몰고 나아갔다.

그곳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열두 날 전, 곧 조제핀 발사모가 여행을 떠났던 시기에, 루셀랭 과부가 집을 닫고 파리에서 딸을 만나러 갔다는 것이었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전날 밤 한 부인이 그녀의 집에 들어왔다고 한다.

라울이 다시 배 쪽으로 돌아온 때는 밤 열 시나 되어 있었다. 배는 루앙 다음 첫 굽이 남서쪽에 정박해 있었다.

그가 도착하기 직전, 조제핀을 태운 마차와 마주쳤다. 레오나르의 작은 말들은 지쳐 비틀거리며 마차를 끌고 있었다. 강가에서 레오나르가 뛰어내려 문을 열고 몸을 숙였다. 그러고는 조제핀의 축 늘어진 몸을 어깨에 메고 다시 달아났다.

라울이 재촉해 달려갔다. 두 사람은 함께 그 젊은 여성을 선실로 모셨고, 선원들이 와서 도와주었다.

"잘 돌봐라." 남자가 거칠게 말했다. "그녀는 그냥 기절했을 뿐이다. 하지만 '불이 났다'. 여기서 아무도 움직이지 마라!"

그는 마차로 돌아가서 달아났다.

조제핀 발사모는 밤새 내내 헛소리를 했지만, 라울은 그 중 단 한 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컨디션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라울은 근처 마을로 내려가 루앙의 신문을 구해 들었다. 그리고 지역 소식란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읽었다.

"어제 오후, 카우데벡 헌병대는 몰레브리에 숲 가장자리에 있는 옛 석회 가마에서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는 제보를 받고, 분대장과 헌병 한 명을 현장에 파견했다. 두 헌병이 석회 가마가 있는 과수원에 다가가자, 둑 너머로 두 남자가 여자를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그 여자를 근처에 세워 둔 닫힌 차 쪽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 차 옆에는 다른 한 명의 여자가 서 있었다."

헌병들은 둑을 돌아야 했기에, 마차가 떠난 뒤에야 과수원 입구에 도착했다. 곧바로 추적이 시작되었지만, 이 추적은 헌병대의 쉬운 승리로 끝났어야 했다.

그러나 두 마리의 말이 너무도 빠르게 달렸고, 운전수는 이 지방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카우데벡과 모트빌 사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좁고 꼬불꼬불한 길들을 타고 무사히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게다가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예쁜' 무리들이 어디로 도망쳤는지 아무도 알아내지 못했다.

'사람들은 결코 그 정황을 알아내지 못하겠군.'

라울은 단호하게 생각했다. 그 사건의 전모를 재구성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출발지와 도착지를 아는 사람은 나뿐이었으니까.

라울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자신의 결론을 내렸다.

구식 석회 가마 안에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었다. 루셀랭 과부가 그곳에 있다는 점이다. 그녀는 동조자의 감시 아래 있었다. 조제핀 발사모와 레오나르가 그녀를 릴리보느 밖으로 유인해 가 가두어 두었고, 그들은 매일 그녀를 만나 최종적인 정보를 빼내려 했다.

어제 심문이 조금 과격했던 것 같다. 루셀랭 과부가 비명을 지른 것이다. 그제야 헌병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길가에서 포로를 미리 준비해 둔 다른 감옥으로 옮겼고, 이번에도 무사히 빠져나갔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조제핀 발사모에게 평소 자주 겪던 신경성 발작을 일으켰다. 그녀는 기절하고 말았다.

라울은 지도를 펼쳤다. 몰레브리에 숲에서 논샬랑트까지 직선 거리는 서른 킬로미터쯤 된다. 루셀랭 과부가 감금된 곳은 이 길 주변, 정확히는 길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애매한 지점이었다.

‘좋아.’ 라울이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싸움터가 정해졌다. 내가 무대에 오를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그는 작업을 시작했다. 노르망디의 도로를 거닐며 사람들을 물어보고, ‘두 마리 작은 말에 끌린 낡은 베를린 마차’가 지나간 자리와 멈춰 선 곳을 찾아내려 했다. 논리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 조사는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되어 있었다.

그 며칠이 아마도 조제핀 발사모와 라울의 사랑이 가장 격렬하고 열정적인 양상을 띠었을 때였을 것이다. 경찰에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젊은 여인은, 두드빌의 바서 여관 사건도 결코 잊지 못한 채, 논샬랑트 호를 떠나 카우 지방을 누비는 것을 주저했다.

라울은 각기 다른 모험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그녀를 다시 만났다. 그들은 서로의 품으로 뛰어들었고, 곧 닥칠 이별을 예감하며 그 기쁨을 갈구했다.

고통스러운 기쁨이었다. 운명 때문에 갈라진 두 연인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 말이다. 의심에 독이 섞인 기쁨이었다. 서로의 숨은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입술이 맞닿아 있을 때, 각자는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적대하는 척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 라울은 열정적으로 반복했다. 하지만 그 깊은 마음속에서는 브리짓 루셀린의 어머니를 칼리오스트로의 손아귀에서 구해낼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때로 서로를 꽉 끌어안았다. 두 원수가 싸우듯 격렬하게. 그들의 포옹에는 잔인함이 담겨 있었고, 눈빛에는 위협이 서려 있었으며, 생각에는 증오가, 다정함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마치 서로의 약점을 파고들어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려는 듯, 그들은 서로를 경계했다.

어느 날 밤, 라울은 불편한 느낌에 눈을 떴다. 조지느가 그의 침대까지 다가와 램프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오싹했다. 조지느의 매력적인 얼굴이 평소와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하지만 왜 라울에게는 그 미소가 그렇게도 악의적이고 잔인하게 보였을까?

"무슨 일이야? 너 내게 무슨 용건이 있어?"

"아무것도…… 아무것도요." 그녀는 산만한 어조로 말하며 물러났다.

그녀는 라울에게로 돌아와 사진 한 장을 내보였다.

"너 지갑에서 이거 찾았어. 여자의 초상화를 지갑에 들고 다니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 가. 누구니?"

라울은 클라리스 디티그를 알아봤다. 그는 망설이며 대답했다.

"몰라요. 우연히…"

"제발, 거짓말 하지 마." 그녀가 날카롭게 말했다. "클라리스 디티그잖아. 내가 그녀를 본 적이 없고, 너희 관계에 대해 모르는 줄 아나? 그녀가 너의 연인이었던 거지, 그렇지?"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가 급히 부정했다.

"그녀가 너의 연인이었어." 그녀가 되뇌었다. "나는 확신해. 그녀가 너를 사랑하고, 너희 사이가 끊어진 적은 없어."

라울은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그가 그 소녀를 변호하려던 찰나, 조지느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이쯤에서 그만하자, 라울. 이미 경고했잖아. 그 여자를 만나려 시도하지는 않겠지만, 만약 운명이 그 여자를 내 앞에 세운다면… 그녀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지."

"그리고 조제핀, 네가 그녀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너도 불행해질 거야!" 라울은 무모하게도 소리쳤다.

조제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턱이 살짝 떨렸고, 그녀는 라울의 목에 손을 얹으며 더듬거렸다.

"그럼 너는 내 편이 아니라, 저쪽 편을 드는 거야? 나를 배신하는 거야?"

그녀의 손은 차갑게 굳어갔다. 라울은 그녀가 자신의 목을 조를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모습을 본 조제핀도 놀라 공격을 당하는 줄 알았다. 그녀는 가슴에서 스타일렛을 꺼내 들었고, 날카로운 칼날이 빛을 발했다.

그들은 서로를 응시했다. 공격적인 자세를 취한 채, 마주 선 두 사람. 그 상황은 너무도 고통스러워 라울은 중얼거렸다.

"오, 조지느! 이토록 쓸쓸할 수가 있나. 우리가 이런 지경까지 몰리게 될 줄 누가 믿었겠나."

그녀도 감격에 겨운 듯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발 앞에 엎드렸다.

"나를 안아줘, 라울. 내 품에 안겨 줘.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자."

그들은 열정적으로 서로를 껴안았다. 하지만 그는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직까지도 단도를 놓지 않고 있었다. 손짓 한 번만 했어도 그녀는 그 칼을 그의 목덜미에 꽂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날 아침 8시, 라울은 '논샬랑트'호를 떠났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군. 그녀는 나를 사랑한다. 진심으로, 그리고 그녀도 나처럼 이 사랑이 아무 거리낌 없기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해. 그녀는 적의 영혼을 지녔어. 그녀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의심한다. 특히 나를 가장 먼저.'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있어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모든 의심과 증거가 그녀를 가리키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악의가 가득 차 있었음에도, 그는 그녀가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다고는 믿고 싶지 않았다.

살인이라는 생각은 그녀의 부드러운 얼굴과 어울리지 않았다. 증오나 분노조차 그 부드러운 표정을 해치지 못했던 얼굴 말이다. 아니, 조제핀의 손은 피에 물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레오나르를 생각했다. 그리고 레오나르가 루셀랭 부인을 가장 끔찍한 고문으로 몰아세울 수 있다고 의심치 않았다.

루앙에서 뒤클레르로, 그리고 그 너머로 이어지는 길은 센 강변의 과수원과 강을 굽어보는 하얀 절벽 사이를 달린다.

백악암 절벽에는 구멍들이 파여 있다. 농부나 노동자들이 공구를 보관하거나, 때로는 자신들의 잠자리를 삼기도 하는 곳이다.

라울은 이런 동굴 중 하나가 세 남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마침내 알아냈다. 그들은 근처 강가의 갈대를 엮어 바구니를 만들고 있었다.

그 동굴 앞에는 울타리 없는 작은 채소밭이 이어져 있었다.

주의 깊은 감시와 몇몇 수상한 단서들을 통해, 라울은 코르부 영감과 그의 두 아들이 조제핀 발사모가 두루 활용하던 일당에 속한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었다. 세 사람은 모두 밀렵꾼이었고, 도둑질에다 평판은 최악이었다.

라울은 또 그들의 동굴이 조제핀 발사모가 이 지역에 곳곳에 마련해 둔 피신처 중 하나라고도 생각했다. 여관이나 창고, 석회 가마 같은 곳들 말이다.

그는 적의 주의를 끌지 않으면서, 그 추측들을 확실한 증거로 바꾸려 했다. 그래서 그는 적의 포위망을 우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절벽 위로 올라가 숲길을 따라 세느강 쪽으로 돌아갔다. 그 길은 약간의 함몰지대에 이어졌다.

그곳에서 그는 덤불과 가시덤불 사이를 기어 내려갔다. 함몰지대 바닥, 즉 동굴 위쪽 네다섯 미터 지점에 다다랐다.

그는 이틀 밤낮을 그곳에서 보냈다. 직접 챙겨 온 식량을 먹으며, 밤에는 별을 보며 잤다.

키 큰 풀숲이 빽빽하게 우거진 곳, 그는 완전히 숨어 있었다. 그 세 남자의 삶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이틀째 되던 날, 들린 대화 한 토막이 상황을 명확히 해 주었다.

코르부 일가가 루셀린 과부를 감금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모를브리에의 경보 이후, 그들은 그 과부를 자신의 은신처 깊은 곳에 가두어 둔 채였다.

어떻게 그녀를 구해야 할까. 적어도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녀가 조제핀 발사모에게는 끝내 내주지 않았을 정보를 얻어내야 했다.

코르부 가문의 습관을 따르며, 라울은 여러 계획을 세우고 또 버렸다. 하지만 사흘째 아침, 그가 숨어 관찰하던 곳에서 '논샬랑스'호가 세느강을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배는 동굴들에서 상류로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정박했다.

저녁 다섯 시, 두 사람이 다리를 건너 강가를 따라 걸었다. 걸음걸이를 보고, 비록 평민 여인의 옷을 입었지만 라울은 즉시 조제핀 발사모를 알아봤다. 레오나르드가 그녀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은 코르부 동굴 앞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 우연히 마주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그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 뒤, 길이 텅 비자 그들은 부엌밭으로 재빨리 들어섰다. 레오나르드도 동굴 안쪽으로 사라졌다. 조제핀 발사모는 밖에서 오래되고 흔들리는 의자에 앉아, 관목으로 된 커튼 뒤에서 몸을 숨겼다.

노인 코르부는 정원의 잡초를 뽑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은 나무 아래에서 갈대를 꼬아 만들고 있었다.

'재심문이 시작되는군. 참으로 아쉽다.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다니!' 라울 드 안드레시는 생각했다.

그는 조제핀을 관찰했다. 그녀의 얼굴은 대부분 평범한 농부의 모자처럼 생긴 큰 짚모자의 넓은 챙에 가려져 있었다. 더운 날 농부들이 쓰는 그런 모자였다.

그녀는 조금 몸을 굽힌 채, 팔꿈치를 무릎 위에 올리고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라울은 자신이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옆에서 신음 소리가 들렸다. 이어 질식할 듯한 비명이 이어졌다.

소리는 분명히 옆에서 나왔다. 라울을 둘러싼 풀숲 사이에서 떨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떻게 된 일일까?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정확한 지점으로 기어갔다. 별다른 검색 없이도 그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절벽 끝자락에 쌓인 낙석 더미 속에, 흙과 뿌리 층 아래로 거의 드러나지 않는 작은 벽돌 더미가 있었다. 그것은 굴뚝의 잔해였다.

이제 그 현상이 설명되었다. 코르부 동굴은 바위 깊숙이 파인 막다른 골목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고, 예전 굴뚝으로 쓰이던 통로가 그 아래로 이어져 있었다. 그 통로와 무너진 돌무더기 사이로 소리가 새어 올라와 꼭대기까지 전달된 것이다.

그때 더 처절한 비명이 두 번 울려 퍼졌다. 라울은 조제핀 발사모를 떠올렸다. 그는 돌아보며 작은 채소밭 끝에서 그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앉아 있었고, 상체는 움직이지 않은 채 몸을 굽혔다. 그녀는 무심코 한련화 꽃잎을 뜯고 있었다. 라울은 그녀가 그 소리를 듣지 못했기를 바랐다. 어쩌면 그녀는 그 사실을 아예 모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라울은 분노에 몸이 떨렸다. 그 불쌍한 여인이 당하는 끔찍한 심문을 그녀가 지켜보았든 아니든, 그녀 역시 범죄자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지금까지 라울의 마음속에서 그녀를 옹호하던 끈질긴 의심들은, 이제 거침없이 드러난 현실 앞에서는 무너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가 그녀에 대해 막연히 느끼던 불안, 그리고 알고 싶지 않았던 모든 진실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결국 그 끔찍한 일의 지시를 내린 사람이 그녀였기 때문이다. 그녀라면 그 끔찍한 광경을 직접 보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을 터였다.

라울은 조심스럽게 벽돌을 떼어 내고 흙더미를 무너뜨렸다. 작업이 끝났을 때, 울부짖음은 그쳤지만 말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것은 속삭임보다도 또렷하지 않았다.

따라서 라울은 다시 일을 시작해 통로의 위쪽 구멍을 깨끗이 비웠다.

그리고는 몸을 숙였다. 머리를 아래로 향하고, 벽면의 거친 부분에 매달린 채로 그는 귀를 기울였다.

두 개의 목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레오나르의 목소리와, 한 여성, 즉 루셀린 과부의 목소리였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불쌍한 여인은 지쳐 보였다.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네… 네… " 그녀가 속삭였다. "계속할게요. 약속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너무 지쳤어요… 용서해 주세요, 좋은 선생님… 게다가 그런 일들은 너무 오래됐어요… 스물네 해가 지났으니까…"

"말은 이제 그만하자." 레오나르가 투덜거렸다.

"네, 맞아요." 그녀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건 바로 프로이센과의 전쟁이 한창이던, 스물네 해 전 일이었어요. 프로이센 군이 우리 살고 있던 루앙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그때 우리 남편은 트럭 운전사였는데, 본 적도 없는 두 남자가 찾아왔어요."

"그때는 다른 사람들도 짐을 싸서 시골로 피난을 갔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흥정하고, 그들은 급했는지 바로 출발했어요. 남편도 함께 갔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징발 때문에 쓸 수 있는 말이 단 한 마리뿐이었어요. 그나마 힘이 약한 말이었죠. 게다가 눈이 툭툭 떨어졌어요. 루앙에서 열 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그 말이 쓰러졌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두 남자는 공포에 떨었다. 프로이센군이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루앙 출신의 한 사내가 마차를 몰고 지나갔다. 제 남편이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고, 본슈즈 추기경의 신임 하인이자 자베르라는 이름의 남자였다.

상황은 이미 눈으로 보일 듯했다. 사람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다. 두 남자는 그에게 거액을 제시하며 말 한 마리를 사겠다고 했다. 자베르는 거절했다. 그들은 간청했고, 협박까지 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제 남편이 애원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를 내리쳤다.

그 후 그들은 마차를 뒤졌다. 그리고 상자 하나를 발견해 가져갔다. 자베르의 말을 마차에 묶고는 도망쳤다. 자베르는 죽어가는 몸으로 그 자리에 남겨졌다.

"아니, 완전히 죽었습니다." 레오나르가 덧붙였다.

"네, 남편은 몇 달 후 루앙으로 돌아갔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그는 그들을 고발하지 않았나요?"

"네… 아마도… 그는 어쩌면 고발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루셀린 과부가 당황하며 말했다. "하지만…"

"하지만," 레오나르가 비웃었다. "그들이 그의 침묵을 산 거죠? 남편분 앞에서 열린 상자는 보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은 당신의 남편에게 전리품의 일부를 건넸죠."

"네… 네." 그녀가 말했다. "반지들이요. 일곱 개의 반지들이요. 하지만 그가 침묵을 지킨 이유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 불쌍한 남자는 병들어 있었어요. 그는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거의 즉시 죽었죠."

"그 상자는요?"

"그것은 빈 트럭 안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반지들과 함께 그 상자를 가지고 돌아왔죠. 저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침묵을 지켰어요. 이미 오래된 일이었고, 더구나 스캔들이 두려웠거든요…… 남편이 누명을 쓸 수도 있었으니까요. 침묵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딸과 함께 릴롱본으로 물러났고, 브리지트가 연극을 위해 저를 떠났을 때야 비로소 반지들을 가져갔죠…… 반지들은 제가 손대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었어요. 그게 다예요, 좋은 선생님.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레오나르드가 다시 비웃듯 웃었다.

"뭐라고? 그게 다야……?"

"그 이상은 모른다고, 루셀린 과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는 별 흥미가 없소. 우리가 이렇게 씨름하는 건 다른 이유 때문이오…… 당신도 잘 알잖소, 젠장!"

"무슨 말씀이세요?"

"상자 안에 새겨진 글자, 뚜껑 밑에 있는 거요. 다 거기 있어요."

"반쯤 지워진 글자였어요. 저를 믿으십시오, 친애하는 선생님. 저는 그걸 읽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좋소. 믿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셈이군요. 그 상자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신과 한 부인이 찾아오셨던 날, 바로 그 전날 밤에 제 집에서 훔쳐갔습니다. 그 부인, 커다란 베일로 얼굴을 가렸던 그 분요."

"훔쳐갔다고요. 누가?"

"한 사람……"

"그걸 찾고 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연히 다락방 구석에서 본 거죠. 그분은 그걸 골동품으로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미 백 번은 물었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제게 평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인데, 그러면 그분에게 큰 해를 끼치는 일이 될 테니까요. 절대 입을 열지 않겠어요."

"그분이라면 오히려 당신에게 말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편지도 못 하고… 가끔 만나곤 하는데, 다음 주 목요일 오후 세 시에 또 만나기로 했어요."

"말할 수 없어요. 제게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요."

"뭐라고? 또 시작이냐?" 레오나르가 성이 나서 중얼거렸다.

루셀린 과부가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아니요! 아니에요! 오호, 선량하신 선생님, 절대 안 돼요! 제발요!"

그녀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아, 악당! 내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내 불쌍한 손이여!"

"말해라, 이 자식아!"

"네, 네… 약속할게요."

그러나 불쌍한 여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져 갔다. 그녀는 이미 기력이 다해 있었다.

하지만 레오나르도 물러서지 않았다. 라울은 고통에 질질 끌리는 듯한 그녀의 희미한 말소리를 몇 마디 들을 수 있었다.

"네… 그래… 목요일에 만나자고… 낡은 등대에서… 그리고 아니야…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마음대로 해… 정말…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녀는 말을 멈췄다. 레오나르가 투덜거렸다.

"그래? 뭐야? 그 완고한 노파가 뭐라고? 죽진 않았지, 응?… 아, 이 바보야, 네가 말해줄 거야!… 10분 안에 끝내라고!"

문이 열리고 다시 닫혔다. 칼리오스트로에게 자백 내용을 알리고, 다음 심문 지시를 받으려는 것이 분명했다.

라울이 몸을 일으켜 내려다보니, 두 사람은 서로 옆에 앉아 있었다. 레오나르가 흥분한 어조로 말하고 있었다. 조제핀은 그 말을 듣고 있었다.

비참한 자들! 라울은 둘 다 증오했다. 루셀린 과부의 비명은 그를 뒤흔들었고, 분노와 공격적인 의지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여자를 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는 평소대로 행동했다. 해야 할 일들이 논리적인 순서대로 머릿속에 그려지자마자, 즉각 움직인 것이다. 이런 순간에는 주저하는 것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 성공은 알 수 없는 장애물을 과감히 돌파하는 용기에 달려 있다.

그는 적들을 한눈에 훑었다. 다섯 명 모두 동굴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는 곧장 굴뚝 안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서서 들어갔다. 그는 잔해 사이를 최대한 조용히 지나가려 했지만, 거의 즉시 균형을 잃은 모든 파편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눈사태를 일으켰다. 그는 돌과 벽돌이 부딪히는 굉음과 함께 위에서 아래로 단번에 추락했다.

'젠장, 저쪽에서 아무도 듣지는 않았겠지.'

그는 귀를 기울였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어둠이 너무 짙어서 그는 여전히 굴뚝 속인 줄 알았다. 그러나 팔을 뻗어 보니, 이 통로는 동굴 바로 뒤쪽에 파놓은 좁은 터널과 이어져 있

었다. 터널이 너무 좁아 곧장 그의 손이 다른 손을 만졌다. 그 손은 뜨거웠다.

눈이 어둠에 적응하자, 라울은 반짝이는 눈동자를 보았다. 그 눈동자는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공포로 경련이 일어난 창백하고 해진 얼굴이 있었다.

묶인 줄도, 입을 막힌 줄도 없었다. 무슨 소용이랴? 포로인 여자는 너무 약해져 있고, 두려움에 질려 있어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몸을 숙이며 그녀에게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당신의 딸 브리지트, 바로 당신을 박해하는 자들이 이 상자와 반지 때문에 희생시킨 그 소녀를, 저는 죽음에서 구했습니다."

"저는 릴본에서 떠난 당신을 뒤쫓아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구하러 왔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일어난 모든 일을 결코 입 밖에 내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불쌍한 여인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할 리 없었다. 뤼팽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았다. 그는 여인을 품에 안아 어깨에 업었다. 그리고 동굴을 가로질러, 자신이 추측한 대로 단순히 잠겨 있던 문 밖으로 나갔다.

조금 더 떨어진 곳에서는 레오나르와 조진이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 뒤로, 채소밭 아래쪽에는 흰빛 도는 길이 뒤클레르의 큰 마을까지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 길 위로는 농부들의 수레들이 오가며 오거나 저 멀리 사라지고 있었다.

라울은 때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순간, 문을 힘차게 열어젖혔다. 그는 채소밭 경사면을 미끄러지듯 내려갔고, 루셀린 과부를 비탈진 제방 뒤로 쓰러뜨렸다.

그때였다. 주변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다. 코르부 일가와 레오나르가 앞장서서 돌진했다. 네 사람은 생각 없이 무작정 싸움터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 한쪽에서 차량이 다가오고, 다른 쪽에서도 차량이 다가오고 있었다. 수많은 목격자들 앞에서 라울을 공격해 루셀린 과부를 강제로 데려간다면, 그것은 곧 자수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불가피한 수사, 그리고 법의 보복을 불러올 뿐이었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라울은 그 점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라울은 태연하게 두 자매를 불렀다. 그들은 넓은 수건을 쓰고 있었다. 한 자매는 늙은 말이 끄는 작은 마차를 몰고 있었다. 라울은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길가에 쓰러져 있던 가엾은 여인을 구해달라는 것이었다. 여인은 의식을 잃었고, 손가락은 차에 깔려 찌그러져 있었다.

듀클레르의 양로원과 요양원을 돌보던 자선 수녀들이 재빨리 달려왔다. 루셀린 과부가 마차에 실렸고, 수녀들은 그녀를 숄로 감싸 안았다. 그녀는 의식을 잃은 채 헛소리를 내며, 엄지와 검지가 부어오르고 피가 흐르는 짓이겨진 손을 허공에 휘저었다.

마차가 느린 걸음으로 출발했다.

라울은 그 끔찍한 광경, 즉 고통스럽게 찌그러진 그 손가락에 시선을 고정한 채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의 심란함은 극에 달해, 레오나르와 세 명의 코르부 형제가 빙글빙글 돌며 그를 향해 다가오는 기척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가 비로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네 남자가 그를 에워싸고, 그를 채소밭 쪽으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었다.

주변에는 다른 농부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상황이 레오나르에게 너무도 유리하게 돌아가자, 그는 칼을 꺼내 들었다.

"저걸 치워. 그리고 우리 곁을 떠나라. 코르부 너희도 마찬가지다.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라, 알겠지?"

조제핀은 내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덤불 사이로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다.

레오나르가 항의했다.

"바보 같은 짓? 그를 놓아주는 게 바보 같은 짓이죠. 드디어 그를 잡았잖아요!"

"가라!" 그녀가 단호하게 명령했다.

"하지만 그 여자… 그 여자가 우리를 고발할 겁니다!"

"아니야. 루셀린 과부에게는 입을 닫는 게 이득이야. 오히려 그래."

레오나르가 물러가자, 조제핀은 바로 라울 곁으로 다가왔다.

라울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 정도였다. 그녀는 곧장 농담을 던지며 침묵을 끊었다.

"역시 한 번씩은 돌아가는 법이지, 라울. 우리 둘 사이엔 성공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니까. 오늘은 네가 이겼지. 내일은 어떨까? 그런데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렇게 이상해? 눈빛도 차갑고."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안녕, 조진."

조진이 살짝 얼굴이 창백해졌다.

"안녕? 너는 '또 만나'라고 말하고 싶은 거잖아."

"아니, 진짜로 안녕이라고."

"그럼… 그럼… 너는 이제 내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뜻이야?"

"그래.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조진이 고개를 떨구었다. 속눈썹이 경련하듯 떨렸다. 입술은 미소 짓고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고통이 서려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속삭였다.

"왜, 라울?"

"내가 어떤 걸 봤거든.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걸."

"무슨 말이에요?"

"그 여자의 손이었어."

조진은 기절할 듯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아, 알겠어. 레오나르가 그 여자에게 해를 끼친 거지. 내가 그러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는데……."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군요, 조진. 당신은 모를리에 숲에서 그 비명들을 듣던 것처럼, 이 여자의 비명을 듣고 있었던 거죠. 레오나르는 그저 명령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악의 의지, 살인의 의도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조진, 당신입니다. 당신이 조수를 몬마르트르의 작은 집으로 보내, 브리짓 루셀린이 저항하면 죽이라고 명했죠. 얼마 전에는 보마냥이 마셔야 할 가루에 독을 섞은 것도 당신이고요. 그전 해에는 보마냥의 친구였던 데니 생테베르와 조르주 디소노발을 제거한 것도 당신입니다."

그녀가 반발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을 듣게 두지 않겠어요. 사실이 아니에요. 당신은 잘 알고 있잖아요, 라울."

그가 어깨를 으쓱였다.

"맞아요. 다른 여자의 전설이 있었죠. 사건을 덮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요. 당신과 똑 닮은 다른 여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조제핀 발사모인 당신은 덜 잔혹한 모험만 즐겼다고요. 저도 그 전설을 믿었죠. 칼리오스트로의 딸, 손녀, 증손녀라니, 똑같이 닮은 여자들 이야기로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조진. 무서운 진실을 보지 않으려 의도적으로 눈을 감았지만, 고통스럽게 찌그러진 그 손의 광경이 진실을 향해 완전히 눈을 뜨게 했죠."

"거짓말이에요, 라울! 오해에서 비롯된 해석일 뿐이죠. 당신이 말하는 두 남자는 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가 지친 어조로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잘못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그 신비라는 안개 너머로 너를 보게 될 거라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너는 더 이상 신비롭지 않아, 조제핀. 너는 있는 그대로의 너, 즉 범죄자로서 내 눈에 들어왔거든."

그가 낮게 덧붙였다.

"심지어 환자로서 말이야. 만약 거짓이 어디에 있는다면, 그것은 바로 너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짓일 거야."

그녀는 침묵했다. 밀짚모자의 그림자가 그녀의 부드러운 얼굴을 한 층 더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연인의 모욕적인 말은 그녀에게 스치듯 지나갈 뿐이었다. 그녀는 매혹과 환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영혼 깊은 곳까지 흔들렸다. 그녀는 그에게 단 한 번도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존재로 보이지 않았다. 내일 아침이면 후회하며 저주할 자유를 다시 찾아가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말했다.

"내 아름다움은 거짓이 아니에요, 라울. 당신은 돌아올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 이렇게 아름다운 건 당신 때문이니까."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당신은 돌아올 거예요. 당신은 나 없이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논 샬랑스' 호가 가까이 있어요. 내일 거기서 기다릴게요."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가 다시 한 번 무릎을 꿇을 준비를 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왜 손이 떨리는 거야? 왜 그렇게 창백해?"

그는 자신의 생사가 침묵에 달려 있다는 걸 깨달았다. 대답도, 뒤돌아보는 것도 없이 도망쳐야 했다.

조제핀이 그에게 매달린 두 손을 뿌리치고, 그는 발걸음을 옮겼다.

제11장

라울은 밤새도록 손에 잡히는 대로 길을 따라 자전거를 몰았다. 추적을 따돌리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동시에 몸이 지칠 대로 지쳐야 마음이 쉬어질 거라는 생각도 있었다.

새벽이 되자 그는 리욜본의 한 호텔에 도착했다. 이미 피로가 극에 달해 있었다.

그는 깨우지 말라고 명령했고, 문에 이중으로 자물쇠를 채웠다. 그리고 열쇠를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는 스물네 시간 이상 잠에 빠졌다.

옷을 입고 식사를 마친 뒤, 라울의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다시 자전거를 타고 '논샬랑스' 호로 돌아가는 일. 사랑과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는 매우 불행했다.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사소한 욕심이라도 있으면 언제나 그대로 들어주었기 때문이

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끝내기에도 너무 쉬운 절망에 대해, 오히려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왜 양보하지 않는 거지?' 그가 스스로에게 물었다. '두 시간이면 그곳에 도착할 수 있어. 그리고 더 준비가 된 시점에 이별을 고할 수 있는 몇 날 후에 다시 떠날 수 있지.'

하지만 그는 떠날 수 없었다. 절단된 그 손의 모습이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고, 그의 모든 행동을 지배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행위가 암시하는, 다른 모든 잔혹하고 혐오스러운 행동들을 떠올리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조제핀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 즉, 조제핀은 살인자였고, 자신의 계획에 도움이 될 때는 죽이는 일, 다시 죽이는 일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로 여겼다.

하지만 라울은 범죄를 무서워했다. 그것은 단순한 심리적 거부감이 아니었다. 그의 모든 본능이 거세게 반발하는, 육체적인 혐오감이었다.

그가 정신착란에 빠져 피를 흘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그는 오한이 돋았다. 그런데 그 끔찍한 혐오감에, 그가 사랑하는 여성의 이미지가 가장 비극적인 현실과 함께 단단히 묶여버린 것이다.

그는 그 자리에 남았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고통스러운 노력의 대가로 얻은 것이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울음을 삼켰는가. 그의 무력한 반발은 어떤 신음으로 표출되었는가.

조제핀은 아름다운 팔을 내밀었고, 그녀의 입술은 키스를 권했다. 어떻게 그 음란한 여인의 유혹에 저항할 수 있겠는가.

그의 이기심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순간, 그는 처음으로 클라리스 드티그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눈물을 상상해 보았다. 좌절된 삶이 안겨 줄 처참한 절망감까지도 그려냈다.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며 그는 그녀에게 다정하고 감동적인 말을 건넸다. 그들의 사랑이 가져다준 감동적인 순간들을 떠올리며 말이다.

그는 더 나아가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편지를 썼다. 그녀는 직접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용서해 주세요, 친애하는 클라리스. 저는 당신에게 비열한 행동을 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너그러우신 당신의 마음씨로 저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용서해 주세요, 클라리스. 용서해 주세요. — 라울"

'아, 그녀 곁에 있으면 이런 추한 일은 금방 잊을 수 있겠군.'

중요한 건 눈이 맑고 입술이 부드러워서가 아니었다. 클라리스처럼 충직하고 진지한 영혼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사랑한 것은 조제핀의 모호한 눈빛과 미소였다. 젊은 여자의 애정을 생각할 때, 그녀의 영혼이 충직하지도 진지하지도 않다는 사실은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사이 그는 루셀랭 과부가 언급했던 낡은 등대를 찾는 일에 집중했다. 그녀가 리욜본에 살고 있었으므로, 등대 역시 그 근처에 있을 것이라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가 첫날 밤부터 그쪽으로 길을 나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는 틀리지 않았다. 간단한 조사만으로도 그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먼저, 탱카르빌 성을 둘러싼 숲속에 쓰이지 않는 등대가 하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등대의 주인이 열쇠를 루셀랭 과부에게 맡겼다는 점이었다. 루셀랭 과부는 매주 목요일, 그 등대를 찾아 조금씩 정리하곤 했다.

그 열쇠는 밤중의 간단한 작전으로 손에 넣었다.

이제 그 작은 함을 지닌 미지의 인물이 루셀랭 과부와 만나기로 확실히 정해진 날짜까지 이틀 남았다. 과부가 병에 걸렸거나 감금된 상태라 하더라도, 이미 정해진 약속을 취소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라울은 이 중요한 만남을 놓치지 않을 것이었다. 모든 것이 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한 전망은 그를 진정시켰다. 몇 주째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문제가 다시 떠올랐다. 해답이 눈앞에 다가온 듯했다.

그는 아무런 변수도 남기지 않으려 했다. 전날 그는 약속 장소를 미리 답사했다. 목요일 오후, 한 시간 전 그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탱카르빌 숲을 지나쳤다. 성공은 이미 확정된 일 같았다. 그는 그 기쁨과 자부심을 마음껏 음미했다.

숲의 일부는 공원과 분리되어 있으며, 센 강까지 이어져 절벽을 덮고 있다. 중앙 교차로를 중심으로 여러 길이 뻗어 나갔다. 그중 한 길은 협곡과 급경사를 지나 가파른 곶으로 이어졌다. 곶 위에는 반쯤 모습을 드러낸 폐허가 된 등대가 우뚝 서 있었다. 평일에는 이 곳이 완전히 고요했다. 일요일이 되면 가끔 산책객들이 지나가곤 했다.

벨베데레로 올라가면 탱카르빌 운하와 강 하구의 장엄한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하지만 그 당시 아래는 온통 푸른 나무와 풀에 파묻혀 있었다.

한 층은 방 하나뿐이었다. 방은 꽤 컸고, 창문이 두 개 뚫려 있었으며, 의자 두 개만 놓여 있었다. 땅쪽으로는 쐐기풀과 잡초가 무성한 울타리 안으로 문이 열려 있었다.

라울이 다가오자 걸음이 느려졌다.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느낌은 전혀 틀리지 않았다. 단순한 인물 만남이나 놀라운 비밀의 획득을 넘어, 적을 완전히 물리치는 마지막 승부를 향한 결전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적수는 바로 칼리오스트로였다. 그녀는 라울과 마찬가지로 루셀랭 과부에게서 캐낸 자백을 알고 있었다.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녀는 무한한 조사 수단을 동원해, 드라마의 마지막 장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 그 낡은 등대를 쉽게 찾아냈을 것이다.

"그런데 말이지," 그는 자신을 비웃으며 중얼거렸다. "그녀가 그 약속 장소에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아니, 사실은 그녀가 꼭

올 거라고, 그리고 내가 그녀를 다시 보게 될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승리자로서 서로의 품에 안기게 될 거라고, 나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

라울은 깨진 병조각들이 날카롭게 박힌 낮은 담장의 돌에 엉성하게 고정된 울타리문을 통해 안뜰로 들어섰다.

야생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안뜰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다른 곳에서 담장을 넘어 옆면의 창문 중 하나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만약 이것이 함정이라면 즉시 맞서 싸울 준비를 했다.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왜 함정이겠는가?'

그는 썩어 문드러진 문고리를 돌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순간이었다. 문 바로 뒤쪽, 오목한 곳에 누군가 숨어 있었다. 그는 공격자를 돌아볼 새도 없었다. 눈으로 확인하기보다 본능이 먼저 경고했다. 목에 밧줄이 감기며 뒤로 끌어당겼고, 무릎이 그의 허리를 강타했다.

숨이 막혀 두 동강 난 듯 구부러진 그는 적의 의지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균형을 잃고 그대로 쓰러졌다.

"잘했다, 레오나르!" 그는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아주 멋진 복수군."

하지만 그는 잘못 알고 있었다. 그 사람은 레오나르가 아니었다. 옆모습을 본 그는 바로 보마냥임을 알아챘다. 보마냥이 그의 손을 묶는 사이, 그는 실수를 바로잡고 놀람을 이렇게 토해냈다.

"어이, 어이, 사제 옷 벗은 놈!"

줄은 반대편 벽에 고정된 고리에 연결되어 있었고, 그 고리는 창문 바로 위에 있었다. 보마냥은 거친 동작과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 창문을 열었다. 썩어 문드러진 창문살을 살짝 벌린 것이다.

그리고 고리를 도르레 삼아 줄을 당겼다. 라울은 어쩔 수 없이 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라울은 틈새로 밖을 내다보았다. 등대 바위가 솟은 절벽 아래는 공허한 공간이었다. 그곳은 바위더미와 거대한 나무 기둥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나무 꼭대기의 잎사귀들이 지평선을 가리고 있었다.

보마냥은 라울을 다시 돌려 세웠다. 등을 창문살에 기대게 한 뒤, 손목과 발목을 단단히 묶어 버렸다.

상황은 이렇다. 라울이 앞으로 나서는 순간, 올가미처럼 매듭 지어진 밧줄이 그의 목을 조른다.

반면 보마냥이 희생자를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를 밀어내기만 하면 된다. 셔터가 무너져 내리고, 라울은 심연으로 추락해 목이 매인 채 발견될 것이다.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에 아주 좋은 위치군." 그가 비웃었다.

그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다. 보마냥이 그에게 생사 또는 비밀 폭로의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려는 의도라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입을 열 것이다. 라울은 자신이 거대한 비밀을 쫓는 과정에서 얻어낸 성과들을 모두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명령하십시오. 저를 심문하십시오."

"입 다물어." 다른 쪽이 여전히 분노에 찬 목소리로 명령했다.

보마냥이 입에 솜뭉치를 밀어넣고는 목 뒤로 스카프를 동여맸다.

"울음소리라도 새어나오면,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이면, 내가 주먹으로 널 공중으로 날려버릴 거야."

그는 잠시 동안 라울을 바라보았다. 지금 당장 계획한 행동을 실행에 옮길지 고민하는 사람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몸을 돌렸다. 무겁고 굽이치는 걸음걸이로 방을 가로지르며 발로 타일 바닥을 툭툭 치더니, 문턱에 쪼그려 앉았다. 문틈으로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각도를 잡은 것이었다.

라울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생각했다.

'상황이 좋지 않아. 더구나 나는 무슨 일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그가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지? 그가 루셀린 과부의 은인, 그녀가 차마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일까?'

하지만 그 추측은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아니, 그건 아니야. 내가 함정에 빠진 건 사실이지만, 다른 이유에서였지. 부주의함과 순진함 때문이야."

"보통 사람 같지 않은 보마냥은 루셀린 사건 전체를 다 알고 있을 거야. 비밀리에 만나는 장소와 시간도 잘 알고 있지. 그러다 과부가 납치됐다는 걸 알게 된 보마냥은 릴본과 탱카르빌 주변을 감시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 일을 감시하게 했겠지."

"그리고 내 모습을 눈치챈 거야. 내가 오가며 어슬렁거리는 걸 말이지. 그리고 함정이 펼쳐진 거지. 그리고…"

이제 라울의 확신은 확고해졌다. 그는 파리에서 보마냥을 물리쳤지만, 이제 두 번째 시합에서 패배한 것이다. 승리를 거둔 보마냥은 그를 창살에다 박힌 박쥐처럼 눌러붙게 만들었고, 이제 그는 다른 한 사람을 노리고 있었다. 그 사람을 붙잡아 비밀을 빼내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은 남았다. 왜 하필이면 맹수처럼 먹이를 덮치려는 태도일까? 그것은 그와 그 사람 사이의 만남이 평온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보마냥은 그냥 나가서 밖에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말하면 되었다.

"루셀린 여사가 몸이 편찮으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상자 뚜껑에 새겨진 글귀를 알고 싶다고 하더군요."

라울은 생각했다. '만일 보마냥이 세 번째 인물의 도착을 예상하고 경계하며,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런 의문이 머릿속에 스치자, 라울은 즉시 정답을 찾아냈다. 보마냥이 자신, 즉 라울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단정하는 것은 진실의 절반에 불과했다. 함정은 두 겹으로 깔려 있었다.

그리고 그 격앙된 열정으로 누구를 엿보고 있었을까? 조제핀 발사모 말고 누가 있겠는가.

"맞아! 바로 그거야!" 라울의 머릿속에 진리의 빛이 번뜩였다.

그는 조제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간파한 것이다.

"그래, 며칠 전 파리에서 내 눈앞에서 그 남자는 끔찍한 사실을 눈치챈 거야. 또다시 내가 저지른 실수지. 경험 부족에서 비롯된 실수라고 나 할까."

라울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만약 조제핀 발사모가 살아있지 않았다면, 내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을 리가 있겠는가?"

"아니, 잠깐! 내가 그 남자에게, 바론 고드프로와의 서신에서 내가 읽은 내용을 말했고, 하에디티그의 유명한 의식에 참석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냈는데, 칼리오스트로의 정체를 이해하지 못했단 말인가?"

"나처럼 겁 없는 놈이 그 여자를 버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만약 내가 회의장에 있었다면, 절벽의 계단에도 있었을 거야. 그리고 보트 탑승이 있던 날에는 해안가에도 있었지."

"그리고 내가 조제핀 발사모를 구한 거야."

"우리는 사랑했어. 지난겨울에 시작된 사랑이 아니야, 내가 주장했던 것처럼. 아니, 조제핀이 죽었다는 소문이 있던 이후에 시작된 사랑이었지."

바로 이것이 보마냥이 스스로에게 한 말이다.

증거는 증거를 이어 갔다. 사건들은 마치 사슬의 고리처럼 서로 연결되었다.

루셀린 사건에 휘말린 데다, 그 때문에 보마냥에게 쫓기고 있던 조제핀도 역시 오래된 등대 주변을 맴돌지 않았을까. 그 사실을 즉시 알게 된 보마냥은 즉시 매복을 시도했다. 라울은 그 함정에 빠져들었다. 이제 조제핀 차례다.

라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던 생각들이 모두 맞다는 것을, 운명이 확인시켜 주려는 듯했다. 그가 결론을 내리던 바로 그 순간, 절벽 아래

운하를 따라 달리는 도로에서 마차 소리가 들려왔다. 라울은 즉시 레오나르의 작은 말들이 내는 급한 발걸음 소리를 알아챘다.

보마냥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몸을 일으키며 귀를 기울였다.

우두둑, 말발굽 소리가 멈췄다. 다시 들리기 시작했지만, 이전보다 느린 발걸음이었다. 마차가 가파른 바위길을 올라가고 있었다. 그 길은 평원으로 이어지고, 숲속의 좁은 길과도 연결된다. 이 길은 마차가 지나갈 수 없는 곳으로, 오래된 등대 절벽을 넘나든다.

길어야 5분 뒤면 조제핀 발사모가 나타날 것이다.

매초가 지날수록, 그리고 매분이 지나갈수록 보마냥의 동요와 광기는 더해만 갔다. 그는 일관성 없는 음절들을 더듬거렸다. 낭만파 배우의 가면 같은 얼굴이 일그러져, 결국 야수적인 추악함으로 변해갔다. 본능과 살의의 의지가 그의 얼굴을 찌그러뜨렸고, 그 순간 누구나 알 수 있었다. 그 야수적인 본능과 의지가 향하는 대상은 라울이었다. 조제핀 발사모의 연인이었다.

다시금 그의 다리가 기계적으로 들어 올려져 타일 바닥을 내리쳤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걷고 있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살인을 저지를 참이었다. 그의 팔이 굳어졌다. 쥐어짜인 주먹이 두 마리 양처럼 앞으로 내밀렸다. 천천히, 끊임없이, 그리고 막을 수 없는 힘에 의해 젊은이의 가슴 쪽으로 밀려들어오는 양이었다.

조금만 더 나아가면 라울은 공중으로 추락할 처지였다.

라울은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 여전히 희망을 붙잡으려 애썼다.

'줄이 끊어지겠지. 나를 받아줄 바위 위에 이끼가 깔려 있을 테니까.'

'정말, 아르센 뤼팽 드랑드레시 님의 운명은 교수형이 아니다. 내 나이에 이런 위기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나를 아껴주신 신들이 더 이상 나를 돌보지 않기로 결심한 탓일 뿐이다. 그렇다면 후회할 일도 없다.'

그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테오프라스트 뤼팽으로부터 배운 체조와 공중제비 기술을 기억했다.

그리고는 클라리스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하지만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보마냥이 바로 옆에 서 있다는 게 느껴졌지만, 상대의 돌진은 멈춰 선 듯했다.

라울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보마냥이 키가 큰 체격으로 그를 압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팔을 가슴에 감고 선 채, 살인이라는 생각이 얼굴에 끔찍한 찌푸림을 드리웠지만, 그의 결의는 마치 공중에 매달린 듯 흐지부지되었다.

라울은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감각이 예민해진 보마냥은 조제핀 발사모의 접근을 듣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는 한 발짝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가, 갑자기 재빠르게 움직여 문 오른쪽 구석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라울은 그 얼굴을 정면에서 마주했다. 그 모습은 끔찍할 정도로 추악했다.

잠복해 있던 사냥꾼이 총을 어깨에 메고, 정해진 순간에 쏘기 위해 몇 번이나 그 동작을 반복하는 모습과 같았다. 보마냥의 손도 범죄를 준비하듯 경련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 손은 목을 조르기 위해 벌려졌다. 적절한 간격을 두고는 굽은 손가락을 발톱처럼 오므리며 굳어졌다.

라울은 공포에 질렸다. 자신의 무력함은 끔찍한 것이었고, 그는 그 고통으로 순교자처럼 신음했다.

모든 노력이 헛됨을 알면서도 그는 사슬을 끊으려 몸부림쳤다. 아, 만약 외칠 수만 있었다면! 하지만 입마개는 그의 비명을 삼켰고, 사슬은 살을 에고 있었다.

바깥, 큰 고요함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울타리가 삐걱거렸다. 치마가 마른 잎을 스쳤다. 자갈이 굴러갔다.

보마냥은 벽에 몸을 붙인 채 팔꿈치를 들어 올렸다. 그의 손은 뼈만 남은 시체의 손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듯했다. 이미 그 손은 누군가의 목을 감싸 쥐고, 살아 숨 쉬는 그 목을 꽉 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라울은 입에 막힌 채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문이 밀려 열리며, 비극이 벌어졌다.

그 비극은 보마냥이 구상했던 그대로, 라울이 상상했던 그대로 정확히 전개되었다. 조제핀 발사모의 실루엣이 나타나더니, 곧바로 보마냥의 습격을 받아 바닥에 쓰러졌다. 희미한 신음소리, 고작 그것뿐이었다. 그 소리는 살인자의 목구멍에서 터져 나온 격렬한 개 짖음 같은 숨소리에 덮여버렸다.

라울은 발을 구르며 안절부절못했다. 조제핀이 죽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는 순간, 그는 그녀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사랑했다. 그녀의 죄악과 범죄는 무슨 상관이랴. 그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다. 그 아름다운 얼굴, 사랑스러운 미소, 포옹을 위해 만들어진 매혹적인 몸매가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었다.

어떤 구원도 없었다. 이 야수 같은 자의 막강한 힘에 맞설 수 있는 힘도 없었다.

하지만 조제핀 발사모를 구한 것은 바로 그 사랑의 과잉이었다. 오직 죽음만이 그 사랑을 잠재울 수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끔찍한 일은 완성되지 않았다. 에너지가 다해 버린 보마냥은 갑자기 광기 어린 절망에 짓눌려 바닥에 구르며 머리카락을 뽑아내고 타일 바닥에 머리를 내리쳤다.

라울이 드디어 숨을 들이켰다. 겉보기에는 어떻든, 조제핀 발사모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은 확실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다. 끔찍한 악몽에서 벗어나는 듯, 고통스러운 간헐적인 떨림이 그녀의 몸을 흔들어 놓았지만, 결국 그녀는 단단히 서서 평온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어깨를 감싸는 망토를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자수 꽃무늬가 있는 베일이 달린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녀는 망토를 벗어 던졌다. 격렬한 몸싸움으로 찢어진 상의의 깊게 파인 곳에서 그녀의 어깨가 드러났다.

그녀는 모자와 베일도 함께 치워냈다. 머리카락이 풀리자, 이마 양쪽으로 무겁고 고른 곱슬머리가 피어올랐다. 그 머릿결에는 붉은 빛이 감돌았다.

뺨은 더 붉게 물들었고, 눈은 더 빛났다.

오랜 침묵이 이어졌다. 두 남자는 그녀를 열렬히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은 그녀를 적이나 연인, 피해자로 보지 않았다. 그저 그 매혹과 황홀함에 자신들이 사로잡히는, 눈부시게 빛나는 한 여성으로만 바라보았다.

라울은 감격에 젖었고, 보마냥은 고개를 숙인 채 꼼짝도 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같은 열정으로 그녀를 찬미했다.

그녀는 먼저 입술에 금속으로 된 작은 호루라기를 가져다 댔다. 라울은 그 호루라기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레오나르가 멀리서 지켜보다가 불면 곧장 달려올 준비를 한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을 바꿨다. 지금 당장 그를 부르겠는가? 그녀는 지금 상황의 절대적인 지배자였다.

그녀는 라울 쪽으로 다가와 그의 입을 막고 있던 수건을 풀어주며 물었다.

"당신은 돌아오지 않았군요, 라울.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요. 다시 돌아오시겠어요?"

만약 그가 자유로웠다면, 그는 그녀를 열정적으로 자신의 품에 안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왜 그의 묶음을 풀지 않는 걸까? 어떤 숨겨진 생각 때문에 그녀를 막고 있는 걸까?

라울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끝났습니다."

그녀는 발끝으로 살짝 몸을 일으켜 입술을 그의 것에 밀착시키며 속삭였다.

"우리 사이가 끝났다고요? 당신은 미쳤어요, 제 라울!"

보마냥은 깜짝 놀라 몸을 떨며 다가갔다. 뜻밖의 입맞춤에 화가 치밀어 올랐기 때문이다. 그가 그녀의 팔을 잡으려 하자, 그녀는 몸을 돌렸다. 그리고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차가운 침착함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 자리에선 오직 보마냥에 대한 증오와 맹렬한 원한만이 그녀를 뒤흔들었다.

그녀는 갑자기 폭발하듯 말을 내뱉었다. 라울은 그녀가 그런 격정을 보일 줄 알지 못했다.

"나를 만지지 마, 쓰레기 같은 놈. 내가 너를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지도 마. 오늘 너는 혼자야. 방금 전 네가 나를 죽일 용기가 없음을 잘 봤잖아. 넌 그저 겁쟁이에 불과해. 네 손이 떨리고 있었어. 하지만 때가 되면, 보마냥, 내 손은 절대 떨리지 않을 거야."

그녀의 저주와 협박에 보마냥은 물러섰다. 조제핀 발사모는 증오에 찬 발작 속에서 계속 말을 이었다.

"하지만 네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어. 네가 충분히 고통받지 않았거든. 심지어 네가 나를 죽은 줄 알았으니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지. 이제부터 네 형벌은 내가 살아있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야."

"그래, 들었지? 나는 라울을 사랑해. 처음엔 너를 복수하기 위해, 그리고 나중에 그 사실을 네게 말해주기 위해 그를 사랑했어. 하지만 지금은 아무 이유 없이 그를 사랑해. 그가 라울이기 때문이고, 나는 더 이상 그를 잊을 수 없으니까. 그가 그걸 안다 해도 겨우 알까 말까였고, 나조차도 겨우 알까 말까 했어. 하지만 며칠 전, 그가 나를 피할 때 나는 그가 내 인생 전체라는 걸 깨달았어. 나는 사랑을 몰랐어. 하지만 사랑이란 바로 이거야. 나를 뒤흔드는 이 광기 같은 감정이야."

그녀는 자신이 괴롭히던 그 남자처럼 광란의 먹이가 되어 있었다. 연인처럼 내지르는 비명은 보마냥에게나 그 자신에게나 똑같이 고통스러워 보였다.

라울은 그녀를 바라보며 기쁨보다는 혐오감을 느꼈다. 위험을 겪으며 다시 타올랐던 열정, 존경, 사랑의 불꽃은 완전히 꺼져 버렸다.

조제핀의 아름다움과 매혹은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녀의 얼굴은 변한 것이 없었지만, 라울은 더 이상 그 얼굴에서 잔혹하고 병든 영혼의 추한 반영 외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보마냥을 향해 맹렬한 공격을 계속했다. 보마냥은 질투에 찬 분노로 몸부림치며 맞섰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두 사람은 이미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거대한 수수께끼의 열쇠를 손에 넣으려던 순간이었다. 바로 그 찰나에, 그들은 자신의 열정에 휩싸여 모든 것을 잊고 있었다.

수세기 동안 숨겨져 온 거대한 비밀, 보석의 발견, 전설의 경계석, 상자와 비문, 그리고 루셀린 과부. 그리고 그들에게 진실을 안겨줄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아무런 관심거리가 되지 못했다.

사랑은 격류처럼 모든 것을 휩쓸어 갔다. 증오와 열정이 연인들을 찢어놓는 영원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보마냥의 손가락이 다시 발톱처럼 오그라들었다. 떨리는 두 손이 목을 조를 채비를 했다.

그녀는 여전히 미쳐 날뛰었다. 눈이 멀고 질서도 없이, 사랑의 모욕을 그의 얼굴에 그대로 던졌다.

"나 그 사람 사랑해요, 보마냥. 당신을 태우고 나를 삼키는 그 불꽃은, 살인과 죽음의 생각이 섞인 당신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에요. 차라리 내가 그를 죽이겠죠. 다른 여자에게 있는 걸 알거나,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전에."

"하지만 그는 저를 사랑해요, 보마냥. 저를 사랑한다고요, 당신이 듣는 거죠? 그는 저를 사랑해요!"

예기치 않은 웃음이 보마냥의 경련하는 입술 사이로 새어 나왔다. 분노가 냉소적인 폭소로 바뀌어 터져 나왔다.

"조제핀 발사모, 그 남자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야? 네 말이 맞다. 그는 당신을 사랑해. 모든 여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는 아름답고, 그는 너를 갈망하지. 다른 여자가 지나가면, 그는 그녀도 원해. 그리고 너도, 조제핀 발사모, 지옥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거야. 시인해 봐!"

"지옥, 맞아요. 하지만 그 남자가 저를 배신한다고 믿는다면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리석게도…"

그녀는 말을 멈췄다. 보마냥이 그렇게도 기쁨과 악의로 비웃는 바람에 그녀가 무서워진 것이다. 그녀는 매우 낮은 목소리로, 불안한 어조로 다시 말했다.

"증거 하나만 주세요… 단 하나의 증거라도… 아니… 단서 하나만… 저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 만한 것이요. 그러면 저는 그를 개처럼 쳐 죽일 거예요."

그녀는 가슴에서 작은 곤봉을 꺼냈다. 고래수염 손잡이에 납 공이 달린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굳어졌다.

보마냥이 대답했다.

"의심을 품게 하러 온 게 아니라, 확신을 주러 왔소."

"말해 보시오. 이름을 대시오."

"클라리스 드 에티그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알고 있어요. 별것 아닌 풋사랑이죠."

"그에게는 충분히 중요했죠. 아버지에게 청혼할 정도였으니까."

"청혼을 했다고요? 아니, 말이 안 돼요. 제가 알아봤어요. 시골에서 두세 번 만났을 뿐이에요. 그 이상은 아니라고."

"그보다 더 나쁘죠. 그 아가씨의 방에서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녀가 외쳤다.

"차라리 그녀의 아버지가 거짓말한다고 하시오. 그건 그저께 저녁, 고드프루아 드 에티그가 직접 내게 말했거든요."

"그가 그걸 어디서 들었죠?"

"클라리스 본인에게서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딸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어요."

보마냥이 농담조로 말했다.

"상황에 따라선 그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무슨 소리야?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고백한 건 애인이 아니라 어머니예요. 뱃속에 품은 아이에게 정당한 이름을 마련해 주려는 어머니, 그리고 결혼을 요구하는 어머니의 입장이죠."

조제핀 발사모는 숨이 막힌 듯 당황한 표정이었다.

"결혼? 라울과? 에티그 남작이 허락할 리 없잖아!"

"그럼요."

"거짓말이야!" 그녀가 외쳤다. "수군수군 떠드는 여자들 소리도 아니고, 오히려 네가 날조한 말이야. 그건 하나도 진실이 없어. 그들은 절대 다시 만나지 못했어."

"서신을 주고받죠."

"증거를 보여줘, 보마냥! 즉각적인 증거를!"

"편지 한 장이면 충분할까?"

"편지?"

"라울이 클라리스에게 쓴 편지요."

"네 달 전에 쓴 편지?"

"나흘 전에 쓴 편지입니다."

"네가 그걸 가지고 있나?"

"이거요."

라울이 긴장한 눈으로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몸을 떨었다. 손에 쥔 봉투와 편지지를 보고는 곧 알아챈 것이다. 릴리보뉴에서 클라리스 드 에티그에게 보냈던 그 편지임을.

조제핀이 그 문서를 받아 들고는, 한 음절 한 음절 또박또박 발음하며 속삭이듯 읽었다.

"용서해 주세요, 친애하는 클라리스. 저는 당신에게 비열한 짓을 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너그러운 당신의 마음가짐으로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용서해 주세요, 클라리스. 용서해 주세요. — 라울."

그녀는 그 편지를 다 읽어낼 힘조차 없었다. 그 편지는 그녀를 배신했고, 그녀의 자존심 중 가장 예민한 부분을 깊게 찔렀기 때문이다. 그녀는 비틀거렸다. 시선을 라울에게로 돌렸다. 라울은 클라리스가 사형 선고를 받았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조제핀 발사모에 대한 증오만이 남을 것임을 그는 깨달았다.

보마냥이 설명했다.

"이 편지는 고드프루아가 가로챈 것입니다. 그는 제게 이 편지를 건네며 조언을 구했죠. 봉투에 릴리보뉴 우표가 찍혀 있었으니, 당신 두 분의 발자취를 다시 쫓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칼리오스트로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고통이 서려 있었다. 눈가에서 천천히 흐르는 눈물은 보는 이의 동정을 자아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슬픔은 명백히 잔인한 복수의 갈망에 지배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계책을 짜고 있었다. 함정을 파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저으며 라울에게 말했다.

"내가 너에게 경고했잖아, 라울."

"경고를 받은 사람은 두 배의 가치를 지닌다니까요." 라울이 장난기 어린 어조로 말했다.

"장난하지 마!" 그녀가 성급하게 외쳤다.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잖아. 그 여자를 우리 사랑 사이에 끼어들게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내가 한 말도 잊지 않았지?" 라울이 똑같이 짜증 나는 표정으로 맞받았다. "만약 네가 그녀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그녀가 놀라 몸을 떨었다.

"어떻게 내 고통을 이렇게 장난 삼아 여기면서, 나에게 맞서 다른 여자의 편을 들 수 있단 말인가? 나에게 맞서다니! 아, 라울, 그렇다면 그녀만 안됐을 뿐이지!"

"겁내지 마라." 그가 말했다. "그녀는 안전해. 내가 보호하고 있으니까."

보마냥은 그들의 불화와 그들 속에 끓어오르는 증오를 보며 기뻐했다. 하지만 조제핀 발사모는 자신을 억눌렀다. 자신의 때가 오면 저절로 찾아올 복수를 두고 말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 그녀를 괴롭히는 다른 걱정들이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며 귀를 기울였다.

"휘파람 소리가 났지, 보마냥? 도착할 수 있는 길목을 감시하던 내 부하 중 하나가 나에게 알린 거야.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눈앞에 있다는 뜻이야. 너도 그 사람을 위해 온 거지?"

사실 보마냥의 존재와 숨겨진 의도는 여전히 흐릿했다. 그는 어떻게 만나기로 한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있었을까? 루셀린 사건과 관련해 어떤 특별한 정보를 손에 넣은 걸까?

그녀는 라울을 흘끗 바라보았다. 단단히 묶인 그는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 수도 없고, 마지막 싸움에도 참여하지 못할 터였다. 하지만 보마냥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를 문 쪽으로 끌어당겼다. 기다리던 사람을 맞이하려는 듯이 말이다.

문이 열리려던 순간,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다시 안으로 물러났다. 보마냥을 밀쳐내며 레오나르에게 길을 내준 것이다.

레오나르는 두 남자를 빠르게 훑어보더니, 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귀에 대고 몇 마디 속삭였다.

그녀는 깜짝 놀란 듯이 중얼거렸다.

"뭐라고? … 뭐라고 했어?"

그녀는 고개를 돌려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라울은 그녀가 큰 기쁨에 젖어 있음을 직감했다.

"움직이지 마요. 누군가 오고 있어요. 레오나르, 권총을 꺼내요. 문턱을 넘는 순간 조준하세요."

그녀는 문을 열려던 보마냥을 향해 소리쳤다.

"당신 미친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그냥 거기 계세요."

보마냥이 고집을 부리자, 그녀는 화가 난 듯 말했다.

"왜 나가려 하세요? 이유가 뭐죠? 그 사람을 아시나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막으려 하거나, 아니면 데려가려 하시는 건가요? … 뭐죠? … 대답하세요!"

보마냥은 손잡이를 놓지 않았다. 조제핀은 그를 붙잡으려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레오나르를 돌아보며, 자유로운 손으로 보마냥의 왼쪽 어깨를 가리켰다. 그 손짓은 동시에 두 가지 명령을 담고 있었다. 때려라, 그러나 부드럽게 때려라.

순식간에 레오나르는 주머니에서 스타일렛을 꺼내, 상대방의 어깨에 가볍게 꽂아 넣었다.

보마냥이 신음을 흘렸다.

"아, 이 새끼야……"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조제핀은 태연하게 레오나르에게 말했다.

"도와줘. 서두르자."

두 사람은 라울을 묶은 너무 긴 밧줄을 자르고, 보마냥의 팔과 다리를 결박했다. 그후 그를 일으켜 벽에 기대어 앉힌 뒤, 그녀는 상처를 살펴보고 손수건으로 덮었다. 그리고 말했다.

"별일 아니야. 고작 두세 시간 정도 감각이 마비될 뿐이야. 자, 자리를 잡자."

그들은 숨죽이고 기다렸다.

그녀는 그 모든 일을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수행했다. 표정은 평온했고, 몸짓 하나하나가 미리 연습이라도 한 듯 정교하게 계산되어 있었다. 명령을 내릴 때는 몇 마디의 음절만 간단히 사용했을 뿐.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비록 낮아졌지만, 승리의 그윽한 울림을 담고 있었다.

라울은 점점 더 큰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곧장 소리쳐 경고하려다 말았다. 바로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함정에 빠지게 될 사람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칼리오스트로의 결정을 막아설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이미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머릿속은 터무니없는 생각들로 가득 찼고, 정신은 피폐해져만 갔다.

그리고 이미 늦었다.

그는 신음 소리라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클라리스 드 에티그가 문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제12장

지금까지 라울이 느낀 공포는 주로 정신적인 것이었다. 위험은 오직 라울 자신과 칼리오스트로 부인을 겨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울은 자신의 재주와 행운을 믿었다. 칼리오스트로 부인 역시 보마냥에게 맞서 싸울 만큼 강인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클라리스는 달랐다. 조제핀 발사모 앞의 클라리스는, 적의 계략과 잔혹함에 내팽개쳐진 먹잇감이나 다름없었다.

그제야 라울의 공포에는 일종의 육체적인 전율이 뒤섞였다. 머리카락이 쭈뼛 서고,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섬뜩한 느낌이었다. 레오나르의 냉혹한 얼굴은 그 공포를 더욱 깊게 했다. 라울은 루셀린 과부와 그녀의 부어오른 손가락들을 떠올렸다.

사실 한 시간 전, 약속 장소로 향하며 그는 이미 큰 싸움이 벌어질 것임을 직감했다. 그 싸움은 자신과 조제핀 발사모가 맞서게 될 것이 분명했다. 지금까지는 작은 충돌과 선봉대들의 교전에 불과했다. 이제야 모든 세력이 총력전을 벌이는 죽음의 결전이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라울은 스스로의 손을 묶이고 목에는 밧줄이 둘러진 채, 그 싸움에 나서고 있었다. 여기에 클라리스 드 에티그의 등장이 더해져 그의 기력은 한층 더 약해져 있었다.

'그래, 아직 배울 것이 많군.'

그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 끔찍한 상황은 거의 내 탓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클라리스는 또다시 나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레오나르가 총구를 겨누고 있었기에, 소녀는 경악한 채 꼼짝도 못했다.

그녀는 기꺼이 찾아왔다. 휴일 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러 나가는 것처럼 가볍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런데 뜻밖에도 폭력과 범죄가 오가는 현장 한복판에 서 있게 된 것이다.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는 그 앞, 꼼짝 못 한 채 묶인 채로 마주 서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야, 라울? 왜 묶여 있어?"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그의 도움을 구하는 동시에, 자신의 손을 내어주는 의미였다. 하지만 둘이서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는 그녀의 얼굴이 피폐해졌고 온몸이 극도로 지친 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가 아버지에게 한 고통스러운 고백과, 그로 인해 초래된 비극적인 결과를 생각하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럼에도 그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무서워할 것 없어요, 클라리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아무것도요.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숨을 죽일 만큼 놀랐다. 그들 사이에서 숨이 막힐 듯한 마스크 아래의 보마냥을 알아보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주저주저하며 레오나르에게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죠? 너무 무서워요……. 누가 저를 여기로 불러온 거예요?"

"제가 불러왔죠, 아가씨." 조제핀 발사모가 대답했다.

조제핀의 아름다움은 이미 클라리스를 압도했다. 그 여인에게는 도움과 보호밖에 줄 수 없다는 생각에, 클라리스는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나는 너를 안다." 조제핀 발사모가 단호하게 말했다. 소녀의 우아함과 다정함이 오히려 그녀를 격분시켰지만, 그녀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너는 에티그 남작의 딸이다. 그리고 라울 드 안드레시도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클라리스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제핀 발사모가 레오나르에게 말했다.

"가서 울타리 문을 닫아라. 가져온 자물쇠와 사슬로 잠그고, '사유지'라고 적힌 표지가 붙어 있는 낡은 기둥도 똑바로 세워라."

"저는 밖에서 대기해야 합니까?" 레오나르가 물었다.

"아니, 난 지금 너를 필요로 하지 않아." 조제핀의 말투는 라울을 공포에 떨게 했다. "밖으로 나가. 우리가 방해받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렇지?"

레오나르는 클라리스를 두 의자 중 한 곳에 앉게 강요했다. 그리고는 그녀의 팔을 뒤로 젖힌 채, 손목을 철창에 묶으려 했다.

"소용없어." 조제핀 발사모가 말했다. "우리만 남겨둬."

레오나르는 순종했다.

그녀는 차례로 세 피해자를 바라보았다. 세 사람 모두 무장 해제당해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상태였다. 그녀는 전장의 주인이었다. 죽음의 위협 아래, 그녀는 자신의 엄격한 명령을 관철할 수 있었다.

라울은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조제핀의 계획과 의도를 읽어내려 했다.

그녀의 침착함이 그에게 가장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다른 여자가 만약 그녀의 자리에 있었다면, 열정과 초조함으로 행동의 균형을 잃었을 터였다. 하지만 조제핀은 그런 기색이 전혀 없었다. 승리의 태도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지루해하는 듯했다. 마치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내면의 힘에 이끌려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제야 라울은 그녀의 본질, 즉 수수께끼 같은 성격을 설명해 주는 핵심을 발견한 듯했다. 평소 미소 짓는 아름다움 뒤에 숨겨져 있던, 게으른 운명론적 태도였다.

그녀는 클라리스 옆 의자에 앉았다.

고정된 눈빛, 느린 목소리.

말투에는 건조함과 단조로움이 감돌았다.

"세 달 전, 미스, 한 젊은 여자가 기차에서 내리는 순간 은밀히 납치되어, 라에티그 성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의 한 넓은 방에는 카우 지방의 귀족들이 열 명쯤 모였습니다. 그중에는 여기 보이는 보마냥과 당신의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그 여자가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는지 모두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가짜 재판 끝에, 손님들이 모두 간 뒤, 당신의 아버지와 사촌 베네토가 그 여자를 절벽 아래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돌로 무겁게 한 구멍 난 배 바닥에 그 여자를 묶고, 먼바다로 끌고 나가 버렸습니다."

클라리스는 숨이 막혀 말을 더듬었다.

"말도 안 돼!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어! 아버지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

클라리스의 분노 어린 항의도 아랑곳없이, 조제핀 발사모가 말을 이었다.

"누군가 감시자처럼 그 장면을 지켜봤어. 공모자들 중 누구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채로 말이지. 그 사람은 두 살인자를 감시했고, 배에 매달려, 그들이 멀어지자마자 희생자를 구해냈어. 그 외에는 설명할 말이 없지."

"그 사람은 대체 어디서 왔을까?"

"모든 정황으로 보아, 그는 전날 밤과 아침을 당신의 방에서 보냈을 가능성이 높아. 당신에게 맞아주었지. 약혼자로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그 칭호를 거부했기 때문에, 연인으로서 맞아주었어."

클라리스에게 그 비난과 욕설은 곤봉으로 내려치는 듯한 충격이었다. 첫 순간부터 그녀는 이미 전장에서 쓰러진 사람처럼 저항할 수도, 방어할 수도 없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그녀는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 의자에 몸을 굽히며 신음했다.

"오, 마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당신이 직접 아버지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칼리오스트로 부인이 말했다. "그저께 밤 당신이 아버지께 고백한 진술은, 당신의 실수가 불러온 결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이었죠.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연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죠?"

그 연인은 당신이 치욕을 당한 바로 그날, 당신을 버리고는 가장 끔찍한 죽음에서 자신이 구해낸 여인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그 여인을 온몸과 영혼으로 헌신하며 돌봤고, 결국 그녀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여인의 삶을 함께하며, 다시는 당신을 만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맹세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벼운 연정일 뿐이었죠.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잠시 오해가 있었죠. 그 오해는 그녀와 그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라울이 당신과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걸 방금 알게 됐습니다. 여기 그 편지가 있습니다. 라울은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었죠. 이제 내가 당신을 적으로 대할 권리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겠죠. 아니, 불구대천의 원수로요." 칼리오스트로 부인이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클라리스는 입을 다물었다. 두려움이 그녀의 몸속을 파고들었다. 라울을 빼앗아간 여자의, 부드럽지만 공포스러운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점점 더 큰 불안에 휩싸였다.

동정심에 떨면서도, 조제핀 발사모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은 라울은 진지한 어조로 다시 말했다.

"만약 내가 엄숙한 서약을 한 적이 있다면, 클라리스, 그건 모든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킬 각오가 된 서약일세. 바로 네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않겠다고 맹세한 그 말이야. 안심해라. 10분 안에 너는 여기에서 무사히 벗어날 거다. 10분이야, 클라리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조제핀 발사모는 그 호소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하게 다시 입을 열었다.

이제 우리 관계도 정리됐으니, 실제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와 그 친구 보마냥, 그리고 그 일당들은 공통된 목적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도 그 목적을 쫓고 있고, 라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이에는 끊이지 않는 전쟁이 이어지는 셈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우리 모두 한 여성인 루셀랭 부인과 접촉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꼭 필요로 하는 고대 상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상자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말았죠.

"우리는 그녀를 최대한 강하게 심문했지만, 그녀에게 많은 은혜를 베푼 그 인물의 이름은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 사람을 불쾌하

게 할 만한 누설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죠. 우리가 알아낸 건 그저 옛 이야기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우리 관점뿐만 아니라, 당신 관점에서도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미스."

라울은 칼리오스트로가 밟은 발자취와 그녀가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될 종착점을 서서히 파악해 가고 있었다. 그 광경은 너무도 끔찍해서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건 말이 안 돼! 어떤 진실은 반드시 숨겨져야 해…"

그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은 채, 냉정하게 말을 이었다.

"이렇습니다. 스물네 해 전, 프랑스와 프로이센이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두 남자가 침략군을 피해 루셀랭이라는 사람의 안내를 받아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루앙 근처에서 그들은 자베르라는 하인을 만나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인의 말만 빼앗아 탈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 덕분에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하인에게서 훔쳐온 작은 상자를 가지고 있었죠. 그 상자 안에는 가장 값진 보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강제로 데려온 루셀랭 씨가 무가치한 반지 몇 개를 나눠 받고 루앙으로 돌아와 아내 곁에서 거의 즉사했습니다. 그 살인과 무의식적인 연루가 그를 너무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부와 살인자

들 사이에 연락이 닿았고, 살인자들은 그녀가 입을 놀릴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가…… 하지만 미스, 누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시겠죠?"

클라리스는 고통스러운 경악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라울이 외쳤다.

"조신, 입을 닫아! 더 이상 말하지 마! 이건 가장 비열하고 터무니없는 짓이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녀는 그에게 침묵을 요구했다.

"무슨 소용이냐고?" 그녀가 되받았다. "진실은 모두 말해야 하거든요.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은 저와 클라리스를 서로 적대시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 둘은 같은 아픔을 나누어야 마땅하지요."

"아, 야만스러운 여자여." 그가 절망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조제핀 발사모는 몸을 돌려 클라리스를 향해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의 아버지와 사촌 베네토는 루셀랭 과부를 계속 쫓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릴본에서 살게 되었죠. 그곳이 에티그 남작이 그녀를 더 쉽게 감시하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을 대신해 준 사람도 생겼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미스. 루셀랭 과부는 당신을 매우 아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적대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절대 그 어린 소녀의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소녀는 가끔 그녀의 집에서 놀러 왔으니까요.

물론 그런 만남은 비밀리에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는 실마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때로는 근처의 낡은 등대나 다른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방문 중 한 번에, 우연히 릴본의 다락방에서 그 상자를 보셨죠. 그리고 호기심에 라에티그의 집으로 가져가셨고요.

라울과 제가 루셀랭 과부로부터 그 상자가 특정인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과부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고, 두 사람은 정해진 날짜에 만나곤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는 주저 없이 결론 내렸습니다. 과부 대신 구등대 근처에 나타나기만 하면 진상의 일부를 밝힐 수 있을 거라고."

"당신이 나타나시자, 우리는 즉각 확신했습니다. 두 살인자는 바로 베네토와 에티그 남작이었으니까요. 바로 그 두 사람이 이후에 저를 바다에 던져넣은 자들이죠."

클라리스는 울고 있었다. 어깨가 격렬하게 떨리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라울은 클라리스가 아버지의 범죄를 전혀 모른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적의 고발이 클라리스에게 그동안 미처 깨닫

지 못했던 사실들을 생생하게 드러내 줄 것이라고도 믿었다. 그 고발은 클라리스로 하여금 아버지를 살인자로 바라보게 만들었다.

그녀가 겪는 비극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조제핀 발사모의 한 방이 얼마나 정확히 적중했는가!

악의 과학을 가진 처형자가 어떻게 그 희생자를 고통스럽게 짓누르는지 보라. 레오나르가 루셀린 과부에게 가한 육체적 고통보다 천 배나 더 잔혹한 방식으로, 조제핀 발사모는 무고한 클라리스에게 복수하고 있었다.

"네, 맞아요. 저 사람은 살인자예요. 그의 부와 성, 말들까지 모두 범죄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보마냥? 당신도 증언할 수 있잖아요. 당신도 그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잖아요. 당신은 어떻게든 빼앗은 비밀을 쥐고 있었고, 그걸로 그를 조종했어요. 첫 번째 범죄와 그 증거를 이용해 그를 부리고, 당신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또 죽이게 했죠. 보마냥,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당신들은 도둑들이에요!"

그녀의 시선은 라울을 찾았다. 라울은 그녀가 보마냥과 그 공범들의 죄를 들춰내며 자신의 죄를 변명하려 한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는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나서요? 다 끝난 거죠? 그 아이를 또 괴롭히려는 건가요? 더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녀가 말하게 하는 거죠." 조진이 말했다.

"말하면 풀어주겠소?"

"그럼 물어보시오. 뭘 묻고 싶으신 거요? 상자를 원하는 건가요? 뚜껑 안쪽에 적힌 공식을요? 그게 맞나요?"

클라리스가 대답할 마음이 있든 없든, 진실을 알든 모르든, 그녀는 단어도 발음하지 못했고, 던져진 질문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라울은 재촉했다.

"슬픔을 이겨내시오, 클라리스. 이것이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제발, 대답해 주시오.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당신의 양심을 상하게 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침묵을 약속하지도 않았고, 누구도 배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라울의 속삭임 같은 목소리가 소녀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그는 그 변화를 감지하고 물었다.

"그 상자는 어떻게 됐소? 하이에티규로 가져다 뒀소?"

"네." 그녀가 숨을 죽이며 대답했다. 온통 지친 목소리였다.

"왜?"

"그냥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냥 변덕이었어요."

"아버지께서 그 상자를 보셨소?"

“그날 바로?”

“아니오. 며칠 뒤에야 보셨지.”

“아버지께서 다시 가져가셨소?”

“어떤 구실로?”

“구실 따위는 없었소.”

“하지만 그 상자를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있었겠소?”

“뚜껑 안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 걸 보셨소?”

“낡은 문자로, 거칠게 새겨진?”

“그 글자를 읽어내셨소?”

“쉽게?”

“아니요. 하지만 결국 읽어냈어요.”

“그 글자가 기억나시오?”

“아마… 잘 모르겠어요. 라틴어 단어들인 것 같았어요.”

“라틴어 단어들?”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보시오.”

"제가 그걸 밝힐 권리가 있을까요? 만약 그 비밀이 너무 중대하다면, 제가 그것을 드러내야 할까요?"

클라리스는 망설였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클라리스. 제가 장담합니다. 그 비밀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누구도 당신의 아버지나 그의 친구들, 혹은 저보다 더 특별히 그 비밀을 알 권리가 없습니다. 그 비밀은 그것을 발견한 자, 즉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첫 번째 지나가는 사람에게 속합니다."

그녀는 결국 양보했다. 라울이 주장하는 말이 옳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네… 네… 아마도 당신이 옳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 글귀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만큼, 제 기억을 모아서 제가 읽은 것을 어떻게든 번역해 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돌에 관한 것이었고, 여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클라리스, 꼭 기억해 내야 해요. 그래야만 해요." 라울이 간곡히 청했다. 칼리오스트로의 한층 어두워진 표정이 그를 불안하게 했던 것이다.

기억을 더듬느라 얼굴이 일그러진 채, 그녀는 잠시 주춤거리다 다시 말을 잇고, 자신의 말을 부정하듯 했다. 결국 젊은 여자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이제… 기억나요… 바로 이 문장이에요. 제가 해독한 대로요. 라틴어 다섯 단어가 이렇게 이어졌죠."

"Ad lapidem currebat olim regina…"

그녀는 마지막 음절조차 제대로 발음할 겨를이 없었다. 더 공격적으로 변해 있던 조제핀 발사모가 젊은 여자에게 다가가 소리쳤다.

"거짓말!"

이 공식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어. 보마냥이 증명해 줄 수 있지. 그렇지, 보마냥, 우리도 알고 있잖아?

라울, 그 여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정말 거짓말이야.

이 다섯 단어를 본느쇼즈 추기경이 요약문에서 언급하긴 했지만, 그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어. 오히려 그들에게 전혀 의미가 없다고 단호하게 거부했지.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그 일에 대해 말조차 하지 않았어.

과거에는 여왕이 그 돌을 향해 달려갔다고 하지만, 정작 그 돌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그 여왕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스무 해가 넘도록 그걸 찾고 있지만, 답은 나오지 않고 있어. 아니, 아니야. 분명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거야.

다시 그녀를 사로잡은 것은 끔찍한 분노였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지도, 몸을 어지럽게 움직이지도 않았다. 대신 속으로만 끓어오르는 불

안정한 기색을 드러냈고, 그것은 특정한 징후들, 무엇보다도 비정상적이고도 이례적인 잔혹함이 섞인 말투로만 감지될 수 있었다.

그녀는 젊은 소녀에게 몸을 기댄 채, 반말로, 한 음절 한 음절 힘주어 말했다.

"너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다섯 단어를 한꺼번에 요약하는 말이 있어… 뭐야? 한 가지 공식이… 딱 하나… 뭐야? 대답해."

공포에 질린 클라리스는 입을 다물었다. 라울이 애원했다.

"생각해 봐요, 클라리스… 기억해 내봐요… 그 다섯 단어 말고는 아무것도 못 봤어요?"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아요…" 소녀는 신음했다.

"기억해 내야 해요. 반드시 기억해 내야 해요. 당신의 목숨이 그것에 달려 있어요."

라울의 어조와 클라리스에 대한 뜨거운 애정이 조제핀 발사모를 격분시켰다.

그녀는 젊은 여자의 팔을 꽉 쥐고 명령했다.

"말해. 안 그러면…"

클라리스는 더듬거리며 대답하지 않았다. 칼리오스트로가 날카로운 휘파람을 불었다.

곧장 레오나르가 문간에 나타났다.

그녀는 이를 갈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데려가, 레오나르… 그리고 심문을 시작해."

라울은 묶인 채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아! 비겁한 놈! 몹쓸 놈!" 그가 외쳤다. "저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할 거야? 너는 정말 인간이 아닌 거야? 레오나르, 이 아이에게 손만 대면, 나는 하나님께 맹세한다. 언젠가 반드시…"

"네가 그녀를 걱정하는구나!" 조제핀 발사모가 비웃었다. "아니, 그녀가 고통받는다는 생각만으로도 네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알겠어. 둘 다 서로 통하는 구석이 있군. 살인자의 딸과 도둑이라니."

"그래, 도둑이지." 그녀가 다시 클라리스를 향해 이를 갈며 말했다. "네 연인은 도둑일 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는 평생 도둑질로만 살아왔어. 어릴 적부터 줄곧 훔쳤지."

"너에게 꽃을 주기 위해서였지. 네가 손가락에 끼고 있는 그 작은 약혼반지를 주기 위해서도 훔쳤어. 그는 강도요, 사기꾼이야."

"그의 이름조차도, 그 예쁜 Andrésy라는 이름만 봐도 사기일 뿐이야. 라울 드 안드레시? 말이 안 돼. 정체는 아르센 뤼팽이야. 바로 그 이름이지. 기억해, 클라리스. 그가 곧 유명해질 거야."

"아, 네 애인을 직접 봤거든. 장인이야. 재주꾼이랄까? 내가 말리지 않았다면, 너희 둘은 정말 멋진 한 쌍이 되었을 텐데. 그리고 너희 아이는 얼마나 운명을 타고난 아이가 되었겠어. 아르센 뤼팽의 아들, 고드프루아 남작의 손자로 말이야."

이 '아이'라는 생각은 그의 분노에 다시 채찍질을 가했다. 악의 광기가 분출한 것이다.

"레오나르……"

"야, 야만인!" 라울이 절박하게 외쳤다. "참으로 치욕적이군. 그래, 네 정체가 드러났구나, 조제핀 발사모? 더 이상 연기할 필요도 없지? 바로 네가 그 고문범이지?"

하지만 그녀는 끝내 타협하지 않았다. 야만적인 악행을 저지르고 그 소녀를 괴롭히려는 고집스러운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직접 클라리스를 밀어냈고, 레오나르는 그녀를 문 쪽으로 끌고 갔다.

"겁쟁이! 괴물!" 라울이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알겠나? 단 하나라도 건드리면, 너희 둘 다 죽는다. 아, 괴물들아! 어서 그녀를 놓아!"

그는 묶인 줄에 맞서 어찌나 거세게 몸을 버둥거렸던지, 보마냥이 고안한 구속 장치가 모두 무너지고, 벌레 먹은 덧문이 경첩에서 뽑혀 방 안으로 떨어졌다.

적진에서 잠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밧줄은 여전히 단단했고, 포로가 크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충분히 묶여 있었다. 레오나르가 권총을 꺼내 클라리스의 관자놀이에 대었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 옮기거나,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쏴." 칼리오스트로가 명령했다.

라울은 움직이지 않았다. 레오나르가 명령을 즉시 실행할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 그에게서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면 클라리스는 즉결 처분될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할까?

그는 어쩔 수 없이 체념해야만 했을까? 그녀를 구할 방법은 전혀 없었을까?

조제핀 발사모는 눈을 떼지 않았다.

"자, 알겠지? 상황이 어떤지. 이제 좀 더 얌전해졌구나."

"아닙니다." 라울은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건 침착함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내가 그녀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라고 약속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해."

"조금 더 기다려도 될 텐데."

"아니, 조시네. 지금 당장 그녀를 풀어줘."

그녀는 공범자를 향해 돌아섰다.

"준비됐지, 레오나르? 가. 빨리 끝내."

"멈춰라." 라울이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어, 조제핀은 잠시 주저했다.

"멈춰라." 라울이 다시 말했다. "그녀를 풀어줘… 들었지, 조제핀. 나는 클라리스를 즉시 풀어주고 이 문을 활짝 열어두길 원한다."

그가 내뱉은 것은 비열한 일을 미루거나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었다. 단 한 가지, 클라리스 드에티그를 즉각 석방하고 문을 활짝 열어두라는 것이었다.

그가 그렇게도 위엄 있고 단호하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남달랐고 그 의지를 뒷받침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도 감격에 젖은 레오나르드는 망설임에 빠졌고, 사건의 전모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클라리스는 위안을 얻은 듯했다.

칼리오스트로 여사는 당혹스러운 듯 중얼거렸다.

"말장난이겠지? 또 다른 속임수일 거야…"

"사실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압도하는 한 가지 사실, 당신이 결국 굴복하게 될 그런 것이죠."

"무슨 말씀이세요?" 칼리오스트로 부인이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거죠?"

"저는 원하는 게 없습니다. 요구할 뿐입니다."

"무엇을?"

"클라리스의 즉각적인 석방입니다. 레오나르나 당신이 발끝 하나 움직이지 않는 조건으로, 여기서 떠날 자유를 주세요."

그녀는 웃음을 터뜨리며 물었다.

"그게 전부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당신은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는 거죠?"

"수수께끼의 답을."

그녀가 몸을 떨었다.

"당신은 그 답을 알고 있는 거요?"

드라마의 양상이 갑자기 달라졌다. 증오와 질투, 그리고 사랑에 대한 혐오로 서로를 미치게 몰아넣던 격렬한 적대감 사이에서, 오직 거대한 계획에 대한 염려만이 드러나는 듯했다. 칼리오스트로의 복수심은 잠시 뒷전으로 물러났다. 라울의 뜻대로, 수도사들이 가진 천만 개의 보석들이 그녀의 눈앞에서 빛나기 시작했다.

보마냥은 반쯤 몸을 일으켜 열정적으로 경청하고 있었다.

클라리스를 동맹자에게 맡긴 조제핀이 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수수께끼의 답을 알면 충분합니까?"

"아니요." 라울이 말했다. "단서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해석해야 하죠. 공식의 진정한 의미는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먼저 그 베일을 벗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해냈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미 제 생각은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진실이 제 머리를 비췄습니다."

그녀는 라울이 이런 상황에서 농담을 섞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말해 봐. 그러면 클라리스는 여기서 나가겠지."

"클라리스가 먼저 나가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리죠. 물론, 목에 밧줄을 매고 손을 묶은 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상황이 뒤바뀌었잖아. 내가 모든 걸 좌우하는 거야."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저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제시하는 건 제 몫이죠."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지만, 어쩔 수 없이 말했다.

"정말 진실을 말한다고 맹세해 봐. 어머니의 무덤 위에서 맹세해."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제 어머니 무덤 위에서 맹세합니다. 클라리스가 이 문을 지나간 지 스무 분만 지나면, 돌기둥이 서 있는 곳, 즉 프랑스 수도원 승려들이 모아 둔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겠습니다."

라울의 거대한 제안을 들은 그녀는, 갑자기 자신에게 내려앉은 놀라운 매혹에서 벗어나려 애썼다. 분노한 목소리로 외쳤다.

"아니요, 아니에요. 이건 함정이에요.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만 아는 게 아닙니다."

"누가 또 아나요?"

"보마냥과 남작입니다."

"말도 안 돼!"

"생각해 봐. 보마냥은 그저께 라에데티그에 있었어. 왜? 남작이 상자를 되찾았으니, 두 사람이 함께 비문에 새겨진 글자를 연구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만약 추기경이 밝혀낸 다섯 단어 말고, 그 모든 걸 요약하고 신비의 열쇠를 쥐고 있는 마법의 한 단어가 있다면, 그들은 이미 그걸 봤을 거야. 알고 있는 거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보마냥을 잡았으니까요." 그녀는 보마냥을 지켜보며 말했다.

"하지만 네가 고드프루아 디티그를 잡은 건 아니야. 지금쯤 그는 그곳에 있을지도 몰라. 사촌과 함께 말이야. 보마냥이 먼저 보내서 현장을 정찰하고 금고 탈취를 준비하게 한 사람들이지. 위험이 뭔지 알겠어? 1분만 허비해도 게임 전체를 잃는 거라는 걸 모르겠어?"

그녀는 격분하며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

"클라리스가 말을 하면 내가 이겨요."

"그녀는 더 이상 아는 게 없으니 절대 입을 열지 않을 거야."

"좋아. 그럼 네가 말해라. 자칫 실수해서 그런 고백을 했잖아. 왜 내가 그녀를 풀어주겠나? 왜 내가 너에게 복종하겠나? 클라리스가 레오나르의 손아귀에 있는 한, 네가 아는 것을 꺼내는 건 내 마음대로다."

그가 고개를 저었다.

"위험은 이미 지나갔어. 폭풍은 멀어졌지. 물론 네가 원한다면 정말 쉽게 내게서 정보를 빼낼 수 있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제 네가 그걸 원할 수 없어. 더 이상 그 힘이 남아 있지 않으니까."

그건 사실이었다. 라울은 그렇게 확신했다. 비록 가혹하고 잔인했으며, 보마냥이 말한 대로 '지옥 같은' 여자였지만, 칼리오스트로는 여자가 아니었는가. 신경이 예민해져 실수하기도 하는 존재였다. 그녀는 의지해서가 아니라 발작처럼 악행을 저질렀다. 광기와 히스테리가 섞인 발작이었고, 그 뒤로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찾아왔다. 라울은 지금 그녀가 바로 그 상태에 빠져 있다고 의심하지 않았다.

"자, 조제핀 발사모. 스스로에게 논리적이 되어라. 너는 이 카드에 인생을 걸었다. 무한한 부를 차지하는 것. 내가 그 부를 너에게 주려 하는데, 지금 그 모든 노력을 배신하겠는가?"

저항의 기운은 약해지고 있었다. 조제핀 발사모가 반문했다.

"당신을 믿지 못하겠소."

"그건 사실이 아니야. 네가 내 약속을 꼭 지킬 줄 잘 알고 있잖아. 만약 네가 망설인다면…… 하지만 넌 망설이지 않겠지. 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고, 그건 올바른 선택이야."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이내 한 가지 제스처를 취했다. 그 동작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했다. '어차피 나는 그 애를 다시 찾게 될 거야. 복수는 조금 늦출 뿐이지.'

"네 어머니를 두고 맹세하는 거지, 그렇지?" 그녀가 물었다.

"내 어머니를 두고, 내게 남은 모든 명예와 결백을 걸고, 너를 위해 모든 진실을 밝히겠소."

"좋소. 받아들이겠소. 하지만 클라리스와 너는 서로 단 한 마디도 나누지 말게."

"단 한 마디도 없소. 더구나 내가 그녀에게 숨길 일은 없소. 그녀가 자유로워지는 것,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일 뿐이오."

그녀가 명령했다.

"레오나르드, 그 애를 풀어주게. 그리고 그 남자는 결박을 풀어주게."

레오나르의 얼굴에 실망스러운 빛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너무 꼼짝 못 하는 신세라 반발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는 클라리스에게서 물러서서, 아직 풀리지 않은 라울의 묶음을 마지막으로 잘라 주었다.

라울의 태도는 상황의 엄숙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다리를 풀어주며 팔을 두세 번 흔들어주더니,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후우! 이게 낫지. 나는 포로 노릇 같은 건 전혀 취향이 아니다. 나는 착한 이를 구하고 나쁜 이를 징벌하는 게 재미야. 레오나르, 너는 떨고 있어라."

그는 클라리스에게 다가가 말했다.

"방금 일어난 일들 때문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걸 믿으세요. 이제부터 저는 당신의 보호자입니다. 이동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네…"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은요?"

"나? 난 아무런 위험도 안 져. 중요한 건 네가 무사히 살아나는 거야. 그런데 넌 오래 걸을 수 없을 것 같아."

"오래 걸을 필요는 없어요. 어제 아버지가 저를 친구 댁에 모셔다 주셨어요. 내일 아버지가 다시 데리러 오실 거예요."

"이 근처에?"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클라리스. 그런 정보는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그는 그녀를 문까지 모셔다 주고, 레오나르에게 울타리 자물쇠를 열라고 신호를 보냈다. 레오나르가 명령을 수행하자,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조심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당신이나 나나, 조금도 말이야. 우리가 다시 만날 때가 되면 만날 거야. 장벽이 무엇이든, 그 시간은 머지않아 올 거야."

그는 문 뒤로 그녀를 보내고 문을 닫았다. 클라리스는 구원받았다.

그때 그는 당당하게 말했다.

"정말 사랑스러운 여인이지!"

후일, 아르센 뤼팽은 조제핀 발사모와의 대모험 중 이 일화를 회상할 때마다 참지 못하고 웃곤 했다.

"그래, 그때 내가 그랬듯 지금도 나는 웃고 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그 작은 발차기 춤을 추었는데, 그 이후로 난해한 승리를 거둘 때마다 그 춤을 추어 내 공적을 치장하곤 했다. 그리고 이번 승리는 말 그대로 매우, 매우 난해한 것이었다."

"진정으로 나는 환희에 차 있었다. 클라리스가 자유로워졌고,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다. 나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조제핀 발사모가 나와 맺은 계약을 상기시키며 내 앞에 버티고 서 있자, 나는 실례되게도 그녀의 얼굴 정면에 내 뱉은 연기를 쏘아댔다.

‘이 건달!’ 그녀가 우물거리며 내뱉었다.”

공처럼 되받아친 그 호칭은 더할 나위 없이 비열했다. 변명하자면, 나는 그 말에 거친 뜻보다는 장난기 어린 기분을 더 많이 실었다. 그리고…… 그리고…… 내가 변명할 필요가 있을까? 그 여자가 내게 불러일으킨 과도하고 모순된 감정들을 분석할 필요도 있을까?

나는 그녀에 대해 심리학을 논하려 하지 않는다. 또 그녀와 함께 정중한 신사의 행세를 했다고 자부하지도 않는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잔인하게도 증오했다.

하지만 그녀가 클라리스를 공격한 이후로, 나의 혐오와 경멸은 한계가 없었다. 나는 그녀의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가면을 더 이상 보지 못했다. 오직 그 이면에 숨겨진 것을 보았을 뿐이다. 그리고 갑자기 포식자 같은 짐승으로 드러난 그 모습에게, 나는 빙글 돌아서며 끔찍한 욕설을 던졌다.

아르센 뤼팽은 나중에 웃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참으로 비극적이었다. 칼리오스트로 부인이나 레오나르가 하마터면 그를 총으로 쏘아 쓰러뜨릴 뻔했다.

그녀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아, 당신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

“저도 마찬가집니다.” 그가 비웃듯 말했다.

"클라리스와 조제핀 발사모 사이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아시죠?"

"클라리스와 라울 다르당시 사이도 마찬가집니다." 그는 굽히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비열한 놈."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은 마땅히……"

"권총 한 발을 맞아야죠. 안 됩니다, 내 사랑!"

"너무 함부로 굴지 마세요, 라울!"

"말도 안 돼. 내가 지금 당신에게 성스러운 존재라고. 나는 10억을 대변하는 사람이야. 날 없애 버리면, 그 10억은 칼리오스트로의 딸인 당신의 예쁜 코앞에서 사라지고 말 거야. 내가 얼마나 존중받는 사람인지 알겠지? 내 뇌의 각 세포마다 보석 하나씩이 대응하고 있어."

"그 안에 작은 총알 하나만 들어간다면, 네가 아버지의 명복을 빌며 애원해도 소용없어. 조셋에게 단 한 푼도 남지 않을 테니까. 다시 말하지만, 내 작은 조제핀아, 나는 폴리네시아에서 말하는 '타부'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완전한 타부라고. 무릎을 꿇고 내 손을 입에 대는 게 네게 가장 좋은 일이지."

그는 안뜰로 통하는 옆창을 열며 한숨을 쉬었다.

"여기서 숨이 막혀. 확실히 레오나르에게서 퀴퀴한 냄새가 난다. 조제핀, 네 살인자가 권총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녀가 발을 구르며 말했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 이제 그만해! 네 조건은 이미 정했잖아. 내 조건도 알아."

"돈 아니면 목숨."

"빨리 말해, 라울."

"너 너무 조급하네. 첫째, 클라리스가 네 발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20분을 줬어. 그런데 아직 20분이 한참 멀었지. 게다가…"

"또 뭐야?"

"게다가, 수년간 아무도 풀지 못했던 문제를 5초 만에 해독하라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녀는 깜짝 놀랐다.

"무슨 뜻이야?"

"별거 없어. 그냥 좀 더 시간을 달라."

"시간? 왜?"

"해독하려면…"

"뭐? 너 모르고 있었어?"

"수수께끼의 열쇠요? 글쎄요, 아닙니다."

"아! 거짓말쟁이!"

"욕설은 금물이야, 조제핀."

"거짓말했잖아. 맹세까지 했으면서."

"어머니 묘소 위에서 맹세한 건 맞고, 그 약속을 저버리지도 않았어. 하지만 '주변'과 '주위'를 혼동하지는 마. 내가 진실을 안다고 맹세한 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겠다고 맹세했을 뿐이지."

"말하려면 알아야 하는 법."

"알려면 생각해야 해. 그런데 넌 내게 그 시간을 주지 않아! 시끄럽게 굴지 마… 그리고 레오나드가 권총 손잡이에서 손을 떼게 해. 그게 신경 쓰여."

그의 농담보다, 그 농담을 비웃고 거만하게 내뱉는 어조가 칼리오스트로에게는 더없이 짜증스러웠다.

더 이상 참지 못한 그녀는 모든 위협이 무의미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네 마음대로 하라. 네가 약속을 지킬 줄 안다."

그가 외쳤다.

"아, 네가 부드럽게 나오면 어떡하나. 나는 부드러운 태도에 절대 저항하지 못해. 야! 글 쓰는 도구 좀 가져오게. 고운 짚 종이, 벌새 깃털 펜, 검은 오디의 즙, 그리고 시인이 말한 대로 시트러스 나무 껍질을 받침으로."

그가 지갑에서 연필과 명함 한 장을 꺼냈다. 명함 위에는 이미 특이한 방식으로 몇 마디가 적혀 있었다. 그는 그 단어들을 서로 이어주는 줄을 몇 개 그었다. 이어서 뒷면에 라틴어 구절을 적었다.

Ad lapidem currebat olim regina.

"엉터리 라틴어라니!" 그가 낮게 말했다. "좋은 수도사들 대신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같은 결과를 얻으면서도 더 나은 방법을 찾았을 거야. 어쨌든, 이미 일어난 일은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여왕은 말에 올라타서 표지석 쪽으로 돌진했지… 조제핀, 시계를 봐."

그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잠시 일 분, 이 분 정도 그의 얼굴은 진지함으로 가득 찼고, 공허한 곳을 응시하는 듯한 눈빛은 깊은 사색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조제핀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에는 무한한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생각의 흐름을 끊지 않으면서도, 그녀에게 산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진실을 깨달았지, 그렇지?" 그녀가 물었다.

묶인 채 꼼짝도 하지 못한 보마냥은 불안에 얼굴이 일그러진 채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정말로 그 놀라운 비밀이 폭로될 것인가?

한두 분, 길어도 그 정도가 지나갔다. 세상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었다.

조제핀 발사모가 입을 열었다.

"왜 그래, 라울? 너 너무 감동한 것 같은데."

"그래, 정말 감동했어." 라울이 답했다. "이 모든 이야기, 들판 한복판의 석주 속에 숨겨진 보물들만 해도 이미 꽤 흥미롭지.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조시네. 이 이야기의 핵심 아이디어에 비하면 말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이하고… 아름답잖아! 어떤 시적 감동과 순진함이 느껴져."

그는 말을 멈췄다. 잠시 후, 그는 단호한 어조로 선언했다.

"조시네, 중세의 수도원 승려들은 정말 멍청했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세상에! 맞아요. 경건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내 신념을 상하게 할지도 모르니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정말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만약 한 대재벌이 금고에 '열지 마시오'라고 적어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그를 멍청이라고 부르겠죠? 그들이 선택한 보물 보호 방법은 거의 비슷할 정도로 순진한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다.

"아니요… 아니요… 믿을 수 없어요!… 당신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바보들 같으니라니! 그 뒤로 수없이 많은 이들이 찾아다녔지만, 단 서 하나도 건지지 못했어. 눈먼 자들이야! 좁은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지! 도대체 말이야, 레오나르, 에티그의 고드프로아, 보마냥, 그 친구들, 예수회 전체, 루앙 대주교까지. 모두 그 다섯 단어를 눈앞에 두고 있었잖아. 그런데도 그걸로 부족했다니! 천만에, 초등학교 아이라면 훨씬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텐데."

그녀가 반박했다.

"일단 문제는 다섯 단어가 아니라, 단 한 단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가 분명히 들어 있어! 내가 방금 상자를 손에 넣으면서 이 필수 단어가 보마냥과 남작에게 드러났을 거라고 말한 건, 너를 겁주어서 네가 손을 떼게 하려는 의도였어! 그 자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그 필수 단어는 분명히 존재해! 라틴어 다섯 단어 사이에 숨어 있는 거야! 너희가 모두 그 모호한 문구에 놀라 파랗게 질린 대신, 그냥 읽어서 첫 글자 다섯 개를 모으면 됐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를 살펴봐야 했어."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그걸 생각했어… 알코르라는 단어, 맞지?"

"그래, 알코르라는 단어."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어쨌다고? 그 단어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어! 그 단어의 의미를 알아?

"아랍어로 '시험'이라는 뜻이야."

"그걸 아랍인들과 모든 민족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오?"

"별입니다."

"어떤 별이요?"

"큰곰자리를 이루는 별 중 하나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상관이 있을 수 있겠어요…"

라울은 동정 어린 미소를 지었다.

"당연하지. 별의 이름이 어찌 시골 경계석의 위치와 관련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이런 멍청한 상념에 빠지고, 그쪽으로 더 이상 파고들지 않는다. 불쌍한 여인아. 하지만 바로 그 점이, 내가 라틴어 비문의 다섯 글자에서 '알코르'라는 단어를 추출했을 때, 나를 강타했던 것이다."

"마법의 주문을 쥐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이 일곱이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돈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이다. 일곱 개의 수도원, 일곱 명의 수도사, 촛대에 일곱 개의 가지, 일곱 개의 반지에 박힌 일곱 가지 색깔의 보석들. 그러자마자, 알코르 별이 큰곰자리에 속한다는 사실을 나는 무의식적으로 기록했다. 그리고 난제에 해결책이 생긴 것이다."

"해결책이라니요? 어떻게요?"

"하지만, 세상에! 큰곰자리가 바로 일곱 개의 주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었나? 일곱! 언제나 일곱이라는 숫자가 등장하지. 이제 그 연관성을 보았는가? 내가 아랍인들이 '알코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 그리고 이후 천문학자들이 이를 받아들인 이유를 다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가?

이 아주 작은 별은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력의 시험대 역할을 한다. 즉, 눈으로 이를 구분할 수 있다면 시력이 좋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알코르.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봐야 할 것, 찾아야 할 것. 숨겨진 것, 숨겨진 보물. 보석을 숨기는 보이지 않는 기준점, 바로 그 금고 말이다."

조제핀은 커다란 진실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에 전율하며 속삭였다.

"이해가 안 돼요."

라울은 의자를 돌려, 레오나르와 열린 창문 사이에 서 있었다. 그는 필요할 때 바로 도망칠 생각이었다.

말을 하면서 그는 레오나르를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레오나르는 손끝을 주머니 속에 깊숙이 파묻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이해할 거야. 너무 명백해."

라울이 말했다.

"수정처럼 명백하지. 봐."

그는 손가락 사이로 명함을 꺼내 보였다.

"봐. 이 명함이 몇 주째 내 곁을 떠나지 못했어."

"우리가 조사를 시작한 순간부터, 나는 지도에서 일곱 수도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했어. 그리고 그 일곱 이름을 이 지도에 적어 넣었지. 여기, 일곱 수도원이 서로의 상대적인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며 놓여 있어."

"그런데 방금 그 열쇠 단서를 알게 된 순간, 나는 이 일곱 점을 선으로 연결했어. 그리고 놀랍고, 기적 같고, 거대한 발견을 했지. 하지만 동시에 매우 자연스러운 사실이었어. 이렇게 그려진 그림이 정확히 '큰곰자리'를 닮았다는 거야."

"그 경이로운 현실을 이해했니? 카우 지방의 일곱 수도원, 프랑스 기독교의 부가 모이던 일곱 개의 핵심 수도원이 바로 큰곰자리의 일곱 주요 별처럼 배치되어 있었던 거야."

"이건 절대 틀린 게 아니야. 지도를 꺼내서 그 위를 베껴 보라. 분명히 큰곰자리의 신비로운 그림이 나올 거야."

이제 진상은 자명해졌다. 하늘의 알코르 자리에 지상의 경계석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늘에서 알코르는 큰곰자리 꼬리 중앙의 별보다 약간 오른쪽 아래에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지상의 경계석도 그 별에 해당하는 수도원보다 약간 오른쪽 아래에 있어야 한다. 그 수도원이 바로 노르망디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유했던 주미에즈 수도원이다.

이건 필연이다. 수학적으론 당연한 일이다. 경계석이 바로 그 자리에 있고, 다른 곳엔 없다.

그런데 바로 이때,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실이 있었다. 주미에즈의 남동쪽, 불과 한 리가(里) 떨어진 곳에 메닐수주미에즈 마을이 있었다. 센 강변에 자리한 그곳에는 샤를 7세의 연인이었던 아녜스 소렐의 저택 유적이 남아 있었다.

게다가 주미에즈 수도원은 그 저택과 지하도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 입구는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결론은 명확했다. 전설의 경계석은 아녜스 소렐의 저택 근처, 센 강가에 있었다. 전설이 암시하는 바는 이렇다. 왕의 연인이자 사랑의 여왕이었던 아녜스는 자신이 그 경계석에 담긴 보물을 모른 채, 그곳으로 달려가 앉았을 것이다. 그리고 노르망디의 옛 강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왕의 배를 바라보았을 것이다.

「여왕이 옛적에 돌을 향해 달려갔노라.」

거대한 침묵이 라울 드 안드레시와 조제핀 발사모를 묶고 있었다. 베일이 걷혔다. 빛이 어둠을 몰아냈다. 그들 사이에는 모든 적의가 가라앉은 듯했다.

그들을 갈라놓았던 치열한 갈등도 잠시 휴전에 들어갔다. 오직 남은 것은 하나였다. 시간과 공간이 막아선, 신비로운 과거의 금기된 영역으로 이렇게 깊숙이 들어선 놀라움이었다.

조제핀 곁에 앉아 자신이 그려낸 그림에 시선을 고정시킨 라울은 조용히, 하지만 고조된 감정을 억누른 채 말을 이었다.

"정말 무모했지. 그토록 중요한 비밀을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뜻의 모호한 단어 하나에 맡기다니. 하지만 그들의 시적 감수성은 순수하고 사랑스러워. 지상의 재물에 하늘까지 함께 맡기겠다는 발상은 정말 멋졌어.

그들은 고대 칼데아의 조상들처럼 위대한 관찰자이자 천문학자였지. 영감을 하늘에서 구했고, 별들의 궤도가 그들의 삶을 규정했어. 그리고 보물을 지키는 자로 별자리를 선택했어.

노르망디 땅 위에 거대한 큰곰자리를 재현하기 위해 일곱 수도원의 위치를 미리 정해 둔 것은 아닐까? 누가 알겠어…"

라울의 열렬한 고백은 분명 정당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했다.

레오나르에게는 경계심을 품고 있었지만, 조제핀 발사모에 대해서는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다.

갑자기 조제핀이 곤봉으로 그의 머리를 내려쳤다.

그녀가 이런 비열한 공격을 할 줄은, 칼리오스트로 부인이 이런 수법을 자주 썼음에도 불구하고, 라울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어지러워진 그는 의자 위에 몸을 구부렸다. 이어 무릎을 꿇더니, 결국 바닥에 드러누웠다.

그는 말이 꼬여 중얼거렸다.

"맞아… 정말로… 나는 더 이상 '타부'가 아니었어…"

그는 또 말했다. 아버지 테오프라스트 뤼팽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아이들 같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역겨운 년이로구나!… 천재에게 존경조차 못 바치는 놈이 있나!… 야만인이여, 넌 정말 돌멩이로 된 가슴을 가졌단 말이야?… 너만 손해지, 조제핀. 우리는 그 보물을 함께 나눴을 텐데. 이제 나는 그걸 모두 내 것으로 가지겠지."

그리고 그는 의식을 잃었다.

제13장

순수한 저림 현상이었다. 중요한 부위를 맞은 복서처럼 느껴지는 그 감각과 비슷했다.

하지만 라울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보마냥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감금된 신세였고, 보마냥처럼 벽 아래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가 문 앞에 늘어져 있는 조제핀 발사모를 보고도 놀라움은 더 커지지 않았다. 그녀는 두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너무 강렬하고 오래 지속된 감정에 의해 찾아오는 신경 쇠약 증세로 고통받고 있었다. 그녀를 때린 그 충격이 바로 이 발작을 유발한 것이었다. 그녀의 동업자 레오나르가 그녀를 돌보며, 그녀에게 각성용 소금 냄새를 맡게 하고 있었다.

그는 동료 중 한 명을 불렀던 게 틀림없었다. 라울은 자신이 도미니크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소년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 소년은 브리지트 루셀린의 집 앞에서 마차를 지키고 있었다.

"젠장!" 새참석자가 두 포로를 보고 말했다. "일이 좀 복잡하군. 보마냥! 안드레지! 여주인이 봐주는 법이 없군. 결과적으로 실신, 그렇지?"

"그래. 하지만 거의 끝났어."

"우린 이제 뭐할 거야?"

"차를 태워서 데려가. 내가 논샬랑트까지 모시지."

"그리고 나요?"

"너는 이 두 놈을 지키렴." 레오나르드가 포로를 가리키며 말했다.

"헛! 골치 아픈 손님이군. 난 그런 거 싫어."

그들은 칼리오스트로를 일으켜 세우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는 눈을 뜨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 라울이 대화의 단편조차 들을 만큼 청각이 예리할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정도였다.

"아니요. 혼자 걸을 거예요. 레오나르, 당신은 여기서 머물러요. 라울을 감시하는 건 당신이 나을 것 같아서요."

"제발 저를 놔두게요! 그 아이를 처리해야 해요!" 레오나르가 칼리오스트로를 향해 반말을 하며 속삭였다. "저 녀석은 우리에게 재수가 없어요."

"내가 그를 사랑하거든."

"그가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사랑해요. 그는 다시 제 곁으로 올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저는 그를 놓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노앙상트' 호는 카우드베크에 있을 거예요. 새벽이 올 때까지 거기서 쉬고 싶어요. 그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보물은요? 저런 크기의 돌을 움직이려면 사람이 많아야 해요."

"오늘 밤 코르뷔 형제들에게 연락해서 내일 아침 주미에즈에서 만나게 할 거야. 그리고 라울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지. 아니, 아직은… 아, 더 이상 묻지 말아요. 지금은 더 이상 힘이 없어요."

"보마냥은?"

"보물을 손에 넣으면 그를 풀어줄 거야."

"클라리스가 우리를 고발하지 않을까 걱정되진 않아? 헌병대가 낡은 등대를 포위해 버리면 끝장이야."

"말도 안 돼! 그녀가 자신의 아버지와 라울을 체포하라고 헌병대를 부릴 거라고 생각해?"

그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곧 비명 섞인 신음을 내며 다시 주저앉았다. 몇 분의 정적이 흘렀다. 드디어 그녀는 간신히 일어서려 애썼다. 그 안간힘이 그녀를 완전히 지치게 하는 듯했다. 그녀는 도미니크의 지지를 받으며 라울 쪽으로 다가가려 했다.

"저 사람 정신이 나간 것 같아." 그녀가 속삭였다. "레오나르, 저 녀석과 다른 녀석도 잘 감시해. 그중 하나라도 도망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테니까."

그녀는 천천히 자리를 떴다. 레오나르가 낡은 마차까지 그녀를 배웅했고, 잠시 후 그는 울타리에 자물쇠를 채우고 식량 꾸러미 하나를 들고 돌아왔다. 그 뒤 말발굽 소리가 돌투성이 길을 따라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라울은 이미 자신의 묶임을 확인하고 있었다.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정말이지, 여주인이 좀 약해졌군. 1. 증인 앞에서 자신의 사소한 일이라도 작은 소리로 말하고, 2. 보마냥 같은 놈이나 나 같은 놈을 단 한 명의 남자에게 맡기다니… 이런 실수는 몸이 안 좋다는 증거지."

물론 레오나르의 이런 일에 대한 경험은 라울의 도주 시도를 어렵게 만들었다.

"줄은 놔." 레오나르가 들어오며 말했다. "안 그러면 때릴 거야."

무서운 간수인 그는 일을 쉽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 두 포로의 줄 끝을 묶어, 불안정하게 균형을 잡은 의자 등받이에 둘둘 감

았다. 그 위에 조제핀 발사모가 준 단도도 올려놓았다. 포로 중 한 명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의자가 넘어진다.

"너 겉보기보다 멍청하진 않구나." 라울이 말했다.

레오나르는 중얼거렸다.

"말 한 마디만 더 하면 때릴 거야."

그는 먹고 마셨다. 라울이 농담조로 말했다.

"맛있게 드세요. 남으면 저도 잊지 말고 주세요."

레오나르가 일어났다. 주먹을 불끈 쥐며.

"됐어, 오랜 친구. 약속할게." 라울이 말했다. "내 혀엔 소가 얹혀 있거든. 네 제육보다 영양가는 떨어지겠지만, 이 정도면 충분해."

시간이 흘렀다. 그림자가 드리웠다.

보마냥은 잠든 듯했다. 레오나드는 파이프를 피웠다. 라울은 혼자 중얼거리며, 조시네에게 너무 경솔했던 자신을 나무랐다.

"그녀를 경계해야 했어… 아직 갈 길이 멀군. 칼리오스트로는 내게 미치지 못하지만, 그 결단력은 놀라웠어. 현실을 얼마나 명확히 꿰뚫어보았는지, 양심이라는 게 얼마나 없었는지. 단 하나의 흠만 있을 뿐이야. 그 괴물이 완벽해지지 못하게 막는 요소 말이지. 바로 퇴폐적인

신경계야. 다행이야. 덕분에 그녀보다 먼저 미니쉬쉬주미예즈에 도착할 수 있을 테니까."

그는 레오나르드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발목의 묶임이 특정 동작을 취할 때마다 느슨해짐을 눈치챈 것이다. 그는 오른발을 자유롭게 풀고, 레오나르드의 턱을 발로 후려치는 상상을 하며 만족감을 느꼈다. 그러면 그는 보물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릴 터였다.

방 안은 점점 어두워졌다. 레오나르가 촛불을 켜고 마지막 파이프를 피우며 마지막 포도주 한 잔을 마셨다. 그러자 졸음이 쏟아져, 그는 몸을 여기저기로 비틀며 절을 하듯 흔들렸다.

그는 안전을 위해 손에 촛불을 쥐고 있었다. 녹은 밀랍이 손에 떨어지면 화상을 입어 잠에서 깨어났기 때문이다. 그는 잠시 잠깐 잠들었다가 깨어나, 포로들을 한 번 훑어보고 경보용 이중 밧줄을 또 한 번 확인한 뒤 다시 잠들었다.

라울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구조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결과도 나오고 있었다. 시각은 밤 아홉 시쯤으로 보였다.

"열한 시에 출발할 수만 있다면, 자정쯤에는 릴라보네에 도착해 저녁을 먹겠지. 새벽 세 시에는 성지에 도착하고, 여명 첫 빛이 비치는 순간, 수도승들의 금고 주머니에 쑤셔 넣으면 돼. 그래, 주머니에 말이야. 코르부 형제나 다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하지만 열한 시 반이 지나도록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매듭이 얼마나 느슨했든, 풀리지 않았다. 라울은 절망에 빠지기 시작할 무렵, 갑자

기 평소 밤의 고요함을 이루는 소음과는 다른, 아주 가벼운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나뭇잎이 날리는 소리, 나뭇가지 위에서 새들이 움직이는 소리, 바람의 기묘한 흔들림과는 사뭇 달랐다.

그 일이 두 번이나 더 반복되었다.

그는 확신했다. 그 물체가 자신들이 열어둔 옆창, 그리고 레오나르드가 대충 밀어놓은 창문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정말 그런 듯, 창문 판 중 하나가 앞으로 미끄러지는 기척이 보였다.

라울은 보마냥을 바라보았다. 그도 소리를 들었고, 함께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맞은편에서 레오나르는 화상을 입은 손가락을 흔들며 깨어났다. 그는 다시금 감시하던 동작을 되풀이하다가, 이내 다시 잠들었다.

저쪽에서 잠시 멈추었던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는 감시자의 한 순간의 움직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해 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게이트는 닫혀 있었다. 병조각이 우뚝 선 담장을 넘지 않고서는 들어올 수 없었다. 그건 오직 이 곳을 잘 아는 자만이, 병조각이 없는 틈을 찾아 넘을 수 있는 일이었다.

누구일까. 농부? 밀렵꾼? 그들에게는 도움이 될까. 보마냥의 친구? 아니면 어딘가를 배회하는 부랑자?

어둠 속에서 한 명의 머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창턱은 낮아 쉽게 넘을 수 있었다.

라울은 즉시 한 여성의 실루엣을 알아차렸다. 그는 아직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 여자가 클라리스라는 것을 단번에 알았다.

그녀를 어떤 감정이 뒤덮었을까. 조제핀 발사모는 클라리스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니, 그것은 큰 착각이었다.

그를 위협하는 위험을 두려워하면서도, 지친 몸과 공포를 이겨내고야 말았다. 소녀는 오래된 등대 근처에 숨어 밤이 되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이제 그녀는 자신을 잔인하게 배신한 남자를 구하기 위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녀는 세 발자국을 내디뎠다. 레오나르드가 다시 깨어났다. 다행히 그는 등을 돌리고 있었다. 소녀는 발걸음을 멈췄다가, 그가 다시 잠들자마자 걸음을 재개했다. 그렇게 해서야 그녀는 그의 곁에 다다를 수 있었다.

조제핀 발사모의 단도가 의자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 들었다. 이제 그녀가 그에게 칼을 꽂으려던 것인가?

라울은 깜짝 놀랐다. 더 잘 비춰진 소녀의 얼굴이 거친 의지로 뭉쳐 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자, 소녀는 그가 보내는 무언의 명령에 순종했다. 그녀는 끝내 찌르지 않았다.

라울이 몸을 조금 숙여 의자에 묶인 밧줄의 장력을 느슨하게 만들었다. 보마니앙도 그를 따라했다.

그리고 소녀는 천천히, 떨림 없이 밧줄을 한 손으로 들어 올렸다. 그리고 칼날의 날카로운 부분을 밧줄에 끼워 넣었다.

운이 좋게도 적군은 깨어나지 않았다. 클라리스는 그를 죽였을 것이다. 그녀는 눈을 떼지 않은 채, 죽음을 향한 집요한 위협을 유지하며 라울 쪽으로 몸을 낮췄다. 그리고 더듬거리며 그의 묶음을 찾았다. 손목의 묶음이 풀렸다.

라울이 내뱉었다.

"칼을 줘."

그녀는 따랐다. 하지만 라울의 손보다 더 빠른 손이 있었다.

베아마냥이였다. 그도 한쪽에서, 몇 시간 동안 인내심 있게 줄을 풀고 있었다. 그는 그제야 그 무기를 빼앗았다.

라울은 분노에 겨워 그의 팔을 움켜쥐었다. 베아마냥이 자신을 먼저 풀고 도망치면, 라울은 보물을 손에 넣을 마지막 희망도 잃게 된다. 격

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움직이지 않는 싸움이었다. 둘 다 온 힘을 다했지만, 조금만 소리가 나도 레오나르드가 깨어날까 봐 두려워했다.

클라리스는 공포에 떨며 무릎을 꿇었다. 둘을 간청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하지만 베아마냥의 상처는 비록 가벼웠지만, 그에게 더 이상 버티게 하지는 못했다. 그는 손을 놓았다.

그때 레오나르가 고개를 저으며 눈을 하나 떴다.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한창 격투를 벌이고 있는 두 남자,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클라리스 드티그였다.

몇 초가 지났다. 지옥 같은 순간이었다. 이 장면을 본 레오나르가 곧장 권총으로 두 적을 쓰러뜨릴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그 광경을 보지 못했다. 시선은 그들에게 고정되어 있었으나, 눈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의식이 깨어나기 전에 눈꺼풀이 다시 내려앉았다.

라울은 마지막 묶인 줄도 잘랐다. 그는 일어선 채 손에 단도를 쥐고 자유의 몸이 되었다. 클라리스가 일어나는 사이, 그는 속삭였다.

"가… 도망쳐…"

"싫어요." 그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녀는 보마냥을 가리켰다. 레오나르의 복수에 노출된 다른 포로를 뒤로 남겨두는 데 동의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라울은 재차 촉구했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라울은 칼을 상대에게 건넸다.

"당신이 옳아요. 승자는 관대해야죠. 자, 알아서 해봐요. 이제부터는 각자 제 게임을 하는 거야, 응?"

그는 클라리스를 따라갔다. 둘은 창문을 넘어 차례로 안뜰로 들어섰다. 안뜰에 들어서자 클라리스는 그의 손을 잡고 벽 쪽으로 이끌었다. 담장 꼭대기가 허물어진 곳, 바로 균열이 난 곳이었다.

그의 도움을 받아 클라리스가 벽을 넘었다.

하지만 라울이 벽을 넘자, 더 이상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클라리스! 너 어디 있니?"

별빛 하나 없는 어두운 밤이 숲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근처 덤불 사이로 가볍게 달리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그곳으로 뛰어들었지만, 나뭇가지와 가시덤불이 길을 막아섰다. 결국 다시 길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나를 피하고 있다. 생각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나를 구하기 위해선 모든 걸 감수할 것이다. 하지만 자유를 얻은 지금은 더 이상

나를 만나려 하지 않는다. 배신, 끔찍한 조제핀 발사모, 그리고 그 끔찍한 사건들.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혐오스러운 것일 뿐이다.

그가 제자리로 돌아가려던 순간, 그가 넘었던 벽 너머로 누군가 굴러 떨어졌다. 바로 보마냥이었다. 그 역시 도망치고 있었다. 그리고 곧 총성이 터져 나왔다. 같은 방향에서 날아온 총성이었다. 라울은 간신히 피할 수 있었다. 레오나르드는 벽의 틈새에 올라서서 어둠 속을 향해 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밤 열한 시쯤, 세 명의 적수는 동시에 '여왕의 돌'을 향해 돌진했다. 그 돌은 11리외(약 44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들이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썼을까? 모든 것이 그 점에 달려 있었다.

먼저 보마냥과 레오나르다. 둘 다 공범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강력한 조직의 수장이었다. 보마냥이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레오나르가 칼리오스트로 부인과 합류할 수만 있다면, 전리품은 더 빠른 쪽의 것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라울은 더 젊고 민첩했다. 만약 그가 릴리보뉴에서 자전거를 방치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다면, 승리의 확률은 그에게 기울었을 것이다.

클라리스를 찾는 일은 단념했다. 이제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보물 찾는 일뿐이었다.

그는 단 한 시간 만에 그와 릴봉 사이를 가르는 열 킬로미터를 달렸다. 자정이 되자 그는 호텔 사환을 깨워 급히 식사를 했다. 그리고 며칠 전 구해 둔 다이너마이트 탄약 두 개를 가방에서 꺼냈다. 그리고는 자전거에 올라탔다. 핸들바에는 보석들을 담을 천가방을 둘둘 말아 매달아 뒀다.

그의 계산은 이랬다.

"릴봉에서 주미에즈르메니유까지, 여덟 리 반. 해가 뜨기 전에 거기에 도착할 거야. 첫 번째 빛이 비치는 순간, 기준석을 찾아서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할 거야. 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이든 보마냥이든, 작업 도중에 나를 발견할지도 몰라. 그럴 경우, 둘은 나눠 가질 테고. 셋째는 운이 없었지."

카우데벡앙코를 지나자, 그는 도보로 강둑길을 따라 걸었다. 초원과 갈대밭 사이로 세느강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조제핀 발사모에게 고백을 했던 그 날 저녁과 마찬가지로, '나른한 여인'이 거기에 있었다. 짙은 그림자 속으로 무거운 실루엣이 서 있었다.

그는 젊은 여성이 머물던 선실의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어야 해. 말들이 그녀를 찾으러 올 거야. 레오나르가 출동을 재촉할지도 몰라. 하지만 이미 늦었어, 부인!

그는 다시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반시간 후, 그는 매우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었다. 그때 자전거 바퀴가 무언가에 걸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돌무더기 위로 힘껏 튕겨 나갔다.

즉시 두 남자가 나타나더니, 그가 몸을 숨긴 둑 뒤로 랜턴을 비췄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외쳤다.

"바로 그 놈이야! 그 외엔 있을 수 없어! 내가 말했잖아. '줄을 팽팽하게 놓으면 그가 지나갈 때 잡을 수 있다'고."

그것은 고드프로아 드티그였고, 곧 벤네토가 덧붙였다.

"잡을 수 있어… 만약 그 도적이 동의한다면 말이야."

라울은 쫓기는 짐승처럼 가시덤불 속으로 몸을 던졌다. 가시가 그의 옷을 찢었다. 그는 가까스로 도망쳐, 다른 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숨어들었다.

남자들은 욕설을 퍼부었지만 헛일이었다. 아무리 찾아도 그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쯤에서 그만하자."

차 안에서 허약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보마냥의 목소리였다.

"중요한 건 그 기계라도 무너뜨리는 거야. 고드프루아, 너는 그쪽에 집중해.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갈게. 말도 충분히 쉬었어."

"하지만 보마냥 씨, 당신은 괜찮으신가요?"

"괜찮든 말든, 도착해야 해… 하지만 맙소사, 이 저주받은 상처 때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 붕대도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어."

라울은 자신의 자전거 바퀴를 발뒤꿈치로 부수는 소리를 들었다.

베네토는 두 등불을 감싸고 있던 천을 걷어냈다. 그리고 채찍 한 방에 말을 부추겼다. 말은 큰 걸음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라울은 그 마차 뒤를 바짝 따라붙었다.

그는 분에 겨워 울컥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이제 문제는 단순히 수백만 프랑의 돈이나, 그의 일생에 위대한 의미를 부여할 한 가지 사안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자존심 때문에 고집을 부리고 있었다.

해독할 수 없는 수수께끼를 풀어낸 이상, 그는 반드시 먼저 목표지에 도착해야 했다. 그곳에 나타나지 못하고, 물건을 건지지 못하며 남에게 빼앗기게 된다면, 그것은 그의 생을 마칠 때까지 용납할 수 없는 굴욕이 될 테니까.

그는 피로를 잊은 채, 차 뒤 100미터를 달렸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용기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의 적들도 이 석주(표지석)의 위치를 찾아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그는 다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운명은 그를 편들었다. 쥐미에즈에 가까워지자, 그는 앞쪽에 흔들리는 등불을 보았고, 날카로운 종소리를 들었다. 다른 이들은 곧장 지나쳤지만, 그는 멈춰 섰다.

주미에즈의 신부가 마지막 성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아이 한 명을 데리고 말이다.

라울도 함께 길을 나섰다. 여관을 물색하느라 신부와 대화를 나눴다. 그는 고고학에 조예가 깊은 사람인 척하며, 누군가가 그에게 일러준 기이한 돌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왕의 고인돌'이라던가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신부님이라면 그 명물을 모를 리 없겠지요?"

"음, 그건 우리가 여기서는 '아녜스 소렐의 돌'이라고 부르는 것이겠군요."

"주미에즈 뒤 메니에서 말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한 리쯤 떨어진 곳이지요. 하지만 특별한 볼거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땅에 박힌 작은 바위 더미일 뿐이죠. 가장 높은 바위도 센 강보다 1~2미터 높을 뿐입니다."

"마을 공동 땅이 맞습니까?"

"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마을에서 제 신도 중 한 명인 시몽 티야르 씨에게 팔았죠. 그는 자신의 초원을 넓히려 했거든요."

라울은 기쁨에 몸이 떨렸다. 그는 선량한 신부를 슬쩍 따돌리고 자리를 떴다. 그는 매우 상세한 정보를 얻은 상태였다. 덕분에 그는 주미에즈의 큰 마을을 피할 수 있었고, 메니르로 이어지는 굽이굽이 얽힌 작은 길로 들어설 수 있었다. 이 덕분에 그의 적들은 이미 뒤로 처졌다.

"만약 안내자 없이 나섰다면, 길을 잃을 게 뻔하다. 그 엉킨 숲속을 밤에 차를 몰고 들어갈 수 없다. 게다가 어디로 가야 할까? 돌은 어디에 있을까? 보마냥은 이미 지친 상태고, 고드프로가 그 난제를 풀어줄 리 없다. 자, 내가 이겼군."

사실, 3시 조금 전에 그는 시몽 티야르의 소유지를 막는 장대 아래를 지나쳤다.

성냥불 몇 개의 빛이 그에게 풀밭을 비춰 주었고, 그는 서둘러 그곳을 가로질렀다. 강을 따라 새로 쌓은 듯한 제방이 보였다. 그는 제방의 오른쪽 끝까지 갔다가 왼쪽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성냥불을 다 쓰지 않으려다 보니,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지평선 너머로 희미한 띠가 하늘을 가로질러 보였다.

그는 기다렸다. 마음속은 달콤한 설렘으로 가득 찼고, 그는 미소를 지었다.

표지석은 바로 곁에 있었다. 몇 걸음만 떨어지면 닿을 거리였다.

수백 년 동안, 아마도 이 밤 시간대에, 수많은 수도사들이 이 거대한 땅의 이 한구석으로 몰래 찾아와 보물을 묻어두었을 것이다.

원장들과 재무관들은 하나둘씩, 수도원에서 저택으로 이어지는 지하 통로를 따라 그 자리에 도착했다.

아마도 다른 이들은 배를 타고 왔을 것이다. 파리를 지나 루앙을 흐르던, 노르망디의 옛 강을 따라. 그 강물은 일곱 성스러운 수도원 중 서너 곳을 그 물결로 적셔주었다.

드디어 라울 드 안드레시, 그가 그 거대한 비밀의 주인공이 된다.

그는 과거 프랑스 전역에 뿌려졌던 수천 수만의 수도사들을 이어받는다. 그들은 오랫동안 씨를 뿌리고 쉬지 않고 거두어 들였다. 이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그 나이에 이런 꿈을 실현하다니! 가장 강력한 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지배자들 사이에서 군림하게 되다니.

창백해진 하늘에서 큰곰자리가 자취를 감춘다. 알코르라는 빛나는 점이 눈에 보이기보다 느껴진다. 그별은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라울 드 안드레시가 정복자의 손으로 얹게 될 작은 화강암 블록과 대응되는 운명의 별이다.

물은 잔잔한 파도로 둑에 부딪힌다. 강물은 어둠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어두운 반점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는 제방을 다시 올랐다. 사물의 윤곽과 색이 서서히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경건한 순간이었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리고 갑자기, 서른 걸음 앞에서 그는 초원 평지를 살짝 부풀린 작은 언덕을 보았다. 그 언덕 위에는 회색 바위 몇 개가, 자라난 풀에 가려진 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여기야……' 그가 혼잣말을 했다. 영혼 깊은 곳까지 흔들리며. '여기야…… 나는 마침내 목적지에 다다랐어……'

그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다이너마이트 탄약 두 개를 더듬거렸다. 눈은 주미에즈의 신부가 일러준 가장 높은 돌을 필사적으로 찾아다녔다. 저 돌일까, 아니면 저 돌일까?

몇 초면 충분했다. 식물이 막고 있는 틈새로 탄약을 밀어 넣기에는.

3분 뒤, 그는 핸들에서 떼어낸 주머니에 다이아몬드와 루비를 쓸어 담을 것이다. 잔해 사이에 떨어진 조각들이 남아 있다면, 그건 적들에게나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 될 터였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다가갈수록 그 작은 언덕은 라울이 기대했던 모습과 사뭇 달랐다.

더 높은 바위도, 꼭대기도 없었다. 예전엔 '아름다움의 여인'이라 불렸던 그녀가 앉아 강가의 굽이에서 왕의 배가 도착하는 것을 엿보았을 법한 곳도 아니었다.

눈에 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평평하기만 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최근의 홍수나 폭풍우가 수세기 동안 풍파를 견뎌온 지형을 바꾼 걸까? 아니면……?

라울은 두 번의 도약으로, 자신과 언덕 사이를 가로막던 열 걸음을 단숨에 건너뛰었다.

그는 저주를 내뱉었다. 끔찍한 진실이 그의 눈앞에 드러난 것이다. 언덕 중앙 부분이 완전히 파헤쳐져 있었다.

전설의 기준석, 그 기준석이 분명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갈라지고, 부러지고, 조각나 있었다. 파편들은 타버린 돌멩이와 연기가 피어오르는 타버린 풀뿌리가 있는 깊은 구덩이 가장자리로 내던져져 있었다.

보석은 하나도 없었다. 금과 은의 조각조각도 없었다. 적이 지나갔다……

그 끔찍한 광경을 마주한 라울은 단 1분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어리둥절하게 주변을 둘러보며 몇 시간 전에 행해진 일의 흔적과 증거들을 기계적으로 수습했다. 여성

용 굽이 찍힌 자국들이 보였지만, 그는 그로부터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몇 미터 떨어져 나가 담배에 불을 붙이고 제방 뒤쪽에 앉았다.

그는 더 이상 생각하기 싫었다. 패배, 특히 그 패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너무도 고통스러워, 그 결과와 원인을 분석하려 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는 무관심과 냉정함을 기르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어제와 전날 밤의 일들은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원하든 원치 않든, 조제핀 발사모의 행보가 그의 정신 속에 선명하게 그려졌다.

그녀는 고통에 맞서 몸을 굳히고, 그 절박한 순간에 필요한 모든 기력을 되찾는 모습이었다. 운명의 시계가 울릴 때 쉼을 취하다니? 설마 그럴 리 없었다.

그 자신은 쉬기라도 했던가? 그리고 부상투성이였음에도, 보마냥인들 조금이라도 쉴 틈을 허락했던가? 아니, 조제핀 발사모가 그런 실수를 저지르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해가 지기 전에, 그녀는 동료들과 함께 그 초원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낮에는 물론, 등불의 빛 아래서도 그녀는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때 라울은 눈치챘다.

커튼으로 가린 선실 창 너머로 그녀의 존재를 알아챘다. 그녀는 최후의 원정에 나서는 중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원정에서 돌아오는 참이었다.

그녀는 늘 그랬다. 작은 우연이나 허황된 망설임, 불필요한 양심 같은 것들이 자신의 계획을 즉시 실행하는 데 방해가 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두었다.

이십 분 이상을 그렇게 있었다. 반대쪽 언덕에서 솟아오던 햇살을 받으며 피로를 풀고 있던 라울은, 자신이 꿈꾸던 지배의 환상이 무너져 내린 냉혹한 현실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너무 깊이 빠져들었는지, 길에서 마차가 멈추는 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세 남자가 내리는 것도, 장대를 들어 올리고 초원을 가로질러 걸어오는 것도 보지 못했다. 그가 깨달은 것은, 그중 한 명이 언덕 앞에 다다라 비명 지를 때였다.

그 사람은 보마냥이었다. 그의 두 친구, 에티그와 베네토가 그를 부축하고 있었다.

라울의 실망이 깊었다면, 그토록 오랫동안 신비한 보물 사건에 온 인생을 건 남자의 절망은 얼마나 컸을까. 얼굴이 창백해져 눈동자는 흐릿했고, 상처를 감싼 천에는 피가 번져 있었다. 그는 마치 가장 끔찍한 광경을 보는 사람처럼 멍하니, 황폐해진 땅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기적의 돌이 훼손되었던 것이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는 공포와 혐오로 가득 찬 심연, 그 앞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라울이 다가가 속삭였다.

"바로 그 여자야."

보마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그 여자라고 의심할 여지가 있었겠는가? 이 세상의 모든 재앙과 혼란, 참혹한 파괴와 지옥 같은 고통을 그 여자의 얼굴과 겹쳐 보지 않았던가?

그가 동료들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폐허 속을 헤매며 잊혀진 보물 조각을 찾아내야 했을까? 아니었다.

마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먼지와 재만 남았다. 그녀는 파멸과 죽음을 가져오는 큰 재앙이었다. 사탄 그 자체의 화신이었다. 그녀는 허무요, 죽음 그 자체였다.

그는 일어서서, 가장 자연스러운 태도조차도 극적이고 낭만적으로 연출하며,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십자 성호를 긋더니, 조제핀 발사모의 것이었던 단도를 가슴 깊숙이 내리꽂았다.

그 동작은 너무도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해, 아무도 막아낼 수 없었다. 친구들과 라울이 무슨 일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보마냥은 수도사

들의 금고로 쓰였던 상자가 부서진 파편들 사이로 구덩이 안으로 추락하듯 쓰러졌다. 친구들이 그에게로 달려갔다. 그는 아직 숨을 쉬고 있었으며,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신부님… 신부님…"

베네토는 재빨리 자리를 떴다. 농부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향해 무언가 묻고는 차에 뛰어올랐다.

고드프로아 에티그는 구덩이 옆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신의 가슴을 치고 있었다.

아마 보마냥이 그에게 조제핀 발사모가 아직 살아있으며, 자신의 모든 죄악을 알고 있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 사실과 보마냥의 자살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공포가 그의 얼굴을 파고들었다.

라울은 보마냥에게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저는 그녀를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녀의 부도 다시 찾아내겠습니다."

죽어가는 자의 마음속에는 증오와 사랑이 여전히 살아 있었다. 오직 그런 말들만이 그의 생명을 몇 분 더 연장할 수 있었다. 모든 꿈이 무너진 최후의 순간, 그는 복수와 보복과 관련된 모든 것에 절박하게 매달렸다.

그의 눈은 라울을 부르고 있었고, 라울은 더 깊이 고개를 숙인 채 그 더듬거리는 목소리를 들었다.

"클라리스… 에티크의 클라리스… 그녀와 결혼해야 해… 들어라… 클라리스는 남작의 딸이 아니다. 그가 직접 내게 고백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한 다른 남자의 딸이다."

라울이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저는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걸 맹세합니다."

"고드프루아." 보마냥이 불렀다.

남작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다. 라울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자, 남작은 보마냥 쪽으로 몸을 굽혔다. 보마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클라리스는 드랑드레시와 결혼할 거야. 내가 원한다."

"네… 네…" 남작은 저항할 힘도 없이 대답했다.

"맹세해라."

"맹세하겠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걸고?"

"영혼의 구원을 걸고."

"그에게 네 돈을 주어라. 그가 우리의 원수를 갚도록 말이다. 네가 훔친 재산을 전부 다. 맹세하느냐?"

"내 영혼의 구원을 걸고."

"그는 네 모든 죄를 알고 있다. 증거도 가지고 있다. 네가 따르지 않으면, 그가 너를 고발할 것이다."

"저는 따르겠습니다."

"네가 거짓말을 한다면 저주를 받으라."

보마냥의 목소리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새어 나왔다. 말은 점점 또렷해지지 않았다. 그 옆에 누워 있던 라울은 애써 그의 말을 알아들으려 했다.

"라울, 그 여자를 쫓아라. 보석을 빼앗아 와야 해. 그녀는 악마야. 들어라. 내가 알아냈어. 르아브르에서…… 그녀는 배를 하나 가지고 있어. '베르뤼이장'이라는 배를 말이야. 들어라."

더 이상 말을 할 힘이 없었다. 하지만 라울은 여전히 희미한 목소리를 들었다.

"당장 떠나라. 지금 당장. 그녀를 찾아라. 오늘부터."

눈이 감겼다. 거친 숨소리가 시작되었다.

고드프로아 드티그는 구덩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며 멈추지 않았다.

라울은 그 자리를 떠났다.

저녁이 되자 파리의 한 신문이 최종 보도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다.

'왕당파 활동가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변호사 보마냥이 오늘 아침 세느강변의 노르망디 마을 메니쉬주미예즈에서 자살했다. 그는 이미 스페인에서 사망했다는 오보가 나간 바 있다.

이 자살의 이유는 완전히 미스터리다. 동행했던 두 친구, 고드프로아 드티그와 오스카 드 베네토가 증언한다. 그날 밤 그들은 몇 날 며칠 동안 초대를 받아 탱카르빌 성에서 묵고 있었다. 그러다 보마니앙이 그들을 깨웠다. 그는 상처를 입었고 극도로 초조한 상태였다. 그는 친구들에게 즉시 마차를 대게 하고 주미에지로 향하게 했다. 그리고 거기서 메니쉬주미예즈로 이동했다. 왜 그랬을까? 왜 외딴 초원으로 향하는 모험을 감행했을까? 왜 자살을 선택했을까? 친구들로서도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는 의문들뿐이었다.

그 사흘 뒤, 르아브르의 신문들은 이 기사가 충실히 요약한 일련의 뉴스를 실었다.

"지난밤, 라보르네프 공작이 최근 구매한 유람용 요트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르아브르에 왔다가 끔찍한 비극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해안으로 돌아오던 중, 불과 반마일 떨어진 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참고로 이 폭발음은 해안가 여러 곳에서 들렸다고 합니다."

바로 라보르네프 공작이 요트를 사고 현장으로 돌렸다. 그는 결국 물 위에 떠 있는 몇몇 파편들을 찾아냈다. 그중 한 조각에는 선원이 붙어 있었는데, 그는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질문하여 그 배가 '베르뤼이장'호이며 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겨우 알아낼 틈밖에 없었다. 그는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며 외쳤다.

"그녀야… 그녀가 있어."

등불 빛 아래에서, 또 다른 파편에 매달린 여자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머리는 물 위에 떠 있었다.

남자는 그녀에게 다가가 들어 올리려 했지만, 여자는 절박하게 그를 붙잡았다. 그녀의 힘에 남자의 움직임이 마비되듯 멈춰버렸고, 둘은 함께 물속으로 사라졌다. 모든 수색은 헛수고로 끝났다.

르아브르에 돌아온 라보르네프 공작은 진술을 했다. 그의 선원 네 명도 그 진술을 뒷받침했다.

신문은 이렇게 덧붙였다.

최신 정황으로 볼 때, 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은 펠리그리니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모험가였다. 때때로 발사모라는 이름도 사용했다.

그녀는 최근 카우 지방의 여러 곳에서 활동하며 경찰의 추적을 받았다. 경찰은 두세 차례 그녀를 붙잡을 뻔했다.

하지만 그녀는 외국으로 건너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녀의 요트 '베르뤼이장'호의 침몰 사고로 그녀와 모든 동조자들이 함께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또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의 일부 사건이 메니쉬주미예즈의 신비한 비극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소문을 전한다. 땅에서 파낸 보물이 도난당했다는 설, 음모설, 수세기에 걸친 문서들이 존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전설의 영역으로 들어선 것이다. 여기서 더 이상 나아가지 말고, 이 사건을 법의 심판에 맡기자.

이 글이 실린 날 오후, 정확히 말해 메니쉬주미예즈 비극이 일어난 지 60시간 후, 라울은 고드프루아 남작을 찾아 하이에디티그의 저택으로 향했다. 그가 들어선 사무실은 네 달 전, 어느 밤 그가 처음 침입했던 바로 그 곳이었다. 그 사이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졌는가. 그때의 소년은 어느덧 몇 해를 더 먹어 성숙해 있었다.

테이블 앞에 앉은 두 사촌은 코냑을 잔뜩 따라 마시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라울은 서론 없이 말을 시작했다.

"에티그 양에게 청혼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차림새는 결혼 청혼하기에 적절하지 않았다. 모자 하나 없이, 등에는 낡은 선원용 조끼를 걸쳤고, 다리에는 너무 짧은 바지를 입어 맨발이 드러난 채 리본 없는 에스파드리유를 신고 있었다.

하지만 라울의 차림새나 그의 방문 목적은 고드프루아 드 에티그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함몰된 눈과 더욱 초췌해진 얼굴을 한 그는 신음하며 라울 쪽으로 신문 더미를 내밀었다.

"읽었나? 칼리오스트로 사건을?"

"네, 알고 있습니다." 라울이 말했다.

그는 이 남자를 증오했고, 참지 못하고 이렇게 내뱉었다.

"당신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죠. 조제핀 발사모의 확실한 죽음은 당신에게 큰 짐을 내려놓아 줄 테니까."

"하지만 다음 단계는요? 그 여파는?" 남작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떤 여파란 말이오?"

"법정 말입니다. 사법부가 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려고 할 테죠. 보마냥의 자살 사건 때 이미 칼리오스트로가 거론되었죠. 만약 사법부가 이 사건의 모든 실마리를 다시 연결한다면, 그들은 더 깊은 곳까지, 끝까지 파고들 거예요."

"맞아요." 라울이 농담조로 말했다. "루셀린 미망인까지, 그리고 자베르 씨 살해 사건까지요. 다시 말해 당신과 베네토 사촌까지요."

두 남자는 오한이 일 듯 몸을 떨었다. 라울이 그들을 달랬다.

"두 분, 안심하십시오. 사법부는 이 어두운 사건들을 밝히려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묻어버리려 할 테니까요. 보마냥은 스캔들이나 세간의 이목을 싫어하는 권력자들의 보호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이 사건은 조용히 묻힐 겁니다. 제가 더 우려하는 건 사법부가 아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남작이 물었다.

"조제핀 발사모의 복수입니다."

"그녀는 이미 죽었는데……"

"죽었어도 여전히 무서운 여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온 거죠."

"과수원 깊숙한 곳, 비어 있는 작은 경비용 별장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숨어 있을 겁니다. 결혼식이 있기 전까지요."

"클라리스에게 제 존재를 알리고, 누구도 만나지 말라고 일러주십시오. 저조차도요. 다만, 약혼 선물로 드릴 이 보석만큼은 받아주길 바랍니다. 제 대신 당신이 그녀에게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울은 경악한 남작에게 거대한 사파이어를 건넸다. 순도도 뛰어나고, 옛날 방식대로 정교하게 다듬은 보석이었다.

제14장

"닻을 내리고, 여기로 보트를 끌어들이세요." 조제핀 발사모가 속삭였다.

바다 위에는 무거운 안개가 자욱했다. 밤의 어둠과 겹쳐 에트레타의 불빛조차 분간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라보르네프 공작의 요트는 안개 낀 구름 속을 더듬듯 항해하고 있었다. 안티페르 등대의 빛조차 그 두꺼운 안개를 뚫지 못했다.

"어디가 해안인지 어떻게 알아요?" 레오나르가 반문했다.

"내가 그곳에 있기를 바랄 뿐이죠." 칼리오스트로가 대답했다.

그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 작전은 미친 짓이야. 정말 미쳤어!"

"우리가 성공한 지 벌써 보름이 지났잖아. 덕분에 우리는 가장 놀라운 승리를 거뒀지. 네 공이 크다고 인정해야 해."

"모든 보석은 런던의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어. 이제 더 이상 위험은 사라졌어."

"칼리오스트로, 펠레그리니, 발사모, 벨몽트 후작부인…… 모두 '반딧불이호' 난파 사건으로 수중으로 가라앉았어. 네가 그토록 훌륭하게 기획하고, 강렬한 의지로 이끌었던 그 사건 덕분에 말이야."

"해안에서는 스무 명의 목격자가 폭발 장면을 목격했지. 세상은 네가 죽었고, 백 번 죽었다고 믿고 있어. 나 역시, 그리고 네 모든 동조자들도 마찬가지야."

"만약 '승려들의 보물' 이야기가 다시 부각된다면, 그 보물은 '반딧불이호'와 함께 정의할 수 없고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으며, 보석들은 바다 전체에 흩어졌다는 사실이 입증될 거야."

"그런 난파와 죽음의 결과에 대해, 사법부는 오히려 기뻐하고 있어. 너무도 상층부에서 '보마냥-칼리오스트로 사건'을 덮으라고 압박하고 있으니, 사법부는 이 일을 너무도 깊게 파고들지 않을 거야."

"그래, 다 잘되고 있군. 넌 상황의 주인이자 모든 적을 물리친 승자야. 그런데 정작 가장 기본적인 경계가 필요한 때, 바로 프랑스를 떠나 유럽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쳐야 할 때, 넌 왜 다시 너를 불운으로 몰아넣었던 곳으로 돌아가고, 남은 유일한 적과 맞서려고 해. 게다가 상대가 누구야, 조지느! 그 사람 없었으면 네가 보물을 발견하는 건 꿈도 못

꾸었을 정도로 비범한 재능을 가진 존재잖아.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지."

그녀는 속삭였다.

"사랑은 미친 거예요."

"그럼 포기해."

"안 돼, 못 해. 난 그를 사랑해요."

그녀는 난간 위에 팔꿈치를 괴고,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 안은 채 절망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사랑해요… 이게 처음이에요. 다른 남자들 따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라울은… 아,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 덕분에 저는 인생에서 단 한 번의 기쁨을 알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고통도요. 그전에는 행복도, 슬픔도 몰랐어요. 그런데 행복은 끝났고, 이제 남은 건 저의 고통뿐이에요. 레오나르, 그 고통은 끔찍해요. 그가 결혼한다는 생각, 다른 여자가 그의 삶을 함께한다는 생각, 그리고 그들의 사랑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생각… 아니, 감당할 수 없어요. 차라리 모든 걸 걸더라도, 이런 일은 싫어요. 죽는 게 나아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불쌍한 조지느야…"

그들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녀는 여전히 몸을 굽히고 기운이 빠져 있었다.

그런데 배가 가까워지자, 그녀는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갑자기 명령조가 섞인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잃을 게 없어, 레오나르. 죽을 위험도, 실패할 위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결국 뭘 하려는 거야?"

"그를 납치하는 거지."

"오, 오! 네가 그런 걸 기대하고 있어?"

"모든 준비는 끝났어. 사소한 디테일까지도 모두 정리됐지."

"어떻게?"

"도미니크를 통해서야."

"도미니크?"

"그래. 라울이 에티그 성으로 오기 전, 첫날부터 도미니크는 이미 거기로 말지기 직원으로 들어갔어."

"하지만 라울은 도미니크를 알고 있어…"

"라울이 도미니크를 한두 번 본 적은 있겠지. 하지만 도미니크는 변장 솜씨가 일품이야. 성 안과 마구간 직원들 사이에서 그를 구별해 내는 건 불가능해. 그래서 도미니크는 매일 내게 상황을 보고했고, 내 지시대로 움직였어. 라울이 언제 일어나고 언제 잠드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또 무엇을 하는지 모두 알고 있어. 라울이 아직 클라리스를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은 알지만, 결혼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 중이란다."

"그는 의심하고 있는 걸까?"

"나에 대해선, 의심하지 않아. 도미니크가 라울과 고드프루아 드 에티그가 성에 찾아왔던 날 나눈 대화의 일부를 들었거든. 그들 사이에서는 내 죽음이 이미 정해진 사실이었지. 하지만 라울은 내가 죽은 뒤에도 나를 향해 가능한 모든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그는 지금 성을 두루 살피고, 농민들을 심문하며 날 기다리고 있는 거야."

"도미니크는 당신이 오더라도 말리지 않는다는 거요?"

"그렇지만 한 시간뿐이야. 밤을 타서 용감하고 신속하게 단행한 뒤, 곧바로 도망쳐야 해."

"그리고 그 계획이 바로 오늘 밤이라는 뜻이오?"

"오늘 밤 열시부터 열한 시 사이야. 라울은 구식 탑 근처에 있는 독립된 파빌리온 경비실에서 묵고 있어. 그 탑은 보마냥이 나를 데려다주던 곳이지."

"경비실은 성벽을 가로지르듯 서 있어. 바깥쪽으로는 1층 창문이 하나 있고, 문은 없어. 안으로 들어가려면 창문을 닫아놓았을 때 성문 너머 과수원 대문을 넘어 안쪽 정면으로 가야 해. 오늘 밤 두 개의 열쇠는 대문 근처 큰 돌 밑에 숨겨둘 거야. 라울이 잠든 틈을 타서, 이불과 매트리스가 넓으니 그를 싼 다음 여기까지 옮기면 돼. 지금 당장 떠나라."

"그게 다야?"

조제핀 발사모는 잠시 망설이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게 다야."

"도미니크는?"

"그도 우리와 함께 간다."

"그에게 따로 지시를 내진 않았어?"

"무슨 이유로?"

"클라리스에 대해 말하는 거야? 그 애를 네가 미워하잖아. 그럼 네가 도미니크에게 무슨 일을 시켰을까 봐 걱정되는군."

조지느는 다시 한 번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네가 알 바 아니야."

"그런데도…"

배가 배 옆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다. 조지느는 농담조로 말했다.

"들어봐, 레오나르. 내가 너를 라보르네프 공작으로 만들어주고, 멋지게 꾸민 요트까지 사줬잖아. 그러니 너는 좀 지나치게 간섭하는군. 우리 사이의 규칙을 지켜요. 내가 지시하면, 너는 따르기만 하면 돼. 기껏해야 너는 약간의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을 뿐이야. 난 이미 설명해줬어. 그걸로 충분한 셈 쳐."

"충분해요," 레오나르가 말했다. "네 계획이 정말 잘 짜여졌다는 건 인정하겠네."

"좋아. 내려가자."

조지느가 먼저 보트에 내려 자리를 잡았다.

레오나르와 동무 네 명이 그녀를 따랐다. 그중 두 명이 노를 저었고, 그녀는 배 뒷부분에 앉아 가능한 한 낮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상문(上門) 곁을 지나고 있군."

십오 분쯤 지난 뒤, 그녀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동무들은 자신이 마치 맹인처럼 더디 나아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수면 바로 위를 스치는 암초를 제때 알려 주었고, 다른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기준점을 삼아 배의 방향을 바로잡았다.

배가 육지에 닿을 때쯤, 배 밑에 깔린 자갈이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그 사실을 알렸다.

그들은 그녀를 안아 올랐다. 그리고 함께 그녀를 해안까지 운반한 뒤, 배를 육지로 끌어올렸다.

"세관 직원들을 만나지 않을 거라고, 정말 확신하나?"

레오나르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물었다.

"물론이지. 도미니크가 보낸 마지막 전보가 그걸 분명히 말하고 있어."

"저쪽에서 우리를 맞아주지는 않는 거야?"

"아니야. 내가 바론 경의 측근들 사이에 머물러 있으라고 편지를 보냈지. 열한 시에 합류할 거야."

"라울의 별장 근처에서."

"이제 그만 말하자."

그들은 모두 신부님의 계단을 통해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조용히 올라갔다.

비록 여섯 명이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발소리는 그 누구의 귀에도 들리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숨겨졌다.

계단 꼭대기에서는 안개가 더 얇게 떠다녔다. 안개 사이사이가 갈라지고 찢어지면서 몇몇 별들의 반짝임을 비춰주었다. 덕분에 칼리오스트로는 에티크 성의 정면을 밝히는 창문들을 가리킬 수 있었다.

베누빌 교회의 종소리가 열 시를 알렸다.

조제핀은 오싹한 전율을 느꼈다.

"저 종소리! … 알겠어. 이번에도 열 번. 지난번처럼 열 번이었지. 하나하나 세며 나는 죽음으로 향했어."

"넌 톡톡히 복수했군." 레오나르가 말했다.

"보아마냥한테는 그랬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두 사촌은 이미 반쯤 미쳤어."

"맞아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한 시간 뒤가 돼야 비로소 내가 완전히 복수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때가 되면 비로소 안식을 찾을 수 있겠지."

그들은 다시 안개가 끼기를 기다렸다. 안개가 없으면 그들이 지나가야 할 벌판 위에 그들의 실루엣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었다. 그 후 조제핀 발사모는 고드프루아와 그의 친구들이 그녀를 데려왔던 길로 들어섰다. 나머지 사람들은 한 줄로 줄을 지어 그녀를 뒤따랐다. 단 한 마디의 말도 오가지 않았다.

수확은 이미 끝난 뒤였다. 곳곳에 둥글게 쌓인 곡식 더미들이 보들보들하게 드러나 있었다.

영지 근처에서 길은 깊게 패여 있었다. 가시덤불이 양옆을 에워싼 사이로 그들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높은 성벽의 실루엣이 우뚝 솟아 올랐다. 몇 걸음 더 나아가자, 벽에 박혀 있던 초소 건물이 오른쪽에 모습을 드러냈다.

칼리오스트로 부인이 손짓하며 그들의 발길을 막았다.

"여기서 좀 기다리세요."

"제가 따라가도 되나요?" 레오나르가 물었다.

"아니요. 제가 다시 와서 모시겠소.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들어갈 문은 왼쪽 맞은편에 있는 과수원 문이오."

그녀는 홀로 앞으로 나섰다. 발끝 하나하나를 아주 천천히 내려놓아, 발밑의 돌이 굴러가지도, 치마 자락이 풀잎에 닿아 찢어지지 않도록 했다. 초소 건물이 점점 커졌다. 그녀는 마침내 그곳에 다다랐다.

그녀는 손으로 닫힌 창문을 만졌다. 도미니크가 손댔는지 잠금 장치가 헐거웠다. 조제핀 발사모는 창문을 벌려 틈을 만들었다. 희미한 빛이 새어 나왔다.

그녀는 이마를 창문에 댔다. 방 안이 보였다. 침대가 가득 들어찬 알코브였다.

라울이 누워 있었다. 수정 등잔에 종이 갓이 씌워져 있었다. 빛이 그의 얼굴과 어깨, 읽고 있던 책, 그리고 의자에 접어 둔 옷을 비췄다. 그는 아주 어렸다. 숙제를 하느라 집중하면서도 잠과 싸우는 아이 같은 표정이었다. 몇 번이나 고개가 꾸벅였다. 그는 깨어나 읽으려 애썼지만, 또다시 잠들었다.

마침내 그는 책을 닫고 등불을 껐다.

조제핀 발사모는 보고 싶은 것을 다 본 뒤 자신의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동료들 곁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이미 그들에게 지시를 내린 상태였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 십 분간 그녀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무조건적인 폭력은 절대 금물이다. 레오나르, 내 말 잘 듣게. 상대는 손에 쥘 만한 무기가 없다. 너희가 총을 꺼낼 필요는 없을 거야. 다섯 명이면 충분해."

"만약 저항하면요?" 레오나르가 물었다.

"그건 너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렸다. 그가 저항할 틈을 주지 마."

도미니크가 보내준 스케치 그림을 통해 그녀는 그곳의 구조를 이미 완벽히 숙지하고 있었다. 망설임 없이 그녀는 과수원의 정문으로 향했다. 열쇠는 약속한 장소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녀는 열쇠로 문을 열고, 파빌리온의 안쪽 면을 향해 걸어나갔다.

문이 쉽게 열렸다. 조제핀 발사모가 먼저 들어가고, 동조자들이 그 뒤를 따랐다.

타일 바닥 복도가 그들을 침실 문 앞까지 이끌었다. 그녀는 한없이 천천히 침실 문을 밀어 열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라울의 주의를 깨우지 못했다면, 아직 잠들어 있었다면 조제핀 발사모의 계획은 성공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귀를 기울였다.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그제야 그녀는 몸을 빼고 다섯 명의 남자들에게 길을 내주었다. 그리고는 일제히 덤벼들었다. 손전등 빛줄기가 침대를 향해 쏘아졌다.

공격이 너무 빨라서, 잠자던 자는 모든 저항이 무의미해진 후에야 깨어날 수밖에 없었다.

남자들은 그를 이불에 감싸고, 매트리스의 양쪽 끝을 덮어 마치 길게 말아 올린 세탁물 더미처럼 만들었다. 그리고는 손발이 빠른 듯 순식간에 끈으로 단단히 동여맸다. 이 일련의 작업은 결코 일 분도 걸리지 않았다. 비명 한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방 안의 가구는 조금도 어지럽혀지지 않았다.

다시 한 번 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이 승리를 거뒀다.

"좋아." 그녀가 말했다. 승리에 대한 자신의 깊은 집착이 드러날 만큼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다. "좋아… 우리가 잡았군. 이번엔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두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레오나르가 물었다.

"배로 옮기게."

"만약 비명을 지르면 어떡하지?"

"입을 막아두지. 하지만 그는 소리를 지르지 않을 거야… 어서 가."

레오나르는 다가왔다. 한편 그의 동조자들은 포로를 싣고 있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미 말했지. 도미니크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녀는 램프 불을 다시 켜고 갓을 벗겨냈다.

"당신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레오나르가 낮게 말했다.

"그럴지도요."

"아이 때문이죠?"

"도미니크가 지금 움직이고 있나요?"

"모르겠어요. 아직 막을 수도 있겠네요."

"아직 늦지 않았더라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될 일은 다 되는 법이죠. 게다가 이미 끝났어요. 당신들은 가세요."

"왜 당신보다 먼저 떠나는 거죠?"

"위험은 라울 하나뿐이에요. 라울이 배에 무사히 닿으면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어요. 얼른 가세요. 저를 혼자 두세요."

그녀는 창문을 열어주었다. 그들은 창문을 넘어갔고, 그 창문으로 죄수를 건넸다.

그녀는 커튼을 당기고 나서 창문을 닫았다.

잠시 후,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열한 번의 종소리를 세었다. 열한 번째 소리가 떨어지는 순간, 그녀는 과수원 쪽으로 향한 다른 쪽 현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다.

가벼운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현관 바닥 타일을 발로 툭 치며 화답했다.

도미니크가 달려왔다.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무서운 질문을 하기 전부터, 도미니크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끝났소."

"아!"

그녀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도 충격을 받아 몸을 비틀더니 주저앉았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 두 사람은 침묵했다.

도미니크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는 고통받지 않았소."

"고통받지 않았소?"

그녀가 되물었다.

"아니, 자고 있었소."

"그리고 당신은 정말로 확신하오?"…

"그녀가 죽었다는 거야? 물론이지. 나는 세 번이나 그녀의 심장을 찔렀어. 그리고 나는… 그녀가 숨을 거두는 모습을 지켜볼 용기를 냈지.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어. 그녀는 이미 숨을 멈췄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

"만약 들키면 어떡해?"

"그럴 리 없어. 그녀 방에는 아침이 돼서야 들어오거든.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겠지."

그들은 서로를 바라볼 용기가 없었다. 도미니크가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옷에서 지폐 열 장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고마워." 그가 말했다. "하지만 만약 다시 해야 한다면 나는 거절했을 거야.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야?"

"도망가는 거야. 뛰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보트에 닿기 전에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그들은 라울 드 안드레지와 함께 있어?"

"좋아. 그 녀석은 지난 보름 동안 나한테 골치 아픈 문제를 안겨줬으니까. 그는 나를 의심했지. 아… 한 마디 더. 보석들은?"

"이미 건졌소."

"위험은 사라진 셈인가?"

"런던의 한 은행 금고에 넣어뒀소."

"얼마나 많지?"

"여행용 가방 하나 가득."

"이런! 내 몫이 십만 프랑이 넘는다는 말이오?"

"그보다 더 많아. 하지만 서둘러야 하오… 아니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릴 셈인가?"

"아니오, 아니요." 그가 재촉하듯 말했다. "나는 가능한 한 멀리, 가장 멀리 떠나고 싶소. 그런데 당신은요?"

"우리에게 해가 될 만한 서류가 여기 없나 확인한 뒤 따라가겠소."

그가 떠나자, 그녀는 곧장 책상 서랍과 작은 서랍장을 뒤졌다.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침대 머리맡에 접어둔 옷 주머니까지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중 지갑이 특히 그녀의 시선을 끌었다. 안에는 돈과 명함,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클라리스 디티그의 사진이었다.

조제핀 발사모는 오랫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증오가 없었지만, 차갑고 용서하지 않는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잠시 움직이지 않았다. 알 수 없는 고통스러운 광경을 응시하듯 시선을 고정하고, 입가에는 여전히 다정한 미소가 머무는 골똘히 잠긴 자세였다.

그녀 바로 앞에는 거울이 있었다. 벽난로 대리석 위에 두 팔꿈치를 괴고,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미소가 한층 더 깊어졌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각하고 기뻐하는 듯했다. 그녀는 갈색의 거친 천으로 된 후드를 어깨에 걸쳤고, 얼굴 앞으로 머리카락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던 얇은 베일을 내렸다. 그 베일은 베르나르디노 루이니의 성모 마리아처럼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몇 분 동안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몽상에 빠졌다.

열한 시 십오 분의 종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잠든 것처럼 보였지만, 눈은 크게 뜨고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눈은 점점 흐릿한 기색을 거두기 시작했다. 마치 꿈속에서 혼란스럽고 일관성 없는 생각들이 하나둘 정리되어, 점점 또렷한 하나의 이미지로 수렴되어 가는 것과 같았다.

그녀가 간신히 알아차린,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그 이미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침대가 들어앉은 작은 벽감, 즉 알코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천으로 만든 커튼이 사방을 두르고 있었지만, 그 뒤쪽에는 분명 공간이 있었다. 통로라도 되는 공간이 말이다. 커튼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듯했기 때문이다.

그 손은 점점 실체감을 더해 갔다. 이어 팔이 드러났고, 곧 그 팔 위로는 머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조제핀 발사모는 유령술 회합에 익숙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유령을 그려냈던 그곳에서,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머릿속으로 불러낸 존재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 존재는 흰옷을 입고 있었다. 입꼬리가 올라간 것은 애정 어린 미소인지, 분노에 찬 비웃음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더듬거렸다.

"라울… 라울…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유령은 커튼 중 하나를 걷어내고 침대 옆을 지나갔다.

조제핀은 신음하며 눈꺼풀을 내렸다가, 곧 다시 들었다. 환각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 존재는 주변 물건을 어지럽히며 다가왔고, 정적을 깨뜨리는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어깨에 한 손이 꽉 쥐었다. 분명히 유령의 손이 아니었다. 그리고 신이 난 목소리가 외쳤다.

"조제핀, 내 말 듣자고. 라보르네프 공작에게 작은 휴양 크루즈를 다녀오라고 부탁해. 너에게 꼭 필요한 일이야."

"이런! 너는 나를, 이 라울 드 안드레시를 유령으로 여기는구나! 잠옷에 팬티 차림이긴 해도, 난 너한테 낯선 사람이 아니잖아."

그가 옷을 입으며 넥타이를 매고 있을 때, 그녀는 여전히 중얼거렸다.

"당신? 당신이라고?"

"그럼, 바로 나야."

그는 그녀 옆에 쑥 앉더니 재빨리 입을 열었다.

"무엇보다도, 친애하는 친구여. 라보르네프 공을 꾸짖지 마시오. 그가 이번에도 나를 놓쳤다고 생각하지도 마시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가 친구들과 함께 가져간 것은 그저 이불에 싼 솜매트와 인형에 불과합니다."

"나도 당신이 창문 밖으로 물러난 순간부터 이 골목에서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소."

조제핀 발사모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했다. 마치 몽땅 구타라도 당한 듯, 온몸이 굳어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젠장!" 그가 말했다. "너 컨디션이 안 좋구나. 기운을 차릴 겸 리큐어 한 잔 어때? 솔직히 말해서, 조제핀, 네가 이렇게 무너진 심정이 이해가 간다. 네 처지가 되고 싶지는 않아. 친구들은 모두 떠나버렸고, 한 시간 동안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게다가 닫힌 방 안에는 라울이라는 남자가 있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 세상일이 다 암울해 보이게 마련이야. 불쌍한 조제핀… 참으로 큰 실수였군."

그는 몸을 굽혀 클라리스의 사진을 주워 들었다.

"내 약혼녀가 얼마나 예쁘지? 그렇지?" 그가 말했다. "방금 네가 그 사진을 찬찬히 바라보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았어. 며칠 안에 결혼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

칼리오스트로 부인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죽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가 말했다. "방금 전 그 젊은이가 그녀를 침상에서 찔렀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칼로 찌른 거요?"

"세 번이나 찔렀습니다. 심장 한복판에." 그녀가 말했다.

"오, 한 대면 충분했죠." 라울이 지적했다.

그녀는 중얼거리듯 천천히 되뇔 뿐이었다.

"그녀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가 비웃듯 웃었다.

"뭐 어때요? 그런 일은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걸로 제 계획을 바꾸지는 않죠. 그녀가 죽든 사든, 저는 그녀와 결혼할 겁니다. 어떻게든 잘 되게끔 해두죠…… 당신도 잘 해냈잖아요."

"무슨 뜻이오?" 조제핀 발사모가 물었다. 그는 농담조로 말했지만, 그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맞잖아. 남작이 먼저 너를 물에 빠뜨렸지. 두 번째로는 네 배, '반딧불이' 호를 타고 바다로 뛰어들었고. 그런데도 여기 있는 거야. 클라리스가 가슴에 세 대의 칼을 맞았다고 해서 내가 그녀를 결혼하지 않을 이유는 없지. 먼저, 네 주장이 정말 맞는지 확신하나?"

"그 칼을 찌른 건 제 부하 중 한 명이에요."

"아니면 적어도 찔렀다고 네게 말한 부하일 뿐일 수도 있고."

그녀가 그를 바라보았다.

"왜 거짓말을 했겠어요?"

"글쎄, 네가 건넨 천 프랑권 열 장을 타내기 위해서겠지."

"도미니크는 저를 배신하지 못해요. 십만 프랑을 줘도 저를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그는 제가 곧 그를 찾을 줄 잘 알고 있어요. 다른 동료들과 함께 저를 기다리고 있죠."

"진짜로 도미니크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하나, 조제핀?"

그녀는 몸을 떨었다. 점점 좁아지는 고리 안에 갇혀 허우적거리는 기분이었다.

라울이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참 신기하군. 너도 너무 순진했어. 내가 '반딧불이호' 폭발이나 '펠레그리니-칼리오스트로' 침몰, 그리고 라보르네프 공작이 늘어놓은 헛소리에 속았을 거라고 생각했니? 네가 가르친 남자라는 걸 생각하면, 바보가 아닌 남자는 네 수작을 열린 성경처럼 쉽게 읽어냈을 텐데. 어찌 그걸 눈치채지 못했니?

"참으로 편한 수단이로다. 난파라니!"

"죄를 뒤집어쓰고, 두 손은 피로 붉게 물들어 있다. 경찰이 뒤를 쫓아온다. 그런데 낡은 배를 가라앉히기만 하면 끝이다. 과거의 모든 죄악, 훔친 보물, 그 부귀영화까지 모두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다. 죽은 자로 처리된다. 새 이름을 달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시작한다. 다른 곳에서, 다른 이름으로. 다시 죽이고, 고문하고, 피에 손을 적신다."

"그런 수법은 내게 통하지 않아, 노파야. 내가 네 난파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생각했다. '눈을 크게 뜨고, 제대로 봐야지.'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라울이 다시 입을 열었다.

"자, 조제핀. 네가 방문하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 그리고 당연히 동료를 시켜 준비를 했겠지. 라보르네프 공작의 요트가 어느 날 밤 이 근처를 지나갈 수밖에 없었고, 예전에 들것에 실려 내려졌던 그 줄사다리를 네가 다시 기어올라야 했던 것도 당연한 이치였지."

"그럼 대체 뭐라는 거야? 내가 대비책을 세웠다는 거지? 내 첫 번째 생각은 내 주변을 둘러보며 아는 얼굴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어. 동료를 만드는 건 아이들도 아는 간단한 일이니까."

"그리고 첫눈에 도미니크 씨를 알아봤지. 네가 모르는 사이, 브리짓 루셀린의 집 마당에서 네 마차 좌석에 앉아 있는 그를 보았거든. 도미니크는 충실한 하인이야. 하지만 경찰이 무서운 나머지, 그리고 내가

내려준 몽둥이질을 당한 뒤로는 그의 충성심이 완전히 내 편으로 돌아섰지. 이제 그는 내 명령에 따르고 있어. 그걸 증명하듯 너에게 거짓 보고를 하고, 가짜 열쇠를 건네며, 내가 함께 준비해 둔 함정에 네가 걸리도록 도와줬어. 그에게 돌아간 보상은 네 주머니에서 꺼낸 지폐 열 장. 네가 다시는 볼 수 없는 돈이지. 충실한 하인은 내 보호 아래 성으로 돌아갔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알겠지, 내 사랑 조제핀. 물론 네게 이런 작은 연극을 보여줄 필요는 없었어. 그냥 여기서 네 손을 잡고 반가워하면 됐지. 하지만 네가 이 작전을 어떻게 이끄는지 보고 싶었어. 그리고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면서, 클라리스 드에티그의 '살인' 사건을 네가 어떻게 알아차리는지도 확인하고 싶었거든."

조제핀은 뒤로 물러섰다. 라울은 더 이상 농담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몸을 숙인 채, 억누른 목소리로 말했다.

"조금의 동요… 그것도 거의 없었지. 네가 느낀 건 그게 전부야. 그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했지. 네 명령으로 죽었다고. 그런데도 네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았어. 남의 죽음은 네게 아무 의미도 없지. 스무 살이면 앞날이 멀고, 젊음과 아름다움이 가득한 법인데. 네는 그런 것들을 그냥 없애버렸어. 개암을 으깨듯 말이야. 양심의 가책 따위는 없었지. 물론 네가 웃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울지도 않았어. 사실은 네가 그 일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거야.

나는 보마냥이 너를 '지옥의 여인'이라고 부르던 생각이 나. 그 말이 나를 격분시켰지. 하지만 그 표현은 정확해. 너 안에 지옥이 있어. 넌

어떤 종류의 괴물이야. 나는 더 이상 너를 생각하며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 하지만 너 자신도, 조제핀 발사모여, 가끔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니?"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주먹을 관자놀이에 바싹 붙이고 있었다. 평소 자주 하던 자세였다.

라울의 냉혹한 말들은 그가 기대했던, 분노와 분개의 반동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라울은 그녀가 인생의 어느 순간에 서 있음을 느꼈다. 바로 그 순간에는 자신의 영혼 깊숙이까지 들여다보게 되고, 두려운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으며, 자기도 모르게 고백의 말들이 튀어나오는 때였다.

그는 크게 놀라지 않았다. 이런 순간이 자주 찾아오지는 않았겠지만, 이 불균형한 여자 앞에서는 그리 드문 일도 아니었다. 겉으로는 무감정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이런 신경질적인 위기가 깊게 파고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일들이 벌어졌다. 라울이 나타났을 때의 충격은 너무도 컸다. 그녀를 가혹하게 모욕하는 적 앞에 그녀가 제대로 버티어 설 수가 없었다.

그는 그 틈을 타 그녀에게 바싹 다가가, 은근한 목소리로 물었다.

"제시느, 너도 때때로 무서워하지? 스스로가 싫어질 때도 있잖아?"

제시느의 절망은 너무도 깊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래… 가끔… 하지만 내게 그런 말을 하지 마… 나는 알고 싶지 않아… 조용히 해… 조용히!"

"아니, 오히려 네가 알아야 해." 라울이 말했다. "너는 그런 짓을 혐오하면서도, 어째서 저지르는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녀가 깊은 피곤함에 싸여 말했다.

"그래서 너는 저항하는 거야?"

"응, 저항해. 싸워. 하지만 항상 패배할 뿐이야. 나쁜 짓을 배우고 자랐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선을 행하듯, 나도 악을 행해.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그렇게 만들었어."

그때 그는 '내 어머니'라는 두 단어를 희미하게 들었다. 그리고 곧바로 물었다.

"네 어머니? 그 스파이? 이 칼리오스트로 사건 전체를 꾸민 그 여자를?"

"그래. 하지만 그녀를 탓하지는 마. 그녀도 나를 사랑했어. 다만 실패했을 뿐이야. 가난하고 비참한 신세가 되자, 내가 성공해서 부자가 되길 바랐지."

"하지만 너는 정말 아름다웠어. 여자한테 미모는 그 무엇보다 큰 재산이지. 미모만 있으면 충분해."

"내 어머니도 아름다웠어요, 라울.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어머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너는 어머니를 닮았니?"

"그야말로 똑 닮았죠. 그리고 그게 바로 저의 파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자신의 큰 꿈, 즉 '칼리오스트로의 유산'을 이어받길 원하셨어요."

"어머니가 관련 문서를 갖고 있었나요?"

"종이 한 장이었어요. 그 친구가 낡은 책 속에서 찾아낸 네 개의 수수께끼가 적힌 종이가 바로 그것이었죠. 그리고 그 글씨는 정말로 칼리오스트로의 필체처럼 보였어요. 그것은 외제니 황후 곁에서 거둔 성공과 마찬가지로 어머니를 도취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야 했어요. 어릴 적부터 그 생각은 저에게 주입되었어요. 제 머리는 오직 그 생각만으로 단련되었죠. 그것은 제 생계 수단이자 운명이었어요. 저는 칼리오스트로의 딸이었어요. 저는 그녀의 삶, 그리고 그의 삶을 되찾고 있었죠. 소설 속 그가 누렸던 것처럼 빛나는 삶, 모두에게 사랑받는 모험가의 삶, 그리고 세상을 호령하는 삶이었어요. 양심 같은 건 필요 없었어요. 죄책감도요. 저는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에 대한 복수를 해야 했죠. 그녀가 죽을 때,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내 복수를 해 줘.'"

라울은 생각에 잠겼다.

"좋아요. 하지만 살인 사건은요?… 왜 저렇게 죽이는 걸 좋아하는 걸까요?"

그는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물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제시느, 네 어머니 혼자서 너를 키우진 않았어. 너를 악으로 이끄는 법을 가르친 사람도 있었지. 네 아버지는 누구였어?"

그는 '레오나르'라는 이름을 들은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가 레오나르가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한 건지, 아니면 프랑스에서 간첩과 함께 추방당한 그 남자가 바로 레오나르라고 말한 건지 알 수 없었다. (그건 꽤 그럴듯해 보였다.) 아니면 레오나르가 그녀를 범죄자로 길렀다는 뜻이었을까?

라울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악한 본능이 자라고, 불균형과 파괴, 모든 악덕과 허영, 피를 갈망하는 욕망, 그리고 우리의 통제 밖에서 거세게 끓어오르는 잔인한 열정들이 숨어 있는 그 어두운 영역으로 그는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추궁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간절히 자신의 손을 꼭 쥐고 있는 것을 느꼈고, 그녀가 그 손에 뽀뽀를 하는 것도 느꼈다. 그는 그 손들을 내버려두는 연약함을 보였다. 그에게 은밀한 동정이 스며들었다. 나쁜 여자는 이제 한 인간이 되었다. 병든 본능에 내맡겨져, 저

항할 수 없는 힘의 법칙을 겪어내고 있는 한 여자. 어쩌면 그녀는 조금은 관대하게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일지도 모른다.

"저를 밀어내지 마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저를 악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그걸 느꼈어요. 당신 안에는 뭔가 건강하고 온전한 무언가가 있죠. 아, 사랑이라니… 사랑이요. 오직 사랑만이 저를 평온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밖에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만약 당신이 저를 거부한다면…"

부드러운 입술이 라울의 온몸에 끝없는 나른함을 퍼뜨렸다. 모든 쾌감과 욕망이 섞인, 그 위험한 연민은 남자의 의지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만약 칼리오스트로가 그 겸손한 애정 표현으로 만족했다면, 라울은 아마도 스스로 유혹에 굴복했을지도 모른다. 그에게 내밀어진 그 입술 쪽으로 몸을 숙여 그 맛을 다시 한 번 음미하고 싶은 유혹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어깨를 따라 팔을 내리고,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하나로 라울의 인식이 바뀌었다. 그는 이제 그녀를 애원하는 여인이 아닌, 유혹하려는 여인으로 보게 되었다. 그녀의 눈빛에 담긴 다정함과 입술의 우아함은 모두 계산된 무기가 되었다.

시선은 연인을 묶는 사슬이 되곤 한다. 하지만 라울은 그 매력적이고 순진하며 고통스러워 보이는 표정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거울처럼 순수해 보이는 그 얼굴은, 그가 뚜렷이 목격했던 모든 추악함과 비열함을 변명해 줄 수 없었다.

그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유혹의 올가미에서 벗어나려 애썼다. 그를 감싸 안으려는 요부(妖婦)의 손을 뿌리치며 그는 말했다.

"기억나? 한때 거룻배 위에서 서로를 목 졸라 죽이려는 듯 두려워했던 적 있지. 지금도 똑같아. 네 품으로 다시 떨어지면 나는 끝장이다. 내일, 혹은 그다음 날, 그것은 곧 죽음과 다름없어."

그녀는 곧장 몸을 일으켰다. 적대적이고 사나운 표정이었다. 자존심이 다시 그녀를 지배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거친 폭풍이 일었다. 사랑의 기억에 젖어 느려졌던 그들의 감정은 순식간에 날카로운 증오와 도발로 변했다.

"하지만 맞아요, 라울이 다시 말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첫날부터 치열한 적이었죠. 서로의 패배만을 생각했으니까요. 특히 당신 쪽에서요. 저는 당신의 경쟁자이자 침입자였으니까요. 당신의 머릿속에서 제 모습은 죽음의 이미지와 섞여 있었어요. 의도했든 아니든, 당신은 저를 이미 사형 선고한 셈이었죠."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공격적인 어조로 말했다.

"지금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야 알겠지, 그렇지?"

그가 외쳤다. “하지만 지금, 새로운 사실이 하나 드러났어. 바로 내가 너를 조롱하고 있다는 거야, 조제핀. 제자가 스승이 된 셈이지. 내가 너를 이곳으로 오게 하고, 싸움을 받아들인 이유도 바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였어.”

“나는 네와 네 무리의 공격을 혼자서 막아냈지. 이제 우리는 서로 마주 보고 있고, 너는 내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든 것이 무너졌지, 그렇지?”

“클라리스가 살아 있고, 나는 자유로워. 자, 아름다운 여인아, 내 인생에서 사라져라. 너는 완전히 패배했고, 나는 너를 경멸해.”

그녀는 욕설을 그녀의 얼굴에 그대로 던졌다. 채찍질처럼 그녀의 얼굴을 후려쳤다. 그녀는 창백해졌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리고 처음이었다. 그녀의 변함없는 아름다움에 쇠퇴와 시들음의 징후가 드러났다.

그녀가 이를 갈았다.

“나는 복수할 거야.”

“불가능해.” 라울이 비웃었다. “네 손톱을 잘랐잖아. 너는 나를 무서워해. 그게 놀라운 일이야. 그리고 내가 오늘 해낸 일이야. 너는 나를 무서워해.”

“내 평생을 그 일에 바칠 거야.” 그녀가 속삭였다.

"소용없어. 네 수법은 이미 다 알려져. 너는 실패했어. 끝났어."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다른 수단이 있어."

"어떤 수단?"

"이 계산할 수 없는 재산… 내가 쟁취한 부."

"누구 덕분에요?" 라울이 경쾌하게 물었다. "이 기묘한 사건에 날개라도 붙였다면,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겠소?"

"아마도 그럴 거요. 하지만 행동하고 빼앗은 건 나요. 그게 전부가죠. 말재주야 당신이 늘 일등이지만, 이번엔 행동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행동을 한 사람도 나요. 클라리스가 살아 있고, 당신이 자유로우니 승리를 외치네요. 하지만 클라리스의 생명과 당신의 자유는, 우리 대결의 핵심이었던 거대한 보물, 즉 수천 수만의 보석에 비하면 사소한 일에 불과해요. 진정한 전투는 거기에 있었소, 라울. 그리고 나는 이겼죠. 보물이 내 것이 되었으니까."

"세상에, 알 수 없는 법이죠." 라울이 장난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제 것입니다. 제가 직접 무수한 보석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가방은 제 눈앞에서 끈으로 묶이고 밀봉되었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르아브르까지 들고 갔고, '베르뤼이상' 호의 선창에 넣었습니다. 그리

고 그 배가 폭파되기 전에 가방을 꺼냈죠. 지금 그 가방은 런던의 은행 금고에 있습니다. 처음과 마찬가지로 끈으로 묶이고 밀봉된 채로요."

라울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는 체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네, 맞아요. 끈은 아직 새것이고, 단단하며 깨끗하죠. 밀봉은 다섯 개입니다. 보라색 밀랍에 J.B., 즉 조제핀 발사모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죠. 가방은 고리버들을 엮은 바구니로, 가죽 끈과 손잡이가 달려 있군요. 남의 시선을 끌지 않는 심플한 디자인이죠."

칼리오스트로 부인이 그를 향해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너도 알고 있구나? 어떻게 알았지?"

"우린 몇 시간 동안 함께 있었어. 그녀와 내가." 그가 웃으며 말했다.

조제핀 발사모가 입을 열었다.

"거짓말이야. 넌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거야. 메니쉬주미예스 초원에서 금고까지, 그 가방은 내 곁을 떠나지 않았어."

"아니, 떠났지. 네가 그 가방을 베르루이장호의 선창으로 내려보냈다는 거지."

"내가 그 선창을 덮는 철문을 발로 밟고 앉아 있었어. 그리고 내 편한 명이, 네가 들어올 수 있는 환풍구 위를 지켰지. 르아브르 앞바다에 정박해 있는 내내 그랬어."

"그건 나도 알고 있어."

"어떻게 알 수 있지?"

"내가 선창 안에 있었거든."

끔찍한 말이었다. 그는 그 말을 되풀이했다. 이어 조제핀 발사모가 경악하는 사이,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재미있어하며 이렇게 털어놓았다.

"메니쉬주미예즈에서, 무너진 기준점 앞에서 내가 내린 추리는 이랬습니다. '조제핀을 찾아 헤매면 절대 찾을 수 없어. 내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밤 그녀가 어디에 있을지 맞춰, 그녀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해 그녀가 도착하는 순간을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첫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보석들을 털어야 해.'"

그런데, 당신은 경찰에 쫓기고, 제게 추격당하고, 보물을 안전하게 숨기려 안간힘을 썼죠. 그러니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국외로 탈출하는 것이요. 어떻게요? 바로 당신의 배, '베르뤼이장'을 타고 말입니다.

"정오에는 르아브르에 있었어. 한 시쯤 되자 네 선원 셋이 바에서 커피를 마시러 나갔고, 나는 갑판을 건너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상자, 통, 식량 주머니 더미 뒤에 숨었지. 여섯 시에 네가 도착해 로프로 여행 가방을 내려놓았어. 그렇게 네 가방은 내 보호 아래 들어간 거야."

"너 거짓말을 하고 있어. 거짓말이야." 칼리오스트로 부인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그가 계속 말했다.

열 시에 레오나르가 너를 만나러 온다. 그는 저녁 신문을 읽고 보마냐나의 자살 소식을 이미 알고 있다.

열한 시에 출항한다. 자정이 되자, 한창 바다 한가운데서 다른 배가 다가온다. 레오나르는 라보르네프 공작으로 변장해 이사 준비를 지휘한다.

선원들이든, 값나가는 짐들이든, 모두 한 갑판에서 다른 갑판으로 옮겨진다. 특히, 물론, 네가 선창 깊은 곳에서 가져온 그 가방도 옮겨진다.

그리고 그 후, 지옥에 갈 그 '반딧불이' 호는 잊어버려라!

"나도 솔직히 말해, 그때는 정말로 몇 분간은 난감했어. 나는 혼자였지. 선원들은 모두 사라졌고, 방향도 잡을 수 없었어. '반딧불이' 호는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키를 꽉 붙잡고 있는 것처럼 요동쳤지. 마치 아이가 조종하는 장난감 배처럼, 한참 동안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

"그리고 나는 당신의 계획을 짐작할 수 있었지.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폭탄, 그리고 작동하기 시작한 메커니즘, 그리고 폭발……."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물속으로 뛰어들까? 신발을 벗으려던 순간, 그 기적이 내게 찾아왔다. '반딧불이'호가 남긴 물결 위로, 줄에 묶인 작은 보트가 거품 위를 요란하게 뛰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구원이었다.

10분 뒤, 나는 평온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몇백 미터 떨어진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불꽃이 치솟았고, 물결 위를 굴러가는 천둥소리 같은 폭발음이 들렸다. '반딧불이'호가 폭발한 것이다.

다음 날 밤, 나는 잠시 흔들리다가 안티페르 곶 근처 해안가에서 육지를 밟았다. 그리고 바로 그날, 이 곳으로 찾아와서… 사랑하는 조제핀, 너의 훌륭한 대접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칼리오스트로는 말을 끊지 않고 경청했다. 표정도 꽤 안도한 듯했다. '쓸데없는 소리다'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중요한 건 그 여행용 가방이었다. 라울이 보트 안에 숨어 있었든, 이후 난파를 피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질문을 꺼내려 잠시 망설였다. 알면서도 말이다. 라울이 자신만 살아남으려고 그토록 큰 위험을 감수할 리 없다는 것을. 그녀는 온통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래, 뭐라고 묻지 않을 거야?" 라울이 물었다.

"무엇을 묻겠어요? 당신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가방을 되찾았어요. 그 후로는 안전한 곳에 두었죠."

"그리고 안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글쎄요, 안 했죠. 열어서 뭐 하겠어요. 끈도 봉인도 그대로예요."

"구멍 자국은 못 봤어? 바구니 사이사이에 난 균열도?"

"균열?"

"당연하지. 내가 두 시간이나 그 물건을 앞에 두고 아무것도 안 했겠니? 자, 조제핀. 내가 그렇게 멍청한 줄 아니?"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녀가 나직이 물었다.

"그렇지, 내 불쌍한 친구. 조금씩, 인내심을 가지고. 가방 속 내용물을 하나씩 꺼냈지.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네가 가방을 열 때 보면, 값비싼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냥 내가 손에 잡히는 대로 가져온 것들. 식량 가방에서 건져 온 것들. 몇 근의 콩과 렌틸콩 정도? 결국 네가 런던의 은행에 금고 임대료를 낼 만큼 가치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녀는 항변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리는 속삭임으로만 새어 나왔다.

"말도 안 돼…… 당신이 그런 일을 저지를 리가 없어요."

찬장 위에서 그가 작은 접시를 꺼냈다. 그는 그 접시에서 손바닥에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를 두세 다스쯤 쏟아냈다. 그는 태연한 표정으로 보석들을 손바닥 위에서 춤추게 하고, 반짝이게 하고, 서로 부딪히게 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그가 말했다.

"물론, 곧 터질 듯한 폭발 때문에 모두 챙길 수는 없었어요. 수도사들의 보물은 수중으로 흩어졌죠. 하지만 어쨌든 젊은이로서는 충분히 즐길 거리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을 만큼의 돈이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조진? 대답이 없어요? 세상에, 대체 무슨 일이야? 어서, 기절이라도 하지 말아요. 아, 이 여자들은 정말 골치 아파. 10억을 잃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다들 약한 놈들이네."

조제핀 발사모는 라울의 말대로 눈이 뒤집히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서서 창백해진 얼굴로 팔을 뻗었다. 적을 모욕하고 싶었다. 때리고 싶었다. 하지만 숨이 막혔다.

그녀의 손이 공중을 치댔다. 수면에서 허우적대는 조난자의 손처럼. 그러고는 신음 섞인 거친 소리를 내며 침대에 쓰러졌다.

라울은 동요하지 않았다. 발작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할 말이 있었다. 그리고 비웃듯 말했다.

"자, 내가 너를 완전히 무너뜨렸지? 부인, 어깨가 바닥에 닿았나? 넉아웃 당했나? 전선 전체에서 대패했군, 그렇지? 바로 그걸 네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 조제핀. 넌 여기서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걸 확신한 채로 떠날 거야. 그리고 네가 꾸민 작은 계략들은 모두 포기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이지. 나는 너와 상관없이 행복해질 거고, 클라리스도 행복해질 거야. 우리 아이들도 많이 낳을 거야. 네가 받아들여야 할 진실들이지."

그는 거닐기 시작했고, 점점 더 신이 난 목소리로 계속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네 상황에는 불운이 따라다니는 거야. 넌 너보다 천 배는 강하고 영리한 놈과 싸움을 건 거야, 불쌍한 아이야. 나 자신도 내 힘과 간계에 놀라고 있어. 세상에! 얼마나 재능 있고, 교활하고, 직관력이 뛰어나며, 에너지가 넘치고, 예리한지. 진짜 천재야. 내게는 숨기는 게 없어. 적들의 머릿속을 책처럼 쉽게 읽을 수 있지. 그들의 사소한 생각까지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넌 내게 등을 돌리고 있잖아? 침대 위에 엎드려 있고, 그래서 네 매력적인 얼굴은 안 보이네? 알았어. 넌 지금 코르사주 안으로 손을 넣어서 권총을 꺼내려고 한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어. 그리고 이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칼리오스트로가 갑자기 몸을 돌렸다. 손에는 권총이 쥐어져 있었다.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이미 대비하고 있던 라울은 팔을 붙잡아 비틀고, 다시 조제핀 발사모 쪽으로 향하게 할 시간을 충분히 얻었다. 그녀는 가슴을 맞고 쓰러졌다.

장면이 너무 갑작스럽고 결말이 예상치 못했기에, 그는 갑자기 움직이지 않는 그 몸, 하얗게 질린 얼굴로 누워 있는 그 앞에 얼어붙고 말았다.

하지만 그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그녀가 죽은 줄 알지 못했다. 실제로 몸을 굽혀 확인해 보니, 심장 박동은 규칙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가위를 들고 가슴옷을 잘라내자, 총알이 비스듬히 튀어나와 오른쪽 가슴에 있는 검은 표시 바로 위 피부를 조금 파고들어 있었다.

"경미한 상처일 뿐입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아름다운 존재가 죽는 것이야말로 마땅하고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가위를 손에 쥔 채, 끝부분을 앞쪽으로 향하게 들고 있었다. 자신의 의무가 과연 이 너무도 완벽한 아름다움을 망가뜨리는 것일까, 살점을 베어내어 이 요부(妖婦)가 더 이상 해를 끼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일까 하고 고민했다.

얼굴을 가로지르는 깊은 십자형 흉터. 그 자국이 부어오른 피부를 들어 올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긴다면, 얼마나 공정한 처벌이고 유용한 예방책이겠는가! 얼마나 많은 불행과 범죄를 막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는 그 용기를 내지 못했다. 또 그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고 싶지도 않았다. 무엇보다도 그는 그녀를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마음속에는 끝없는 슬픔만 가득했다.

그는 이미 전투로 지쳐 있었다. 쓴맛과 혐오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의 첫 번째 큰 사랑이었다. 순수한 마음이 다정한 신선함을 바쳤던 그 감정은, 보통은 달콤한 추억으로 남기 마련이건만, 그에게만은 원한과 증오만 남겼다. 그는 평생 입가에 실망의 주름을, 마음속에는 시든 듯한 느낌을 안고 살아가야 했다.

그녀가 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그때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고, 그녀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겠다는 간절한 욕구를 느꼈다.

창문을 열었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절벽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리오나르가 해변에 도착해 보니, 이번 원정은 인형 하나를 붙잡는 데 그쳤을 것이다. 조제핀 발사모가 걱정되어 그녀를 구하러 오는 중이었을 터였다.

'그녀를 여기서 만나게 하라. 데려가게 하라!' 그가 속으로 말했다. '죽든 사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나는 상관없다! 이제 더 이상 그녀에 대해 알 바 아니다. 충분히 지쳤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팔을 벌려 자신을 애원하는 여인에게 한눈도 돌리지 않았다. 그는 떠나버렸다.

다음 날 아침, 라울은 클라리스 드티그스에게 면회를 청했다.

그녀가 지닌 깊은 상처를 너무 일찍 건드리고 싶지 않았던 그는, 그 소녀를 다시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곧 그는 시간이 이미 그녀의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이루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볼에는 더 선명한 홍조가 돌았고, 눈빛에는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클라리스, 당신은 첫날부터 내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고 약속했소."

"용서할 일이 뭐가 있소, 라울." 소녀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클라리스. 제가 당신에게 큰 상처를 줬죠. 나 자신에게도 해를 끼쳤고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당신의 사랑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보살핌과 보호가 필요해요. 끔찍한 기억들을 잊고, 삶에 대한 믿음을 되찾고, 저 안에 숨어 나를 원치 않는 곳으로 끌어당기는 더러운 것들과 싸우기 위해, 저는 당신이 필요해요, 클라리스.

당신이 저를 도와준다면, 저는 반드시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 드리겠어요. 클라리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녀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제15장

라울의 예상이 맞았다. 막대한 부를 쫓아 벌인 거대한 음모는 모두 그림자 속에 묻혔다.

보마냥의 자살, 펠레그리니의 모험, 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성, 그녀의 도주, 그리고 베르루이산호의 침몰. 이 모든 사건은 서로 연결되지 않은 채 별개의 일화로 남았다.

사법 당국은 이들을 연결하지 못했거나, 혹은 연결하려 들지 않았다. 추기경 대주교의 메모는 파괴되거나 사라졌고, 보마냥의 동업자들은 갈라져 서로 입을 다물었다. 아무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라울의 역할은 이 모든 사건에서 더더욱 의심받지 못했다. 그의 결혼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조용히 치러졌다.

그가 어떻게 '앙드레시 자작'이라는 가명으로 결혼할 수 있었을까? 그 기적 같은 성과는, 보물에서 빼낸 보석 몇 줌이 그에게 준 막강한 영

향력 덕분이었을 것이다. 돈이 있으면 타인의 동조도 얼마든지 사올 수 있는 법이다.

그 결과, 뤼팽이라는 이름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어느 주민등록부에도, 어떤 공문서에도 '아르센 뤼팽'이나 그의 아버지 '테오프라스트 뤼팽'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법적으로 존재한 것은 오직 '앙드레시 자작 라울'뿐이었다. 그는 아내, 즉 '에티그 출신 클라리스'라는 성을 가진 자작부인과 함께 유럽 전역을 누비는 여행을 떠났다.

그 시절을 장식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클라리스가 딸을 낳았으나 아이는 오래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몇 주 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

고드프루아 드티그와 그의 사촌 베네토는 보트 여행 중 숨졌다. 사고일까, 자살일까? 생의 마지막 시기에 두 사촌은 미친 사람으로 여겨졌고, 사람들은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받아들였다. 살인설도 있었다. 요트가 보트를 가라앉히고 도망쳤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쨌든 클라리스는 아버지의 재산을 손대지 않았다. 그녀는 그 돈을 자선 기관에 기부했다.

그 후로도 몇 해가 흘렀다. 그 시절은 아름답고 무심한 시간이었다.

라울은 클라리스에게 한 약속 중 하나를 지켰다. 그녀는 깊은 행복에 잠겼다.

하지만 다른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 그는 정직하지 않았다.

그건 어쩔 수 없었다. 그의 피에는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속이고, 계책을 짜고, 혼란을 일으키며, 남의 손해를 보고 즐기는 본능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타고난 도적이었다. 해적, 약탈자, 음모가, 그리고 무엇보다 무리의 우두머리였다.

게다가 칼리오스트로에게서 배운 덕분에, 그는 스스로를 남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고 확신했다.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천재성을 믿었다. 평범한 사람들의 운명과 달리, 자신에게는 환상적인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모든 사람 위에 서 있을 거라 믿었다. 그는 주인이 될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클라리스 몰래, 그 젊은 부인이 조금도 의심하지 못하는 사이에, 라울은 여러 사업을 일으켜 성공을 거두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권위는 더욱 굳건해졌으며, 인간을 초월한 듯한 재능이 점차 드러났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했다. 클라리스의 평온과 행복이었다. 그는 아내를 존중했다. 그녀가 도둑의 아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점조차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의 행복은 다섯 해 동안 이어졌다. 여섯 해가 시작될 무렵, 클라리스는 출산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장이라는 아들을 남겼다.

그런데 그 이틀 뒤, 그 아들이 사라졌다. 라울은 아들의 행방을 추적할 단서 하나 얻지 못했다. 그가 살던 오트유이의 작은 집에 누가, 그리고 어떻게 침입했는지 알 길이 없었다.

누가 이 일을 저질렀는지, 그 점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라울은 두 사촌의 난파가 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의 소행이라고 단언했다. 게다가 도미니크가 독살당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으니, 라울은 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이 납치를 꾸몄다고 확신했다.

그의 슬픔은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아내도 아들도 더 이상 그를 붙잡아둘 사람이 없었다. 라울은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수많은 유혹이 그를 이끄는 길로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순식간에 아르센 뤼팽이 되었다.

더 이상 조심하지 않았다. 양보도, 거리낌도 없었다.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스캔들을 일으켰고, 도발했다. 거만하고 오만했다. 자만심과 조롱을 과시했다. 벽에는 그의 이름이 적혔고, 금고 안에는 그의 명함이 들어갔다.

아르센 뤼팽,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가 어떤 이름을 썼든, 그가 즐겨 바꾸던 어떤 가명 아래서든 그는 항상 칼리오스트로를 찾고 있었다. 그는 조제핀 발사모를, 그리고 자신의 아들 장을.

그는 '베르나르 앙드레시 백작'이 되기도 했고, '호라스 벨몽트', '스파르멘토 대령', '샤메라스 공작', '세르닌 왕자', '루이스 페레냐 경' 등 다양한 이름을 썼다. 이 '베르나르 앙드레시'라는 이름은 외국에서 죽은 친척의 서류를 훔쳐 쓴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들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조제핀 발사모를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

그녀는 아직 살아 있었을까? 프랑스 땅을 다시 밟을 용기가 있었을까?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죽이는 일을 멈추지 않았을까?

그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별한 순간부터 줄곧 그를 향해 겨누던 그 영원한 위협이 결국 아이를 납치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복수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아르센 뤼팽의 일생—미친 듯이 무모한 모험, 인간을 초월한 시련, 전례 없는 승리, 지나치리만치 거대한 열정, 터무니없이 큰 야망—이 모두 전개되어야 했다. 그 모든 것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그는 이 무서운 질문들에 답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의 첫 번째 모험은, 25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뒤, 그가 오늘날 자신의 마지막 모험이라 여기는 사건과 다시 이어지게 되었다.